



서울-상하이 국제 세미나

# 정보자본주의와 정보문화의 현재와 미래

2013년 6월 28일(금) AM 10:00~PM 6:0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어학원 1층 컨퍼런스룸

## 프로그램

기조 강연 / 한국 정보자본주의의 전개와 비판  
- 백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부 사회 - 조형근 ('문화/과학' 편집위원)

정보자본주의에서 이용자 주체의 포섭  
- 발표 : 조동원 ('문화/과학' 편집위원)  
- 토론 : 왕샤오밍 (상하이대학교 교수)

"새로운 인간을 부르짖다" : 교육과정개혁과 정보기술교육  
- 발표 : 뤼샤오밍 (상하이대학교 교수)  
- 토론 : 박자영 (협성대학교 교수)

2부 사회 - 주은우 (중앙대학교 교수)

국내 지배양식의 변화와 빅데이터 감시사회의 도래  
- 발표 :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토론 : 저우자난 (상하이대학교 교수)

들여다보기 / 보지 않기 : 변화하는 중국 미디어의 수사정치학  
- 발표 : 동리민 (상하이대학교 교수)  
- 토론 : 이기형 (경희대학교 교수)

3부 사회 - 왕샤오밍 (상하이대학교 교수)

정보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  
- 발표 : 오병길/장여경 (진보네트워킹센터 활동가)  
- 토론 : 뤼샤오밍 (상하이대학교 교수)

내부의 외부화, 외부의 내부화 : 중국의 미래를 위한  
분투 속 초국적 담론 연합의 형성  
- 발표 : 우창창 (상하이 사회과학 아카데미 연구원)  
- 토론 : 조현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사회 -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서울-상하이 국제 세미나 〈정보자본주의와 정보문화의 현재와 미래〉

### 【기획 의도】

현대 정보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예기치 못할 정도의 디지털 물결의 범람을 매순간 경험하고 있다. 우리의 상하이와 서울이란 두 메트로폴리탄 도시 속 삶의 물질적 조건들이 서로 다른 듯 보여도, 실제 우리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로의 변화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적 위기의 공통의 정서를 나누던 터다. 서울의 국제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이 두 도시의 디지털 측면들을 상호 비교하는 것을 통해, '디지털 천국' 되기의 무시되는 측면들, 예컨대, 소셜웹 시대 대기업들의 새로운 욕망, 정부의 소파놓탁한 사회적 통제 시도, 온라인 삶의 위기 상황, 온라인 행동주의의 부상,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여타의 사회, 문화적 쟁점들을 밝히고자 한다.

### 【일정】

- 일시: 2013년 6월 28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 장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어학원 1층 컨퍼런스룸
- 주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SK 워킹 정보사회 연구팀,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 후원: 한국연구재단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발표 및 토론
10:00-10:10		등 록
10:00-10:20	축사 및 인사말	- 조현석 (SSK 위험 정보사회 연구팀 연구책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왕사오밍 (상하이대학교 교수)
10:20-11:00	개조 강연	[한국 정보자본주의의 전개와 비판] - 백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부 11:00-12:30	사회: 조형근 (〈문화/과학〉 편집위원)	[정보자본주의에서 이용자 주체의 포섭] - 발표: 조동원 (〈문화/과학〉 편집위원) - 토론: 왕사오밍 (상하이대학교 교수)
		[ "깨로운 인간" 을 부르짖다: 교육과정개혁과 정보기술교육] - 발표: 류사오밍 (상하이대학교 교수) - 토론: 박지영 (염정대학교 교수)
12:30-13:30		점심식사
2부 13:30-15:00	사회: 주은우 (중앙대학교 교수)	[국내 지배양식의 변화와 빅데이터 감시사회의 도래] - 발표: 이광석 (SSK 위험 정보사회 연구팀 공동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토론: 채우자난 (상하이대학교 교수)
		[들어다보게보지 않거: 변화하는 중국 미디어의 수사정치학 - 중국 CCTV <들어다보기(看見; Insight)>의 "원저우 이동 학대 사건" 에 대한 보도를 중심으로] - 발표: 동리민 (상하이대학교 교수) - 토론: 이기형 (경희대학교 교수)
15:00-15:20		휴 식
3부 15:20-16:50	사회: 왕사오밍 (상하이대학교 교수)	[정보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 - 발표: 오병일 · 장어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토론: 류사오밍 (상해대학교 교수)
		[내부적 외부화, 외부의 내부화: 중국의 미래를 위한 분투 속 소극적 담론 연암의 형성] - 발표: 우창장 (상하이 사회과학 아카데미 언론학 연구소 연구원) - 토론: 조현석 (SSK 위험 정보사회 연구팀 연구책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중입토론 16:50-18:00	사회: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참석자 모두

Seoul–Shanghai International Seminar  
The Present and Future of Informational Capitalism & Culture

**【Purpose】**

In a contemporary world of informationalized capitalism, we have experienced an unprecedented deluge of digital wave. Although our material conditions of life seem to be divergent in the two metropolitan cities of Shanghai and Seoul, we have the shared common feelings of systematic crises in the processes of a metamorphosis of post-capitalism into the new stage. As a first step to explore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crises, we explore what is the 'new' about the broad-ranging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spheres in informationalized capitalism in the two cities. By comparing digital aspects of the two cities in the Seoul–Shanghai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we aim to debunk the ignored sides of being a 'digital heaven', such as the corporate chieftains' new desire in the social web age, the government's attempts at hyper-panoptic social control, the risky conditions of online life, the rise of online actions, and other new emergent socio-cultural issues.

**【Schedule】**

- Date: FRIDAY June 28, 10:00 a.m. to 6:00 p.m.
- Venue: 1st fl. Conference Room, Language Center, SeoulTech, Seoul, Korea
- Organizers: SSK Risk Information Society Research Team, SeoulTech:  
<Culture/Science> Editors
- Sponsor: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Program】**

Hours	Program	Content
10:00-10:10	Onsite Registration	
10:00-10:20	Opening Remarks	Hyun Suk Cho (Prof., SeoulTech/PI SSK Risk Information Society Research Team) Wang Xiaoming (Prof., Shanghai Univ.)
10:20-11:00	Keynote Speech	<b>Unfolding of Informational Capitalism in South Korea</b> by Wook-Inn Paik (Prof., SeoulTech)
1st Session: 11:00-12:30	Moderator - CHOE Hyung-Geun (editor, <Culture/Science>)	<b>Subsumption of User Subject under Informational Capitalism</b> by JO Dongwon (editor, <Culture/Science>) - Discussant: Wang Xiaoming (Prof., Shanghai Univ.)
		<b>Calling for the new one: the information education of senior high school in China</b> by Luo Xiaoming (Prof., Shanghai Univ.) - Discussant: Jayoung Park (Prof. Hyupsung Univ.)
12:30-13:30	Lunch (venue: @Cafeteria, Techno Park, SeoulTech)	
2nd Session 13:30-15:00	Moderator - JOO Eun-Woo (Prof., ChungAng Univ.)	<b>The Phasic Changes in the Mode of Dominance and The Construction of Big Data-driven Surveillance</b> by LEE Kwang-Suk (Prof., SeoulTech/CI SSK Risk Information Society Research Team) - Discussant: Zhou Zhanan (Lecturer, Shanghai Univ.)
		<b>Insight &amp; Invisibility: Rhetorical Politics of Media in Contemporary China - On Presentation of Wenzhou child abusing event by CCTV</b> by Dong Limin (Prof., Shanghai Univ.) - Discussant: LEE Ki-hyung (Prof., Kyunghee Univ.)
15:00-15:20	Coffee Break	
3rd Session 15:20-16:50	Moderator - Wang Xiaoming (Prof., Shanghai Univ.)	<b>Social Movements In Response To Informational Capitalism in South Korea</b> by OH Byoung-il & JANG Yeokyeong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 Discussant: Luo Xiaoming (Prof., Shanghai Univ.)
		<b>Inside-out and outside-in: the making of the transnational discursive alliance in the struggle for the future of China</b> by Wu Changchang (Dr., Assistant Researcher, Institute of Journalism,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 Discussant: Hyun Suk Cho (Prof., SeoulTech/PI, SSK Risk Information Society Research Team)
Discussions 16:50-18:00	Moderator - SHIM Gwang-Hyun (Prof., KArts)	All Participants

---

# 한국 정보자본주의의 전개와 정보자본주의 비판

백옥인(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회학 교수)

---

## 1. 한국 정보자본주의의 기원

한국의 정보자본주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과정에서 출발하였다. 그것은 1960-1980년대에 이루어진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바깥으로부터, 위로부터'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세계화는 한국의 정보자본주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1980년대 말에 포디즘적인 축적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한국자본주의는 안으로는 새로운 가치증식 영역을 확보하는 한편 바깥으로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가치생산의 장소를 모색하고 있었다.

한국의 정보자본주의는 세계자본주의의 전반적인 재편성 과정에 포섭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과거의 신국체분업에서 이루어지던 중심-주변간의 비대칭적인 착취관계와 달리 전체-부분의 관계로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포섭되었다. 그 이유는 전지구화와 정보자본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선명한 지배-종속의 체제인 '제국주의'에서 중심없는 지배체제인 '제국'으로의 변화였기 때문이다. 자동화, 정보화, 금융화, 전지구화의 동시적인 진행 과정을 통해 한국정보자본주의도 세계정보자본주의체제의 부분으로 편입된 것이다.

한국자본주의는 전지구화라는 틀에서 1980년대와는 다른 위상을 지니게 된다. 전지구화는 전체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자본주의의 위상과 위치 변동을 중심-주변이 아니라 전체-부분의 관계에서 재조정한다. 1980년대 말 주변부적 위치를 탈각하고 포디즘적인 축적체제를 구축한 한국자본주의는 1990년대 이후 정보자본주의로의 이행과 재편을 이루게 된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과 금융화 및 정보화에 대한 위치 조정 과정이었다. 그래서 전지구화 및 정보화와 연동된 세계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정에서 국가가 수행한 역할을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한국정보자본주의는 1980년대의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출발하였다. 반도체부품과 하드웨어 조립의 중소기업형 산업은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세계정보자본주의체제의 주요한 구성 부분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루어진

이동통신서비스와 인터넷의 대중적 확산, 그리고 1998 년 IMF 위기가 한국 정보자본주의의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2000 년대 중반 웹 2.0 의 활성화와 모바일폰 및 스마트폰, SNS 대중화는 2009 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정보자본주의의 변화된 모양을 보여준다. 바깥으로부터의 압박과 독점화 및 이용자 활동의 수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정보자본주의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보자본주의가 금융자본의 투기성에 바탕을 둔 체제이고, 그것이 삶의 영역으로 파고들어 가치생산과 증식을 도모하는 체제라면 그러한 자본주의는 이미 포디즘적인 산업자본주의와는 확연하게 다른 기제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자본주의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1) 세계금융자본주의를 분석하는 것, 2) 정보자본주의의 가치생산과 가치실현 방식이 갖는 특성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3) '육화된 자본주의(embodied capitalism)'의 삶 영역에 대한 착취와 지배 방식을 고려하면서, 정보자본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한국이라는 개별적인 시공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나라간, 부문 간에서 이루어지는 잉여가치의 유출과 흐름을 통일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애플 아이폰의 경우 애플 본사의 디자인 개발과 중국 팍스콘 공장의 육체노동이 결합되어 있고, 한국에서 생산되는 정보상품의 경우에도 매우 복잡한 결합 관계들이 존재할 것이다. 한국정보자본주의에는 한편으로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미국산 서비스의 소비자들과 메모리 부품을 생산하는 생산직 노동자, 그리고 대기업에 고용된 정규노동자와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결합, 대기업 정규직 프로그래머와 그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간의 복합적 관계와 결합이 존재한다. 전통적인 자본주의의 계급적 관계를 포함하여 체제로부터 이탈한 국외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관계가 정보자본주의사회의 사회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 2. 한국 정보자본주의의 전개

1990 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관련 서비스가 발전하고, 2000 년대 이용자의 대중화 단계를 거치면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인터페이스는 이용자 친화적으로 바뀌고 기술 장벽도 낮아졌다. 2000 년대 중반 웹 2.0 의 확산은 디지털 콘텐츠를 떼어내고(rip), 편집하고(mix), 발표하는(burn) 이용자 생산 문화를 활성화하였다. 유튜브(YouTube)로 대표되는 이용자생산콘텐츠(UGC: User Generated Contents) 플랫폼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자간의 결합을 확대하였다. 포털 사이트를 포함하여 혁신적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성공이 이용자 활동의 결과물을 자연스럽게 전유

하는 '플랫폼'의 개발에 의해 결정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열린체제를 지향하면서 개방 플랫폼 주변에 수많은 서드 파티 서비스 회사가 모이게 되고, 더욱 많은 이용자들이 그런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이 만든 활동 결과물을 축적하는 새로운 인터넷 생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이러한 생태계 창출의 모양을 잘 보여준다.

정보자본주의는 권력과 자본에 의한 '위로부터의 움직임'과 이용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움직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힘관계를 통해 만들어진다. 정보자본주의를 기술 발전에 따른 고정되고 닫힌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위와 아래로부터의 상호연결과 대립, 융합과 분열, 통일과 모순이 뒤섞이는 현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보자본주의를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역사적인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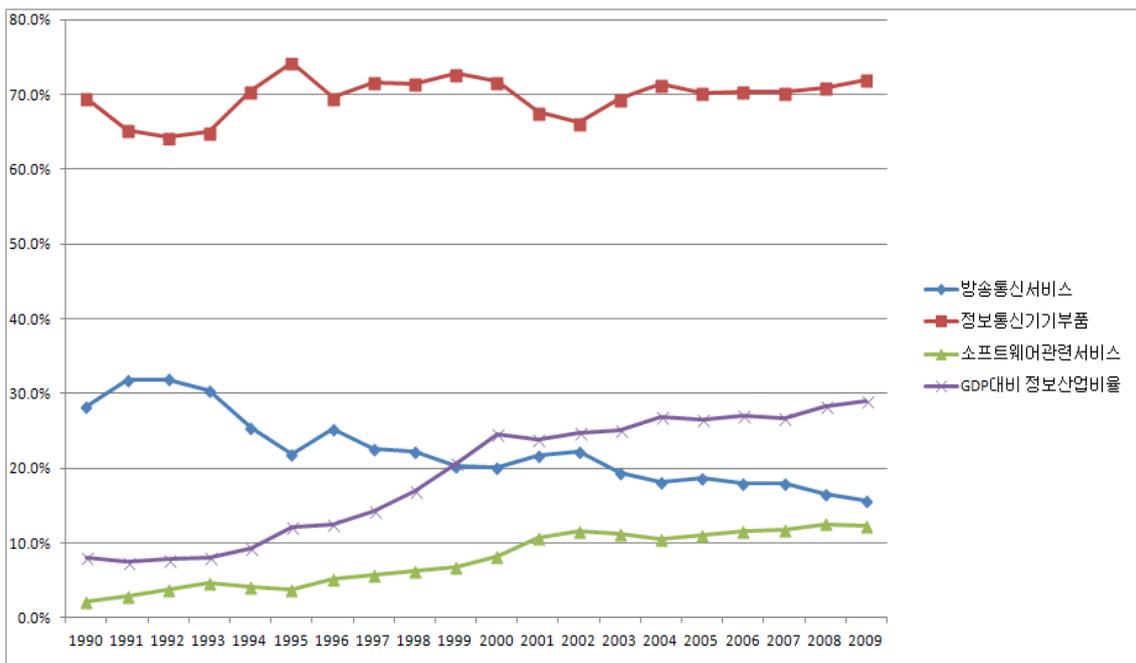
'위로부터의 움직임'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해 주도된다. 개별 국가는 무한경쟁의 국제적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자기 나라의 경쟁력을 확립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행한다. '신자유주의'라는 무한경쟁 환경에서 기업은 혁신을 통해 광범한 이용자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국가는 외부로부터 신기술을 수입하는 동시에 자국의 사업을 보호해야 하는 모순적인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국가는 기업의 이윤 확보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확대하는 한편 증가하는 이용자의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미비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를 통해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지적재산권의 강화, 프라이버시 보호,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은 이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전지구적 환경에서 바깥으로부터 몰려오는 압박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용자의 요구를 조화롭게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통한 조절과 통제는 과거처럼 쉽지 않게 된다.

2000년대 말 스마트 폰과 SNS의 대중적인 보급이 시작된 이후 한국 정보자본주의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 거대 포털이 지배하고 있던 안정적인 내부 시장이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애플 등의 서비스 확대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비율이 14세 이상 인구의 80%에 이르고 초고속망 서비스가 잘 보급되어 있지만 이들은 언제라도 바깥에서 몰려오는 새로운 서비스의 잠재적 고객층으로 뒤바뀔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축적되는 이용자 활동의 결과물을 빅 데이터로 전환하여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축적한다. 서비스 기업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움직임'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콘텐츠를 종적으로 융합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인다.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를 출시하면서 동시에 아이튠스를 통한 콘텐츠 유통시장을 통합하는 것은 이러한 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구글과 페이스북도 수억명의 이용자들이 매일매일 활동한

결과물을 자동으로 축적하여 거대 데이터를 확보한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콘텐츠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위로부터의 움직임'은 모바일 SNS 시대의 새로운 독점의 형태로 파악될 수 있다.

한편 이용자들은 새로운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통합과 분열을 계속한다. 인터넷 이용자는 모바일폰과 SNS 를 동시에 이용하는 초기의 혁신 이용자와 그렇지 못한 이용자로 나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의식을 갖게 된다. 이용자 문화는 여러 층으로 분화하면서 융합과 분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적인 과정 속에 있다. 모바일 SNS 활용을 통한 횡적 유대의 강화와 네트워킹의 확산, 새로운 여론장의 형성은 '아래로부터의 잠재력'을 촉진하며 이는 새로운 정치 참여 행태로 표출된다. 트위터를 통한 정보 및 의견의 확산은 트위터 이용자간의 정보흐름 속도를 높이고 이들간의 여론 형성을 통해 새로운 공론장을 만든다. 때로는 이것이 현실에서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져 기존 제도권 정치나 대의정치에 직접적으로 대립하기도 한다. 이것은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위로부터의 힘'과 '아래로부터의 잠재력'간에 벌어지는 대립이다. 이처럼 기술과 경제, 문화, 정치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려면 '위'와 '아래' 간의 충돌을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과 분석틀이 필요하다.

<그림 1> 정보산업생산액 구성비(한국, %)

<그림 1>은 한국정보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GDP 대비 정보산업 생산액 비율의 추이를 시계열로 살펴본 것이다. GDP 대비 정보산업의 비율은 1990년대 초반 10%에도 못미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10%대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20%를 넘어서기

에 이른다. 2000년대 초반에 25%를 넘어서기 시작한 정보산업의 비율은 2009년 현재 30%에 가까워지고 있다.

정보산업의 내부 구성을 보면 하드웨어 기기 생산이 70% 내외를 차지하여 아직까지 포디즘의 연장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기 산업은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새로운 지식정보산업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방송통신서비스의 비율은 2000년 현재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향후 정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정보 상품에 대한 소비 규범이 만들어질 때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이 그림표를 통해 정보자본주의는 포디즘적 생산과 정보의 결합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 및 정보의 상업화와 상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산업구성비에는 외국산 정보서비스가 빠져있다. 전지구화된 환경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애플 등 거대 플랫폼 서비스업체가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맥락 국내총생산 추이만을 대상으로 한 위의 그림표를 해석할 때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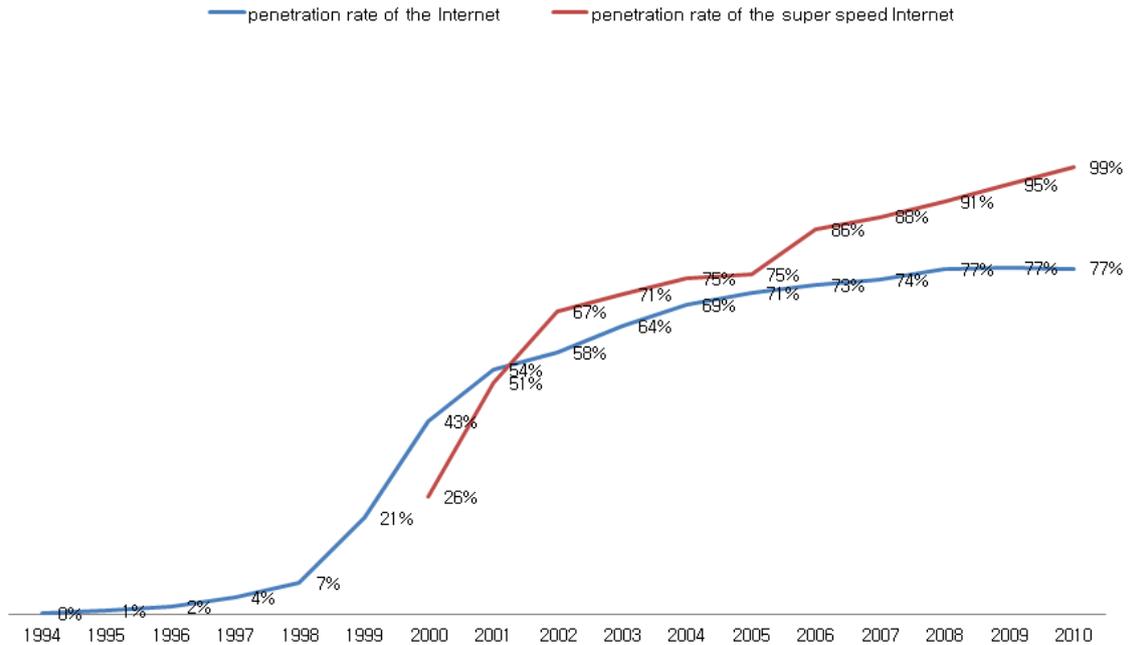
### 3. 이용자(user) 대중의 형성과 특성

정보자본주의에서 이용자 대중의 형성과 분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용자 대중은 경제적인 영역에서 정보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 대중이 정보자본주의의 문화와 사회운동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용자 대중이 형성되고 분화하는 방식과 특성을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 절에서는 먼저 양적 차원에서의 이용자 대중의 형성에 대해 살펴보자.

1990년대 한국정보자본주의의 본격적인 전개는 국가의 하부 인프라 설비 지원, 기업의 선도적 투자, 그리고 이용자의 형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의 경우 정보자본주의의 형성 계기와 진행 과정이 '위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주어져면서 네트워크 인프라와 서비스 환경이 만들어졌다. 정보자본주의의 시원적 축적은 정보자본의 플랫폼과 이용자를 창출하는 두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원적 축적기의 인클로저를 통해 임노동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마련하듯이 정보자본은 서비스제공자(자본)와 이용자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국가는 지적재산권체제의 정비, 벤처기업투자 지원을 통해 정보자본주의의 하부 환경을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인터넷망 보급 및 초고속망 확대를 통해 이용자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결과 1988년에 7%에 불과하던 인터넷

이용자는 불과 1년 후인 1999년에 21%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2000년에는 43%에 달해 조기에 인터넷의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그림 2> 참조). 이때까지는 초기 사용자들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한편 정보서비스플랫폼의 미성숙으로 인해 이용자의 포섭이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림 2> 인터넷 이용자 비율, 초고속망 가입자 가구 비율, 한국(1994-2009)



자료: KOSIS 에서 작성

그 후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 대중화 단계를 거쳐 2000년대 중반에 이르면 플랫폼을 통한 인지자본주의적 전유체제가 갖추어지게 된다. 2010년대에는 SNS를 선두로 한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대중의 욕망을 끌어내어, 그들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활동을 비트로 바꾸어 빅데이터로 저장하기에 이르렀다. 플랫폼을 통해 "가치생산 없는 이윤 창출"의 기제가 마련되기에 이르면 이용자 대중은 플랫폼에 완벽하게 포섭된다. 최근의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확대 현상 등은 정보자본주의가 과거와는 다른 단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과정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정보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 된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배경으로 한 이용자 대중의 포섭은 정보자본주의의 성격 변화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00년대 초기에는 전문 이용자에서 단순 이용자나 소비자로의 변형이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맞춤형 서비스나 플랫

품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기술적 이해 수준이 떨어지고 주체적인 개입은 더욱 어려워졌다. 199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 운영체제가 텍스트 위주의 도스 환경에서 그래픽 위주의 윈도 환경으로 바뀌고, 인터넷의 웹이 소개되고, 피씨통신이 인터넷의 확산에 의해 망접속 중계자의 지위로 전락하면서 이용자의 탈속련화와 대중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용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정보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잠재적 소비자 층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초기의 피씨통신 이용자들이 생산-소비자에 가깝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중화된 이용자들은 소비-생산자에 가깝다. 이용자들의 소비 행위는 알고리즘화된 플랫폼을 통해 비트로 전환된다. 이용자들은 실질적으로 플랫폼에 포섭되는 것이다. 블로그 개설자의 독립자영농적 성격은 사라지고 거대 플랫폼 농장에 포획된 소비자로 전락한다. 플랫폼 농장에서는 생산의 노역을 시키지 않는다. 플랫폼 농장은 게임과 친교와 오락거리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놀이와 여가와 소비를 부추긴다. 삶의 시간과 놀이의 시간, 여가의 시간 동안 이용자들이 행한 모든 행위는 인지적 행태를 측정하는 비트로 전환될 수 있다.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행위는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인지적 틀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인지적 틀은 이용자의 인지적 행태를 읽어내어 그것을 특정한 비트로 축적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소비활동은 행위자의 인지 행태로 전환되어 자동으로 소비와 인지활동 결과로 치환되면서 새로운 생산물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노동대상으로 전환된다. 그 결과 이용자는 소비자-이용자-생산자의 삼위일체를 이룬다.

이용자 대중의 증가와 초고속망의 확산은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의 관계와 밀도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와 양자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연결(connection)'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접속(conjunction)'으로 전환하도록 만들었다. 다음의 <그림 3>은 인터넷 이용자 대중의 양적 증가가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간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이념형적 도식이다. <모형 1>은 연결(connection)을, <모형 2>는 겹침(overlaying), <모형 3>은 접속(conjunction)을 의미한다. <모형 1>의 연결형에서는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가 각각 완연하게 구분되면서 기능적으로만 상호작용한다.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전 단계인 1990년대가 이에 속한다.<sup>1</sup>

2001년 이후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 사이에서 상호작용과 겹침이 일어나는 단계를 <모형 2>에 표시하였다. 겹침형은 연결형과 접속형의 과도적 형태로 설정한 것이다. <모형 3>의 접속형은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가 서로 접합하여 두 개를 구분하기 어렵게 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나라마다 사회경제적인 조건에 따라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 비율, 인터넷 사용빈도라는 양적인 조건이 두 가지 영역간의 연결과 접속 정도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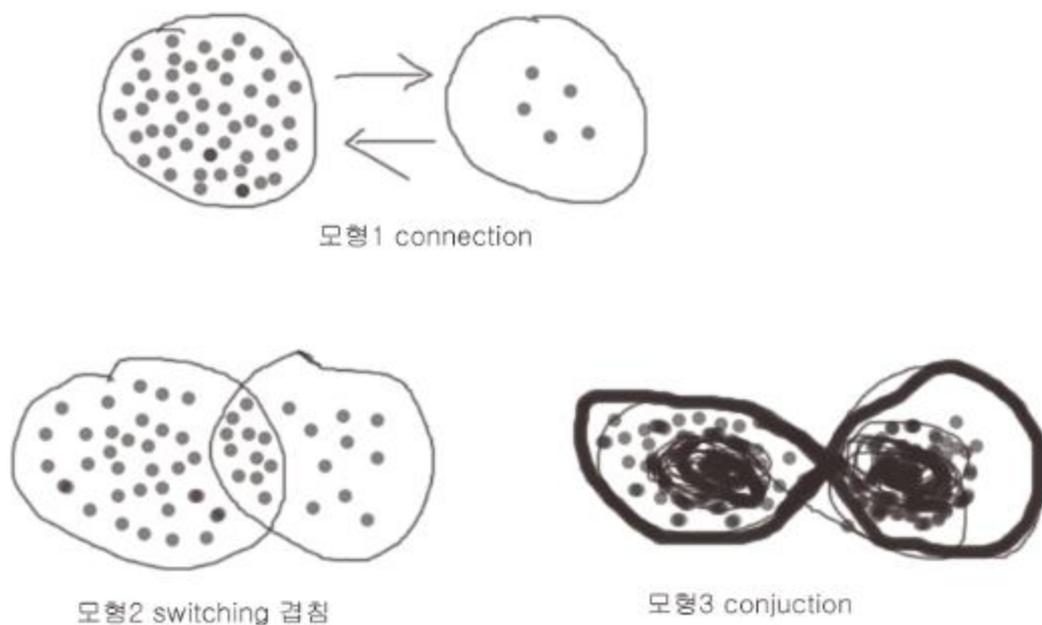
---

<sup>1</sup> 백옥인(2008). 촛불시위와 대중. 『동향과전망』, 통권 74호. 159-188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이전에는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가 <모형 1>처럼 서로 독립하여 떨어져 존재하면서 기능적으로만 서로 상호작용하는 단계에 있었다. 2001년 이후 인터넷 사용자수가 과반수를 넘어 인터넷 사용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인터넷 사용빈도가 늘어나면서 두 영역 사이에서 상호 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모형 2>처럼 두 영역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겨난다. 초고속망이 보급되고 양자 사이의 상호소통 속도가 빨라지면서 두 세계의 융합이 이루어져 그 구분이 어렵게 되면 <모형 3>의 접합형이 이루어진다.

2002년의 촛불대중이 <모형 1>, 2004년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대중이 <모형 2>라면 2008년의 촛불대중은 <모형 3>에 가깝다. '정보대중'은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간의 이동 속도가 가속화될 때 발생하는 <모형 3>의 상태에 존재하는 대중의 형태를 비유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정보와 대중의 접합,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의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 기술적 조건이 정보대중 형성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그림 3>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의 관련 모형



정보자본주의를 확대재생산하는 축적 기제의 핵심에는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생산과 소비를 집합적으로 전유하는 플랫폼이 자리잡고 있다. 정보자본주의는 자본-노동관계를 통한 가치의 생산과 더불어 이용자의 소비활동을 전유하는 기제를 갖추고 있다. 정보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초기 네티즌이 지녔던 상대적인 진보성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탈속련화된다. 인터넷의 상업화와

웹 2.0 을 통해 이용자 참여가 활성화되지만 생산에 강조점이 찍히는 '생산-소비자'와 달리 대부분의 이용자는 소비에 강조점이 찍히는 '소비-생산자'로 바뀌어간다.

사람들은 생활현장에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생산된 생산물을 소비한다. 그러한 소비의 과정은 탕진의 과정으로서 사물의 소멸과 마모를 가져온다. 소비대상은 노동력을 재생산하면서 소모되고 사라진다. 그러나 소비-생산자는 자신의 활동 결과물과 활동 흔적을 비트의 형태로 고스란히 남긴다. 거대 서비스 제공업체는 '소비'를 하면서 '생산'한 데이터와 소비의 흔적을 자동으로 확보하고 그것을 전유하고 변용하여 상업화한다. 이처럼 이용자의 '소비생산물'이 주요한 생산의 원료로 부각되는 지점에 '정보자본주의'의 핵심이 존재한다. 거대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용자가 자사의 서비스를 '소비' 하면서 '생산'한 데이터와 소비의 흔적을 자동으로 확보하고 그것을 전유하고 변용하여 이윤을 거두어들인다. 정보자본주의의 '소비-생산자'는 소비대상을 소비하지만 그들의 소비는 소모되지도 탕진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노동대상(원료)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의 소비 활동 결과물이나 소비 흔적과 결합하여 '사회적 소비'의 축적물로 전환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용자의 형성과 분화 과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 4. 정보자본주의 문화의 형성과 특성

정보자본주의의 서비스 플랫폼은 이용자의 감정과 선호, 열망과 감각, 행동을 '절차화'된 처리 영역으로 환원한 후 그것을 순차적 계산형태를 통해 데이터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기술 시스템이다. 그것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소비하거나 사용할 때 그들의 인지적 행위 결과를 비트로 받아내어 축적하고 해석하는 체제이다. 그래서 이용자의 인지행위는 매우 중요한 노동대상이자 원료가 된다. 정보자본주의는 인간의 '인지 작용'과 노동을 시스템의 인지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체제이다. 그래서 이용자 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컴퓨터-인간간의 인터페이스(HCI)를 효율적이고 수단-목적 합리적인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인터페이스의 하부에는 이용자의 인지행위 결과를 자동으로 비트로 변환하여 축적하고 해석하고 결합하고 전유하는 알고리즘이 숨어있다. 이런 기제를 통해 이용자들의 일상적 활동이 '구름 저편'의 데이터 센터로 자동 이동 보관된다.

정보자본주의의 이러한 데이터 및 자본의 축적체제방식 때문에 이용자 문화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용자 문화에 대한 연구는 하위 집단에 대한 인류학적 참여관찰에서 디지털 문화의 특성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까지 방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오타쿠'나 '잉여 집단'의 하위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타쿠, 잉여, 마니아(geek, nerd)로 불리는 '소비생

산자'들은 정보자본주의사회의 '상대적 과잉인구'이다. 상대적 과잉인구의 현대적 형태는 자본주의 발전 정도에 따라 저개발국, 발전도상국, 선진발전국 사이에 불균등하게 분포하며 그들이 사회 속에서 점유하는 지위와 행동 방식 및 계급적 의미도 다르다. 오타쿠, 마니아, 헤비 유저는 소비의 강도와 집중도에 주목한 개념들이다. 이에 반해 '프리카리어트(precariat)', 루저, 잉여는 사회체제의 고용관계나 지위 체제에서 탈락하거나 바깥에 존재하는 계층군을 가리킨다. 오타쿠나 마니아가 특정 분야의 소비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루저나 잉여가 생산적 사회체제에서 배제되는 현상은 이들이 사회와 관계맺는 지점이 소비와 삶의 영역임을 시사한다. 이들은 특히 미디어라는 체제를 매개로 현실 사회와 연결된다. 인터넷은 이러한 잉여 계층이 사회와 매개되거나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주었다.

특히 소비와 연결된 이들의 잉여활동은 '소비-생산자'라는 지위 속에서 자신들의 시간과 활동 결과물을 수취당하는 시스템과 관련된다. '디시인사이드(DCInside)'의 성장이나 포털 게시판, SNS 등 대부분의 웹 2.0 서비스는 이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가시간을 투입한 콘텐츠의 생산에서부터 단순 소비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활동 결과물과 활동의 흔적물들은 서비스 제공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본 원료로 축적되고 새로운 상품으로 변형되는 원료로서 기능한다. 생산 현장에 취업하지 못한 청년 세대가 주요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적 실업을 의미하는 '잉여'로 불린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위안과 '힐링(치유)'이 유행하다가, 네 꿈의 상실과 현재 네 모습은 네 책임이라는 질책 사이를 널뛰기 한다.

그런데 정보자본주의 사회의 인터넷 문화는 실재와 가상, 기표와 기의, 신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2000 년대 말의 각종 리얼리티 프로그램("우리 결혼했어요")이 실재와 가상을 통합함으로써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다. 다른 한편 촛불시위에서 보듯 광장과 인터넷을 오가는 '정보대중'의 출현은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간의 이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이 두 개의 분리된 세계가 접속을 통해 하나로 합쳐짐을 보여주었다. 또한 SNS 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를 거두어갔다. '시간 편향'과 '공간 편향'을 모두 강화하는 매체로서의 인터넷은 모든 것을 시간적으로 지속하게 만들고, 공간적 경계와 구획을 철폐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신체와 영혼을 분리시켰고, 가상과 실재를 전도시켰으며, 기표없는 기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마니아, 오타쿠 문화가 가상세계를 만들고 현실세계와 결합하듯이 잉여문화 또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실재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문화는 집착, '고착', '중독', 편집증으로 나타나고 우울증과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성격구조를 갖게 된다. 자본가 같은 성격구조를 갖는 노동자가 생기고, 지배와 통제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성격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를 내걸며 이상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른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패악과

사기와 뻔뻔함으로 얼룩진 권력과 지배에 반응하지 않고, 거꾸로 피해자와 약자에게 돌맹이를 집어드는 성격구조를 갖게 되는가? 노동자가 노동자를 지지하지 않고, 억압받는 자가 지배자의 성격을 복사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는 이 사회의 구조에서 성격이 차지하는 위상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구조에서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와 의식 사이에 사람들의 성격이 존재한다. 정보자본주의의 지배는 이념 조작이나 노골적 물리력뿐 아니라 사람들의 성격과 정서와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 파시즘' 시기와 유사한 모습들이 보인다. 이들은 물리력과 여론조작과 이념대결을 조장하면서 대중의 성격을 개조시키고 있다. 그 패악스런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정보자본주의의 사회심리 및 정신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베라르디<sup>2</sup>는 새로운 세대의 심리적 감수성이 갖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쟁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하고, 폭력적인 위법 행위를 별 생각없이 저지르며, 충동적인 표출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문화가 확산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행위에는 감정 표출의 수준과 의도를 수단-목적 합리성으로 조절하는 근대적 기제가 결여되어 있다. 과거의 정치는 고도의 수단-목적 합리성을 겨냥한 행위이었지만 이제 부조리하고 합리성을 벗어난 과잉 표출과 집단행동 및 과시가 합리적 정치행위를 대체하게 된다. 이어서 그는 "기성세대가 자유 평화 정의를 보편적 가치로 삼는 반면 이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세대는 '과거의 사회적 문명화의 기억'도, 약탈경제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지킬 수 있는 정치적 힘도 없다"고 평가한다. 디지털 세대에 대한 비포의 이러한 진단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민주화라는 것에 대한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 세대는 약탈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다. 단지 약탈경제의 결과가 미치는 조건 안에 있다. 출구없는 그들에게 자신의 처지는 '잉여짓'으로 이어지는 '병신놀이'에 빠져들게 하고, 집단적 화풀이와 희생양을 찾아 인터넷 공간을 어슬렁거리다가 먹이를 보면 가차없이 물어뜯는다. 풀을 뜯어먹던 소들이 전자공간의 늑대로 진화한 것이다.

"이 체제는 잡담의 확산, 부적절한 의견과 담론, 반대 의견을 진부하고 우습게 만드는 것에 의존한다"<sup>3</sup> 2008년 5월의 촛불 시위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3년 5월의 잡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산되는가를 비교해 보자. 구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그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2008년에는 다음의 아고라라는 포털 게시판과 매스미디어 뉴스 간의 순환적 반복을 통해 여론이 확산되었다. 2008년과 2013년 사이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SNS의 확산으로 이용자 수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방송에서는 종편이 등장하였다. '일간 베스트'와 같은 게시판이 등장하고 적극 이용자의 연령대는 낮아졌다, 종편과 일베의 조합은 인터넷의 잡담과 노이즈를 증폭한다. 우파 논객의 이름을 내거는 인사가 북을 치면 수많은 얼굴 없는 추종자들이 장구

<sup>2</sup> 프랑코 베라르디. 미래 이후. 강서진 옮김. 난장. 2013. 110 쪽.

<sup>3</sup> 베라르디, 앞의 책. 168 쪽.

를 치면서 그들의 말을 증폭시킨다. 종편은 그런 인사들의 발언을 토해내는 큰 입이다. 이를 통해 모든 진보의 유산을 똥더미 속에 내다 버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치의 연예화'에서 비롯되었다. 정치의 연예화는 말의 과장과 과도함으로 이어졌고, 그를 통한 실리 추구가 '미디어 표플리즘'을 가져왔다. '나꼼수'는 '미디어 표플리즘'의 형식을 제공한 선두 주자이다. 그들은 인터넷 이용자 연결과 팬덤이 갖는 폭발력을 잘 활용하였다. 그러나 나꼼수는 왜 사회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주체성의 회복이나 주체의 구성으로 진전될 수 없었는가? 나꼼수는 팟캐스팅의 독립성과 패러디를 통한 비판과 권력의 부당함에 대한 정치적 올바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감수성 혁명은 말과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적 새로움을 넘어 신체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수많은 나꼼수 팬을 만들어내고 순회공연을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그것은 말로 하는 쇼였고 상품 전시를 위한 기획물이었으며 파편화된 대중의 정치 오락물에 불과했다. 그들은 정치와 연예를 결합했고 상말과 욕설을 정치분석의 추임새로 이용하는 재기를 부렸지만 연대의 감정과 공동체의 결집을 회복하지 못했다. 물론 야당도 노동조합도, 시민운동단체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회적 조건이 놓여있었지만 나꼼수 또한 새로운 감수성으로 이를 돌파할 능력은 없었다.

나꼼수 팬과 '일베' 사이에는 분명한 차별점 이상의 형식적 공통성이 존재한다. 비겁함과 자기경멸, 경박함과 떠벌림, 자기자랑(깔때기)과 공격성. 이들 모두 비장함과 자기존중, 신중함을 특징으로 하는 과거 세대의 행동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이 둘 사이의 거리는 과거의 성격과 행위 패턴을 갖는 사람들보다 훨씬 가깝고 친화력이 있다. 마초적 영웅주의나 비겁함의 밑바닥에는 쾌락주의와 바꾼 자존심의 상실이 놓여있다.

## 5. 정보자본주의의 사회운동

정보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운동은 인터넷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간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적 매체를 자신의 운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인터넷을 도구로 활용하는 운동과 인터넷 이용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프라이버시 보호,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카피레프트운동 등이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운동의 방향과 성격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초창기 이용자들의 상대적 진보성이 확보되던 단계의 사회운동과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이 인터넷 이용자인 단계의 사회운동이 갖는 의미와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먼저 '인터넷 진보성', 'SNS 진보성' 은 틀린 주장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자. 인터넷 도입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네티즌들이 초기 혁신 이용자층을 이루면서 인터넷을 진보적

사회운동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웹 2.0을 활용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웹 2.0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용자 생산 콘텐츠(UGC)'가 늘어나고, 이용자 간의 상호소통도 활발해졌다. 그러나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인터넷의 상대적 진보성은 약화되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혁신적 미디어는 그 자체로 진보적이지도 않고 혁명적이지도 않다. 물론 그렇다고 중립적이지도 않다. 모바일 SNS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초기에 이들 이용자가 갖고 있던 상대적 진보성은 사라진다. 모바일 SNS 형식 자체가 진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추후 이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보적 공론장이 자동으로 확장되고 사회도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우리 사회는 이미 진보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으며 이러한 기술적 낙관주의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

두 번째, 거대 플랫폼 서비스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확대되고 소비-생산자로사의 이용자가 늘어나면 이용자 활동을 전유하면서 이윤을 확보하는 본격적인 정보자본주의가 전개된다. 이제까지 전개된 정보자본주의사회에서의 사회운동은 반독점의 요구와 연결되지 못했다. 그러나 거대 서비스 독점체들의 플랫폼을 통한 '이용자 활동의 전유' 문제가 사회화되면 반독점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할 여지가 있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지배자들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개별 나라의 이용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전세계에 걸쳐 수억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애플의 지배력을 벗어날 수 없다.

2000년대 후반의 정보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스마트폰과 SNS가 결합되면서 이용자들의 정치참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8년의 촛불시위는 대중과 정보의 결합을 통해 정보의 신체성이 확보되고, 대중의 운동성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2011년의 이집트 시민혁명은 모바일 전화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알 자지라(Al Jazeera)'라는 대중매체가 상호 결합하는 대항 공론장과 시위 대중 형성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성과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와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상호 접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중과 정보의 결합을 교란하는 국가의 노골적인 개입과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권력은 대중이 결집하는 장소를 봉쇄하거나 매스미디어와 사이버스페이스간의 접합을 방해하면서 정보대중의 출현을 방지한다. 국가 권력은 매스 미디어를 노골적으로 통제하여 사이버스페이스를 고립시킬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 고립된 정보의 뭉치들은 매스미디어로 접속되지 못하면서 그것이 갖는 정보 결집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쳐버린다. "재잘거림(트위터), 스펙터클, 전시에 근거한 생산체제인 정보자본주의에서는 '금융정보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미디어 환경의 지배'와 '소프트웨어 생산의 장악'이 지배의 도구가 된다. 국가 권력이 쓰는 또 하

나의 방법은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정보의 조작과 왜곡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다. 국가 권력은 직접, 혹은 특정 세력을 사주하여 사이버스페이스에 '백색 잡음(white noise)'이나 '흑색 잡음'을 발생시켜 정보를 왜곡시킬 수 있다.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정보조작과 여론 오도가 이루어지고, 대중화된 이용자 집단의 정치 성향에 따른 분열이 이루어지면서 '잡음'이 증폭된다.

이러한 노골적인 개입이 없는 경우라도 현실세계에서 육체와 결합하지 못하는 사이버스페이스 활동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열린 공간은 여전히 현실세계와 직통하지 않는 제한된 닫힌 공간이다. 바깥으로 통하지 못한 폐쇄된 플랫폼 안에서의 비판은 쥐처럼 구성원을 잡아먹는다. 대적하지 않는 비판은 놀이와 자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인터넷이 말로만 비판적인 '잇빨꾼'들에게 안겨준 함정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현실에서 행동하지 않으면서 대단한 행동을 일상적으로 실행하는 것 같은 착각을 유발한다. 정보자본주의의 사회운동은 자본과 기술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자본의 전지구화적 흐름의 형태에 대응하게 된다. 자본과 마찬가지로 운동의 형태도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탈영토화되며 탈육체화된다. 이것이 정보자본주의사회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이자 한계이다.

'폐쇄된 플랫폼의 회로' 안에서 표출되는 불만의 기호와 냉소주의는 신체없는 불안한 영혼의 신음이나 중얼거림에 불과하다. 스마트폰이 탈육체화된 정보소통의 세계를 재영토화하고 신체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다시 플랫폼 안의 회로에 포섭당할 위험은 상존한다. 권력에 대한 상시적인 불만이 토로되고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들끓더라도 비트화된 권력은 정보와 대중 사이의 연결을 가로막고, 정보가 대중화(신체화)하는 경로를 차단하며, 소음으로 정보소통을 훼손할 수 있다.

정보자본주의의 이용자는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고 나눈다. 의미는 정보와 지식, 기호의 집합체로서 그것은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미분되고 빅데이터로 적분된다. 파편화되고 단절적인 이용자의 활동 시간은 거대 플랫폼에 의해 자동적으로 적분(축적)된다. 플랫폼을 통해 자동으로 수취한 기호의 디지털 축적물을 자본의 축적으로 전환하려면 매개물이 필요한데 금융자본이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 신자유주의의 금융자본은 그래서 거대 플랫폼의 활동 영역과 마찬가지로 전지구적이다. 정보자본주의의 기술적 미디어는 육체와 정보를 분리하고, 지배의 범위를 구체적인 시공간에 기반한 영토 바깥으로 확장하며, 기호가 갖고 있는 기의를 기표로부터 분리시킨다. 이제, 전지구화된 지배체제의 얼굴을 드러내고, 금융자본을 실물과 실체를 연결하고, 금융자본의 사악한 영혼을 담고 있는 몸통을 드러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보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운동이자 이론적 실천이 될 것이다.

---

## 韩国信息资本主义的开展和信息资本主义批判（提要）

白旭寅 Wook-Inn Paik(首尔科学技术大学校 教授：社会学)

---

韩国的信息资本主义是，起源于1980年代中期以后世界资本主义的新自由主义的重组过程。这一过程是跟1960-1980年代所形成的韩国的工业化过程相似，既是从“外部”又是从“上部”推动的。1980年代末开始具有“福特主义（fordism）”式积累形态的韩国资本主义，在其内部是企图确保新增值领域，在其外部是要摸索寻找提供便宜劳动力的新价值生产的场所。

如已言之，韩国的信息资本主义是在整个世界资本主义的重组过程之中所进行的。韩国资本主义是与以往新国际分工的以“中心-边缘”为其基本模式的非对称剥削关系不同，还是基于“总体-部分”这样的关系方式来被包容于世界资本主义体系里。1990年代中期以来开始普遍使用的网络是促进了全球范围内信息资本主义的形成。之所以如此是因为全球资本主义的信息资本主义的形成过程本身是从以往的“支配-服从”关系的帝国主义体系变成为中心不在的支配体系即“帝国（empire）”。在这样的变化过程当中，通过自动化、信息化、全球化这些趋势的同时爆发过程，韩国的信息资本主义也是被包容于世界信息资本主义体系里。

另外，韩国的信息资本主义是基于1980年代电子工业的兴起来开始的。经过1990年代，以半导体配件和硬件装配为基础的中小企业型工业结构是，以诸如三星等大型企业所主导的投资为其基础，开始担当着世界资本主义体系的主要角色。并且1990年代中期以后所促进的移动通信服务、网络世界的大幅扩散以及1998年的金融危机（IMF）就为韩国的信息资本主义的发展提供了很重要的物质性基础。加之，2000年代中期的互联网2.0（web 2.0）的激活、移动电话和智能手机的扩散以及SNS的大众化等的趋势，就显示出2009年国际金融危机之后的韩国信息资本主义的变化特征。2010年代以后，外部的压力增多，垄断现象的日益深化以及使用者的领取正式开动，随之韩国的信息资本主义也正在进入到新阶段。

从资本主义的全球化这一侧面上看，韩国的资本主义具有跟1980年代的资本主义不同的位置。全球化过程，并不是在“中心-边缘”的层次上，而是在“总体-部分”的层次上再调整在总体性框架之内所进行的韩国资本主义的地位和位置变动。韩国资本主义已经是在1980年代末脱掉了其边缘性位置，而建立了福特主义式的积累体系，此后1990年代的韩国资本主义就被变成和重组为信息资本主义体系。而

且这样的过程既是应对新资本主义的过程，又是在金融化及信息化这些层面上的位置调整过程。因此可以说，把握国家在跟全球化以及信息化连动的世界经济的新自由主义重组的过程中所担当角色是很重要的。

如果说，新自由时代的信息资本主义是基于金融资本的投机性的体系，而且它是把这样的心理投入于一切生活领域来，企图价值生产和增值的体系的话，那么，这样的资本主义已经是以跟福特式的工业资本主义截然不同的方式来推动的。为了正确地把握这样的信息资本主义的特征，我们所要做的是：1) 分析世界金融资本主义；2) 暴露出信息资本主义的价值生产方式及其价值实现方式的特点；3) 一边要考察“被体现的资本主义(embodied capitalism)”对于日常生活领域的剥削和支配方式，另一边要探索信息资本主义的普遍性和特殊性在韩国这一独特的时间和空间的维度上如何实现出其面目。

另外，我们还需要统一地分析和把握，在信息资本主义的体系里，在国家之间、各个领域之间所进行的剩余价值的流出和流变。例如，苹果公司的iPhone是基于苹果公司总部的图案和中国Paxcon公司的体力劳动之间的结合，在韩国生产的IT商品也是在错综复杂的结合关系里被制造的。在韩国资本主义的体系里，就存在着以google、facebook、twitter、iPhone为其代表的美国制造服务体系里的消费者和记忆部分生产劳动者之间的结合，大型企业的专职劳动者和从事服务项目的临时职劳动者之间的结合，以及大型企业的专职程序员(programmer)和利用这些编称员所提供的程序的使用者之间的错综复杂的关系和结合。从包括以往传统资本主义时代的阶级关系在内到脱离世界体系的国外关系，这些复杂的复合关系就构成信息资本主义的社会关系。

扩大和再生产信息资本主义的积累机制的核心正是被垄断社会成员的社会生产和消费的网络平台所支撑的。这就是说，信息资本主义是与以资本-劳动关系为基础的价值生产在一起，具有垄断消费者活动的机制。随着信息资本主义的发展，当初网络市民所具有的革新性和对于技术的专门知识是逐渐被“去熟练化”。虽然通过网络商业化以及互联网2.0使用者的参与是不断增加，但是跟以生产为中心的“生产-消费者”这样的结构不同，在信息资本主义这一时代里，大部分的消费者还是作为以消费为中心的“消费-生产者”而存在。大型互联网公司是很自然地获得一个消费者使用自己公司的服务之时所生产的信息及消费记录，而且垄断和转用它来获取利息。

虽然信息资本主义的“消费-生产者”是消费“消费对象”本身，但是他们的消费是无穷尽的。反之，这样的消费是创造出新的劳动对象(原资料)，或者跟其他人的消费结果和消费记录连接起来，转变为“社会性消费”的积累物。于是，考察使用者的形成和分化过程是具有很重要的蕴含。1990年代韩国信息资本主义的正式展开是通过国家提供的基础性设备支援、企业的领先性投资以及使用者的形成这三个因素的互相结合来推动的。在信息资本主义的形成契机是从外部进来的情况之下，国家就是以“从上而下”的方式来建设网络设备和产业环境。信息资本主义的“原始积累”是基于信息资本的网络平台建立以及确保使用者这两个方面来进行的。同从前“原始积累”阶段的“圈地(enclosure)”就预备了资本-劳动之间的基本条件相似，国家就有必要把个别使用者吸收到网络之中，来建立“服务提供者(资本)-使用者”

关系的基础。1990年代末，金大中政权是为了摆脱IMF，积极地推动了信息化，致力于造成对资本的友好环境以及使用者数的增多。

其结果是，到了1990年代末至2000年代初，韩国社会进入了网络使用的全面大众化的阶段。到了2000年代中期，基于网络平台的认知资本主义的垄断体系已经基本上完成了。到了2010年代，以SNS为领先的多种网络平台就塑造大众的欲望，使得大众消费其欲望，而且把大众的消费和生产活动转化为信息，将它作为大数据来储蓄。如果达到了“无价值生产的利息创造”的机制完备的阶段，我们可以判断，信息资本主义已经是到了价值积累的正式阶段。晚近，诸如“云计算(cloud computing)”、“众包(crowd sourcing)”、“大数据”、网络平台服务的扩散现象等就显示出，信息资本主义正在转换为跟以往不同的积累阶段。我们需要关注这样的过程是在全球的范围以内以信息资本主义的世界体系框架来进行的。

翻译：皮垆勋 (北京大学博士班)

审校：林春城 (木浦大学教授)

---

# 정보자본주의에서 이용자 주체의 포섭<sup>1</sup>

조동원 (문화/과학 편집위원)

---

## 1. 들어가며 - 정보자본주의와 이용자 주체

정보기술과 자본주의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자본축적 방식으로 정보자본주의의 성립과 대중 정보문화의 시작은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걸맞은 새로운 주체성의 형성 과정을 포함했다. 정보의 자본화 과정으로서 정보가 생산수단이자 상품으로 또 사적 소유물로 변화되기 위해 정보(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와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형성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보자본주의의 새로운 주체 형태는 생산자나 소비자 혹은 수용자보다는 이용자에서 찾을 만하다. 물질적 재화와 비교할 때 정보 생산의 과정은 곧 정보 소비의 과정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소비에 가깝더라도 생산을 포함하는 정보의 이용 행위, 그 주체로서의 이용자가 정보자본주의 체제의 부상과 함께 주목된 것이다.

이용자는 무엇보다도 기술, 미디어, 기계·기기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대중 정보문화 속에서 통용되는 이용자 개념이 미국에서는 개인용컴퓨터가 대중에 보급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부터(터클 2003: 40, 44), 한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컴퓨터의 대중 이용 주체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sup>2</sup> 따라서 나는 이용자를 개인용컴퓨터와 같은 대중 정보기술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매개로 형성되는 주체로 볼 것이다. 개인용컴퓨터 이래 본격적으로 나타난 동시대 뉴미디어 정보문화의 뚜렷한 특징의 하나는 이용자의 미디어 및 정보기술에 대한 능동적 개입과 참여다. 리에브라우(Lievrouw 2011: 216)에 따르면, 뉴미디어 기술은 재조합형(recombinant)으로서 기존의 기술과 혁신적인 테크닉이 혼종화된 생산물이고, 이용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갱신된다. 재조합되고 혼종화되며 지속적으로 갱신되도록 만드는 것은 무

---

<sup>1</sup>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초기 정보문화에 관한 연구 - 개인용컴퓨터 이용자 주체의 형성과 분화를 중심으로>(중앙대 문화연구학과, 2012년 2월)의 3장과 4장의 일부를 축약하며 재구성한 것이다.

<sup>2</sup> 이 글에서 ‘PC’(personal computer)를 직접 인용이 아닌 경우라면 ‘개인용컴퓨터’로 풀어 쓰려고 하는데, ‘피씨통신’과 같이 다른 말과 함께 쓰이거나 고유한 명칭으로 쓰일 때는 ‘피씨’로 쓸 것이다.

정보보다도 그 이용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이고, 이것이 동시대 뉴미디어 정보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정보기술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체로서의 이용자는 다시 정보기술을 만드는 주체이기도 하다. 적어도 만들어진 것을 변형하며 새롭게 (재)구성하는 주체로서 이용자 개념을 상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용자 주체를 정보기술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 간의 상호 구성하는 관계로 접근한다고 할 때, 나는 현실 속에서 그 이용자 주체의 가장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형태를 애초 '기술에 대한 탐구' 행위자를 뜻한 해커 혹은 해커-이용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해킹은 주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무단 '침입'의 의미로 널리 쓰이지만, 애초 해커는 컴퓨터 기술에 몰두하는 컴퓨터 전문가를 뜻했고(홍성태 1999: 142), 그래서 해커는 마법사나 달인, 장인, 마니아 혹은 광(狂)으로 묘사되었다. 실제로 1980년대 초반 개인용컴퓨터(PC)가 보급되면서 형성된 초기 이용자 중에서는 이러한 해커의 특성을 보이는 적극적인 기술 이용자가 많았다. 1970년대 말부터 전세계적인 피씨 열풍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정보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3년 정보산업의 해를 전후해 정부가 '교육용 피씨' 보급사업을 벌이면서 피씨 열풍이 일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개인용컴퓨터의 보급이 확산되었는데, 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보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서울의 세운상가 중소기업체들이 해킹의 일종인 역공정의 방식으로 개인용컴퓨터를 복제 조립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때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초기 이용자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활용하며 그 기술을 공유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보기술 수용의 하위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대중에 보급되기 시작한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전유했던 이들 초기 이용자가 한국의 해커 혹은 해커-이용자의 등장을 알렸다(조동원 2012: II장).

그래서 이 글은 개인용컴퓨터의 보급에 따라 나타난 적극적인 정보기술 이용자가 정보자본주의 체제가 부상하면서 그에 걸맞은 주체로 재구성되며 분화되어 갔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즉, 정보자본주의 체제가 대중 정보 소비자로서 '이용자'(end user)를 생산해 내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정보 생산자의 경우 저자라는 이름하에 해커-이용자가 어떻게 정보자본의 축적을 위한 창조적 노동력으로 포섭되었는지, 그러나 전적으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 그야말로 '해커'로서 어떻게 배제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정보자본주의에서 노동의 포섭

정보자본주의는 제어혁명<sup>3</sup>을 통해 산업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예비되었고 그 연속선상에서 포드주의의 축적체제에 기초하면서도, 정보-지식을 상품화하고 그 정보-지식 생산의 노동력을 상품화함으로써 1970년대 이후에는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이행과 맞물려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백옥인 2008).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자본 축적 양식의 이행과 지적 재산권 법제로 뒷받침된 정보자본주의 체제의 부상에 따라 기존의 기획-실행의 노동분업과 생산-소비의 사회적 분업 모두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노동과정 내부에서 기획-실행의 노동분업이 재구성된다.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포스트테일러주의 혹은 포스트포드주의의 경향에 따라 구상에서 제외돼 실행만을 담당하던 노동자들이 다시 능동적 노동자로 재배치된다. “작업장에서 사회적-커뮤니케이션적 잉여가치를 획득하려면 자본은 책임감뿐만 아니라 창조성까지 노동자들에게 점점 더 많이 권장하는 식으로 주체성을 자극하고 활용할 수밖에 없다”(다이어-위데포드 2003: 462). 이는 ‘참여 관리’ 개념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는데, 포스트테일러주의는 “포스트포드주의에 접어든 상당수 산업이 컴퓨터 자동화를 통해서 노동을 양적으로 제거해 버린 결과, 역설적이게도 경영자들은 잔존 노동자들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다이어-위데포드 2003: 460). 돌연 놀이터 같은 사무실, 꿈의 직장 같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노동의 놀이화라고 하는 새로운 경영담론과 문화가 형성 발전해 왔다(Ross 2009).

다른 한편, 전체 생산양식에서 생산-소비의 사회적 분업이 재구성된다. “제조업자들이나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노동을 생산자에서 소비자[노동]로 이전시키는 데 성공한” 또 다른 노동의 역사가 있다(Weinbaum & Bridges 1976; 휴즈 2004: 50-1, 102-3; Gandy 2011). 즉, 소비자의 경우, 이전까지 기업의 고용된 노동비용으로 처리되던 일이 이제 소비자가 스스로 담당해야 하는 일로 된 것이다. 로스(Ross 2009)는 그렇게 소비자에 전가된 노동의 형태로 셀프서비스(노동) 문화를 예로 들고, 휴즈(2004: 39-44)는 가사일의 사회화(시장화)를 통한 가사 노동의 형성을 추적한 바 있다. 이러한 노동의 확대 양상은 문화의 영역 전반에서도 나타났고, 정보문화산업의 심화에 따라 여가, 놀이, 휴식 자체가 노동의 형태로 변모해 왔다. 사실 재미, 즐거움, 놀이를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20세기 전반기 영화산업과 (라디오)방송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할 때 ‘문화산업’(culture industry) 개념을 통해 비판 받은 바 있다. 당시 문화산업과 그 비판이 포드주의적 자본축적의 대량생산-대량소비 구도에서 상대적으로 분명한 생산-소비의 분업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

<sup>3</sup> 베니거(2009)가 말한 제어혁명(Control Revolution)은 19세기 산업혁명이 전 사회의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팽창시켰을 때 산업과 사회의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제어 위기에 맞서 대규모 정보 처리와 자동화 기술을 발전시키고 조직을 혁신하는 등 생산, 유통, 소비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 기술적 제도적 문화적 변화 과정을 말한다.

보다 최근의 '재미산업론'이나 재미노동, 놀이노동 등은 소비, 여가, 놀이 자체를 (가치)생산의 영역으로 삼으려는 포스트포드주의적 자본축적의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갔다. 국내에서 1990년대 중후반을 전후로 재미, 즐거움, 놀이, 상상력을 (정보·문화)산업 차원에서 주목하는 연구가 하나 둘씩 많아졌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송재희 외 1995 ㄴ; 손대현·장희정 2002; 허준석 2006; 류철균·신새미 2007).<sup>4</sup>

그리고 정보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용자의 해킹 행위와 같은 정보기술이나 정보의 이용 활동이 또한 새로운 이윤창출의 주요한 노동 형태가 된다.

*해커는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것들의 가능성을 창조한다. 늘 대단하거나 좋은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것들이다. 예술, 과학, 철학, 문화, [그 외 어디든] 지식이 생산되는 곳 -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는 곳, 정보가 그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 곳, 그 정보 안에서 세계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생산되는 곳에서,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해킹하는 해커들이 있다(Wark 2004: 5004).*

여기서 왁(Wark)은 정보경제 혹은 지식기반경제, 곧 정보기술이 핵심 생산수단이 되는 경제 체제에서 새로운 정보·지식의 생산 능력(생산력)이 해킹과 관련있다고 보았다. 리에브라우(Lievrouw 2011: 105)의 설명처럼 '해킹하는 능력'(ability to hack)은 새롭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정보하부구조와 그 생산물을 조작하고, 재디자인하고, 재설정하고, 가지고 놀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정보자본주의에서 가치 생산에 기여하는 유력한 정보노동의 한 형태로서 해킹이 노동으로 포섭되는 사정이 여기에 있다. 이를 배경으로 1980년대 초중반의 개인용컴퓨터와 함께 나타난 뉴미디어 정보기술의 초기 이용자가 정보노동의 여러 영역으로 포섭되면서 여러 갈래의 정보미디어 생산 및 소비 주체로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보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재조직화 과정 중에서 이 글에서 나는 이용자 주체의 포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포섭은 자본 축적을 위해 필요한 노동 주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마르크스 1988: 130). 이는 가치의 생산과 실현을 통한 자본의 축적을 위해 상품의 생산·소비를 담당할 대량의 주체가 필요하고 그 생산·소비의 분업적 체계 속에 주체를 배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자 주체의 포섭 역시 정보문화에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부과되면서 이루어지는 변화로서 통제와 배제의 과정을 동반하는, 정보(기술)의 생산자와 소비자 주체를 생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포섭의 과정은 근대자본주의 체제의 본원적 축적에서처럼 정보자본의 축적에 중요한 양상이자 정보자본주의적 이용자 주체 생산의 특수한 역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sup>4</sup>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컴퓨터나 피씨통신, 인터넷 관련 서적의 제목에 "(재미있는)PC통신"과 같이 흔히 '재미있는,' '신나는' 등의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던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또, 1990년대 후반 닷컴붐과 함께 널리 관심을 모은 리눅스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 나온 책 중에 리누스 토발즈의 『그냥 재미로』(just for fun)라는 책도 그런 경향을 상징적으로 대변했다.

### 3. '이용자' - 정보 소비자

한국사회에서 근대화 및 산업화를 낙후된 전통 사회가 문명 사회를 따라잡는 방법으로 사고했던 것처럼 정보화 역시 무언가 따라잡아야 하는 전사회적 과업으로 제시되어 왔다. 또, 근대화 및 산업화에서 그 핵심 과업의 하나가 대중의 계몽이었고 문맹의 탈출이었던 것처럼 정보화사회에서도 정보기술·뉴미디어에 대한 탈신화화와 계몽의 과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각 개인은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한 문해력(literacy)을 길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따라잡지 못하고 뒤쳐지는 '컴맹'이 되기 때문이다. 컴맹이라는 말은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문맹(文盲)처럼 컴퓨터와 맹(盲)이 합성돼 만들어진 속어인데, 1990년대 초반부터 쓰이기 시작했다.<sup>5</sup> 그러나 그 말이 쓰이지 않았던 1980년대 초반에 피씨 열풍이 불 때 이미 새로운 사회를 따라잡는 데 뒤쳐지는 사람들을 종용하고 보채는 양상이 없지 않았다. 피씨 열풍의 배후에는 새로운 사회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대와 희망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컴퓨터를 배우지 않으면 남에게 뒤떨어진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컴퓨터를 배우지 않으면 남에게 뒤떨어진다는 생각들이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 교육장들이 어린이들로 초만원에 이를 것을 보면 그와 같은 현상을 역력히 알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 국민학생들을 인솔해온 한 교사는 말한다(『컴퓨터학습』 1984.04).*

대체로 피씨 열풍은 정부나 기업의 위로부터 주어진 것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초중고 교육용 피씨 보급과 컴퓨터 교육정책 및 시행, 그리고 민간에서의 학원과 자격증 시험, 여러 교육 및 학술 행사들이 준비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래로부터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1980년대 초중반부터 컴퓨터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뒤져지지 않기 위해서 배워 익혀야 할 정보기술이 되었고, 컴맹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자가 되어야 하는 분위기였다. 컴퓨터나 피씨통신, 인터넷 혹은 여러 디지털 뉴미디어 기기와 그 콘텐츠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사람을 보통 이용자로 부르지만, 그것은 대체로 기술과 미디어의 소비자를 달리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컴퓨터가 일반 공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음에도 기술문화적인 한계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이용자가 프로그래머나 해커와 뚜렷이 구분되지는 않았다. 당시 컴퓨터 이용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고 주위에서 컴퓨터 도사로 불리기도 했다. 개인용컴퓨터가 널리 대중화되기 전까지 그랬다.

*컴퓨터 시스템은 걸핏하면 고장을 일으켰고 지금도 그런 기계는 많다. 여태까지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일반인이 사용한다고는 염두에도 두지 않고 제작되어왔기 때문이다. 충분히 경험을 쌓*

---

<sup>5</sup> 컴맹이라는 말이 신문지상에는 1994년부터 많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 1994.5.7; 『동아일보』 1994.4.16).

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제작되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만이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었다(『컴퓨터: KBS-TV 컴퓨터강좌』 1984.12: 18).

그러나 개인용컴퓨터, 특히 그래픽 중심의 인터페이스 디자인(화면상의 아이콘과 그것을 클릭하는 마우스의 등장)을 포함)의 발전 경향은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닌 보통 이용자를 전제로 한 컴퓨터의 등장을 알렸다.

모든 목적을 충족시켜 줄, 대화식으로 되어 있고, 사용법이 간편한 컴퓨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용자들과 마주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컴퓨터를 다루는 태도가 거칠고 참을성이라곤 손톱만큼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용시에 실수를 하더라도 그럭저럭해나갈 만하고, 사용하면서 익혀 나가는 스타일의 구조로 컴퓨터는 개선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컴퓨터로 손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쓸모있게 이것을 우리 생활에 이용하게 될 것이다(『컴퓨터: KBS-TV 컴퓨터강좌』 1984.12: 18).

위의 칼럼은 마치 이용자들이 컴퓨터를 막 사용하겠다고 달려들고 요구했다는 듯이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정보산업의 새로운 대중 소비 시장을 창출할 필요에 따라 친절하고 쉬운 컴퓨터 기술이 나타난 것이고, 이는 상당 부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기술 디자인이자 인터페이스 기술에 기입된 이용 방식이었다. 즉, 개인용컴퓨터의 등장은 그 자체로 이용자 친화적 기술 디자인의 경향을 띠며 이상적인 소비자 주체형으로서 정보기술에 문외한 정보기술의 이용자 대중 주체의 탄생 - 이른바 최종이용자(end user)를 상정하고 그에 맞는 이용자 문화를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Parikka 2007: 57-9).

개인용컴퓨터 대중 시장의 형성과 함께 최종 이용자 주체가 만들어지면서 컴퓨터는 바로 이들, 정보의 전자적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무지한 최종 이용자에 맞춰 재설계된 것이다. 미국에서 1976 년에 등장한 애플II 자체가 벌써 해킹의 여지를 두지 않는 이용자 친화적인 기술로 표현된 것이었다. 그 케이스는 컴퓨터 내부의 작동 원리를 비가시화하는 그야말로 덮개로 기능했고(Parikka 2007: 57-9), 그것의 가장 전형적인 사태로서 1984-5 년 그래픽이용자환경(GUI)의 윈도우(windows)가 등장했다. 이용자를 위한다는 이런 기술이 갖는 효과는 그 용어와 반대로 이용자의 해킹을 배제하는, 곧 이용자를 탈숙련화하는 데에 있었다.

화면에 나타난 아이콘(프로그램을 이름이 아니라 특징을 살린 도형으로 표시한 것)을 컴퓨터 옆에 달린 마우스로 한번 지적하기만 하면 실행된다는 것은 자신을 바보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사이 컴퓨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송재희 외 1995 7: 141).

반면, 그래픽화면(GUI), 마우스, 윈도우와 같은 기술이 이미 1980 년대 중반부터 나타났더라도 1990 년대 컴퓨터 디자인의 주요 특성으로 자리잡으면서 컴퓨터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한 것인데,

보통 컴퓨터의 이용자라고 하면 이제 '컴퓨터 그 자체'가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된 것이다(송재희 외 1995 7: 141). 그것은 곧 적극적인 이용자의 해킹과 같은 컴퓨터 이용 기술의 탈숙련화를 의미하고, 보통의 컴퓨터 이용 대중에 해킹은 이제 너무 전문적이어서 특별한 일로 비춰지게 된 것을 뜻했다. 이러한 경향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소프트웨어산업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부터 두드러졌다. 사실 1980년대는 대형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개인용컴퓨터 상품에 길을 내주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대가 되었고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과 그 품질에 큰 변화가 있었다. 모글렌(Moglen 1999)에 따르면, 이전에는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중대형 컴퓨터 제조 기업이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제공했던 반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독자적인 상품이 되자 그 시장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대두했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제품 구성에 그 때까지 존재하던 외부의 참여가 배제되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 지배력은 전적으로 도스(MS-DOS)와 이후의 윈도우(Windows) 소스코드의 소유권에 의존한 것으로서 외부의 이용자가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의 소스코드를 들여다 보고 고친다거나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협력적 소프트웨어 개발·혁신 과정이 아니라, 한 기업의 소유 자산을 침해하는 일을 뜻하게 된 것이다. 모글렌(Moglen 1999)은 그 결과 소프트웨어 품질이 재앙 수준으로 저하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마케팅 전략이 개발 과정에 대한 참여를 배제함과 동시에 최소 기술 이용자에 맞춘 제품의 생산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이용자 친화적 기술이 나타나는 과정이었다.

역설적인 이용자친화적 기술을 앞세운 채 정보기술의 상품화와 소비재 정보기술이 보급됨에 따라 애초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던 해커(넓은 의미에서 프로그래밍하는 이용자)와 (응용 프로그램의 이용에 주로 관심이 있는) 이용자의 분할이 시작되었다.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 개념을 들고 나오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해킹문화와 정보공유 운동을 일으킨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은 그 최초의 선언인 1985년의 그누(GNU) 선언에서 소프트웨어 판매상에 의해 이용자가 분화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Lievrouw 2011: 106).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황금률(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대하라 - 성서)이라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사용자를 각각 구분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사용자 서로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 간의 결속이 깨지는 것을 거부한다.<sup>6</sup>*

또, 이러한 분할은 동시에 해킹의 배제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조건이 되었다. 해커나 해킹 행위는 1980년대 후반 개인용컴퓨터가 큰 기술적 지식과 숙련없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만큼 '개선'되는 동시에 일반 공중에 널리 보급되는 시기가 돼서야 비로소 컴퓨터 이용 일반에서 분화

<sup>6</sup> “GNU 선언문” 한국어 번역(송창훈, 1998.10.8, <http://www.gnu.org/gnu/manifesto.ko.html>, 2011.10.5 접속).

되면서 특수한 이용 방식으로 변모해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그 특수한 것으로서의 해킹은 뒤에 지적 재산권 법제 강화의 맥락과 맞물려 무엇보다도 컴퓨터 범죄의 일종으로 인식된 것을 말한다.

요컨대, '이용자 친화적' 기술은 정보산업 차원에서 대중 소비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제조된 '개인용'컴퓨터 혹은 '홈'컴퓨터로서 개인용컴퓨터에 내재한 하나의 경향이었고, 1980년대 말부터 컴맹이 정보기술의 이용자로 대거 진입할 수 있게 된 것도 어느 정도 이용자 친화적 기술 덕분이었다. 결국 이용자 친화적 기술은 소비자 주체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면서 그 소비자가 정보기술에 깊숙이 개입하고 변형하는 해킹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 이용자 주체의 포섭과 통제를 위한 기술 디자인인 셈이다.

#### 4. 저자 - 정보 생산자

이제 생산자로서 이용자의 포섭, 특히 뛰어난 정보기술의 활용 능력을 갖춘 해커-이용자의 저자로서의 포섭 과정을 살펴보자. 초기 이용자 중에는 단지 소비자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했고, 이들은 한국에 정보산업이 형성되는 초기에 새로운 정보 생산 주체로서,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으로서 적극 포섭된다. 그와 같이 해커-이용자가 1980년대 후반 정보자본주의 체제가 갖춰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저자로 거듭나는 과정이 펼쳐졌다.

1980년대 초반 피씨 열풍 속에서 "미국에서는 12살짜리 소년이 친구와 함께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어 컴퓨터 업계에 뛰어들어 세상을 놀라게"(『컴퓨터학습』 1984.7: 28)했다는 류의 이야기들이 국내에까지 심심찮게 보도되었고, 곧 "한국에도 무서운 아이들 - 소프트웨어 개발에 도전"한다는 식으로 이어졌다(『컴퓨터학습』 1984.7: 30). 그런 차원에서 『컴퓨터: KBS-TV 컴퓨터강좌』는 학생들에게 시중에서 판매되는 프로그램을 사서 이용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을 짜 보고 이를 서로 교환해보라고 제안한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을 사다 쓰기만 하면 재미가 없다. 자기 자신이 직접 만들어 가까운 친구들에게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테이프에 넣어 친구나 애인, 또는 회사의 동료들과 서로 교환해 써보면 어떨까? 그 프로그램이 편리하게 되어 있거나 재미있는 게임이라면 큰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아마추어 프로그래머가 발표한 프로그램이 떼떽하게 상품으로서 판매되고 있다(『컴퓨터: KBS-TV 컴퓨터강좌』 1984.8: 29).*

이렇게, 주어진 대로 소프트웨어를 쓰지 말고 직접 만들면서 놓고 재미를 느끼며 해킹하면서

공유해보자는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의 상품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좋다는 식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의 상품화는 자연스럽게 성공신화로 이어졌다. 실제로 어린 나이에도 실력이 출중하다면 “컴퓨터를 만지던 매니아들”은 프로그램을 짜주는 아르바이트에 나섰다. 10 대 해커-이용자 일부는 프로그램의 개발 의뢰를 받기도 했다(이홍실 1993: 145). 미국에서 12 살짜리가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렸다는 것처럼 아예 10 대에 창업에 나서기도 했는데, 1980 년대 초반 대학생 벤처가 나타났고, 고등학교 1 학년생들 5 명이 모여 만든 해커집단인 ‘하야로비’는 1984 년에 벌써 소프트웨어하우스를 창업하기까지 했다(『컴퓨터 학습』 1984.7: 28). 이렇게 일부 10 대의 컴퓨터 열기는 대부분 그것이 공부와 입시에 방해되는 것이었지만, 아예 그 길로 나가 창업의 모험을 하며 곧바로 사회 진출하는 길로 인도되기도 했다. 이는 이미 1980 년대 초반부터 그 성공신화가 국내에 알려진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되고 싶다는 선망과 욕망을 통해 전형적으로 나타났다(황상민 2004: 39).

이와 같이 1980 년대 초중반에 새로운 사회가 열어주는 새로운 성공의 기회를 꿈꾸는 유력한 방식의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었는데, 그것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초국적 정보기업을 일으킨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기도 한, 저작권 보호를 전제로 한 것이다. 단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웨어』는 창간 다음호인 1983 년 12 월에 편집자노트를 통해 이 잡지에서 매월 소프트웨어 공모를 한다고, 응모해보라고 다음과 같이 권한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매달 개최하는 소프트웨어 공모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기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비록 상금은 적습니다만 저작권은 저자에게 인정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소프트웨어의 판매 제도가 정립된다면 충분한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창간부터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머나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이용자를 위한 잡지를 표방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여기서 저작권은 응모한 독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면서 ‘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면서 그것이 소정의 상금 외에도 잠재적 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의 저작권은 그야말로 자신이 개발한 노력의 댓가로 의미화되고 있었다.<sup>7</sup>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법제의 정치경제를 비판하는 페럴만(Perelman 2004)의 책 제목이 알려주듯이 정보의 사유화 및 상품화의 문화를 진작시키는 지적 재산권 제도는 “창조성의 기

---

<sup>7</sup>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 공모는 1990 년 10 월호부터 그 저작권이 잡지사에게 귀속되도록 바뀌었다. 저작권의 보호가 순전히 정보(상품)를 생산한 프로그래머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업적 몰수”(the Corporate Confiscation of Creativity)<sup>8</sup> 를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보)자본주의 체제에서 놀이의 형식적 포섭으로 기능한다. 예컨대 무언가 특출난 재능이 나타나면 곧 그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사업화로 자연스럽게 이끌고 이를 위해서 경진대회, 발명왕대회,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입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컴퓨터의 원리 자체에 빠져들고 프로그래밍을 배워 프로그램을 짜보는 기술 놀이로서의 해킹 역시 어느 정도 재능을 보이는 경우 컴퓨터경진대회와 같은 능력시험과 선발·포상의 계기를 통해 일정한 노동의 형태로 포섭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16비트 아이비엠-피씨(IBM-PC)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선경유통 등과 같은 대형 컴퓨터 유통업체가 설립되며 초중등학교의 컴퓨터 교육이 계속 추진되면서 소프트웨어의 패키지<sup>9</sup> 판매가 늘어났다(『마이크로소프트웨어』 2005.11: 193). 1980년대 중반에 지적 재산권 관련 법안들이 정비됨과 동시에 패키지와 같은 상품 형태가 전면화되고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붐이 일면서 실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이른바 소프트웨어하우스<sup>10</sup>가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 중에서, 1980년대 초중반에 컴퓨터를 처음 접하면서 그에 매혹된, 그러면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 대학생이거나 대학을 졸업한 초기 컴퓨터 이용자 중에는 인기를 모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소프트웨어하우스를 차려 운영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났다.<sup>11</sup> 이들은 8비트 피씨 세대, 즉 개인용컴퓨터 보급이 시작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컴퓨터 문화의 첫 이용자이자 그와 같은 경험과 정보 생산(능)력을 통해 정보자본주의에 걸맞은 새로운 기업 조직 형태를 만들어낸 역사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특히 대학(원)생으로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산업과 일종의 신경제적 기업문화를 일굴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산업이 가진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대의 소프트웨어 산업 역시 주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국가가 뒷받침해준 재벌 주도의 경공업이나 중공업과 다르게 정보산업,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에 의존하지 않아도 가능했다. 소프트웨어가 “아이디어에 의한 두뇌 산물”(『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4.8: 237)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이 대규모 시설과 자본 투자가 없더라도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개발할 수 있는 두뇌 창출 산업”(『컴퓨터학습』 1985.6: 104)으로서 전문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야로 부각된 것이다.

<sup>8</sup> 전체 책 제목은 “이 아이디어를 훔쳐라: 지적 재산권과 창조성의 기업적 몰수”(Steal This Id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Corporate Confiscation of Creativity)다.

<sup>9</sup> 응용 소프트웨어 중에 특정 이용자(기업 고객 등)의 요청에 따라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와 구분해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소비재 상품으로 취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판매하기 위해 개발된 것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 응용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상품화 형태인 것이다.

<sup>10</sup> 소프트웨어하우스는 주로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sup>11</sup> 강태진(한컴퓨터 - 한글 2000, 사임당), 안철수(안철수연구소 - 백신[V3]), 이찬진(한글과컴퓨터사 - 아래아한글), 김성수·김택진(한메소프트 - 한메타자교실), 최철용(닥터, 한글도깨비), 이영상(하늘소/큰사람 - 이야기) 등을 들 수 있다(이홍실 1993; 김홍 1999).

심지어 “대학생 아들 워드프로세서 개발, 가족들이 판매”하는 사례가 영세성을 드러낸다고 했지만 (곽동수 1993: 227),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해서 진입 장벽이 낮은 그 산업적 특성 때문이다. 그에 더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은 소프트웨어 시장이 그런 대로 활황을 맞은 때였고, 독점보다는 경쟁이 컸던 시장이었으며, 무단 복제 공유가 계속되면서도 서서히 정품 구매가 많아지는 시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1980년대 후반에 스타 프로그래머를 앞세운 중소기업들이 아직 도스(DOS) 운영체계를 사용하던 이때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 패키지 형태로 개발해 판매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다(김중태 2009: 27).

그런데 이들 새로운 정보 생산자를 앞세운 영웅 혹은 스타 만들기 서사나 평가는 대부분 열정적인 취미로 시작해 어떻게 매출 몇 백억 원대의 기업가(혹은 ‘신지식인’)로 성공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왔지만, 1980년대 초중반 해킹 문화와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기업을 창업하거나 경영하지 않고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뭔가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어떤 특수한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사실, 10대 시절이나 대학 시절에 컴퓨터에 빠져 들어 정보기술을 익히고 아마추어-전문가가 되었을 때,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사회 조직 형태 외에는 달리 그 능력을 표출하며 지속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없었다. 이것이 최철용, 이찬진, 안철수, 이주명 등 당시 해커-프로그래머 모두에게 해당된 구조적 제약이었다. 한마디로 일의 즐거움이 있지만 생활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VGA 버전용 한글 에뮬레이션 골격 갖추기에 열중하면서 이주명은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작업이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이걸 상품화해서 내놓으면 어떨까?’ 돈보다는 일이 주는 재미에 푹빠져 들었고, 또한 돈을 번다는 것이 그리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세상사의 이치도 어렵풋이나마 깨달았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이 주는 즐거움에만 만족할 수는 없는 처지였다. 무엇보다도 생활의 안정을 찾아야 했다. 선배를 잘 만난 덕분에 당장 잠자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았지만 언제까지나 마냥 더부살이할 수는 없었다(이홍실 1993: 226).*

잠시 동안의 취미 생활에 그치지 않고 그 놀이가 좋고 즐거워 계속 하며 살고 싶을 때, 그 놀이가 “밥 먹여 주는” 길은 기존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인 것이다. 이를 정식화하자면, 그 외에는 달리 생계나 생활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조건을 만듦으로써 근대자본주의 체제가 본원적 자본축적을 위해서 노동력을 포섭할 수 있었던 것처럼(Perelman 2000: 14; Söderberg 2007: 171) 여가, 취미, 놀이를 통해 생산한 정보(재)를 상품화하는 것 외에 그런 삶의 지속 가능한 다른 방식이 존재하지 않을 때 정보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성을 갖는 여가, 취미, 놀이는 노동으로 포섭되기 쉬워진다. 이것이 1980년대의 해커-이용자가 계속해서 기술 놀이의 해킹 문화 속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나갈 수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이외의) 사회문화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그들의 선택을 강제했던 구조적 제약이었

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정보의 주인이 된다. 사실 '스타 프로그래머'나 '꿈공장의 영웅' 등 언론 미디어의 성공신화나 영웅서사 만들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정보의 주인을 보다 분명하게 못박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그런 전환을 사회적인 강제 기제로 명시하기 위해 해킹 공동체의 기업화(소프트웨어하우스)에 뒤이어 프로그램 저작권의 설정, 무단 복제의 불법화 등 일련의 법제도적 뒷받침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강태진(1995)이 세운상가에는 저작권 개념이 아직 없다고 한탄했던 일이나 한글과컴퓨터사와 큰사람(이야기) 등이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과 고소 고발 사건을 벌이게 된 것도 그런 맥락 속에서 정보의 주인으로서 저자의 위치를 세우는 과정이었다.<sup>12</sup>

창업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상품화하는 것, 즉 내가 만든 것에 대한 나의 배타적 권리를 보장 받게 되는 것이 지금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특수하고 인위적으로 구조화된 역사적 현상이자 과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당시 유력하고 유일한 길이 아닐 수 있었다는 것은 단적으로 1983년에 엠아이티 인공지능연구소를 그만두고 나와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을 주창하기 시작한 리차드 스톨만을 상기해봄으로써 추론해볼 수 있다.<sup>13</sup> 반면, 국내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10대 해커-이용자나 대학생 해커-이용자가 정보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진출하는 것 말고 자유소프트웨어나 공개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개발 및 운동과 같은 해커의 합법적이면서도 대안적인 사회 진출을 꾀할 조건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단적으로, 애초 안철수가 '안철수연구소'를 세우기 전에 구상했던 비영리 법인 추진이 그 중 하나였다.

*... 컴퓨터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연구소 형태의 조직체를 오래 전부터 구상해 왔다. 내 생각에는 정부나 대기업에서 출자를 받아 비영리 법인 형태로 연구소를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비영리 법인 연구소라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백신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sup>12</sup> 1991년 7월에 미국의 '업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한국의 컴퓨터 업체들을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고, 1992년에는 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최철룡의 <도깨비> 한글카드에 대한 민사 소송이 진행됐으며, 이미 언급했듯이 <아래아한글>의 무단 복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은 1992년말부터 나타났다.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서서히 프로그램보호법에 근거를 둔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sup>13</sup> 북미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본격적으로 상품화된 1980년대 초반에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 시작되고 이후 전세계적인 자유소프트웨어 개발의 해킹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왔다. 주로 북미나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생계 유지에 대한 당장의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기술놀이)을 (정보)노동력으로 상품화할 필요없이, 또 그것이 정보기업에 의해 전유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어떤 장치(일반공중이용허락, GPL)나 사회적 조직(자유소프트웨어재단, FSF) 혹은 자율적 해킹 공동체 문화가 존재해 왔다. 그런 조건 속에서, 예컨대 핀란드의 대학생 해커였던 리누스 토발즈가 1991년에 '그냥 재미로' 리눅스 커널을 개발하고 그 소스코드를 공개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유 문화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료로 보급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연구소의 구성원들도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에 부탁한 다음에는 오랫동안 소식이 없으며, 몇몇 대기업과의 오랜 교섭도 계속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한 회사에서는 취지는 아주 훌륭하지만 최근에 적자폭이 커져서 맡을 수 없다고 했고 또 다른 회사에서는 영리상의 이유로 거절하기도 했다. 독점적인 운영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곳도 있었다. ... 만약에 비영리 연구소 설립이 불가능해진다면, 주식회사 형태의 연구소 설립이 불가피해질 것이다(안철수 1995: 335-336).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의 상품화가 아닌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모색되기도 했겠지만, 사회경제적 조건은 그것을 허용하거나 잘 되도록 가만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보의 주인은 저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소수의 해커-이용자였던 게이츠나 잡스, 혹은 한국의 스타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 정보의 주인으로서 상징적이자 실질적인 저자 주체로 자리 잡아 왔을 뿐, 대다수의 10 대 해커, 컴퓨터 매니아, 아마추어 프로그래머, 전산 인력 등은 컴퓨터밥'을 먹으며 세운상가나 용산전자상가에서 일하거나 정보(IT)산업에 취직하여 피땀흘리는 정보노동에 시달리고 있다(『프레시안』2010.8.4; 2010.8.12; 2010.8.18). 이들은 명목상 저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상 창작'이나 '직무상 발명'이라는 지적 재산권 법제 상의 조항을 통해 단지 법인(법 앞의 개인) 저자에 고용된 임금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대자본주의가 부상할 때 이전의 독립적인 생산자이자 장인이 임금노동자로 변형되면서 자본의 공식적 통제 하에 놓이게 된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정보자본주의 체제에서 초기의 대다수 생산참여적 이용자들의 생산수단 소유로부터의 분리와 생산수단 소유의 집중은 저자 주체성의 모순적 생산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세운상가나 초기 해커-이용자 문화에서는 특정한 개인 저자를 설정하기보다 집단적인 공동 저작의 생산과정이 있었고, 이들은 말하자면 생산자나 소비자의 뚜렷한 구분없이 대체로 이용자 모두 생산적 자유를 누리는 독립적 소생산자였다고 할 수 있다. 정보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용자의 포섭은 이들을 개별화된 사적 소유자로서의 저자 형태로 변형시키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그에 따라 초기 해커-이용자의 대다수는 지적 재산권 법제의 강화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사유화를 통해 그 '생산수단의 소유로부터의 분리'를 겪게 되고, 그 소프트웨어의 주인(저자)으로서 계속 그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일부가 정보산업의 기업가가 되었고 대다수는 정보노동자가 된 것이다. 특히 대다수의 해커-이용자 혹은 적극적인 이용자 대중이 대량의 정보노동자나 소비-이용자로 자리잡게 된 것은 앞서 보았듯이 그것을 통해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다른 대안이 없게 되면서였다. 결국,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자, 오늘날 문화생산에서 말하는 대중 창작자, 생산참여적 정보문화의 적극적 이용자의 등장은 곧 이용자의 노동력 상품화 과

정이기도 한 것이다.

## 5. '해커' - 정보 '파괴자'

정보자본주의의 이용자 주체 생산 방식으로서 이용자 주체의 포섭은 전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으로 포섭되지 않는 이용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산과 소비의 분업화된 위치에 들어가지 않는 해커-이용자는 따라서 지배적 정보문화에서는 배제되는 주체가 된다. 정보자본의 축적을 위한 가치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방식의 정보의 해킹은 때때로 정보의 사유화와 상품화를 방해하고 위협하기 때문에 정보사회의 '파괴자'로서 통제되고 배제되는 것이다.

오늘날 해킹은 컴퓨터 범죄로 분류되고 불법적인 컴퓨터 이용 혹은 역기능으로 수용되고 있지만, 그런 규정과 상반되는 해킹에 대한 평가도 존재한다. 해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이들이 컴퓨터 기술 발전의 주역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해커 문화의 역사를 다룬 스티븐 레비(1996) 책의 부제가 '컴퓨터혁명의 영웅'이었는데, 그 영웅의 목록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도 포함된다. 또,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 깊은 곳까지 통달한 해커에 대해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매우 신비롭게 보이는 탓에 흔히 마법사나 해결사와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는 <스니커즈>나 <매트릭스>, <아이리스>와 같은 대중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많이 재현된 방식이다. 이와 같이 해킹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창조자 대 파괴자의 정반대 이미지, 혹은 야누스적인 형상이기 때문이다. 즉, 똑같이 해커라고 불리고 해킹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 안에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연구를 통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만들어낸 것을 부수는 사람"(『마이크로소프트웨어』 2005.4: 168)이 동시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커의 야누스적인 면모는 역사적으로 변천해 온 것인데, 해커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정보자본주의 체제가 부상하면서 해킹을 수단으로 한 컴퓨터 범죄가 빈번해지고 그것을 해킹이나 해커로 통칭하면서였지만, 통제되지 않는 해커-이용자를 배제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1980 년대를 지나면서 해킹이라는 기교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범죄자가 해커를 고용하거나 해킹을 익혀 범죄에 이용하는 식으로 해킹을 활용한 컴퓨터 범죄가 점차 많아졌다(김강호 1997: 57). 그러다보니 해킹 개념에 컴퓨터 범죄가 융합되고, 해킹이라는 말이 (특히 첨단기술을 동원하거나 지능적인 수법으로 감행된) 컴퓨터범죄를 가리키는 데 대신 사용되었다. 1980 년대 말의 새로운 정보사회의 대중 정보문화 현상들이 어떤 부작용이나 일탈, 컴퓨터 지하세계의 존재로 부각되면서 대중에 애초의 의미대로 이해되기 쉽지 않았던 해킹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맥락 속에 배치된 것이다. 네트워크된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언제나 명백한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다양한 동기와 형태를 갖는 것이지만, 기왕의 컴퓨터 범죄

라는 개념, 이론, 판례 등이 존재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준거틀로 작용하면서 해킹은 정보사회의 새로운 범죄로 그 이미지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범죄의 속성과 무관하게 무작정 컴퓨터 관련한 범죄나 장난은 해킹이나 해커라는 말이 적당한 용어로 선택돼 버리고(Meyer 1989: 20), 어느덧 해킹은 곧바로 컴퓨터 범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컴퓨터 범죄에는 돈의 절도(예를 들면 잘못된 타인계좌에 대체지급 등), 정보의 절도(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료 전송선이나 테이터베이스에 불법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빼내는 행위), 개인 목적으로 컴퓨터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컴퓨터 사용을 방해하기 위한 사보타지 조작 등이 포함된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주로 젊은이)을 해커(컴퓨터광)라고 부른다(안영섭 1995: 132).*

엄밀한 정의상 해킹 그 자체가 범죄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융합된 상태에서도 우리는 해킹을 수단이나 방법으로 한 컴퓨터 범죄가 많아졌다는 것과 해킹이라는 개념과 인식이 범죄로 의미화되었다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토마스 등(Thomas 2003; Lievrouw 2011: 98)은 해커나 해킹 용어가 보안과 안전을 명분으로 사법부나 대중 미디어의 담론 전략 차원에서 과도하게 범죄시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이어-위데포드(2003: 469)는 이렇게 말한다. “자본은 놀랄 만큼 강력한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비공식적, 혁신적, 지적 활동(가령 ‘해킹’)에 의존해 왔다. 비록 이 창조적 교섭을 끊임없이 범죄로 단죄하려고 했지만 말이다.” 자본은 왜 해킹을 범죄로 단죄하려고 하는가? 앞선 논의에 기초해 이용자 포섭의 맥락에서 볼 때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소비자로서 이용자 대중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해커-이용자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생산자 차원에서 정보의 소유자로서 저자(의 지적 재산권)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이용자 통제 차원에서 해킹은 보통의 이용자가 하는 통상적인 이용 방식이 아니라, 혹 범죄적인 행위에 연루되는 일이 될 수 있었다. 이를 로스(Ross 1990: 81)는 “새로운 정보기술이 지적재산의 보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전하면서 근대 권력의 유지에 이상이 생기자 재산권법을 재정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그 핵심적인 노력의 하나는 ‘사회적 위협’(social menace)을 창출하는 일”이라고 간파했다. 소더버그(Söderberg 2007: 78) 역시 해킹의 범죄화를 정보의 주인으로서 저자성을 강화하는데 동반된 여타 창조 방식의 배제의 문제로 보았다. “이를 보장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법 체계로, 이 법은 개인화된 저자·창조자를 하나의 규범으로 실행하는데, 정보의 생산 과정으로서 창조성이 애초에 갖는 수육양서적이고, 집단적이고, 익명의 형태들을 범죄화하고 배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초기 정보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해킹이 새로운 혁신과 창조에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 그 정보(자본)가 컴퓨터와 통신의 융합이라는 기술적 발전에 따라 보다 쉽고 광범위하게 정보가 유통되고 소비되면서 자유로워진, 그래서 경계를 넘는 이용자들의 해킹은 통제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해킹은 단순히 정보적 파괴행위라는 점에서 범죄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사유론에 입각한

사회 체계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범죄로 취급되는 것이다”(홍성태 1999: 175).

요컨대 1980년대 대중에게 소개되고 접근 가능해진 정보기술을 둘러싼 정보자본주의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증가하고 기술적 코드와 법적 코드가 또한 많아지면서 정보 보안과 지적 재산권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통제가 강화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정보 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와 이용자 해킹 행위 간의 대립 및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것은 대체로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이용 차원에서의 해킹이라는 의미는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띠었고, 그러한 개발 및 이용이 (한편으로는 창조적인 정보 생산력을 높이는 노동으로 적극 포섭되면서도) 정보의 상품화와 사유화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통제되고 배제되는 식이었다. 특히 법적 코드를 통해서 해킹은 일반화된 컴퓨터 범죄 혹은 사이버 범죄에 속하거나 그것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점차 굳어져 간 것이다.

정보자본주의의 이용자 주체의 포섭에 동반되는 배제는 해커와 같은 일탈적 주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일구어온 무단 복제 관행과 정보 공유 문화에도 적용되어 왔다. 특히, 정보 공유 문화에 대한 배제는 지적 재산권 법제의 강화를 통해 ‘불법복제’라는 규정이 2000년대 초반 넵스터나 소리바다 사태부터 해서 점점 보통 이용자의 복제나 공유의 관행까지도 통제하는 식으로 확장되면서 문제가 되어 왔다.

다페모스와 소더버그(Dafermos & Söderberg 2009: 59)는 1970년대 미국의 해킹 공동체가 개인용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비시장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지만 어느 정도 산업이 활성화된 이후에는 정보산업에 의해 배제되었다고 보았다. 즉, 1970년대 해커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개인용컴퓨터의 소비시장이 부상하면서 서로 의존하다가 정보산업이 하드웨어 판매에서 소프트웨어 판매로 그 초점이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유하며 개발해 온 해킹 문화가 소프트웨어 시장의 형성에 방해가 되면서 두 영역은 충돌하고 갈등이 생겼고, 지적 재산권 법제를 통해 해킹 문화가 배제된 것이다. 해킹의 배제 그리고 포섭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소프트웨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정보기업의 형태를 띠면서 한국에서도 나타났다는 것도 앞서 보았다.

그리고 이전처럼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려고 할 때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전과 다른 없는 자유로운 복제 공유였지만, 다시 이를 상품화한 정보기업 - 소프트웨어하우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법복제를 당하”는 일이 되었고, 쉽게 억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흡사 전쟁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대로 소프트웨어하우스가 차려지고 그곳에서 상품화한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밟았다. 무단 복제의 해킹, 기술 축적, 시장 창출보다는 (독점)권리 보호, 무단 복제 단속 등을 통해 정보가 사유화 상품화되는 것을 보증하고, 그 이용 활동이 노동화되면서 기존의 정보공유와 자유 복제는 점차 불법 복제로 규정되고 단속되는 처지로 내몰린 것이다. 해킹을 통해서 다양하게 정보문화에 기여하고 직접적으로도 그 소프트웨어의 확산에 기여해 온 이용자들의

배제가 동반된 과정이었다. “이전에 사회화된 정보였던 것을 사유화”(Wark 2004: §119)하는, 그야말로 전자적 정보 공유지(communs)에 대한 종획(enclosure)에 다른 아닌 것이다.

## 6. 맺으며 - 포섭되지 않는 이용자

지금까지 1980년대 초중반 개인용컴퓨터가 도입되었을 때 이를 일찍 수용한 이용자가 새로운 정보기술의 소비자로 자리 잡아온 과정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문화 생산에 참여하며 해커(창조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이용자 주체가 정보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어떻게 그 생산물의 생산자이자 소유자(저자)로 되었는지, 혹은 어떻게 정보자본 축적 과정에 말썽을 일으키는 해커(파괴자)로 변형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개인용컴퓨터나 그것을 이용한 정보 네트워크인 전자게시판을 통해 새로운 정보기술을 접하고 배워 쓰면서 사람들은 이용자가 되었고, 그 중 일부는 그 기술 자체의 원리에 파고 들어 통달하면서 주어진 정보기술을 뜯어 고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도 했다. 그러한 이용자의 창조력은 정보자본주의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정보 생산력으로 포섭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저자라는 주체 형태를 통해 나타났다. 하지만 그 중 일부는 자본주의가 부과하는 규율과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서 혹은 자신의 욕구나 의지에 따라 정보기술을 이용하면서 범죄적 이미지의 해커(파괴자)가 되기도 했다. 그것이 정보의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차원에서 둘 다 정보기술의 창조적 이용 방식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규범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갈라진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대다수 정보기술의 이용자는 소비자로서 일정한 통제 속에서 주어진 대로 정보기술을 이용하게 된다. 한마디로 이용자 주체는 정보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특정한 이용 방식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과정을 거치며 갈래쳐지고 변형되어 온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이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염두에 둘 때, 이용자 주체의 분화는 그에 그치지 않고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보자본주의 체제가 진전됨에 따라 저자는 저자대로, (최종)이용자는 이용자대로, 해커는 해커대로 더 분화되어 갔다. 이는 오늘날 정보자본주의 체제에 존재하는 여러 주체 형태가 어떻게 형성되고 분화하며 발전해왔는지의 경로라고 할 수 있는데, (최종)이용자는 소비자로서의 이용자(소비-이용자)만이 아니라 생산참여적 이용자(생산-이용자)<sup>14</sup> 형태, 혹은 더 나아가 해커-이용자에 가까운 주체 형태로 전개돼 나갔고, 저자는 정보산업의 기업가와 정보노동자로 나뉘고 양극화되었으며, 파괴자로서의 해커는 계속 배제된 주체이면서도 일부

---

<sup>14</sup> 브룬즈(Bruns 2008)는 토플러의 ‘생산소비자’를 변형하여 ‘생산이용자’(producer)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위키백과에 표제어를 올리거나 그 내용을 수정하는 이용자, 세컨드라이프 이용자, 블로거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는 정보보안산업의 성장에 따라 보안 전문가로 다시 포섭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용자 주체는 정보자본주의 체제가 진전됨에 따라 계속해서 포섭과 배제의 거듭되는 과정을 거치며 분화되고, 그런 변형의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기왕의 저자에 더해 생산 참여적 이용자로서 생산-이용자나 해커 출신의 보안 전문가와 같은 추가적인 포섭이 이루어지면서 생산 부문에 참여하는 주체가 계속 확대되어 왔다. 정보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고용된 지불노동뿐만 아니라 생산-이용자와 같이 자발적인 참여에 기댄 부불노동의 형태로 정보 가치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또, 생산-이용자의 참여적 양상은 정보 콘텐츠의 생산에서 주로 나타나는 반면 이전의 해커-이용자의 참여적 양상은 정보기술이나 정보 체계 자체에 대한 개입까지 나아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생산-이용자의 참여는 상당히 통제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오늘날 생산참여적 이용자 문화가 활성화되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정보자본주의 체제하의 이용자 정보문화를 통제하면서 포섭하는 힘의 작용을 하나의 구조적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안에서 포섭과 배제의 체계를 위협하고 깨뜨릴 수 있는 잠재적 해커-이용자 주체가 끊임없이 생겨난다. 정보자본주의 체제가 해커와 (최종)이용자를 서로 다른 주체 형태로 분화시키고 후자를 기술 원리에는 무지한 주체로 규정하고 통제하지만, 해커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보통의 이용자 중에서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 7. 인용문헌

-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3.12. 「편집자노트」.  
\_\_\_\_\_. 1984.08. 「소프트웨어 공모결과 발표」.  
\_\_\_\_\_. 2005.04. 최효식, 「해커의 조건」  
\_\_\_\_\_. 2005.11.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역사와 명암」.  
『컴퓨터학습』. 1984.04. 「특집 화보: “84 MBC 퍼스널 컴퓨터 전시회 참관기”」.  
\_\_\_\_\_. 1984.07. 「기획취재: 학생층을 중심으로 한, 퍼스널 컴퓨터 구입자들의 이용 실태 조사 (PC를 보유하고있는 초.중.고-대학생 총 100 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각종 자료조사)」.  
\_\_\_\_\_. 1984.10. 「특별취재: 퍼스컴 소프트웨어의 베스트 셀러를 노려라」.  
\_\_\_\_\_. 1985.06. 「컴퓨터 발달사 - 교육용 SW개발의 중요성」.  
\_\_\_\_\_. 1985.11. 「컴퓨터 낙수 - 프리 소프트웨어(Free Software)」.  
『컴퓨터: KBS-TV 컴퓨터강좌』. 1984.08. 「프로그램을 서로 교환하자」.  
\_\_\_\_\_. 1984.12. 「컴퓨터 에이지와 '컴퓨터피아」.

- 『경향신문』. 1994.05.07. 「문체부 고급간부 '컴맹' 많다」
- 『동아일보』. 1994.04.16. 「현대증권 '컴맹' 직원 교육」.
- 『프레시안』. 2010.08.04. 「내가 기술유출범?"... 누명 쓰는 개발자들」  
 \_\_\_\_\_ . 2010.08.12. 「일의 노예'... 한국의 IT개발자가 사는 법」  
 \_\_\_\_\_ . 2010.08.18. 「사람 잡는 야근...폐 잘라낸 Si개발자」
- 강태진. 1995. 『내사랑 내사업 내방식대로: 강태진 수필집』, 서울: 문학사상사.
- 곽동수. 1993. 『안녕하세요 컴퓨터이야기』, 서울: 정보문화사.
- 김강호. 1997. 『해커의 사회학: 해커를 해킹한다』, 서울: 개마고원.
- 김중태. 2009. 『대한민국 IT사 100 - 파콤 222 에서 미네르바까지』, e비즈북스.
- 김홍. 1999. 『실리콘 키드의 성공신화』. 서울: 신어림.
- 류철균·신새미. 2007. 「가상세계의 재미노동과 사용자 정체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 (8): 182-190.
- 박순백. 1989. 『PC문화론』, 서울: 희성출판사.
- 백옥인. 1998.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 문학과지성사.  
 ————. 2008. 「한국 소비사회 형성과 정보사회의 성격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77): 199-225.
- 서현진. 1997. 『처음쓰는 한국컴퓨터사』, 서울: 전자신문사.
- 손대현·장희정. 2002. 「엔터테인먼트 산업화의 발상: 재미와 즐거움의 신 산업혁명」, 『소비문화연구』 5(3): 85-106.
- 송재희·신동윤·박영주. 1995 ㄱ. 『정보사회가 오면 난 어떻게 되지? - 사이버 세계의 놀이와 아름다움』, 지식공작소.
- 송재희·신동윤·박영주. 1995 ㄴ. 『상상력을 죽이면 소프트웨어는 없다』, 지인.
- 안영섭. 1995. 『컴퓨터사회의 무서운 함정』, 서울: 민영사.
- 안철수. 1995. 『별난 컴퓨터 의사 안철수』, 서울: 비전.
- 이진경. 1997. 『맑스주의와 근대성: 주체 생산의 역사이론을 위하여』, 서울: 문화과학사.
- 이찬진. 1995. 『소프트웨어의 세계로 오라: 한글, 컴퓨터 그리고 이찬진의 꿈』, 서울: 김영사.
- 이홍실. 1993. 『꿈공장의 젊은 영웅들』, 서울: 서울미디어.
- 조동원. 2012. "한국의 초기 정보문화에 관한 연구 - 개인용컴퓨터 이용자 주체의 형성과 분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연구 협동과정.

- 허준석. 2006. 『재미의 비즈니스: 경제학으로 본 게임 산업』, 책세상.
- 홍성태. 1999. 「정보화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정보주의와 정보공유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 황상민. 2004. 『대한민국 사이버 신인류: 페인, 그들이 세상을 바꾼다』, 서울: 21세기북스.
- PC월드출판부. 1994. 『(개정판) PC통신 하나에서 열까지』, 서울: 하이테크정보.
- 다이어-위데포트, 닉. 2003. 『사이버-맑스: 첨단기술 자본주의에서의 투쟁주기와 투쟁순환』, 신승철·이현 옮김, 서울: 이후.
- 레비, 스티븐. 1996. 『해커, 그 광기와 비밀의 기록』, 김동광 옮김, 서울: 사민서각.
- 마르크스, 칼. 1988. 『경제학 노트』, 김호균 옮김, 이론과실천사.
- 베니거, 제임스 R. 2009. 『컨트롤 레벌루션: 현대 자본주의의 또 다른 기원』, 윤원화 옮김, 서울: 현실문화연구.
- 터클, 세리. 2003. 『스크린 위의 삶: 인터넷과 컴퓨터 시대의 인간』, 최유식 옮김, 서울: 민음사.
- 휴즈, 어슐러. 2004. 『사이버타리아트』, 신기섭 옮김, 서울: 갈무리.
- Bruns, Axel. 2008. *Blogs, Wikipedia, Second Life, and Beyond*. Peter Lang Publishing.
- Dafermos, George, and Johan Söderberg. 2009. "The hacker movement as a continuation of labour struggle." *Capital & Class* (97).
- Gandy, Oscar H. 2011. The Political Economy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Handbook of Political Economy of Communications (Global Media and Communication Handbook Series*, ed. Janet Wasko, Graham Murdock, and Helena Sousa. 1st ed. Wiley-Blackwell, May 17.
- Lievrouw, Leah. 2011. *Alternative and Activist New Media*. 1st ed. Polity.
- Meyer, G. R. 1989. The social organization of the computer underground. Master Thesis,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DeKalb.
- Moglen, Eben. 1999. "Anarchism Triumphant: Free Software and the Death of Copyright." *First Monday* 4 (8).
- Parikka, Jussi. 2007. *Digital Contagions: A Media Archaeology of Computer Viruses*. Peter Lang Publishing.
- Perelman, Michael. 2000. *The Invention of Capitalism: Classical Political Economy and the Secret History of Primitive Accumulation*. Duke University Press.
- . 2003.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Commodity Form: New Dimensions in the

Legislated Transfer of Surplus Valu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35 (3): 304-311.

———. 2004. *Steal This Id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Corporate Confiscation of Creativity*. Palgrave Macmillan.

Ross, Andrew. 2009. On the Digital Labor Question. A lecture at the Vera List Center for Art and Politics at The New School September 29.

Söderberg, Johan. 2007. *Hacking Capitalism: The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Movement*. Söderberg. Routledge.

Thomas, Douglas. 2003. *Hacker culture*. U of Minnesota Press.

Wark, McKenzie. 2004. *A hacker manifesto*. Harvard University Press.

Weinbaum, B., and A. Bridges. 1976. "The other side of the paycheck: Monopoly capital and the structure of consumption." *Monthly Review* 28 (3): 88-103.

---

## 信息资本主义对于使用主体的包攝 ( 提要 )

曹銅元 ( Jo Dong-Won ) (文化/科学 编辑委员)

---

这篇文章要追踪，随着信息资本主义的浮上和个人电脑的普及而出现的信息技术使用者形成和分化为适于其体制的过程。而且本篇文章要把这一过程看做是在信息资本主义里所进行的对使用者主体的包攝。这就是信息的生产和消费的分工化的主体位置予以设定之后，以往微分化的使用者授予其位置的过程。随之，早期的使用者大概分类为作为信息消费者的使用者和作为信息生产者及所有者的作者。并且脱离这两种主体位置而不被包攝的主体就被排斥，这一被排斥的主体就是黑客。

第一，使用者主要是被产生于通过电脑教育来进行的信息技术的消费者培养过程，与此同时，他就处于电脑保安或者使用者亲和性技术等诸如此类的信息文化上的控制之下。首先，1980年代初，在韩国也引起了个人电脑热风的时候，出现了唆使和缠磨赶不上即将到来的信息社会的人们的现象，其背后不仅仅是存在着对于新社会里的成功的期待和希望，又存在着“不学会电脑，就赶不上别人”这样的不安心理。从个人电脑正式开始普及于一般群众的1990年代初开始，为了指称不会操作电脑的人而出现的词汇，就是由“电脑”和“盲”这两个字来组合的“电脑盲”，而且这一词汇就是象征着对于不懂电脑人的唆使。

其次，在个人电脑里，尤其是以图像为中心的接口设计 ( interface design, 画面上的图表以及打击其图表的鼠标的出现 ) 的发展趋势，就标志了以对于电脑操作外行的不同使用者为前提的电脑之出现。即是说，个人电脑的出现从其开始，就通过“使用者亲和性” ( user-friendly ) 的技术和设计来，设定了作为其理想型消费者主体的没有专门知识的信息技术使用主体之诞生即所谓最终使用者，而塑造了适合于其使用者的大众使用者文化。这就意味着，作为人和技术之间的能动性的互相作用，使用者的黑客诸如此类的电脑使用技术的去熟练化，对一般的电脑使用者来说，黑客是过于专门的，于是被视为特别的事情。如此，随着信息技术的商品化以及作为消费资料的信息技术的普及，就开始了黑客 ( 侵入到技术的内部结构和作用原理，也会操作它的使用者 ) 和一般使用者 ( 关心应用程序及其使用的使用者 ) 之间的分化，这就成为了排斥黑客的关键性条件。

第二，著者就是把如早期使用者的黑客那样的技术游戏和探究包攝成为信息价值生产的创造性劳动的主体形态，著者就被知识产权的强化予以支撑。早期使用者们之中，不仅仅是留于消费者而积极地参

与生产活动的事例也是很普遍的，这些黑客-使用者是在韩国刚刚开始形成信息产业的1980年代后期，他们是作为新的信息生产主体，尤其是作为具有软件开发能力的人力资源以及软件著者来被包摄。1980年代初中期，梦想即将到来的信息社会所能打开的新成功机会的有力方式之一就是软件开发，这些软件开发就是以知识产权的保护为其前提的，而且这一知识产权的保护就使得比尔·盖茨和史蒂夫·乔布斯能够建立跨国性信息企业的前提条件。促进信息私有化和产品化文化的知识产权制度就是以“对于创造性的企业性没收(corporate confiscation of creativity)”为其主要特征，它本身在（信息）资本主义体制里，就会以如同黑客那样的游戏形式来被包摄。

更宏观的语境而看，正如通过塑造除此之外没有任何代案能够坚持生活和经济活动的条件，现代资本主义体制能够为其原始积累而包摄劳动力的那样，除了通过业余活动、爱好、游戏来把生产的信息（财）加以商品化之外，没有任何其他方式能够坚持其生活的时候，业余活动、爱好及游戏就易于被包摄为劳动。这就是在1980年代，黑客-使用者能够在作为技术游戏的黑客文化里，不断地开发软件的（资本主义生产关系以外的）社会文化条件尚未存在的、逼使他们作出选择的结构性制约。此后，他们就变成信息的主人。事实上，“明星程序师”或者“梦想工厂的英雄”等媒体的成功神话和英雄叙述的产生，即便不是故意的，但它可以说是担当着把其信息的主人更为分明地固定于其位置的意识形态功能。并且为了把这样的转换作为社会性强制机制来标示，跟着黑客共同体的企业化（软件公司）一起，不能不伴随程序知识产权的设定、非法复制的禁止等诸如此类的法律上、制度上的支持。

但是从实际情况来看，曾经是少数黑客-使用者的盖茨、乔布斯，或者韩国的明星程序师就是作为软件信息的主人，占有了象征性、实际上的著者主体位置，与此相反，大多数年轻的黑客、电脑粉丝、非专门程序师以及计算劳动者，几乎都是在世运电子商街或龙山电子商街里工作，或者就职于信息产业而受苦于辛苦的信息劳动。从其名目上，他们是著者，实际上他们是按照知识产权上的法律条款即所谓“工作上的创作”或“职务上的发明”，只能是作为被法人所雇用的工资劳动者而已。

第三，有不被包摄的使用主体即“黑客”的主体类型。作为信息资本主义的使用者主体生产方式，对于使用者主体的包摄并不能得到全面的成功。这是因为存在着不被包摄到资本主义生产关系里的使用者。于是，不被包摄到生产和消费这种分工化位置的黑客-使用者就成为被主流信息文化予以排斥的主体。从1980年代后期开始，就开始出现靠“黑客”这一技术来赚钱的人，犯罪人雇用黑客或者熟练黑客技术来，把它使用于犯罪的电脑犯罪日益增多。因此，黑客这一概念开始跟电脑犯罪性质融合在一起，黑客这一词汇就开始使用于专门指称（尤其是使用最新技术或智能手法来犯的）电脑犯罪。为何黑客就变成专称电脑犯罪的普通词汇而被排斥呢？从使用者的包摄这一脉络上看，我们可以提出两个理由，一方面要把使用者群众作为消费者来产出，与此同时，为了控制黑客-使用者，另一方面是在生产者的层面上，要保护作为信息所有者的著者（的知识产权）。于是，信息资本主义对于使用者包摄所伴随的排斥，不仅仅是适用于黑客这样的异常性主体，又适用于其黑客所做的非法复制习惯和信息共有文化。尤其是，

通过知识产权法律的强化来，自从2000年代初所发生的Napster和Sori Bada(P2P方式的一种)事件以来，对于“非法复制”的法律规定就逐渐扩散于控制一般使用者的复制和共有习惯，对于信息共有文化的排斥问题就日益深化了。

总体上看，随着信息资本主义的进展，使用者主体就通过不断的包摄和排斥的过程来予以分化，在这些变化过程当中所突显的是，加上以往的著者，随着对于作为生产参与者的生产-使用者或者做过黑客的保安专家等的包摄进行，参与生产部分的主体不断增加。在信息资本主义体制里，不仅仅是以依靠被雇用的工资劳动的形态，又是以依靠自发性参与的工资劳动的形态来，为信息价值生产的劳动提供就扩大。但是，在其体制里，威胁和破坏其基于包摄和排斥的体制，而且不被包摄于信息资本主义的工资劳动关系而妨碍信息资本之积累的潜在的黑客使用者不断地产生。这是因为虽然信息资本主义体制就把黑客和最终使用者分化为互相不同的主体类型，而将最终使用者当作对于技术方面外行的主体来加以规定和控制，但是黑客反正并不是在别处，而是在一般使用者之中不断地出现。

翻译：皮炯勋 (北京大学博士班)

审校：林春城 (木浦大学教授)

---

# “새로운 인간(新人)” 을 부르짖다: 교육과정개혁과 정보기술교육

뤄샤오밍 (상하이 대학 문화연구과 부연구원)

---

중국인의 어휘표에서 “새로운 인간(新人)”은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1949 년 이후 신중국(新中國)이 학교 교육과 광범위한 사회교육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혁명의식과 사회 상상을 지닌 사회주의혁명의 계승자를 양성하고자 했던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간을 “새로운 인간”이라 했으며, “새로운 인간”을 양성하는 목표는 또한 매우 명확하여 낡은 세계를 개조하고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고자 했다. 하지만 사회주의적 목표가 점점 멀어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제기는 역사가 되어버렸고 가끔 정책 문건 속에서만 드러날 뿐이다. 그러나 현대국가와 학교교육의 관련성을 현대를 추구하는 역사적 발전 과정에 놓고 다루어 본다면, 국가는 학교교육을 통해 “새로운 인간”을 주도하고 나아가 사회의 면모와 국가경쟁력의 방법을 바꾼다는 것을 바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현대국가의 피할 수 없는 임무이다. 따라서 중국의 “새로운 인간”을 부르짖는 임무는 결코 주의(主義)가 퇴장했기 때문에 자연히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국면의 정보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국민의 학습 능력과 산업 구조를 시기적절하게 건설하여 글로벌 경제의 급행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중국정부의 교육개혁 추동의 동력을 구성했다.

이 글은 바로 중국정부가 정보화경제의 압력 아래 적극적으로 중등교육과정을 개혁하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로운 인간”을 만들 방법과 결과를 도모하고 있음을 고찰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방식이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다.<sup>1</sup> 이 글은 그 원인의 분석과 아울러 이로 인하여 드러나는 정보화경제가 초래한 후발국가와 지식 창조 관계의 새로운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

<sup>1</sup> 2011 년부터 중국 교육계는 이러한 개혁이 성공인지 실패인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논쟁의 양쪽이 각자의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상태이다.

## 1.

1996 년을 시작으로 중앙정부는 일련의 교육 문건을 통해 점점 더 명확하게 교육개혁의 새로운 요구를 제출했다. 즉 모든 학생이 교육 과정을 통해 자발성을 얻고 “학습방법”을 배우며 창조 능력과 실천능력이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 중 개혁특구 상하이<sup>2</sup>의 개혁방안 □상하이시 보통초중등교육과정방안(上海市普通中小學課程方案(試行稿))□에서 제기된 방법이 대표적이다.

상하이는 국제화 대도시와 디지털 도시의 교육 환경 건설에 기초하여, 덕육을 핵심으로 하고 학생의 창조 정신과 실천 능력의 배양을 중점으로 삼고, 완벽한 학습방식을 특징으로 하며, 현대 정보화기술의 응용을 표지로 삼아 학생의 학습경력과 개개 학생의 발전 과정을 촉진하는 체계를 세운다.<sup>3</sup>

이러한 규정은 “새로운 인간”에 대해 명확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덕육· 창조능력·실천능력·완전한 학습방식 및 현대정보화기술이 그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결코 과거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상· 도덕· 문화· 기율을 지닌”<sup>4</sup>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와 계승자의 육성이란 문제의식 아래 새로운 해석을 전개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교육과정방안□은 학생의 창조능력과 실천능력을 “적극”적인 정서 및 가치관과 내적으로 연관하여 강조하는데, 여기서 “적극”의 함의는 건강한 인생관의 수립뿐만 아니라 정보화경제의 조건 아래 사회요구의 빠른 변화와 일반 생존법칙의 거대한 변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교육과정방안□은 현대 정보화기술의 각도에서 상술한 두 가지 종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기술이 학생의 고급 사유능력의 배양에 작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정보기술의 작용”을 교육과정목표 제정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sup>5</sup>

<sup>2</sup> 좋은 교사자격, 비교적 선진적인 교육이념과 상대적으로 나은 물질조건으로 1988 년 상하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교육과정개혁의 특구가 되었으며,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지역의 초중등교육과정 교재 개혁의 연구 및 실험을 맡게 되는데 이를 “일차 교육과정개혁”이라 한다. 1998 년 즈음 새로운 전국적 “교육과정개혁”과 더불어 거의 동시에 상하이 “이차 교육과정개혁”이 있었는데 “교육과정개혁” 특구의 모델의 연속이다. 『上海市普通中小學課程方案(試行稿)』는 상하이 “이차 교육과정개혁”의 지도적 문건이다.

<sup>3</sup> 상하이교육위원회: 「上海市普通中小學課程方案(試行稿)」, 上海教育出版社 2004 년판, pp1. 이하 『교육과정방안』으로 약칭한다.

<sup>4</sup> 일반적으로 “이상, 도덕, 문화, 기율을 지닌 것”을 “네 가지를 가진 신인”으로 개괄한다.

<sup>5</sup> 상하이교육위원회: 「교육과정과 정보기술의 통합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加强课程与信息技术整合的指导意见(征求意见稿))」 『上海市普通中小學課程方案(試行稿)』 上海教育出版社 2004 년판, pp44.

여기서 학습의 자주성, 적극적 정서 태도 및 가치관, 정보기술의 창조정신과 실천능력은 교육과정개혁의 “학생의 주체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구성하고 있다. 기존 교육과정 구조와 지식유형의 개혁<sup>6</sup>을 통해 지식 학습과 창조 사이의 간극을 해결하여 주체를 양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다. 한동안 “학습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개혁 내내 가장 간절한 구호가 된다.

이러한 개혁의 요구와 방법은 분명 이전 학교 교육의 판단 위에 세워진 것이다. 즉 교육은 나날이 사회요구에서 벗어나 학생은 그저 죽은 지식만을 배우게 되고 창조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겉으로는 그럴 듯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되는 전제가 숨어 있다. 즉 지식과 방법은 분명하게 이분되어 사람들은 지식을 장악하기만 할 뿐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는 당연히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무미건조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방법상 사고와 훈련을 몰아낼 수는 없다. 바꾸어 말하면 마찬가지로 어떠한 방법도 구체적 지식에서 벗어나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sup>7</sup> 하지만 바로 이 독단적으로 보이는 판단에서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정부의 초조함이 드러난다. 사나운 기세로 몰려오는 정보화 경제 앞에서 어떻게 이러한 경제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적극적이고 창조력을 가진 노동자를 배양하는가? 본래 대공업생산과 사회 유동에 맞추어 설치된 학교교육이 어떻게 창조적 인재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국가가 장악하는 새로운 기구로 바뀔 수 있을까?

만약 교육개혁이 스펜서가 말한 것처럼 “어떤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가”에 대해 새로운 판정을 내리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과거의 학교교육이 양성한 학습능력과 방법은 새로운 형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방법과 능력의 결핍”으로 직시된다. 만약 현대국가가 학교교육에 대한 관리를 통해 자신을 조정하여 존속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교육과정 개혁은 바로 정보화 사회와 이로 인해 전개되는 새로운 경제모델에 중국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sup>6</sup> 개혁은 교육과정의 기능의 각도에서 기초형, 개발형 및 연구형 3종의 각각 다른 과정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기초형 과정은 학생들의 기본 소질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가 공민 소질에 대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체현한다.” 개발형 과정은 “학생의 주체의식, 완전한 학생의 인지 구조를 통해 학생의 자기 계획과 자주적 선택능력의 제고(提高)를 중지로 삼는다.” 연구형 과정은 “학생이 연구적 학습 방식을 운용하여 문제를 발견·제출하고 문제를 탐구·해결하는 것으로, 학생의 자주정신과 창조 능력·연구와 실천능력·협력과 발전의식의 배양의 과정이며 전체 학생의 선택 연구를 규정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개혁은 또한 상이한 지식유형과 학습방식에 의거하여 “학습영역” “과목”과 “모듈과 주제” 3종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학습영역”은 “내용 간 상호 연계와 학습과정의 공통 특징에 따라 학습영역을 설치하고, 교육과정 설계 및 실현 양 방면을 교육과정 실현의 균형성, 종합성, 다양성의 창조조건으로 삼는다.” “과목”은 “20 분야의 지식계열 학과 및 취미활동, 동아리활동, 과제 연구 활동, 공동체봉사, 사회실천 등 과외 활동과 전문 교육을 포괄한다.” “모듈 또는 주제”는 각 과목은 “내용에서 상대적으로 독립하면서도 내적 논리적 연계를 갖는 모듈 혹은 주제의 구성을 가리키며, 하나의 모듈은 약간의 주제를 포함한다.” 보기에는 다소 중복되는 구분이지만 정책 제정자가 상이한 지식 유형의 과정 배치를 통해 지식에서 창조로 “도약”하려는 강렬한 열망을 볼 수 있다.

<sup>7</sup> 『교육사상의 진보(教育思想的演進)』에서 뒤르켐은 중세의 변론 훈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바늘 끝 위의 몇 명의 천사들이 있을 수 있는가” 류의 문제가 당시 사회적 언어 환경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생의 논리적 사유와 변론 능력을 훈련시켰는지를 설명한다.

호응하는 방식의 하나가 된다. 이러한 호응 속에서 지식은 대략 두 가지로 구분 된다. 효과와 이익을 가지고 오는 지식, 창조적이면서도 효과와 이익을 가지고 오는 지식 두 부류이다. 개혁은 분명 후자를 가치 있다고 여긴다. 그것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학교교육을 통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경제에 적응하고 전지구적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삼은 학교교육개혁은 과연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학교교육에서 경제 창신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지식분류법이 실천되는 가운데 도대체 어떠한 변화가 생겨나는가? 또한 실제 형성되는 것은 어떠한 지식의 상태인가? 이러한 모든 문제는 정책문건 속의 “새로운 인간”에 대한 상상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실제 개혁과정을 심도 있게 고찰해야 볼 수 있다. 분량의 제한이 있어 여기서 전체 개혁과정과 그 결과를 전면적으로 소개할 수는 없지만, 상술한 문제에 근거하여 대표적인 안건 전개를 선택하여 분석하고 논의하겠다. 그것은 정보기술과 직접 상관되는 부분, 즉 기술 학습영역이다.

## 2.

“기술학습영역”은 이번 교육개혁에서 출현한 새로운 명명으로, 노동기술과 정보과학기술 두 부분의 학과가 공동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노동기술은 과거 중등과정에서도 줄곧 존재했던 내용이다. 비록 각 시기마다 노동기술류의 과정이 점유하는 비중이 다르고 중시되는 정도도 다르다고 하지만, 신중국 전체의 기초교육에서 노동기술은 학교교육을 배치할 때 노동기술과 사회생산 및 경제 발전 사이의 연관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입장을 대표했다. 예컨대 1978년 덩샤오핑은 「전국교육업무회의에서의 연설」에서 “교육 사업은 반드시 국민경제 발전 요구와 상호 적응하는 문제”라는 내용 아래 다음과 같이 명확히 말하고 있다.

사회주의건설 요구에 적합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 우리들은 새로운 조건에서 어떻게 교육과 생산노동의 상호 결합의 방침을 더욱 훌륭하게 관철해 나갈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연구해야만 한다. …… 현대 경제와 기술의 신속한 발전은 교육의 질과 효율의 신속한 제고를 요구하며,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에서 내용적·방법적으로 부단히 새로운 발전을 요구한다. 이 점에서 각급 각 부문의 학교는 학생이 어떠한 노동에 참가하고 어떻게 공장과 농촌으로 가며, 어느 정도 시간을 사용하고 어떻게 교학과 긴밀하게 결합하는지 이 모두를 합당하게 배치해야 한다.<sup>8</sup>

<sup>8</sup> 「전국교육업무회의에서의 연설(在全国教育工作会议上的讲话)」, □鄧小平文選□第2卷, 人民出版社, 1994,

이것은 말하자면 어떤 시기의 학교 교육이던 간에 모두 지식과 능력, 학습과 생산의 관계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점은 또한 교육과정의 배치 속에서 드러난다. 지식과 능력, 학습과 실천 사이의 분절/결합의 해결은 결코 정보화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정말 새로운 것은 현대 정보기술의 충격 속에서 학교교육은 장차 어떻게 노동, 정보기술과 현실 생활의 관계를 처리하는가의 문제이다.

분명 이 관계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조금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은 "기술학습영역"에서 매우 선명하게 드러난다. 정책제정자는 "기술학습영역"을 노동기술과 정보기술 두 과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노동기술을 정보기술보다 더욱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길 희망한다. 또한 □노동기술과제□에서 "교육과정내용은 전통기술을 현대기술을 향한 발전의 단서"로 삼아 학생들이 이러한 흐름에서 기초지식과 기본능력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술에 대한 이해를 중시**(필자 강조) 하도록 하고자 한다.<sup>9</sup> 하지만 실제 형성된 교육과정과 이러한 규정 사이에는 다소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노동기술"과 "정보기술"은 현대생활 에서 한쪽이 사라지고 한 쪽이 발전하는 형세인 것은 분명하다.

□개발강요□<sup>10</sup> 규정의 기능류 교육과정:

도면 파악 및 기계조립, 전자기술, 촬영기술, 영양과 식품 위생, 직업기술(서기와 비서, 재무와 회계, 공업, 농업, 상업, 의료 업무 유형의 기본 직업적 기술), 과학기술(실험 설계, 분석과 조작기술, 과학기술제작기술, 정보기술), 로봇 제작과 개발, 가전제품 정비기초 ……

학교가 실제 개발한 기술학습영역:

S 중·고등학교-- 로봇제작초급, 전자지도제작, 영상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 동영상, 홈페이지 프로그래밍, 홈페이지 제작고급, 인터넷 기술과 도덕, 웹진 제작, VB 프로그램설계, 알고리즘과 데이터구조;

L 중·고등학교-- 지능로봇제작, 두뇌 올림픽 창조력, 전자 작품 제작, 디지털촬영 및 사진, 컴퓨터 프로그래밍설계, 홈페이지 제작, 동영상제작과 창의설계, TV 기술과 현대 미디어 지능교통시스템(ITS)

<sup>9</sup> 상하이시 교육위원회: □상하이시 초중학교

정보기술교육과정표준(上海市中小学信息技术课程标准(试行稿)□, 上海教育出版社, 2004, pp29

<sup>10</sup> □상하이시 개발형 교육과정 지도강요(上海市拓展型课程指导纲要(征求意见稿))□는 상하이시 교육위원회가 기초한 개발형 교육과정 규정 문건이다.

J 중·고등학교--- 계산기와 응용, Flash 동영상제작, Dreamweaver 홈페이지제작, Turbo Pascal 프로그램설계, C++언어 및 프로그램설계, VB6.0 프로그래밍, VBScript 프로그램 지침, Photoshop 소프트웨어 응용, 가상현실 모델링 언어 VRML 입문, 흑백목각, 실내장식설계와 시공, 로봇, IT 그래픽 계산기 사용과 연구<sup>11</sup>

□개발강요□의 요구에서 정보기술은 수많은 기술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러나 학교가 실제 개발하는 기능류 교육과정은 오히려 각종 프로그램 설계와 인터넷 기술로 가득하다. 정책제정자의 희망, 즉 노동기술과 정보기술을 구분하여 기술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희망은 자연스럽게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 실제 기능류 교육과정에서 “정보기술”은 거의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술”의 대명사가 되어버리며, 이로 인해 형성되는 “노동”에 대한 이해 또한 이러한 종류의 “기술”이 장악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D 중등학교<sup>12</sup>의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문건의 규정을 대비해 보면 보다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종류	과목(모듈)
문화, 역사	문화 뿌리 찾기, 중외 명절의 기원 및 그 문화, 상하이 여행문화, 영미문화의 배경지식 소개, 중국 고대 한자와 문화, 중국과 서양의 문화 독해, 중국고대철학, □주역(周易)□의 이해, 진용(金庸) 작품 감상과 분석
연극, 영상, 예술	사회자, 말과 글 교과 연극공연, 영어 교과 연극공연, 영화 더빙(영어), 호극(滬劇, 상하이 지방극) 예술의 매력의 감상, 연극과 합창으로 움직여보기
학과, 종합, 기능	화학학습의 기술과 방법, 수학모델링, 수학사상방법과 수학사, 지역생태문제와 자연재해, 여와(女媧)의 하늘보수--오존층 공동화 문제, 화학마술, 생명과학의 개척, 영어 소 기자반, 화학과 사회, 물리개발과
활동, 체육, 심리	홈페이지 제작, Flash 제작, 수공활동과(전지(剪紙)), 수공 예술 제

<sup>11</sup> 이 자료는 세 곳의 시범 고등학교의 보고에서 나왔다.

《以校为本的拓展型课程建设》、《开发拓展型课程的实践与思考》、《让课程满足不同学生的发展需求》, 上海中小学课程教材改革委员会办公室(编) □拓展型课程实践研究与探索□, 上海教育出版社, 2005. 시범 고등학교는 상하이시교육부가 교학의 질이 우수하고 진학률이 높은 학교로 선정한 학교이며, 대량의 교육 자원이 투입되는 우수한 고등학교이다.

<sup>12</sup> S중고등학교, L중고등학교, J 중고등학교와 같은 시범고등학교와 달리, D중고등학교는 상하이시의 일반 고등학교이다. 보통 일반 고등학교는 학생자원, 교학의 질에서도 비교적 차이가 있으며, 학교 재정 부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 학생은 이러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명문대학 진학의 기회도 훨씬 작다.

	작(스타킹꽃), 농구동아리활동과, 캠퍼스 즐거운 축구, 에어로빅, 마음과 행동(집단지도)
--	---

<표: D 중고등학교가 직접 제공했다.<sup>13</sup>>

시범 고등학교인 J 중고등학교에게 있어 노동기술과 정보기술은 한 쪽이 사라지고 한 쪽이 발전하는 형세, 즉 “정보기술”이 “노동기술”을 전면적으로 덮고 있는 국면이라면, 일반 고등학교인 D 중고등학교의 기술학습영역은 “한 쪽은 사라지고 다른 한쪽은 발전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D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표를 보면 엄격한 의미에서 기능류의 교육과정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유사해 보이는 교육과정은 “활동, 체육, 심리”라는 분류 속에 섞여 있다. 여기에는 “홈페이지제작, Flash 제작”과 “전지(剪紙)와 스타킹꽃” 류의 교육과정이 있지만 “노동기술”과 “정보기술”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분명히 학교의 전체 개발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D 중고등학교가 개발한 새로운 교육과정은 시범 고등학교의 풍부함과 다양함에 미치지 못한다. “기술학습영역”의 교육과정은 실제 개발 상황과 관련 규정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크다. D 중고등학교의 교장은 그들 학교의 교육과정 선택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 기 교육과정개혁”은 체험을 매우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의 큰 전제는 창조 능력이기 때문이다. …… 우리 학교는 이전 “1 기 교육과정개혁” 때는 상당히 번성했었다. 그때는 재봉, 자전거 수리와 같은 과정을 개설했다. 97년에는 상하이시 현장 회의도 열었었다. 우리 학교는 그때 50 대의 재봉틀을 구입했었지만 지금은 모두 처리해 버렸다. 내 생각에 현재 이러한 기술은 이미 필요가 없다. 그러나 꽃꽂이, 뜨개질, 전지 공예와 같은 기예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민속 공예이며 학생들의 체험에도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는 덕육이 있고 미와 미적 생활을 체험할 수 있고, 그밖에도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예가 자라날 수 있다. …… 당시에는 재봉틀을 쓰고 잘 했지만, 이후에는 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아깝다 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처리해 버렸다. 이러한 선별의 요구는 첫째는 국가의 대강과 학교경영의 방침에 부합하고, 둘째는 시의 관련 문건과 “2 기 교육과정개혁”의 요구와 口兩綱口에 부합하며, 셋째는 학교의 문화적 품위와 브랜드 문화를 향상시킨다. 만약 여전히 재봉틀 하고 냉장고를 수리하고 자전거를 수리한다면, 그것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직접 거리에 나가 차를 수리하는 것에 다름 아닌지, 그것은 다른 문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직업기술학교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불필요하다. 우리 학교는 고등학교학생이고, 우리는 그들의 시야를 넓히고 어떻게 그들의 능력을 향상하여 이후 도움이 되게 하는가를 모색하고 있다.<sup>14</sup>

<sup>13</sup> 현장관찰노트, 2006년 6월 27일

<sup>14</sup> 인터뷰 기록, 2006년 5월 10일, 대상은 D중학교 교장이다.

D 중고등학교 교장의 이러한 해석에서 몇 가지 사실이 도출된다. 먼저 D 중학은 본래 노동기술류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당히 번성”했었지만 “2기 교육과정개혁”에 따르면서 학교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을 없앴다는 점이다. 다음, 이러한 교육과정이 사라진 원인은 학교가 “기술”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고등학교의 기술류 교육과정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이 사라진 실체는 바로 “만약 여전히 재봉틀을 쓰고 냉장고를 고치고 자전거를 고친다면, 그것이 우리 학교의 학생이 직접 거리에서 차를 고치는 것에 해당 되는지, 그것은 다른 문제이다”라는 점에 있다. 분명 노동기술류의 교육과정이 사라진 이유는 이러한 기능이 현실생활에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sup>15</sup>, 그것들이 충분히 “문화”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동기술류의 교육과정을 대신하는 “꽃꽂이, 뜨개질, 전지공예”는 일종의 노동기능이라기 보다는 여가 생활 방식이라 하는 편이 낫다. 여기에 포함된 “문화”와 자전거수리의 “문화”의 불충분함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문화”를 늘려서 저 “문화”의 결핍을 결코 메울 수 없다.

만약 정보화 사회가 가져온 것이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 민감성이라 한다면, 그렇다면 현실의 느낌으로 볼 때 일반학교인 D 중고등학교와 시범고등학교 J 중고등학교 사이에는 별로 큰 격차가 없다. 그들은 모두 다양한 기술학습영역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길 희망하며, 학생들이 더 많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그들의 교육과정의 자원과 잠재적인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능류의 교육과정의 개설 상황에는 매우 큰 차이가 생긴다. 시범고등학교인 J 중고등학교의 기술학습영역의 교육과정은 강력한 기계를 방불케 하는데,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당대 생활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능을 복제하고 전달하여 학생들이 이 진지의 최전방의 기술 언어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일반 중고등학교인 D 중고등학교의 처지는 곤란한 상태를 면할 수가 없다. 그들에게 있어 전통적 노동기술은 “창조정신”과 “실천능력”의 배양이라는 교육과정개혁의 요구 아래 자연스럽게 “평가절하”되고, 기존의 교육과정도 요구에 적합하지 않아 능동적 혹은 수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그것을 대체하여 학생에게 새로운 기술의 배양과 실천훈련을 전개할 교육과정은 늦도록 출현하지를 않는다. 이를 대신하는 것은 오히려 유행하는 여가 생활의 방식, 예를 들면 다도, 꽃꽂이, 요가, 뜨개질, 십자수 등이다. 그것들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기능”으로 여겨져 교실에 쏟아져 들어온다.<sup>16</sup> 이러한 생활 체험류의

<sup>15</sup> 분명, 정보화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전거, 냉장고를 수리하는 기술이 필요 한가 아닌가의 여부는 진지하게 토론해볼 문제로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 기본 노동은 어떠한 사회의 운용에서도 모두 필요하다. 에어컨 설치, 청소 위생 등등이 그렇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이러한 노동에 대한 사회의 평가와 반응은 점점 낮아져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점점 줄고 있다. 최근 몇 년, 중국의 매체에서는 “10년 뒤 누가 우리들의 에어컨을 달아줄 것인가”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sup>16</sup> 여가 생활 방식이 교육과정에 들어온 것은 결코 상하이 “2차 교육과정개혁”의 특수한 예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의 시산(锡山) 고등학교에서는 본래 개설한 “자전거수리”, “취업지도”가 학생들에 의해 별 문제 없이 빠졌고, 꽃꽂이, 낚시 등이 교육과정에 들어갔다. 그 가운데 “낚시 기술과 실천”

교육과정은 시범 고등학교에서는 금상첨화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정보 기술류의 교육과정과 나란히 놓여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기술류의 교육과정이 결핍된 상태에서 불가피한 대용품으로 선택되고 있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일련의 중등교육에서의 “노동” “기술” 및 “현실생활”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함께 구성해야 한다.

### 3.

표면적으로 보면 앞서 말한 교육개혁과정에서 출현한 문제는 디지털화에 의해 생겨난 커다란 균열이다. 대다수의 상황에서 정보와 인터넷 기술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의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보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간극과 빈곤 속에 위치시킨다. 이것은 또한 점점 더 많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개혁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이러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의도는 이전에도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sup>17</sup>, 정보화 사회 속에서 창조력을 갖춘 주체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개혁 그 자체의 논리로 볼 때 토론이 필요한 문제는 이처럼 커다란 대가를 치르는 상황(학교 교육에서 불평등이 끊임없이 증가하며 사회 모순이 이로 인해 급격히 증가)에서<sup>18</sup> “새로운 인간”을 부르짖는(설령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 해도) 방법은 성공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혹은 구체적인 학교 교육과정에서 “창조”와 “기술”을 더욱 현실적으로 정의할 때 최종으로 양성하는 창신 능력이란 어떠한 능력을 말하는 것인가 질문한다.

우선, 개발 능력의 격차로 인하여 J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D 중고등학교보다도 훨씬 우수하게 기술류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가 더 많은 정보기술류의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더욱 새로운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습하도록 한다고 해서 창조능력의 양성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는 것일까?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만약 새로운 교육과정이 단지 신기술 혹은 상이한 종류의 지식의 교수와 학습에 대한 것이라면, 이러한 지식 획득의

개설의 이유는 “목표는 여가 기능을 지향하는 것으로 현대인의 고상한 여가 방식”이라고 했다. 「개성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자라난다」□中國教育報□, 2001.10.12

<sup>17</sup> 벤자민 레빈(Benjamin Levin)은 변혁적 경제이론이 전지구적 교육개혁의 흐름 속에서 통치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개혁의 요구는 종종 경제를 기초로 하며 노동력의 배양과 타국과의 경쟁을 목표로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교육개혁의 중요한 이론 기초는 사회의 유통과 개인 복리를 위한 개혁이었으나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Benjamin Levin, 项贤明、洪成文 譯, □教育改革-从启动到成果□, 教育科學出版社, 2005, pp13-15. 중국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착안점은 이와 같다. 전체 교육개혁과정에서 정부의 자금 투입뿐만 아니라 정책 편중의 방향은 기존 교육자원 속의 불평등의 방식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면서 개혁의 추진을 가속화 하고 있다.

<sup>18</sup> 최근 십 년 학교와 부모 사이의 관계는 날이 긴장관계이며, 뿐만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의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 상해 등의 사건이 부단히 생겨난다. 2013 년 상반기 미디어는 4,5 건의 캠퍼스 내 상해 및 살인 사건을 보도하였다.

방식은 여전히 공업화 대생산에 적합한 구 모델이며 따라서 “학습방법을 배운다”는 새로운 모델로 전화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학습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기술과 지식을 장악한 이후 의미 있는 성찰을 전개하는 것을 말하며 창조는 이러한 성찰을 기초로 생겨나는 것이다. 기든스는 성찰을 현대성의 기본적 특질로 보았다. 현대의 진행 과정에서 상이한 유형의 성찰 방법, 혹은 성찰이 의거하는 상이한 시각이 각 시기 사회주체의 사고와 창조의 기본적 특징을 형성했다. 사회주의 시기가 양성하고자 했던 “새로운 인간”을 보면 성찰의 시선은 세계혁명이라는 이 총체적인 목표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제 3 세계와 제 1 세계의 대립은 성찰의 기본 동력을 구성했다. 그러나 80, 90년대 중국 청년들은 안으로는 “자아”를 탐구하고 밖으로는 “아름다운 일상생활”을 추구하며 성찰의 기본 방법을 구성했다. 창조와 반항도 종종 이러한 경로에서 생겨난 것이다. “새로운 인간”을 부르짖는 교육과정개혁은 새로운 정보기술 지식을 제공할 뿐, 성찰의 새로운 유형은 결코 저절로 세워질 수가 없다. 나아가 질문해야 할 것은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학생들에게 성찰과 창조의 총체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가이다.

분명 이러한 이해는 현실 생활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비켜갈 수가 없다. 즉 D 중고등학교가 노동기능의 교육과정을 없었던 점은 J 중고등학교가 부단히 새로운 정보기술 교육과정을 증가시켰던 것 보다 더욱 의미심장하다. 자전거수리 교육과정을 없었던 것을 예로 들어보자. 지난 세기 70년대 초, 미디어 정치경제학자 달라스 스마이드(Dallas Smythe)는 일찍이 중국의 이데올로기, 과학기술과 발전의 길에 대해 고찰했다. 그는 당시 중국의 정책 부문과 학자들이 모두 과학기술과 공예를 자치적·비정치화로 이해했음을 발견했다. 그렇지만 그가 보기에 “프롤레타리아트정치”는 과학기술혁신과 경제생산 영역에서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자본주의적 소비관계를 거절해야만 하며 중국적 사회주의는 그래야 비로소 성공 가능한 것이었다. 귀국 이후 그는 「자전거 그 이후는 무엇인가?」라는 한편의 보고서를 쓰면서 이 문제를 토론했다.

현재 중국은 민중들에게 음식, 의복, 주거,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긴박한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이러한 단계로 들어갔다. 이 때 공산주의에 매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것, 즉 “자전거 그 이후는 무엇인가”의 답은 반드시 공공 상품과 서비스이지 개인의 사적 사용의 상품과 서비스는 아니다. 창조적 인재와 자원분배는 모든 사람들이 즐겨보고 듣고 또한 교육적 의의가 있는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한다. 예를 들면 공원, 박물관, 과학, 교육, 도서관, 야생동물보호구역, 건축과 기타 각종 예술 형식(양방향 유선 텔레비전을 포함)이 그러하며,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목표는 바로 매우 유효하고 직접적으로 달성된다.<sup>19</sup>

<sup>19</sup> 자오웨이즈(赵月枝)의 「핸드폰 그 이후는 무엇인가? 중국의 “디지털혁명”의 사회 층면의

재인식(手机之后, 是什么? 中国“数字革命”的社会层面再认识) □传播与社会: 政治经济与文化分析 □, 中国传媒大学出版社, 2011, pp244 에서 재인용.

흥미로운 것은 몇 년 뒤 “정보시대 삼부작”의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도 그의 중국 독자들에게 “자전거”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3월 □북경청년보(北京青年報)□의 인터뷰에서 그는 정보화 사회에서 “중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중국인은 “제발 자전거를 버리면 안된다”고 하면서, 중국은 고속도로를 통해 도시를 발전시킨 서구의 잘못된 길을 다시 걸어가지 말라 경고했다.<sup>20</sup> 카스텔의 건의는 스마이드의 논의와 비교해 보면 소극적이지만, 자전거는 이들이 보기에 모두 사라질 물건이 아니라 중국인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이 두 학자의 “자전거”에 대한 성찰과 이번 개혁 속에서 교육과정개혁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자전거를 없애버린 현실을 비교해 보면, 물건과 기능은 그 자체에는 선진·후진의 구분이 없고 단지 상이한 총체적 시야 속에 놓여 사고·판단되고 더욱 새롭게 창조되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스마이드나 카스텔의 사고 방법이 전체 자본주의발전 방향에 대한 비판이라 한다면, 그렇다면 중국의 교육과정개혁의 총체적 시야는 바로 정보화 사회가 중국에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추구하는 “아름다운 신세계”에 의해 구성된다. 바로 이 “아름다운 신세계” 속에서 정보기술은 최고 권력의 지위를 획득하고, “자전거”로 대표되는 기술과 생활방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 급히 없애버려야만 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설령 개혁문건이 자신을 “사회주의적 새로운 인간”의 계승으로 꾸미고 있다하더라도, 전체 사회주의의 시야는 이미 정보화 사회의 “아름다운 신세계”로 완전히 대체되어 아무런 지도적 의의가 없다. 둘째, “아름다운 신세계”가 제공하는 “사회현실”은 결코 오늘날 중국의 실제 생활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거대한 불안, 소비주의에 대한 부적응이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큰 의미에서 그것은 카스텔이 말한 정보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현실적 가상성의 문화(a culture of real virtuality)”<sup>21</sup>의 발체이며, 사회생활을 어떻게 상상적으로 해석하는가의 문제이다. 바로 이러한 상상 속에서 사람들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자전거를 없애버리며 또한 어떤 구체적 노동을 생략해 버린다. 모든 것은 기술에 의해 해결되며 창조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는 오로지 이윤 생산에 적합한 요구에만 따른다. 이렇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국가가 지도하는 학교 교육의 의

<sup>20</sup> □가상세계 철학자 대담, 정보 시대는 어떻게 생활을 바꾸는가(虚拟世界哲学家畅谈信息时代如何改变生活)□, <http://www.people.com.cn/GB/guojia/25/95/20020311/684205.html>. 그러나 이러한 경고는 별로 소용이 없다. 오늘날 중국의 크고 작은 도시에는 이미 차가 가득하고 교통정체는 이미 심각한 도시의 병이 되고 있다. 동시에 도시의 공기도 끊임없이 악화되고 있어서 자전거를 도보 수단으로 삼는 것도 점점 더 곤란해지고 있다.

<sup>21</sup> 카스텔은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에서 네트워크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인터넷을 통해 실제적 가상성의 문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새로운 미디어의 방식, 사회네트워크의 구성 형식 등등 이 모두가 바로 실제적 가상성의 문화가 점점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사회 현실에 개입한다고 말하고 있다.

도와 인터넷이 만들어낸 “가상문화”가 학생에 대한 지도권을 쟁탈하고자 건전한 경쟁을 전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교육은 교육개혁을 통해 철저하게 “가상적 현실의 문화” 속에 흡수되어 규모와 시스템이 가장 큰 상상적 문화를 재생산하는 토양이 되어 버린다. 개혁이 추구하는 창조정신과 실천능력도 이 토양 속에서 제한되고 축진되는 것이다.

#### 4.

따라서 스마이드의 문제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인간”을 부르짖는 이러한 교육과정개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보기술의 그 이후는 무엇인가?” 만약 창조가 이러한 질문을 포함하고 기대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개혁에 의해 불러 나오는 “새로운 인간”은 심각하게 기술(技術)에 의존하며 상술한 현실적 가상성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세대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그들에게 기술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다. 이러한 방면은 거의 절대 다수 학생의 실천과 연구가 모두 과학기술 범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sup>22</sup>

상하이의 오래된 집이 젊음의 활기를 분출하다-쉬후이(徐匯)구 오래된 건축의 현황, 보존가치와 방법  
 완리(萬里), 전루(眞如) 지역 현황 조사(최종 연구의 중점은 전루 지역의 상업조사)  
 몸에 시(詩)와 서(書)가 있으면 기(氣)는 저절로 빛난다- 독서활동과 학습능력의 배양  
 쉬후이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상하이 근대 건축의 변화-- 상하이의 서구 건축의 발전 및 영향  
 환경오염이 생물에 미친 영향  
 화학 창신 클럽  
 시멘트 28 일 강도 예측에 관하여  
 수소의 연소 속 연소 실험  
 광신루 철도 건물목 철로 개조 연구  
 자딩(嘉定)- 사랑스러운 집  
 도시의 계절과 기후에 따른 공기 청정도 연구<sup>23</sup>

<sup>22</sup> 张民生(主编), □普通高中研究性学习案例(第一辑) □, 上海科技教育出版社, 2001; 上海市教委教研室(编), □高中研究型课程实施案例选编 □, 上海科技教育出版社, 2000; 王厥轩(主编), □高中研究型课程案例 100 例 □, 上海科技教育出版社, 2003

<sup>23</sup> 张民生(主编), □普通高中研究性学习案例(第一辑) □, 上海科技教育出版社, 2001

설령 사회현상이나 사회문제라 해도 학생들은 결국 기술의 각도에 치우쳐 연구를 해 나가고 해결의 방안을 찾는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기술과 지식에 대한 의존은 정보화 사회에 어울릴만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신념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 오히려 이와 달리 생산되는 것은 사회의 분업과 전문 노동에 대한 딱딱한 이해이며, 또한 현실사회의 사회계층에 대한 고정된 생각이다. 「상하이 중고등학교 개발교육과정의 난이도 대학을 따라잡다」라는 보도는 따르면, “2 회 졸업한 과학기술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전문 교육과정, 수행 과제와 그들이 진학한 전공영역선택의 적합도가 95%를 넘는다”고 한다.<sup>24</sup> 그러나 최근 필자가 대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sup>25</sup> 대부분 모든 학생들은 기존의 전문 혹은 노동 분업에 따라서 사회 구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요리사, 농민, 관리사, 경찰, 변호사, 정신과 의사, 환경미화원 혹은 경제학자 사이의 상호 학습과 겸임의 가능성은 극히 미약하며 설령 사회의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생각은 전문지식과 “무엇이 좋은 현대 생활인가”에 대한 그들의 이해방식으로부터 야기된다. 이러한 주체에게 있어 정보화 사회의 탄력적 근로 혹은 노동의 유연성은 아름다운 생활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으로 증명한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탄력적 근로의 요구에 따라 비록 중국사회에서의 유동성과 선택성이 이미 신자유주의와 주류 미디어에 의해 적극적 의의 가치를 지닌다 할지라도<sup>26</sup>, 그러나 교육과정개혁이 제공한 “아름다운 신세계”가 배양해 낸 “90 이후 출생 세대(90 후)” 그들의 사회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유동적 가치를 체현하지 않는다. 오히려 딱딱한 사회분업, 고정적인 직업분류와 등급 관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유동하지 않는 상태를 꼭 움켜잡고 있다. 이는 분명 중국의 주류 미디어가 성급하게 누리고 긍정했던 새로운 가치와 선명하게 대비된다. 어떤 학생은 글에서 그들 세대의 굳은 상태를 이렇게 사고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굳은 사고를 지니고 있는가,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운 뒤에는 꼭 번역가 아니면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가, 오직 선생님이란 이 직업만을 선택해야 하는가? 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들의 유동의 공간은 점점 더 작아지는 것 아닌가?”

이러한 선명한 대비는 아마 학교교육이 취한 “현실적 가상성의 문화”가 사회현실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취약함에 직면하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함께 누릴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에서는 비록 정보기술과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 해도 사람들이 이 신세계가 잉태하는 가치관

<sup>24</sup> 「上海中学拓展课难度追上大学」, □东方早报□ 2013年3月28日 大都会版, [http://epaper.dfdaily.com/dfzb/html/2013-03/28/content\\_751970.htm](http://epaper.dfdaily.com/dfzb/html/2013-03/28/content_751970.htm).

<sup>25</sup> 이 조사는 1 차 교육과정에 기본을 둔 조사이다. 학생들과 토론했던 문제는 다음과 같다. “2012년 만약 진짜 세계의 종말이 온다면 당신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 탈 정원의 분배 방안은 어떤 것인가” 결과는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모두 사회의 분업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분배 방안을 구상했다.

<sup>26</sup> 이것은 미디어가 “전업(해고사장)”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로 도망하는 등의 유동성에 대한 각종 토론과 격려이기도 하며, 또한 대학과 중고등학교의 끊임없는 개혁이 자유 선택의 마트화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과 노동관을 당연하게 체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밀레니엄의 종언□에서 카스텔은 정보사회 속 두 가지 상이한 노동력을 냉정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정보자본주의 이 새로운 생산시스템에서 노동은 교육받은 능력에 따라 장차 일반노동(generic labor)과 자기계획가능 노동(self-programmable) 두 가지로 나뉜다.

적절한 조직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산과정의 업무에 맞추어 그/그녀 자신을 재프로그램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반 노동은 재프로그램의 역량이 없이 이미 정해진 임무를 할당받고, 신호를 받아 실행하는 능력 이상의 정보와 지식의 구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러한 “인간 단자”는 기계에 의해 대체되거나 혹은 기업의 결정에 따라 도시, 국가 혹은 세계를 근거로 어느 다른 기관으로 대체된다.<sup>27</sup>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교육과정개혁이 부르짖는 것은 분명 후자의 노동력이다. 그러나 목전의 결과를 보면, 양성해 낸 “새로운 인간”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느끼는 것은 머지않아 제 일류의 노동력이 되는 것의 깊은 좌절과 두려움이다. 이것은 또한 그들이 다루는 사회구성, 사회분업 및 사회 관리 방식의 출발점이다.

여기서 이 취약한 “현실적 가상성의 문화”는 분명 청년들이 새로운 성찰과 창조를 전개시키는 데 견실한 기초를 마련하지 못한다. 대다수의 상황에서 그것은 기술의 운용과 창조에서 방향을 잃게 되며 기존의 정보화 사회를 따라가며 모방하기에 이른다. 바로 이 점에서 창조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 교육과정개혁은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교육과정개혁이 부르짖던 창조는 기존의 명확하지 않은 “아름다운 신세계”의 방식을 모방함으로써 생겨난다. 결코 모방의 과정이 창조를 잉태한다고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교육과정개혁이 지식에서 창조로의 “아슬아슬한 도약”을 희망할 때는 실제로는 자신을 향해 더욱 철저한 문제를 제출해야만 한다. 도대체 정보화 사회가 가져올 이 “아름다운 신세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새로운 성찰과 창조의 총체적인 현실을 구성하는가? 기대되는 미래의 세계 속에서 노동, 정보기술과 현실생활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발전 모델을 이어받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 사유는 나아가 어떠한 창조가 사회에 의미가 있는지 규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분명, 교육과정개혁에서는 이러한 질문과 사유가 확실히 결여되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교육과정의 설치는 정보화 사회의 빠른 속도에 발맞추어 현재의 기술과 지식을 그 생산과 운용의 현실 환경에서 뽑아내 버린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신속한” 개발은 모두 교육과정개혁이 상술한 문제에 대해 사고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덮어 버릴 수 있으며, 학교의 사회현상을 직접 복제하는

<sup>27</sup> 마누엘 카스텔, □밀레니엄의 종언(千年终结)□,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3, pp409.

능력을 창조적 능력을 배양하는 토양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폴라니는 일찍이 자유주의가 야기한 것은 경제가 부단히 사회에서 이탈되는(disembedded, 脱嵌) 과정이라고 지적하는데, 그렇다면 정보화 사회에서 중국정부가 주도하는 교육개혁이 실제 전개한 것은 바로 지식의 재생산 영역에서의 "이탈(disembedded)"이다. 그 결과 중국정부의 교육과정개혁은 일종의 기괴한 순환에 빠지게 된다. 자기계획가능의 노동력의 배양을 목표로 하는 개혁은 최종적으로는 탄력이 떨어지고 유동에 대해 신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성도 결핍된 "새로운 인간"을 불러내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역사는 마치 중국과 기이한 농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주의 시기 "새로운 인간"을 부르짖는 것은 명확한 정치적 방향과 목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과학기술" "창조" 등 개념의 이해에 소홀하여 진정으로 견지할 방향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개혁 개방 이후 세계와 만나려는 열정으로 "시장" "과학기술" "창조" 등의 개념을 아낌없이 품었지만 "새로운 인간"의 부르짖음은 철저히 그 방향을 잃어버렸다. 폴라니의 이해에서 보면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은 경제의 "이탈"과 서로 짝을 이루는 사회의 진화발전의 방식이다. 그렇다면 후발 국가는 정보화 사회에 직면할 때, 지식재생산 영역에서 출현하는 "이탈"에 대해 핵심을 찌르는 사회 보호운동을 전개하거나 혹은 방향을 모색하고 "창조"의 새로운 노선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번역: 천진 (서울대 강사)**

---

## 呼唤“新人”：课程改革与信息技术教育

罗小茗（副研究员）/ 上海大学文化研究系

---

在中国人的词汇表中，“新人”是一个有着特殊意义的词汇。它指1949年之后，新中国企图通过学校教育和广泛的社会教育，培养具有全新的革命意识和社会想象的社会主义革命接班人。这样的人被称为“新人”，而培养此种“新人”的目标，也非常明确，那就是改造旧世界，创造新社会。随着社会主义目标的日渐远去，这一提法成为了历史，只在政策文件中偶尔露面。不过，如果把这种现代国家和学校教育之间的关联，放在追求现代的历史进程中去看待，便会发现，这种国家通过学校教育塑造“新人”，进而改变社会面貌和国家竞争力的做法，从来都是现代国家不可回避的任务。因此，对中国而言，呼唤“新人”的任务，并不因为主义的悄然退场而自动消散。相反，和其他国家一样，能否在新一轮信息资本主义的竞争中，及时重构国民的学习能力和产业结构，搭上全球经济的快车，而不是被抛到窗外，构成了中国政府推动教育改革的动力。

本文考察的便是中国政府在信息化经济的压力之下，积极改革中学课程，企图塑造一种完全不同种类的“新人”的做法和结果。到目前为止，这一塑造很难说是成功的。<sup>28</sup> 文章企图分析其中的原因，以及由此揭示的信息化经济带来的后发国家和知识创新之间关系的新问题。

—

从1996年开始，由中央政府颁布的一系列教育文件，越来越明确地提出了这一轮教育改革的新要求，即希望每一个学生在受教育的过程中获得主动性，学会“学习的方法”，发展创造能力和实践能力。其中，作为这一轮改革特区的上海<sup>29</sup>，其改革方案《上海市普通中小学课程方案（试行稿）》中的提法，就颇具代表性：

依托上海建设国际化大都市和数字化城市的教育环境，构建以德育为核心、以培养学生的创新精神和实践能力为重点、以完善学习方式为特征、以应用现代信息技术为标志，关注学生学习经历和促进每一位学生发展的课程体

---

<sup>28</sup> 2011年起，在中国教育界，对这一轮改革是成功还是失败的激烈争论开始出现。到目前为止，争论双方仍然各执一词，未有定论。

<sup>29</sup> 由于具有良好的师资条件、比较先进的教育理念和相对发达的物质条件，1988年，上海接受国家教委的委托，作为课程改革的特区，承担经济比较发达地区的中小学课程教材改革的研究和实验的任务，人称“一期课改”。1998年左右，与新一轮全国“课改”几乎同时启动的上海“二期课改”，延续了这一“课改”特区的模式。《上海市普通中小学课程方案（试行稿）》是上海“二期课改”的指导性文件。

系。<sup>30</sup>

这一规定明确给出了对“新人”的基本要求：德育、创新能力、实践能力、完善的学习方式以及现代信息技术。有趣的是，这一新规定并没有完全抛开过去，而是在“造就”“有理想、有道德、有文化、有纪律”<sup>31</sup>的“社会主义事业建设者和接班人”的提法之下，展开这一新的解释。同时，该《课程方案》指出，学生的创新能力和实践能力与“积极”的情感价值观有着内在联系；“积极”的涵义不仅在于树立健康向上的人生观，也是在信息化经济的条件下，积极响应社会需求的迅速变化和一般生存法则的巨大变动。更值得注意的是，《课程方案》从现代信息技术的角度，赋予了上述两种能力更为直接的定义：考虑到“信息技术在培养学生高级思维能力方面的作用”，应将“信息技术的作用”视为制定课程目标的重要因素。<sup>32</sup>

在这里，学习的自主性、积极的情感态度、价值观以及在信息技术之上形成的创新精神和实践能力，构成了这一轮改革对“学生的主体性”的详尽规定。而改革既有的课程结构和知识类型<sup>33</sup>，解决学习知识和创新之间的鸿沟，则成为培养这一主体的重要手段。一时之间，“学会学习”成为整场改革最简洁的口号。

这些改革的要求和做法，显然建立在对之前学校教育的判断之上，即认为此类教育日益脱离社会需求，导致学生只会学习死的知识，既难以创造也不会实践。这样的判断中隐藏着一个似是而非的前提，那就是知识和方法能够截然二分，人有可能只是掌握知识，而对方法一无所知。这样的前提自然并不存在。哪怕再枯燥乏味的知识，也不可能彻底驱逐方法上的思考和训练；反过来说，同样没有什么方法能够脱离具体的知识独立存在。<sup>34</sup>不过，正是这一看起来有些武断的判断，凸显了力主改革的政府的巨

---

<sup>30</sup>上海市教育委员会：《上海市普通中小学课程方案（试行稿）》，上海教育出版社2004年版，第1页。下文统一简称《课程方案》。

<sup>31</sup>一般人们把“有理想、有道德、有文化、有纪律”概括为“四有新人”。

<sup>32</sup>上海教育委员会：《关于加强课程与信息技术整合的指导意见（征求意见稿）》，《上海市普通中小学课程方案》，上海教育出版社2004年版，第44页。

<sup>33</sup>改革从课程功能的角度，区分出基础型、拓展型和研究型三种不同课程。其中，“基础型课程强调促进学生基本素质的形成和发展，体现国家对公民素质的最基本要求”；拓展型课程，“以培育学生的主体意识、完善学生的认知结构、提高学生自我规划和自主选择能力为宗旨”；而研究型课程是指“学生运用研究性学习方式，发现和提出问题、探究和解决问题，培养学生自主与创新精神、研究与实践能力、合作与发展意识的课程，是全体学生限定选择修习的课程。”同时，改革又依据不同的知识类型和学习方式，区分出“学习领域”、“科目”和“模块或主题”三种类型。其中，“学习领域”是“从内容间的相互联系和学习过程的共同特征为依据设置学习领域，以便从课程设计和课程实施两方面，为实现课程的均衡性、综合性、多样性创造条件。”<sup>33</sup>“科目”则包括20门知识类学科和诸如兴趣活动、社团活动、课题研究活动、社区服务、社会实践等课外活动和各类专题教育。“模块或主题”，指“各科目由内容相对独立且具有内在逻辑联系的模块或主题组成。一个模块可以包含若干主题。”在这些看起来多少有些叠床架屋的区分中，可以看到政策制订者对通过不同知识类型的课程安排完成从知识到创新的“惊险一跃”的强烈渴望。

<sup>34</sup>在《教育思想的演进》中，涂尔干通过对中世纪辩论训练的分析，充分说明了这一点。在今天看来毫无意义的“针尖上有几个天使”之类的问题，在当时的社会语境中是如何有效地训练了学生的逻辑思维和论辩能力。

大焦虑。那就是在来势凶猛的信息化经济面前，如何培养出符合此种经济发展需求的有主动性和有创造力的劳动者？如何将原本为配合大工业生产和社会流动而设置的学校教育，转变为既能提供创造性人才又同时为国家所掌控的新机构？

如果说每一次的教育改革不过如斯宾塞所言，是对“什么知识最有价值”的重新判定，那么，过去学校教育所养成的学习能力和方法因不适应新的形势，被径直视为“方法和能力的匮乏”。如果说，现代国家往往需要借助对学校教育的治理来调整自身、以便生存的话，那么，这一轮课程改革无疑是中国政府对信息化社会和由此展开的新的经济模式最为积极的呼应之一。在这一呼应之中，知识被笼统地区分为两类，既有的但无法带来效益的知识，和有待创造的能带来效益的知识。改革显然认为后者最有价值。它想要完成的，恰是要通过学校教育“无中生有”。

不过，这一以适应信息经济、积极参与全球竞争为明确目标的学校教育改革，能否如愿以偿？以创新经济为目标的新的知识分类法在学校教育的实践中，究竟会带来哪些变化？实际形成的又是一种什么样的知识状况？所有这些问题，显然都让人无法停留于政策文件中对“新人”的畅想，而是需要对实际的改革过程做深入的考察。篇幅所限，本文无法全面介绍整个改革过程及其结果，只根据上述问题，选择一个有代表性的个案展开分析和讨论。那就是和信息技术直接相关的部分：技术学习领域。

## 二

“技术学习领域”是本次改革中出现的一个新命名，由劳动技术和信息科技这两门学科共同组成。其中，劳动技术是过去的中学课程中一直就有的内容。尽管在各个时期劳动技术类课程所占的比重不同，受重视的程度也不同，不过，在整个新中国的基础教育中，它代表了国家在安排学校教育之时，对其和社会生产、乃至经济发展之间关联的基本看法。比如，1978年邓小平《在全国教育工作会议上的讲话》中，就在“教育事业必须同国民经济发展的要求相适应的问题”下明确地说：

为了培养社会主义建设需要的合格的人才，我们必须认真研究在新的条件下，如何更好地贯彻教育与生产劳动相结合的方针。……现代经济和技术的迅速发展，要求教育质量和教育效率的迅速提高，要求我们在教育与生产劳动结合的内容上、方法上不断有新的发展。要做到这一点，各级各类学校对学生参加什么样的劳动，怎样下厂下乡，花多少时间，怎样同教学密切结合，都要由恰当的安排。<sup>35</sup>

就此而言，无论是哪一时期的学校教育，都需要处理知识和能力、学习和生产之间关系，并在课程安排中体现这一点。解决知识和能力、学习和实践之间的脱节/连结，并不是信息化社会才有的新问题

---

<sup>35</sup> 《在全国教育工作会议上的讲话》，《邓小平文选（第二卷）》，人民出版社1994年版，第107页。

。在这里，真正新鲜的是，在现代信息技术的冲击之下，学校教育将如何处理劳动、信息技术和现实生活这一组关系。

显然，这一组关系在信息化社会中并非毫无冲突。这一点在“技术学习领域”表现得最为鲜明。尽管政策制定者明确将“技术学习领域”区分为劳动技术和信息技术这两种课程，希望将劳动技术定义为一个比信息技术更为广泛的概念，并在《劳动技术课标》中特别说明该“课程内容以传统技术向现代技术发展为线索，让学生在这条主线下不仅掌握基础知识和基本技能，同时重视对技术的理解（着重号为笔者所加）。”<sup>36</sup> 不过，实际形成的课程与此类规定间存在着不小的差异。“劳动技术”和“信息技术”在现实生活中此消彼长的趋势，显露无疑：

#### **《拓展纲要》<sup>37</sup>规定的技能类课程：**

识图与钳工、电子技术、摄录技术、营养与食品卫生、职业技术（文秘、财会、工业、农业、商业、医务类的基本职业技术）、科学技术（实验设计、分析与操作技术、科技制作技术、信息技术）、机器人制作与开发、家用电器维修基础……

#### **学校实际开发的技术学习领域：**

S中学——机器人制作初步、电子地图制作、影视制作、网页制作与动画、网页编程，网页制作高级，网络技术与道德，电子刊物制作，VB程序设计，算法与数据结构；

L中学——智能机器人制作、头脑奥林匹克创新思维、电子作品制作、数码摄影与摄像、电脑程序设计、网页制作、动画制作与创意设计、电视科技与现代传播、智能交通

#### **J中学——**

计算机与应用、Flash动画制作、Dreamweaver网页制作 Turbo Pascal程序设计、C++语言及其程序设计、VB6.0编程实践、VBScript编程指南、Photoshop软件的应用、虚拟现实构造语言VRML入门，

---

<sup>36</sup>上海市教育委员会：《上海市中小学信息技术课程标准（试行稿）》，上海教育出版社2004年版，第29页。

<sup>37</sup> 《上海市拓展型课程指导纲要（征求意见稿）》是由上海市教育委员会起草的规定拓展型课程的文件。

黑白木刻、室内装饰设计与施工、机器人，热工基础，TI图形计算器的使用与研究<sup>38</sup>

可以看到，尽管在《拓展纲要》的要求中，信息技术不过是诸多技术中的一种，不过，由学校实际开发的技能类课程，却被各种程序设计和网络技术所充斥。政策制定者的希望——区分劳动技术和信息技术，获取对技术更为宽泛的理解，也就自然落空。在实际的技能类课程里，“信息技术”几乎成为学校课程中“技术”的代名词，而由此形成的对“劳动”的理解也就往往建立在对此种“技术”的掌握之上。

如果将D中学<sup>39</sup>这样的普通高中的课程和文件中的规定做一个对比，则会发现更大的差异。

类别	科目（模块）
文化历史	文化寻根、中外节日寻源及其文化、上海旅游文化、英美文化背景知识简介、中国古代汉字与文化、中西方文化解读、中国古代哲学、《周易》知识浅谈、金庸作品赏析
戏剧、影视、艺术	主持人、语文课本剧表演、英语课本剧表演、电影配音（英语）、感受沪剧艺术的魅力、走进戏剧、合唱、动起来跳起来
学科、综合、技能	化学学习的技巧与方法、数学建模、数学思想方法和数学史、区域生态问题与自然灾害、女娲补天——臭氧层空洞问题、化学魔术、生命科学之拓展、英语小记者班、化学与社会、物理拓展课、
活动、体育、心理	网页制作、Flash制作、手工活动课（剪纸）、手工艺术制作（丝袜花）、高一篮球社团活动课、校园快乐足球、健美操、心动与行动（集体辅导）

表格一 来源：由D中学直接提供。<sup>40</sup>

如果说，对J中学这样的示范性高中而言，劳动技术和信息技术之间表现为一个此消彼长、“信息技术”全面覆盖“劳动技术”的局面，那么D中学这样的普通高中在技术学习领域则面临着一个“此消彼不长”的新状况。在D中学的课程表上，几乎找不到严格意义上的技能类课程，相类似的课程只被归拢在“活动、体育、心理”的大类中。其中，虽有“网页制作”、“Flash制作”、“剪纸”和“丝袜花”之类的课程，但它们

<sup>38</sup> 这些资料分别来自这三所示范性高中的报告：《以校为本的拓展型课程建设》、《开发拓展型课程的实践与思考》、《让课程满足不同学生的发展需求》，上海中小学课程教材改革委员会办公室（编）：《拓展型课程实践研究与探索》，上海教育出版社2005年版。示范性高中，是指由上海市教育部门确认为教学质量优秀、升学率高，并投入大量教育资源的优质高中学校。

<sup>39</sup> 不同于S中学、L中学、J中学这些示范性高中，D中学是一所上海市的普通高中。一般认为，普通高中存在生源差、教学质量较差、办学经费不足等诸多问题。学生在这样的学校就读，考上名牌大学的机会也要小得多。

<sup>40</sup> 田野笔记，2006年6月27日。

与“劳动技术”和“信息技术”课程要求仍相差甚远。显然，受学校整体开发能力的限制，D中学所能开发的新课程远不如示范性高中那样丰富多样；而“技术学习领域”的课程又是实际开发状况与相关规定相差最远的一个。D中学的校长，这样解释他们学校选择课程的原则：

“二期课改”非常强调体验，因为它的一个前提是创新能力。……我们学校以前在“一期课改”的时候搞得相当红火，当时开设了缝纫、修自行车一些课。97年的时候还来开过一个上海市现场会议。我们学校那个时候买了五十台缝纫机，现在都被我处理掉了，我觉得现在这些技艺已经没有必要了。但是像插花、编织、剪纸，这些技艺我觉得有必要开。因为这是中国传统民俗的技艺，这对学生体验有好处。因为里面可以有德育，可以体验到美啊，美化生活啊，另外还要体验到传统和文化认同。在这个过程中又可以增长技艺。……当时搞缝纫机，搞得很好，后来不弄了，他们说很可惜，我还是咬咬牙处理掉了。这个筛选的要求，一要符合国家大纲和办学方针，二要符合市里面有关文件和“二期课改”的要求和《两纲》，三要提高学校的文化品位品牌文化。如果老是搞缝纫机，修电冰箱、修自行车的话，那等于我们这个学校的学生就直接到路边去修车，那就两样了。这些课，技工学校职校可以搞，但是我们不需要。我们这里是高中学生，我主要是拓展他们的视野，如何提高他们的能力，以后对他们是有帮助的。<sup>41</sup>

D中学校长的这番解释，道出了这样几个事实：首先，在D中学，原来是有劳动技术类课程的，不仅有而且“相当红火”，不过随着“二期课改”的推行，校方主动把这些课程取消了。其次，取消这些课程的原因在于，学校敏锐地感觉到“技术”随着时代而变化，高中学校的技术类课程应该跟上这种变化。不过，取消这些课程的实际依据却是“如果老是搞缝纫机，修电冰箱、修自行车的话，那等于我们这个学校的学生就直接到路边去修车，那就两样了。”显然，劳动技术类课程之所以被取消，不是因为这样的技能是现实生活所不需要的<sup>42</sup>，而是因为它们不够有“文化”。最后，用来替代这些劳动技术类课程的“插花、编织、剪纸”，与其说是某一种劳动技能，不如说是一种生活休闲方式。其中蕴含的“文化”和修自行车的不够有“文化”显然不是一个意思。此“文化”的增益并不能弥补彼“文化”的不足。

如果说，信息化社会带来的是人们对“技术”的普遍敏感，那么单就这一现实感受而言，D中学这样的普通学校和J中学这一类的示范性高中之间，并没有太多的差别。他们都希望开设更多样的技术学习领域课程，让学生学到更多的新东西。但由于它们掌握的课程资源和调动潜在资源的能力不同，开设技能类课程的状况就有着很大的差异。J中学这一类示范性高中的技术学习领域的课程，仿佛一架强劲的

---

<sup>41</sup> 访谈纪录，2006年5月10日，对象：D中学校长。

<sup>42</sup> 显然，在信息化社会中，人们是否还需要修自行车、冰箱之类的技能，是一个需要认真讨论而非可以一笔带过的问题。一方面，基本劳动对任何社会的运行都必不可少，比如装空调、打扫卫生等等，但另一方面，在信息化社会中，对这些劳动的社会评价和回报则越来越低，愿意从事这一类工作的青年人自然越来越少。以至于近几年，在中国媒体上，已经出现了“10年后谁来给我们装空调”这样的担忧。

机器，随着信息化社会的节奏，源源不断地复制和传递着当代生活所需的最新技能，让学生了解到最为前沿的技术语言。而D中学这一类普通中学的处境，则不免有些尴尬。对他们来说，在培养“创新精神”和“实践能力”的改革要求之下，传统的劳动技术自然“贬值”，既有的课程也因不合要求，主动或被动地消失。而能够替代它，对学生展开新的技能培养和实践训练的课程却迟迟没有出现。取而代之的，倒是一些流行的生活休闲方式——比如茶道、插花、瑜伽、编织、十字绣之类；它们被视为宽泛意义上的“技能”涌入课堂。<sup>43</sup> 这些生活体验类课程，对示范性高中来说，是锦上添花；因为它们是与信息技术类课程并列的选择。对普通的高中学校来说，却成了技术类课程缺席后必不可少的代用品。所有这些综合到一起，共同构成这一轮中学教育对“劳动”、“技术”乃至“现实生活”的新定义。

### 三

表面上看来，上述改革中出现的问题是由数字化鸿沟带来的。在大多数情况下，信息和网络技术往往加大社会原有的不平等，将越来越多的人置于由信息技术带来的新一轮的区隔和贫困之中。这的确是越来越多普通高中的学生因本轮课改而面临的问题。不过，中国政府推动这一轮改革的意图，从来也不是消除社会不平等<sup>44</sup>，而是培养在信息化社会中具有创造力的主体。所以在这里，就改革的自身逻辑而言，更需要讨论的问题是，在付出了如此大的代价——学校教育中的不平等不断加剧以及社会矛盾由此激增<sup>45</sup>——的情况下，呼唤“新人”——哪怕只是一小部分人——的做法是否可能成功？或者说，当具体的学校教育过程更为现实地定义了“创造”和“技术”的时候，最终养成的创新能力是一种怎样的能力？

首先，由于开发能力上的差距，J中学能够为学生提供的技术类课程要远远优于D中学。不过，当学校增加越来越多的信息技术类课程，提供更为新颖的课程内容，供学生学习之时，是否也就达成培养其创新能力的目标？答案显然没有这样简单。因为如果新的课程只是对新的技术或不同种类的知识的教

---

<sup>43</sup>生活休闲方式进入课程，并非上海“二期课改”中特有的例子。根据报道，在江苏锡山边陲小镇上的锡山高级中学，原来开设的“自行车维修”“就业指导”被学生毫不客气地拿掉了，插花艺术、烹饪、钓鱼等进入课堂。其中，开设《垂钓技巧与实践》的理由之一是“目标是指向‘闲暇技能’，是现代人的高雅休闲方式”。《个性，在校本课程中生长》，《中国教育报》2001年10月12日。

<sup>44</sup> Benjamin Levin 指出，在这一轮全球性教育改革思潮中，关于变革的经济理论占据了统治地位，教育改革的需求往往以经济为基础，以培养劳动力和与别国竞争为目标。过去教育改革的重要理论基础——为了社会流动和个人福利而改革，已经不复存在。【加】 Benjamin Levin：《教育改革——从启动到成果》，项贤明、洪成文译，教育科学出版社2005年版，第13-15页。中国政府推动这一轮改革的着眼点也是如此。不仅如此，在整个改革过程中，无论是政府的资金投入还是政策偏重的方向，往往是以持续或进一步扩大既有的教育资源中的不平等的方式，加速推动改革。

<sup>45</sup> 近十年来，不仅学校和家长之间的关系日益紧张，而且学生因学习压力、就业压力等问题出现的自杀、伤害案件更是不断出现。仅2013年上半年，媒体就报道了4、5起校园内的伤害或杀人案件。

授和学习，那么这样一种获取知识的方式，很可能仍旧是与工业化大生产相配合的那一种旧模式，而并不必然转化为可以让人“学会学习”的新模式。所谓的“学会学习”，指的是在掌握了这些技术和知识之后展开有意义的反思，创造往往在反思的基础上得以发生。吉登斯将反思视为现代性的基本特质。在整个现代的进程之中，不同类型的反思路径，或反思所依赖的不同视野，则形成了各个时期的社会主体得以思考和创造的基本特征。对社会主义时期所欲培养的“新人”来说，反思的视野由世界革命这一整体性的目标所提供，第三世界和第一世界的对抗构成了反思的基本动力。而对80、90年代的中国青年来说，向内探求“自我”，向外追求“美好的日常生活”则构成了反思的基本路径；创造和反抗也往往在此路径中发生。因此，对于企图呼唤新一轮“新人”的课程改革而言，仅仅是提供新的信息技术的知识，并不能够天然地建立起反思的新类型。需要进一步质询的是，它究竟提供了怎样的供学生展开反思和创造的整体性理解。

显然，这一理解无法绕开对现实生活的理解和把握。就此而言，D中学取消劳动技能课程，比J中学不断增加新的信息技术课程显得更加意味深长。以被取消的修理自行车的课程为例。上世纪七十年代初，传播政治经济学学者达拉斯·斯迈思曾到中国考察意识形态、科技和发展道路的问题。他发现，当时中国的政策部门和学者们都把科技和工艺理解为自治的和非政治化的。然而在他看来，“无产阶级政治”必须是在科技革新和经济生产领域获得领导权，拒绝资本主义的消费关系，中国的社会主义才有可能成功。回国之后，他写了一篇名为《自行车之后，是什么？》的报告，来讨论这一问题：

现在中国已经解决了向民众提供食物、衣服、住房、医疗这些紧迫的问题，进入了这样一个阶段。在这个时候，大步迈进共产主义是有可能的。这一步的实现决定于对这个问题的回答——“自行车之后，是什么？”答案应该是公共商品和服务，而不是个人私下使用的商品和服务。将创造性人才和资源分配去生产和提供所有人都喜闻乐见并有教育意义的物品和服务，如公园、博物馆、科学、教育、图书馆、野生动物保护区、建筑和其他各种艺术形式（包括双向电视），“为人民服务”的目标便可以十分有效地直接达成。<sup>46</sup>

有意思的是，时隔多年，“信息时代三部曲”的作者曼纽尔·卡斯特也向他的中国读者谈到了“自行车”。2002年3月在接受《北京青年报》的采访，在回答信息化社会中“中国能够做什么”时，他告诫中国人“千万不要扔掉自行车”，不要再走西方通过高速公路发展城市的错误之路。<sup>47</sup>尽管较之于斯迈思的议论，卡

---

<sup>46</sup> 转引自赵月枝：《手机之后，是什么？中国“数字革命”的社会层面再认识》，《传播与社会：政治经济与文化分析》，中国传媒大学出版社2011年版，第244页。

<sup>47</sup> 《虚拟世界哲学家畅谈信息时代如何改变生活》，<http://www.people.com.cn/GB/guojij/25/95/20020311/684205.html>。不过，这一告诫显然没有什么用。今天中国的大小城市都已经车满为患，拥堵成为严重的城市病。与此同时，由于城市空气质量的不断恶化，想以自行车为代步工具也变得越来越困难。

斯特的建议要消极得多，但自行车在他们看来都不是行将消失的器物，而是值得中国人深思的问题。比较这两位学者对“自行车”的反思和该课程在本次改革中被不约而同取消的现实，则不难发现，器物和技能本身并没有先进后进之别，只有被置放在不同的整体视野之中，才能被思考、评判乃至更新和创造。如果说，对斯迈思和卡斯特而言，展开思考的路径是对整个资本主义发展方向的批判的话，那么构成这一轮课程改革的整体性视野的，恰恰是信息化社会这一对中国来说积极向往和谋求进入的“美丽新世界”。正是在这一“美丽新世界”之中，信息技术获得了至高无上的地位，而以“自行车”为代表的技术和生活方式则变得毫无用处，急需抹去。

在这里，值得注意的是两点。其一，尽管改革文件希望把自己装扮成对“社会主义新人”的续写，但整个社会主义的视野已经被信息化社会这个“美丽新世界”彻底替代，毫无指导意义。其二，由这一“美丽新世界”所提供的“社会现实”，并非今天中国人的生活实际；因为在这个实际中，显然存在着对社会不平等的巨大焦虑、对消费主义的不适应。更大程度上，它不过是对卡斯特所说的信息化社会中持续制造的“真实的虚拟文化”<sup>48</sup>的节选，是对社会生活应当如何的想象性解释。正是在这一想象之中，人们才可以不假思索地取消自行车，也可以忽略任何具体的劳动；一切都将由技术来解决，创新可以朝向任意方向发展，只要它合乎生产利润的要求。至此，表面上看来，由国家所指导的学校教育企图与由网络造成的“虚拟文化”展开良性竞争，争夺对学生的领导权。而实际上，学校教育则经由改革，被彻底吸纳进这一“虚拟的真实文化”之中，一跃成为最具规模和系统的再生产想象性文化的土壤。而改革所追求的创造精神和实践能力，也就在这一土壤中被界定和催生出来。

#### 四

于是，仿照斯迈思的问题，我们需要对这一轮呼唤“新人”的课程改革追问：“信息技术之后是什么？”倘若创新是这个问号所包含和期待的事务，那么不难发现，经由这一轮改革被呼唤出来的“新人”，成了严重依赖于技术、生活在上述真实的虚拟文化中的一代人。对他们来说，技术成为解决社会问题的首要法宝。这一方面表现为，几乎绝大多数学生的实践和研究，都被导入科学技术的范畴<sup>49</sup>：

---

<sup>48</sup>卡斯特曾在《网络社会的崛起》中指出，网络社会的一大特征便是其通过网络而实现的真实的虚拟文化。在他的表述中，因为在网络社会中，新的媒介方式、社会网络的构成形式等等，都使得这一真实的虚拟文化发挥越来越重要的作用，深刻地介入社会现实。

<sup>49</sup> 这些书籍包括：张民生（主编）：《普通高中研究性学习案例（第一辑）》，上海科技教育出版社2001年版；上海市教委教研室（编）：《高中研究型课程实施案例选编》，上海科技教育出版社2000年版；王厥轩（主编）：《高中研究型课程案例100例》，上海科技教育出版社2003年版。

让上海的老房子焕发青春——徐汇区老式建筑的现状、保存价值和办法  
万里、真如地区现状调查（最终研究的重点落在真如地区商业调查之上）  
腹有诗书气自华——读书活动与学习能力培养  
徐汇的昨天、今天和明天  
上海近代建筑的演变——西方建筑在上海的发展及影响  
环境污染对生物的影响  
化学创新俱乐部  
关于水泥28天抗压强度值得预测  
氢气在氯气中燃烧的实验改进  
改建铁路光新路道口的研究  
嘉定——可爱的家  
城市不同季节和气候下的空气洁净度研究<sup>50</sup>

即便遇到的是一种社会现象或社会问题，学生也总是倾向于从技术的角度展开研究，提供解决的方案。然而，另一方面，这一对技术和知识的依赖，却并未带来预想之中能够与信息化社会相匹配的对流动和弹性的信念。相反，其所产生的倒是更为凝固的对社会分工和专业劳动的理解，以及对现实社会中社会阶层日趋固定的看法。一篇名为《上海中学拓展课难度追上大学》的报道，提供了这样的数据：“两届已毕业的科技班，学生在高中所学专业课程、所做课题与他们升学专业领域选择的匹配度超过了95%。”<sup>51</sup>而在最近一次笔者对大学生的课堂调查<sup>52</sup>中，则发现，几乎所有的学生都按照既有的专业或劳动分工来理解社会构成。在他们看来，厨师、农民、管理者、警察、律师、心理医生、清洁工乃至经济学家之间相互学习和兼任的可能性微乎其微，即便是在社会危机的状况下也是如此。而导致这一看法的，则是他们对专业知识和“什么是好的现代生活”的理解。对这一类主体而言，信息化社会中的弹性工作的或劳动的流动性不仅和美好生活之间没有关联，而且是充满危险的。尽管随着信息化社会对弹性工作的要求，流动性和选择性在中国社会已经被新自由主义和主流媒体塑造为具有正面意义的价值，<sup>53</sup>但由课程改革提供的“美丽新世界”所培养出来的“90后”，他们对社会的理解，不仅没有体现这一种流动的价值，

---

<sup>50</sup>张民生（主编）：《普通高中研究性学习案例（第一辑）》，上海科技教育出版社2001年版。

<sup>51</sup>《上海中学拓展课难度追上大学》，《东方早报》2013年3月28日大都会版，  
[http://epaper.dfz.com/dfzb/html/2013-03/28/content\\_751970.htm](http://epaper.dfz.com/dfzb/html/2013-03/28/content_751970.htm)。

<sup>52</sup>这次调查源于一次课程作业。请学生讨论的问题是：“2012年，如果真的遭遇世界末日，由你来分配登上诺亚方舟的名额，你的分配方案是什么？”结果发现，绝大多数学生都以社会分工的原则来构想他们的分配方案。

<sup>53</sup>这不仅表现为媒体对“跳槽”（解雇老板），逃离/逃回“北上广”等流动性的各种讨论和鼓励，也表现为大学和中学不断改革，旨在提供自由选择的超市化的课程的诸多举措。

反而充斥着凝固的社会分工和固定的职业分类和等级观念，甚至紧紧抓住这样一种不流动的状态。这显然与中国主流媒体急于分享和肯定的新价值形成鲜明的对比。一位学生在信中这样思考他们这一代的固化状态：“我们为什么会有这种固化的想法？比如，学了英语以后就一定是当翻译或者想当老师，今后就只有老师这一个职业选择？是不是可以理解为，社会从表面上看流动性增大了，但实际上我们可以流动的空间是越来越小的？”

这一鲜明的对比，也许可以理解为学校教育所截取的“真实的虚拟文化”在社会现实面前最终呈现出的脆弱。毕竟，在一个势必不可能共享的“美丽新世界”中，即便被教授了信息技术和新的知识，人们也并不自然就会认同这一新世界所孕育的价值观和劳动观。在《千年终结》中，卡斯特曾冷静地区分出信息社会中两种不同的劳动力。在他看来，在信息资本主义这一新的生产系统下，劳动按照其受教育的能力，将分为无标签一般劳工（generic labor）和可自我教育者（self-programmable）两种：

只要受教育，任何人在适当的组织环境中，都能朝向生产过程无止境变化的任务来重新设定他/她自己。另一方面，无标签劳工被委以既定任务，没有再教育的能力，而除了接受与执行信号的能力，并未预设活用信息与知识的情境。当然，这些“人类终端机”能够被机械取代，或是被围绕城市、乡村或是世界有赖企业决策的任何基地所取代。<sup>54</sup>

按此定义，课程改革呼唤的显然是后一种劳动力。而就目前的结果来看，其培养出来的“新人”之中，大多数人并没有形成这样的自我认同。相反，他们感受到的是强烈的行将成为第一类劳动力的无奈和惶恐。这也构成了他们看待社会分层、社会分工乃至社会管理方式的出发点。

至此，这一脆弱的“真实的虚拟文化”显然很难构成青年人展开新一轮反思和创造的坚实的基础。在大多数情况之下，它往往使得技术的运用和创造失去方向，沦为对既有的信息化社会亦步亦趋的模仿。正是在这里，以培养创新能力为目标的课程改革，落入了自身的陷阱。它所呼吁的创新，往往只能以模仿既有的面目不清的“美丽新世界”的方式发生。这并不是说，模仿和创新之间截然对立，模仿的过程无法孕育创新。而是说，当课程改革希望完成从知识到创新的“惊险一跃”之时，它实际上需要向自己提出更为深入的问题：究竟如何看待信息化社会带来的这个“美丽新世界”？它在何种意义上构成新一轮反思和创新的整体性现实？在被期待的未来世界中，劳动、信息技术和现实生活之间是毫无新意地延续资本主义提供的演进模式，还是渴望着构成全新的关系？这些问题的思考将有助于进一步规定，什么样的创新对社会来说是有意义的。

显然，这一类的提问和思考在课程改革中是明显缺失的。如此一来，实际的课程设置则往往随着信息化社会的迅疾步伐，把现有的技术和知识抽离出其产生和运用的现实环境。任何对新的信息技术“及

---

<sup>54</sup> 曼纽尔·卡斯特：《千年终结》，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3 年版，第 409 页。

时“开发，都可能更深地掩盖了课程改革对上述问题思考的缺失，将学校直接复制社会现状的能力，错认为了培养创造性能力的土壤。波兰尼曾指出，自由主义引发的是一个经济不断脱嵌于社会的过程，那么，在信息化社会之中，由中国政府所主导的这一轮课程改革，实际展开的则是在知识再生产领域的一轮“脱嵌”。如此行事的后果，则使得中国政府的课程改革陷入一种奇怪的循环：以培养可自我教育的劳动力为目标的改革，最终呼唤出的却往往是缺乏弹性、对流动既无信心也缺乏积极性的“新人”。

如此看来，历史好像和中国开了一个诡异的玩笑。社会主义时期对“新人”的呼唤，看起来有着明确的政治方向和目标，却疏于对“市场”、“科技”、“创造”等概念的理解，以至于方向无法被真正坚持。而在改革开放之后，在和世界接轨的热情之中，“市场”、“科技”、“创造”等概念被毫无保留地拥抱，对“新人”的呼唤却彻底迷失了方向。在波兰尼的理解中，社会保护运动是与经济“脱嵌”相配套的社会演进方式。那么，对后发国家面对信息化社会之时在知识再生产领域中出现的“脱嵌”，展开有针对性的社会保护运动，或许可以成为寻找方向、定位“创新”的新线索。

---

# 지배양식의 국면 변화와 빅데이터 감시의 형성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 1. 들어가는 글 - 권력의 매개와 지배양식

오늘날 권력이란 무엇인가? 재독학자 한병철 (2011)의 표현법을 빌려 보자. 권력은 사회적 신체 전체를 총괄하여 통제하고 구성해내는 관계망의 구조이다. 즉 국가와 같은 초개인적 권력체는 항상 개별자와 다양한 수준의 '매개'를 맺고 맺으려 한다. 대개 매개는 권력의 실체화된 대상물들, 정부, 의회나 국회 등 '대의제' 정치기구, 그리고, 군사·안보기구, 금융, 미디어, 정보, 과학기술기구 등 국가기구 혹은 일상을 규제하는 다양한 사회적 장치(apparatus)에 의해 구현된다. 종종 권력의 매개가 결핍되거나 투박해지면 강제, 억압과 폭력을 낳는 반면, 매개 수준이 높아지면 개별자들의 자유도는 당연히 상승한다. 마치 개별자의 자유가 권력과 수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매개 수준이 높은 권력은 개별자에게 금지의 폭력보단 세련된 담론적, 비담론적 장치들을 끊임없이 동원한다. 대중으로부터 긍정과 자기계발의 논리까지 끌어내며 개별자들의 신체를 투명하게 관통하고 생산하면서 권력 관계망의 일부로 기능토록 한다. 푸코식으로 보자면, 개별자의 삶을 생산하는 현대 권력은 정치(polis)를 삶(zoē)의 영역으로 전면화하는 과정이거나 확대이다. 결국 권력은 인간 삶과 생을 통제하려는 총체화된 힘(bio-Power)에 다름 아니다.

한국은 반대로 국가 권력의 매개 수준이 줄곧 낮았다. 군부통치의 '벌거벗은' 폭력과 처벌은 퇴행적 사회구조를 고착화했고 거센 저항을 불렀다. 훈육적 세련됨이라는 국가 장치적 특성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조악한 매개 권력의 수탈구조와 퇴행성이 지배적이었다. 매개 수준이 낮으면서 대중의 갈등과 저항의 생산이 상시적인 구조였다. 카스텔(Castells, 2012, pp. 8-9)에 따르면, 권력자는 대중들의 삶이 의존하는 대부분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거나 설계하는 초개인적 권력 실체인 '프로그래머'(programmers)에 해당한다. 이 글은 바로 이 낮고 약한 매개수준을 보정하고 교정하려는 국가 권력의 '체계적'(systematic)인 '프로그래밍' 과정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탐구한다. 이 글은 한 사회 권력 형성의 메커니즘을, 당대의 기술 조건을 권력의 매개 수단화하는 '지배양식'(the mode of domination)이란 관점에서 찾는다. 즉 지배양식적 관점은 "정보통신 기술이 지배력, 지배관계, 감시 통제 메커니즘과 갖는 관련성"(강상현, 1994)을 이론적으로, 그리

고 역사적으로 그 특징과 통제 전화의 방식을 통해 살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글은 권력 매개 수단의 변화, 특히 국가 권력의 지배양식 변화를 사회적 기반 기술의 조건과 변화에 맞춰 본다.

먼저 이론적으로 국가 통제 기제의 변화를 보기 위해, 주로 많이 인용됐던 푸코의 '훈육사회'와 들뢰즈의 '통제사회' 개념을 넘어서, 오늘날 권력 매개 방식의 변화와 밀접하게 조응하는 '빅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지배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특히, 파스쿠넬리의 '메타데이터 사회' 개념으로 이어지는 지배양식론의 특징들을 살피고 이것이 한국사회 권력의 지배양식의 최근 모델로 적합한 지를 징후적으로 살핀다. 권력 매개 방식의 실제 역사적 분석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매개되는 사회의 질적 이행에 맞춰 국가 권력의 지배양식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살핀다. 사실상 이와 같은 지배적 권력의 매개를 위한 기술적 전화에 대항해 이를 '대항권력'으로 '리프로그래밍'해왔던 대중의 저항적 사례들에 대한 탐구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 연구는, 빅데이터에 기반해 오늘날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 감시와 권력 매개 유형이, 이제 개별자의 삶 형식 전체를 데이터로 생성하고 관리 조건화한다고 평가한다. 이를 보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 수행됐던 감시 양식의 역사적 접근을 택한다. 시대별 정보 인프라 정책과 국가 레짐의 성격을 보면서 어떻게 감시 기제가 전화해왔는지를 살핀다. 구체적으로 박정희 정부로부터 출발해 최근 박근혜 정부의 정보화 정책 기조까지 감시 기제와 매개 수단의 변화를 단계별로 추적, 비교한다. 이를 통해 장치 비정형 데이터의 생성과 통제가 감시사회의 관건이 될 공산이 크다고 본다. 결론에서는 자신의 족적을 드러내는 소셜웹 문화 속에서 국가가 수행하려는 폭넓은 데이터 수집 행위에 대한 철저한 제한이 이뤄져야함을 주장한다. 신체 데이터 권리와 일상 데이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빅데이터 정보 이용의 투명성 또한 요구한다. 이는 대중에 의한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역감시하고 차단한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 2. '벌거벗은' 훈육의 시대: 병영국가의 대민 데이터 전산화

훈육의 통치 기법이란 물리적 폭력에서 통계적 관리시스템에까지 걸쳐 있다. 전투경찰의 강경 진압, 정치 사찰, 강제 철거 등의 물리적 폭력에서부터 작업장 내 노동 분업, 공장내 시·공간 분할, 구획과 관리, 인구 통계학적 관리 등 다양한 매개적 권력 수단과 통치 기법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훈육 기제 아래서 국가 권력의 매개 수단은 조악하고 쉽게 훈육의 폭력성을 드

러내면서 대중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낮은 수준의 매개는 권력의 작동을 쉽게 포착하게 만들고 분노의 정치를 쉬 불러일으킨다.

한국은 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수직의 권력 기제, 즉 군사정권의 권위주의 문화에 명들며 지냈다. 예를 들어, 장발족들은 잦은 단발령에 길거리 한모퉁이에서 머리에 땀통을 만드는 수모를 겪어야 했고, 통금 사이렌에 밤거리 광장을 누빌 자유를 박탈당했고, 저항하다 이유없이 곤봉에 맞거나 갇히는 억압의 논리가 압도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시선들이 증가하는 오늘에 비해 곤봉이 난무하고 군홧발에 차이던 '별거벗은' 폭력 권력의 시절이었다. 당시 대중의 분노는 쉽게 저항의 비등점에 훨씬 빨리 다다랐다.

한국사회에서 권력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은 이와 같은 권력의 매개 수준이 낮을 때 등장한다. 헌정을 파괴한 쿠데타로 등장했던 군부에게 동아시아 개발독재의 영향과 효율적 대중 관리기제는 저항을 무력화하고 일상적 훈육 체제를 구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했다. 적어도 1970년대 중반 박정희 정권은 전국 국민들의 140여개 개별 신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공간에 수집, 집적하고 언제든지 전국 어디에든 조회할 수 있는 공안망과 경찰망을 구성하려는 욕망을 지녔다. 일제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조선인 훈육의 통계기법으로 마련된 주민등록체제가 당시 군부 통치의 중요 매개 수단화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군부는 국가 안보와 치안이란 명분으로 1968년 지금의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주민등록증 휴대를 의무화한다. 유신 이후 1975년에는 전국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을 추진했다. 군부의 주민등록 전산화 동기에는, 당시 권력의 매개 수단이 낮고 일상적 대민 정보통제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인다. 박정희 정부는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을 통해 가시적 처벌과 폭력의 수위를 일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비상식의 폭력적 억압과 통제와 함께 국민 정보의 항시적 관리라는 훈육의 기법이 권력 매개의 일부로 들어오고 '비가시'(invisibility) 권역으로 숨어든다. 거친 폭력을 가라앉히는 비가시적 통치 수단들은 억압의 본질을 은폐하는데 효과가 높다. "권력 스스로를 비가시화함으로써, 모든 타자들을 가시화"(Foucault, 1980, p.71)하는 방법을 통해, 개발독재의 통치성을 강화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내 최초로 1967년 4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국내 1호 'IBM 1401' 컴퓨터가 도입된다. 당시 시가 40만 달러에 매달 9천 달러의 사용료를 내고 통계국이 빌려 쓰던 기계는 1초에 6만자의 데이터처리 능력을 자랑하는 전자계산기였다(서현진, 2001, 185-186쪽). 1970년 경제기획원은 예산업무를 전산화해 박대통령 앞에서 시범까지 선보인다(한국전산원, 2005, 28쪽). 60년대말부터 70년대말까지 국내 주요 공공 기관들과 기업들이 도입한 컴퓨터 대수가 420여대가 넘는다.<sup>1</sup> 최초 국산 미니컴퓨터 하드웨어 개발도 이어졌다. 73년 미국 컴퓨터를

<sup>1</sup> 서현진, 「컴퓨터파노라마」, 1996. 3. 18. <http://ubuntu.or.kr>

해킹하고 개량해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완성한 '세종 1 호'가 최초 국산 전자계산기로 등장한다. 이 컴퓨터의 개발 프로젝트는 청와대 의해 '메모 콜'(Memo Call)이라는 암호명으로 72 년에 시작됐고. 외부 도청을 차단하고 보안능력을 높여 청와대와 중앙정보부간 초특급 핫라인용 사설 전자교환기의 일환으로 구상되었다.<sup>2</sup> 1975 년 박정희 정권의 주민등록 전산화, 그리고 운전면허, 여권을 중심으로 데이터망 구축을 기본으로 했던 '행정전산화 기본계획(1978~1986)은 이와 같은 컴퓨터의 가치가 국가사업의 하나이자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전산 기계로 자리잡아가는 시점에 나온 셈이다.

군부 권력에 의한 훈육 기제는, 일상적 폭력과 더불어 데이터베이스 전산화로 축적, 정리, 분류, 관리되는 대민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것이 대중의 감성을 덜 자극한다는 점을 군부 권력은 너무도 잘 파악했던 셈이다. 80년대는 아직도 정보통신이 산업화되기에 초기단계에다 취약한 조건을 지녔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행정업무 전산화를 통한 전산화 기반 확대와 훈육사회의 비전을 연계하려 했다. 이를테면, 1987년 전두환 정부는 본격적으로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1987~1991)을 세분화해 추진한다. 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이라는 5대 기간망을 핵심 과제로 삼았던 것도 이와 맥을 함께 한다. 구체적으로, 행정망은 관료주의적 효율성이라는 목표아래 구축되었다. 금융망과 교육·연구망은 주로 경제적 체질 개선과 성과와 연결이 되고, 행정망, 국방망과 공안망은 훈육사회를 위한 전산 자료 축적과 관리에 관계했다. 마지막으로 공안전산망은 안전기획부(현 국정원)를 중심으로 해, 보안사, 검찰청, 치안본부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따로 벌였다. 국가 백서에서도 당시 공안망 사업 내용은 미공개다 (한국전산원, 2005, 28-31쪽).

전두환시절 행정전산망과 관련해 특이한 사실은, 당시 내무부가 전국민의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수록해 전국 3,700개 읍·면·동사무소 지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펼치는 등 대국민 기본 통계자료를 영역별로 하나둘 축적해 관리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내무부 부동산 관리 (전국 3,200만 필지의 토지 및 임야대장을 전산화하여 298개 시군구를 온라인으로 연결), 교통부의 자동차 관리 (자동차 등록사항 전산화하여 전국 133개 기관 온라인 연결), 노동부 고용 관리 (취업 알선, 사업장 관리, 직업 지도 업무 전산화하여 전국 49개 노동부 지방사무소 온라인 연결), 통계청 국민 통계관리 (물가, 인구 등 20개 부문 전산화하여 온라인 정보 제공) 등 영역별로 대국민 정형 데이터(뱅크)들이 구축된다 (39쪽). 이렇게 전두환 정부의 5대 기간망 구축 작업은 박정희 시절에 비춰 보면 디지털 기반 전산화의 심층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1992~1996)으로 이어지긴 하나 불안정적 재원 등으로 사실상 1차 시기 만큼의 효과를 보지는 못한다.

---

<sup>2</sup> 서현진, 1996. 3. 25. <http://ubuntu.or.kr>

종합해보면, 박정권이 주민등록 전산화를 통해 시초적으로 대국민 데이터를 모았던 데 비해, '87년 체제' 이래 대중통제의 불안정성이 극대화하면서 군부는 보다 더 비가시성에 기반한 권력 매개 장치들을 고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두환 정권은 국가기간망 사업을 통해 국민 정보들을 기관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취합, 축적하여 관료적 합리화와 훈육 사회의 기초를 다진 셈이다. 당시 행정망, 경찰망과 공안망의 정비로 인해 전국 단위 네트워크망이 형성되었고, 적어도 국가에 의해 수집된 국민 데이터들이 디지털화되어 국가망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검색 가능한 상황이 마련된다. 베니거(2009) 식으로 보면, 군부들은 초기 형태의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을 통해 효율적 통제혁명을 가능케하려 했다. 즉 디지털화와 내부 기간 전산망을 통해 대국민 감시의 전자 데이터뱅크를 구성하는 전형적 훈육사회의 구축을 마련하려 했다고 가늠해 볼 수 있다. 일상적으로 만연한 물리적 폭력의 병영국가는, 당시 대중의 민주적 저항 등으로 말미암아 점차 기술과 디지털 정보의 수집, 축적과 분류에 의지한 비가시 권역에 숨는 매개 행위를 선호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권력이란 자신의 본질적 부분을 외부로부터 숨길 때만이 견딜만한 것"(Foucault, 1976, p. 86)임을 이들 군부 스스로 일부 터득한다. 그러나, 이를 충분히 깨닫기도 전에 이들 권위주의 권력체는 청산되고 새로운 매개 조건 위에 올라선 민간 정부들이 등장한다.

### 3. 스마트 통제사회의 완성

#### 1) 훈육에서 스마트 통치로<sup>3</sup>

들리즈(Deleuze, 1995)는 누구보다 신생 기술에 의한 현대 권력의 통치성에 있어서 형질 전환을 잘 내다봤다. 그는, 자본주의 일상 속 저항들의 진지전이 지속되면서 권력의 통치 방식도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민을 타격하거나 데이터를 관리하는 푸코식 '훈육사회'(disciplinary society)에서, 디지털기술과 네트워크망을 활용한 부드러운 매개 기술들을 동원하는 '통제사회'(society of control)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푸코의 훈육사회에서도 가능했던 데이터 축적과 통계 전산화의 훈육 권력과 달리, 들리즈가 선언한 통제사회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우선은, 전자 통치의 '심화'(intensification)와 '강화'(augmentation)이다. 통제사회에 이르면 권력의 매개 행위는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신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며 그 행로와 흔적들을 샅샅이 기록하는 능력을 지닌다. 예를 들면, 시위 현장의 경찰 폭력성(물대포, 경범죄 처벌법 등)에서부터 스마트 통제 (디지털 사진 채증과 소셜웹 신상털기 등)까지 이들 모두가 권력 매개의 장치들로 서로 연동된다. 이

<sup>3</sup> 이광석(2012)에 기초해 요약 및 재정리.

점에서 통제사회는 훈육 논리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는다. 즉 스마트 통치는 훈육의 특징들과 함께 가는 경향이 더 크다.

둘째, 유목(nomadism)과 '유동성'(liquidity)의 논리다. 통제사회의 물적 기반이 네트워크망에 기반하면서, 이전의 훈육통치 방식으로부터 구별된다. 들뢰즈가 '훈육'사회와 '통제'사회의 구분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대별에서 찾았으나, 적어도 표현법에 있어서는 오히려 독일 사회학자 바우만(Bauman, 2000)의 구분법이 통제사회의 기술적 조건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더 적합해 보인다. 바우만은 '고형성'(solidity)에 견주어 '유동성'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 얘기한다. 비슷하게, 카스텔(Castells, 2000)은 이미 새로운 공간의 변화를 '장소'(place)에서 '흐름'(flow)의 전환으로 파악한 적이 있다. 그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모이고 흩어지는 동태적인 권력의 유동적 흐름을 파악한다. 디지털 데이터라 하더라도 한 곳에 축적되어 고형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그 온전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딱딱한 고형의 아날로그 산업 세계에서 진화해 미끄러지듯 흘러다니는 데이터의 세계가 바로 유동성이며, 그런 권력은 네트워크 도관의 힘을 빌어야 온전히 가능하다. 들뢰즈 등의 통제사회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와 같은 유동성과 흐름에 기초한 권력을 뜻한다. 멈춰있는 상태의 권력, '정주권력'(sedentary power)을 넘어선 '유목권력'(nomadic power)이 이에 해당한다. 바우만은, "모든 굳어있는 것들을 녹이는" 현대 권력의 핵심을, "영토성과 정착의 원칙 위에 올라 선 노마디즘의 반역" (p. 13)으로 묘사한다. 결국, 통제사회의 권력 통치와 감시의 기본 성격은, 부유하는 데이터들의 전자 네트워크망을 통해 가능한 공간 확장과 이동이란 기술적 조건 없이는 불가능하다.

셋째, 네트워크 권력의 유동성은 어디든 '편재'(ubiquity)하도록 이끈다. 편재성은 유선이 무선이 되고, '유비쿼터스' 기술 아래 이들 모두가 통합되고 사물들끼리 대화하는 때에 더욱 강화한다. 오늘날 유·무선 전자 장비들, 예컨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무선식별 태그(RFID), 위치정보시스템(LBS),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휴대폰 위치추적 장비, 유·무선인터넷, 사물인터넷 등은 현대 권력의 시선을 어디든 머물게 한다. 예를 들어, 장소성에 기반한 CCTV의 '국지적' 응시는, 내부망으로 연결된 경찰의 CCTV 통제센터(이미지 데이터 관리, 분류, 체계화)의 도움으로 '보편적' 권력으로 등극한다. 현실의 감시 카메라는 이제 더 이상 고착된 축수가 아니라 움직이는 권력의 축수와 같다. 이들 디지털 장비들은 일종의 탈중심화된 권력 축수가 되고, 일단 어디서든 연결되어 공간 기동성을 부여받게 되면, 이들 축수들을 관리하는 권력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진다. 손오공의 도술처럼 권력의 위임이 작동하는 이유는 바로 '연장'(extension) 혹은 '모듈화'(modulation) 때문이다. 연장은 쉽게 생각하면 몸통에 달려있는 길게 연결된 단자들(ports)과 같다. 연장과 모듈화는 권력 행위를 위임하거나 대리하는 기술적 매개 행위이다. 연장과 모듈화는 통제

력의 눈과 측수, 그리고 도관을 만들어 활용하는 행위에 가깝다. 이 상황에서 겉보기에 권력이 부재한 듯 보이나, 언제나 편재하는 힘으로 작동 가능하다.

현실 역사로 돌아와 살펴보면, 네트워크기반 통제사회의 특징들이 드러나는 때는 1994년 김영삼 정부의 등장 이후로 가능해볼 수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초고속정보망 사업으로 물리적 망이 완성되던 90년대말 이후 바야흐로 권력의 새로운 매개 수단이 디지털 네트워크망 기술을 기반으로 재탄생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박정희 정부가 주민등록 시스템의 전산화를 꾀했고 전두환 정부 시기에 행정 전산망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민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데이터베이스화의 기반을 닦았다. 문민정부이래 경제적 체질 개선이라는 국가적 명제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이 네트워크기반 모드로 본격화한다. 국가 정책으로나 민간에서나 데이터의 흐름과 유동성에 좀더 고도의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 김영삼정부 하에서 최초 네트워크 관련 정책 사업들이 대거 나온다. 1994년 정보통신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된다. 같은 해 10여년이 넘는 초고속정보통신망(KII) 계획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에 힘을 받은 민간 영역도 브로드밴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렇듯 전자 네트워크기반 사회로 이동하면서 감시 매개 형식과 관련해 '통제사회'로 급진전한다. 아날로그 대중의 신체 정보를 디지털화하던 전산화 국면이 군부의 노력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했던 것처럼, 민간 정부들 또한 고도의 네트워크망을 세우는 작업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개입한다. 국가 기간망을 고도화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기획은 네트워크 '속도'를 고도화함으로써 선진국들의 정보경제 입성을 추격하고 관료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자정부'와 'e 거버넌스' 개념을 낳고, '종이없는 사무실', 인터넷을 통한 대민 증빙자료 서비스, 인터넷 민원 서비스 등으로 구현된다.

90년대 중반 이후 이와 같은 네트워크형 인프라 계획경제 부서인 '정보통신부'를 통해 다양한 정보화 인프라 정책 기획 프로젝트를 쏟아냈다. 그 때마다 대한민국의 정보화 열망을 표상하는 수사학은 조금씩 달라졌다 (Lee, 2012). 김영삼정부 시기를 기점으로 세계화를 등에 업고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이 입안되고 인프라정책의 시발을 알린다. 물론 IT 정책의 대국민 수사학에는 그리 세련된 맛이 없었다. 김대중정부 시기에 들어오면 '사이버코리아 21', 'e 코리아 비전 21'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지식사회'를 준비하자는 메시지가 넘쳐난다. 그리고, 일명 '올빼미 대통령'으로 불린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만들어진 정책 기획들, 즉 '브로드밴드 IT 한국비전 2007', 그리고 새로운 정보 인프라와 IT 신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IT839' 전략이 등장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린-' 개념과 결합하면서, '녹색기술', '그린 IT' 등 어찌 보면 상호 이율배반적인 녹색 성장과 디지털 정보기술간의 동거를 꿈꾼다. 민간 정부들의 이같은 정책 수사학적 접근은

물질적 차원에서의 스마트 인프라의 조건들을 조성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변화이자 실제 권력의 매개적 기술 조건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례들이다.

## 2) 네트워크기반 통제사회의 쟁점

군부 시절 훈육을 체감하는 방식에서 네트워크 기반 통제사회가 되면 어찌 달라질 것인지 앞서 몇 가지 특징적 개념들을 통해 살펴봤다. 훈육사회와 구분되는 통제사회의 특징들에 대응해, 민간 정부들에서 구사되었던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보자.

먼저, 김대중 정부 말기 도입된 '네이스'(NEIS, 전국교육정보전산망)의 경우를 보자. 건강, 성적, 수행, 가족, 병력 등 수 백여 항목들의 중·고생 프로필 정보의 집적과 이의 통합관리, 그리고 추적 시스템은, 교육부가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해 신상 데이터 자체를 관리하려다 데이터 윤리를 망각해 벌인 IT 정책 오용의 지나친 경우였다. 따져보면, 지역 서버에 머무르고 집적되었던 학생 데이터 정보를 중앙 정부의 단일 서버로 통합해 관리하려는 중앙통제형 구상은, 당시 전국 단위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형 통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상 없을 일이었다. 실지 네이스는 관료적 효율성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권력 매개 방식의 '연장'과 '모듈화'를 통해 스스로를 어디에든 현현하려는 '편재'적 권력의 욕망에서 나온 기술적 아키텍처로 읽을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 기반 감시 권력의 '심화'와 '강화'의 특징적 사례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소위 인터넷 실명제)가 있다. 2005년 12월 노무현 참여정부 아래 정통부에 의해 추진되어, 2008년 11월까지 확대 적용되고 살아남다 2012년 8월 위헌 판결로 폐지됐다. 사실상 인터넷실명제 도입은, 군부에 의해 총체화된 오프라인 개인식별 코드로 쓰였던 주민등록번호가 온라인 영역으로 확장, 확대되는 상황을 지칭한다. 적어도 인터넷실명제는 네트워크망에서 유동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 글을 올리는 개별자들이 고유의 식별코드를 기입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막는 사전검열과 사후감시의 체계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강력한 통치 수단이었다. 이는 온라인 스토킹과 모욕을 잡겠다는 명분을 걸고 한국적 훈육의 기제를 온라인에 끌고 들어왔던 경우다.

셋째, 전국 단위 초고속망 사업을 통해 그 디지털 유동성과 기동성을 획득한 것에 대한 권력 반응을 네이스와 인터넷실명제로 특징화한다면, 참여정부 말기와 이명박정부 시기 줄곧 '유비쿼터스' 기술 정책 기조로 인해 개별자 확인의 위치정보 추적 방식들이 국가와 사회 모두에서 대중화한다. 사회 저변 상황으로 보면, 위치와 지리 정보 추적방식은 2000년대말부터 갑자기 신종 정보 서비스 영역으로 각광을 받게 된다. 인터넷 위성 지도검색, 도로상황 실시간 시스템, GPS를 이용한 자동차 네비게이션,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공간통계 분석 등 공간과 위치 정보를 보여

주는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이 이제는 보편화하고 있다. 그 수준은 단순한 물리적 지형도를 넘어서서, 그 안에 거주하는 인간과 인간, 사물/지형과 인간이 맺는 공간 정보, 그리고 목적지에 이르는 정보 흐름의 방식을 읽는 쪽으로 나아간다. 현재는 스마트 통치 사회를 위해 권력의 노마디즘을 확보하는 기술로 확장, 응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구 정통부가 RFID 칩 같은 전자태그의 보급이 '사물의 정보화'를 위한 첫걸음이라 간주해 이를 각종 물류, 유통업 등에 적용하면서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육성했다. '사물의 정보화'란 사물들을 상호 연결해 멍청한 사물들을 똑똑하게 바꾸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무수한 정보와 인공지능을 탑재한 칩들을 여기저기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 급선무라 본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미래 핵심 IT 육성기술 중 하나로 또 다시 각광받는다. RFID 칩과 U 센서 기술을 통해 인간이 사물들에게 말을 걸고 사물들끼리 서로 연결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U-코리아' 세상을 만들자는 정책 제안들이 줄곧 채택되고 있다.

사실상 지능형 칩 장착의 국가적 선례로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4월 미국과 비자 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RFID 칩을 내장한 국민 전자여권 시스템을 도입하고 채택한 경우가 있다. 이 전자여권은 개별 고유 식별자에 의해 이동 중에도 개인의 행방을 확인하도록 돕고 동시에 미국 정보국에 의해 한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채집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허용한다. 전자여권 소지자를 위한 비자인터뷰 절차없는 해외여행 간소화라는 효율성의 수사학이 국민 정보주권을 미국 정보기관에 통째로 넘겨주는 상황을 만들었다. 비록 국가의 도발적 감시 행위는 아니지만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추적도 사회적으로 폭넓게 통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삼성 SDI의 노동자 휴대폰 위치추적 의혹 등 사내 노조를 만들려던 노동자들의 모임을 위치 추적해 감시한 경우, 그리고 배우 전지현의 복제폰 사건처럼 소속사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등 위치추적 기술이 크게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기도 했다.

종합해보면, 현실정치의 성숙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대체로 문민정부로부터 참여정부 시절까지 디지털 감시와 관련한 권력의 매개 수준은 꽤 높았다. 인터넷실명제와 네이스와 같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경우를 빼면, 유비쿼터스 기술 등 다양한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부드러운 부분들을 잘 활용해 권력 통치의 세련됨을 끌어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 물질적으로 더 진전된 기술 환경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신권위주의 국면이 확장되면서 그 매개 방식에 있어서 조악하거나 거친 훈육의 기제들이 이와 불협화음을 냈다. 정치적 미성숙으로부터 확장하는 디지털 감시의 아주 낮은 매개 수준이 2008년 촛불 정국 이후로 수많은 논란을 낳았다. 각종 인터넷 관련 악법들의 도입 시도, 심각한 온라인 콘텐츠 규제, 2009년 미네르바의 구속 수사, 포탈업체들에 대한 간접 통제력 확대, 소셜웹 내용심의와 각종 선거법을 통한 통제, 국정원 중심

의 대통령 선거여론 조작 혐의, 국정원의 폭넓은 DPI감청과 KT 등 통신기업으로의 감청기법 확대,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등 헌정을 무시하거나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폭넓게 그리고 쉽게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만한 문제를 초래했다. 고도의 기술적 수단과 인프라에 의존하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지닌 정치 레짐의 미성숙과 비민주성으로 말미암아, 감시 권력의 매개 방식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 속에서 인터넷실명제의 전면 폐지는 이미 네트워크 기반 한국형 통제사회의 작동이 더 이상 원활치 못함을 예증한다. 달리 보면 적어도 현실적으로 온라인 감시 권력의 좀 더 다른 세련된 매개 수단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 4. 빅데이터 감시사회의 새로운 징후들

##### 1) 빅데이터의 정치경제학

2010년 「이코노미스트」 특집호는, “데이터를 중심으로(around data, data-centered) 만들어지는 경제 형식”을 처음으로 논하면서, 이 새로운 경제 체제에서 “데이터는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원재료”(p. 2)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 영국계 경제잡지가 주목하는 자본주의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는 소위 ‘빅데이터’(big data)에 맞춰져 있다. 데이터가 ‘빅’하다란 의미는 단순히 정보가 크거나 많다는 것(volume)뿐만 아니라, 데이터 생성에서 활용까지의 쾌속화된 속도(velocity)나 데이터 크기와 내용의 형태성(variety)과도 관여한다(*The Economist*, 2010; 채승병·안신현·전상인, 2012).

보통 빅데이터는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무정형의 정보 데이터로 구성된다. 전자기업과 정부 등에 의해 특수 목적을 위해 쓰이는 분석 데이터를 지칭한다면, 후자는 이용자들이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는 비정형의 데이터 정보의 과잉 생산을 지칭한다. 실제 빅데이터에 대한 주류적 관심은 전자의 증가보다는 후자로부터 얻는 이익에 있다. 개인 데이터의 경우에는, 가치가 추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자들이 뒤에 남기는 무수한 클릭과 네트상의 동선과 흔적들, ‘데이터 배출’(data exhaust)이 빅데이터의 핵심이 된다. 이는 이용자들이 남긴 데이터 부스러기, 즉 ‘데이터 조각’이기도 하다.<sup>4</sup> 보통 이용자의 데이터 배출과 조각을 시장 기업이윤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전도’(inversion)라 표현하는데, 이는 보통 ‘전유’(appropriation)라는 자본의 잉여가치화 과정과 일맥상통한다. 각 개별자들의 데이터 배출이 “모이면 달라지고”(Shirky, 2011), 그의 전유 과

<sup>4</sup> KBS1, <시사기획 창 - 빅데이터, 세상을 바꾸다>, 2012. 1. 31. 방영.

정으로부터 잉여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다가올 빅데이터의 정치경제인 셈이다.<sup>5</sup>

매일같이 주고받는 '자발적' 카톡 메시지와 페이스북의 댓글과 '좋아요' 클릭, 그리고 끊임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관찰된' 위치정보 등은 데이터 배출의 흔한 예들이다. 매일같이 소셜웹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매일의 정보들은 이미 인간이 공식적으로 기록해 남기는 역사적 사료와 아날로그 기록들의 양과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빅데이터들은 시·공간적 즉시성과 상호연결성을 기반으로 전세계 어디든 흘러다니고 대량으로 축적되기도 하고 분류되어 특정의 목적을 위해 쓰인다는 점이다. 즉 빅데이터가 자본주의 가치 체제 내에서 특정 목적 하에 쓰인다면, 이는 메타 데이터/지식의 활용방식과 달리 단독으로 '데이터 상품' 혹은 누군가에 의해 '해석된 데이터' 형태로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강정수, 2012). 이는 수집 및 채집, 분류, 저장, 분석과 통합, 생산 등의 순환 고리를 통해 데이터 자체가 정부, 기업, 특정 개인에 의해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제를 만들어내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특정의 데이터를 찾고, 수집하고, 상호 대조할 수 있는 실시간 분석 '알고리즘'<sup>6</sup>의 기술 능력이 요구되는 영역이 사실상 빅데이터의 본질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이처럼 수많은 이용자들의 '데이터 배출'의 흔적들을 기업들이 원하는 자신만의 방식 (이윤 행위를 위한 적절한 알고리즘을 짜고 데이터의 데이터, 즉 메타데이터에 의존해 특정의 원하는 패턴이나 정보를 추출하고 얻는 방식)으로 새롭게 연결하여 '빅데이터 기반 경제'를 만들어 낸다.<sup>7</sup>

빅데이터 시대의 핵심은 이렇듯 단순히 정보를 찾고 발견하는데 있지 않다. 누군가 정보를 쉽고 빨리 거대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원하는 연관 데이터를 추출해 자신의 손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해진다(*The Economist*, 2010 참고). 국가 권력, 그리고 또 다른 감시와 통제를 행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정보를 축적하고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의 구성 논리는 대단히 중요해진다. 기실 빅데이터의 집합은 아무 것도 얘기하지 않는 셈이다. 단지 생산되는 원 데이터(raw data)의 거대화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의 총량 증가가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

<sup>5</sup> 정보재 가치논쟁의 확장선상에서 비정형 데이터의 후기자본주의적 가치 전유 방식을 조정환(2011)은 '인지자본'으로 개념화하거나, 백육인(2012; 2011)은 이를 빅데이터 시대 '축적과 전유 체제' 혹은 소셜웹을 통한 '비트 수취기계'로 모델링화하면서 비판적 접근을 취하기도 한다.

<sup>6</sup> 파스퀴넬리(2012)의 정의에 따르면, "알고리즘 (순서도, 코드, 유사코드에 표현된 방식들 또는 일련의 단계들)은 소프트웨어의 작동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알고리즘 없이 소프트웨어를 개념화하기는 어렵다"(185 쪽)고 본다. 즉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의 골격이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유효한 결과나 패턴을 추출하는 명령 체계로 볼 수 있다.

<sup>7</sup> '메타데이터'의 예로 도서관을 보자. 우리가 열람하는 책이 데이터라면, 색인카드(저자명, 색인번호, 책 요약 등)가 메타데이터에 해당한다. 또 다른 예로, 플릭커(Flicker)에 올린 사진이 데이터라면,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에 대한 자동 업로드 정보가 메타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The Economist*, 2010).

권력 주체가 특정의 알고리즘을 갖고 정형·비정형의 거대 빅데이터로부터 특정의 패턴, 관계, 정보를 추출한다는 점이다. 국가 권력에 의해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통제가 가능해지는 조건이 생성된다.

개별자들이 생성하는 비정형 데이터가 알고리즘의 그물에 걸리는 메타데이터 영역에 놓이면서 삶 형식이 데이터화하고, 이제는 개별 삶 형식 전체가 수집과 분석을 위한 메타데이터로 생성 조건화하는 환경이 형성된다. 파스퀴넬리(2012)는 이 점에서 들뢰즈가 언급했던 '통제사회'의 특성들, 즉 개별자들이 데이터 표본이 되고 데이터(뱅크)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진화하여 메타데이터에 의해 추출되어 관리되는 '메타데이터 사회'를 내다본다.<sup>8</sup> 그래서, 그는 현재의 국면을 "삶정치적 통제(데이터감시)" 사회로 판단한다(파스퀴넬리, 2012, 186, 189쪽).

좀 더 알고리즘의 작동방식을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구글 설립자 중 한 명인 로렌스 페이지(Lawrence Page)가 고안한 페이지랭크 알고리즘(PageRank algorithm)의 사례를 보자. '페이지랭크'는 "서치엔진 결과들 내에서 웹 페이지의 중요성과 그것의 위계적 위치를 결정하는 치밀한 알고리즘"(Pasquinelli, 2009)에 기대고 있다. 이 알고리즘은 "복잡한 네트워크내 각 노드들의 '주목도'(attention value)를 계산하는 수학적 공식"이자 대칭적이고 동등하게 보이는 노드들이 "하이퍼텍스트와 네트워크의 비대칭적인 구성"(Pasquinelli, 2009)을 드러내기 때문에, 개별자들이 서로 관계 맺는 상황과 위계적 차이를 관찰하는데 제격이다. 페이스북의 '엣지랭크'(EdgeRank)라는 알고리즘도 비슷한 논리이다. 특정의 뉴스피드를 서열화해 보여주는 방식이 구글의 알고리즘을 닮았다. 예를 들어, 텍스트, 이미지, 영상, 링크 등 객체(object)에 대한 반응, 즉 엣지(edge)에 해당하는 '좋아요', '댓글', '초대', '공유', 그리고 개별 스폰서 광고에 의해 서로 다른 '가중치'가 정해지고, 그에 의해 비대칭적으로 뉴스피드 순서가 확정된다 (Bucher, 2012). 결국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인간들의 무수한 데이터 배출, 끊임없이 찾는 검색 과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데이터, 이 '주목'(attention)들의 위계화 등을 통해 이익을 내는, "공통 지식에 의해 생산된 가치를 포획하는 기생장치(a parasitic apparatus of capture of the value)"라 볼 수 있다(Pasquinelli, 2009). 이와 같은 페이지랭크나 에지랭크 알고리즘과 함께 24시간 실시간 작동하면서 웹을 인덱싱하는 거대한 구글 등의 데이터센터가 바로 새로운 '인지자본'의 잉여를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공장이다.

파스퀴넬리나 부처(Bucher, 2012)의 말처럼, 구글의 페이지랭크나 페이스북의 에지랭크는 파놉티콘의 중앙집중화된 비가시적 시선의 작동 방식과는 사실상 거리가 멀다. 소셜웹에서는 이용

---

<sup>8</sup> '메타데이터 사회'의 이행기적 틀에 대한 파스퀴넬리의 관심은, 주로 '정보자본주의'(informational capitalism)의 분석과 관계한다. 즉 시장내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는 '포획 장치'(an apparatus of capture) 방식의 변화를 메타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논리로 확장해 살펴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 현대적 자본의 가치생산의 방식은 곧 권력에 의한 개별자의 통제 양식에 비견될 수 있고 주로 권력의 성격 변화와 관련해 그의 논의를 주로 빚대어 해석한다.

자 스스로 드러내고 흔적을 남기며 자신의 행적을 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다. 그들은 그래서 어디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빅브라더의 시선이 머무는 권력 방식인 '판옵티콘'의 테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익스체인지' 알고리즘은 개별자의 이용행위 데이터를 인덱스삼아 특정의 상품 정보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이다. 즉 개별자들의 데이터 추구 행위를 기본으로 알고리즘을 돌려 특정의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외 사이트에서 상품 정보를 본 후 페이스북 접속을 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석된 데이터의 친밀도에 따라 가장 높은 광고비를 제시한 광고주 광고를 사용자에게 노출시키는 식이다(오세욱·이재현, 2013). 와인버거(Weinberger, 2008)의 책 제목에 빗대어 보면, 빅데이터 시대에는 "모든 것이 규정되지 않고"(Everything is miscellaneous) 그저 거대 데이터로 머물다가 누군가 필요에 의해 알고리즘 추출 과정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새로운 형태의 감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우리의 실제 사례로 와 보자. 이제 온라인상 주민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혹은 전 세계 유례없는 인터넷실명제 도입 국가의 오명을 최근 잘 내려놓은 바처럼)<sup>9</sup> 원하는 정보를 이 메타데이터의 추출방식에 의해 대중의 신체와 신체활동 정보들을 수집, 분류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범용의 통제가 가능해지는 조건을 생성한다. 세계적 경영컨설턴트인 니콜라스 카(Carr, 2008, 260-261쪽)조차, 이제 누군가 정교한 알고리즘을 쓴다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들 사이의 연결을 통해 일반인들의 데이터 활동들을 확인하고 매우 정확하게 신원을 파악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푸코와 들뢰즈의 훈육과 통제사회의 결과와 한결 다른, 빅데이터 기반의 감시사회이자 데이터의 수집, 활용, 접근 방식 자체의 패러다임적 변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제 개별 인간의 삶 형식 전체가 수집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생성 조건화하고,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메타데이터로 추출되어, 수집, 분류되면서 감시 권력을 위한 새로운 조건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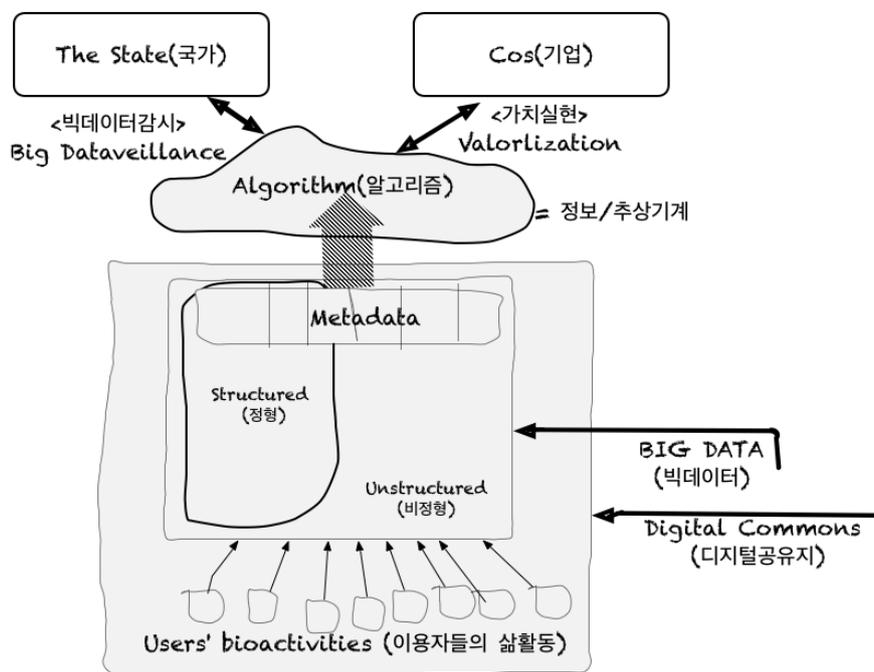
정부의 데이터감시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개인이 만들어내는 비정형 빅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직접적으로 정부의 정보기관들이나 행정, 법, 공권력 집행기관들이 나서서 삶 형식을 영위하는 대중들의 데이터 수집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욕망이 커질 것이다. 빅데이터 사회의 신종 '데이터계급'(data-classes)이 형성될 공산이 크다(Manovich, 2011). 빅데이터 인문학 연구자인 레브 마노비치는 이 신종 계급군을 세 타입으로 나눈다. 데이터 생산자, 데이터 수집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생산자'는 일상적으로 무수한 데이터 배출 행위를 수행하는 일반 대중에

<sup>9</sup> 이 점에서 정부가 국제적 위신에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인터넷 실명제'라는 신원정보를 활용한 대중의 인터넷 관리 감시 기제를 무리하게 유지할 필요도 없었다. 굳이 주민번호를 통한 신원 확인의 메커니즘을 쓰지 않더라도, 대중의 빅데이터 활동 정보(데이터배출)를 활용한 데이터 알고리즘 추출법이 그 이상의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당하고, '데이터 수집자'는 대표적으로 구글, IBM 등의 빅데이터 기업과 국가 기관들이 될 것이고, 이들에 의해 고용되어 특정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이들이 '데이터 분석가' 혹은 '데이터 과학자'에 해당한다. 빅데이터 수집자와 분석자의 그 둘의 지배적 역할과 분담은 앞으로 국가 권력의 감시와 통제와 관련해 핵심적일 수밖에 없다.

<그림 1>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작동방식

[출처: 필자에 의해 구성]



카스텔(2012, p.6)의 논의를 정보기술에 대한 낙관적 평가로 본다면, 대중의 데이터배출 행위는 '대중적 자기-소통방식'(mass self-communication)의 무한한 확장이다. 실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배설하는 개별자의 이야기와 이들의 무한 증식하는 데이터들의 무한 집합은 사실상 정부나 기업이 관리 통제하려는 범위를 넘어서서 통제 자체를 대단히 어렵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본 것처럼 빅데이터 국면에서는 네트워크 기반 '통제사회'에서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진다. 태그와 메타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 분석은 그 무한한 정보들로부터 원하는 식으로 바늘귀를 꿰는 능력을 부여한다. 그것은 무수한 데이터로부터 실시간으로 특정 패턴을 읽고 원하는 정확한 개별자를 찾아내는 능력이다. 특정의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의 데이터 결과를 추출하는 실시간 기법이 유효해지면서, 이용자들의 방대한 정보활동들을 기업은 물론이고 감시 권력에 유효한 지배양식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서서히 갖춰지기 시작한다.

## 2) 빅데이터 감시의 징후

한국사회에서 '스마트'와 '융합'은 다시 '빅데이터'로 대체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 '빅데이터'란 말은 국내에서 그저 시간 속에서 스쳐지나가는 흥행어만은 아닌 듯싶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자국의 정보는 물론이고 전세계 정보 데이터를 관리하는 빅브라더형 빅데이터 감시센터를 물론교의 성지인 유타 주에 만들고 있다 (Bamford, 2012 참고). 또한 이들 정보기관이 '프리즘'(PRISM)이라 불리는 감시 알고리즘을 이용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자 정보 수집을 폭넓게 해왔다는 사실이 최근 폭로되면서, 결국 국가에 의한 대민 빅데이터 감시가 우리에게도 낮은 시나리오가 아님을 예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빅데이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2011. 11)의 보고서「스마트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에서 거의 처음 등장한다. 이 보고서에는, 빅데이터 활용의 '국가적 가치'와 관련해, "기관간 데이터 상호접근으로 포괄적 정보를 생성"하는 것과 "소셜 미디어, 포털 데이터 등과 같은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체계 및 기술 확립" 등이 적혀 있다. 즉 국가 기관들 사이에 정형 데이터의 연동성을 통한 총제적 데이터 관리체제 확대와 이를 넘어 대민 비정형 데이터와의 관리 및 연계까지도 상정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간 연계와 연동 방식에서 「플랜」은, 흥미롭게도 권력의 데이터뱅크를 계속해서 일상의 영역까지 그 범위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대신에 데이터(뱅크) 구성과 접근에 대한 공적 제어나 데이터 보관 및 추출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국가 기관 사이의 정형 데이터들의 연동은, 2004년 말경 이미 경찰-검찰-법원이 시민의 정보를 함께 연결해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시도나 2010년 파업 노동자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하여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시도 등을 선례로 삼아 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포괄적 정보 생성'은, 생물학적 유전정보와 개인 신상정보의 결합, 주민번호 시스템과 개인의 각종 의료 및 범죄 정보의 결합 등 특정의 개인 정보들이 여타의 정보들과 상호 연동되면서 개인의 정체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탈취당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더군다나 신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시민사회의 일상적 개인정보 감시 관리와 통제 (예를 들어, 국민총리실 민정수석실 민간인 사찰 등), 시민 정보의 범죄 및 공안 정보 활용 (경찰, 국정원 등 범죄정보 기록, 관리 등)을 통해 국민 프로파일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축적, 유용하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기술의 세련됨과 무관하게 권력의 매개 수준이 대단히 후진적이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줬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은 빅 데이터 '신뢰도'와 관련해 권력에 의한 데이터 교란과 데이터 조작의 조직적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거여론을 특정 정치세력에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정

원이 소셜미디어 등 무정형 빅데이터의 영역에서 오도된 정보를 흘리고 유포하는 행위는 사실상 여론조작의 새로운 기법이자 빅 데이터 자체의 과학성 혹은 진실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2011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보고서의 또 한 축은 '정부·민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이다. 이것의 의미는 재차 정부가 생산하는 구조적(정형) 데이터와 민간의 비정형 데이터를 연동해 적극적으로 활용할겠다는 의미다. 이의 위험 가능성은 신원 식별정보와 비정형 데이터의 결합에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 회사의 개별 대화내용을 수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메일 내용을 열람해 증거물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 거리시위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경찰의 영상채증으로 담아서 '영상판독시스템'을 가동해 개별 식별정보를 연동하는 경우<sup>10</sup>가 이미 빅데이터 국면의 부작용에 해당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특정인의 개인 신상과 관계한 구조적 데이터에 무작위로 비정형의 개별 데이터들을 함께 결합한 것으로, 권력 감시와 효율적 통제의 효과는 훨씬 더 증대하고 내밀해진다.

대중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이에 대한 통제력 확장 욕망은, 앞서 살핀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를 전원일치 위헌으로 판결해 폐지했다. 옥션, SK, KT 등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국민 대부분의 주민번호 정보 등이 외부 유출되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면서 도저히 이를 끌고 갈 명분이 사라진 탓이다. 적어도 2007년부터 대중의 온라인 발언을 개별자들의 신체 식별번호로 이끌어왔던 관리의 핵심 준거 메타데이터가 사라진 셈이다. 앞으로 감시 권력이 인터넷 실명제에 견주어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은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들로부터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치밀한 알고리즘의 생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실제적인 정부의 움직임으로 보자면, 박근혜 새정부 출범 이후 '빅데이터'를 중요한 국가 정보정책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여기저기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새로 출범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sup>11</sup>에서 창조정부전략실의 핵심 기조를 보면, "행정기관 및 정부와 민간간의 개방·공유·협업·소통을 통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정부 3.0')에 대한 종합 계획"<sup>12</sup> (제 15 조 1 항)을 마련한다고 적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 관련 대

---

<sup>10</sup> 국내公安사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영상판독시스템'의 문제는, 경찰이 미리 데이터뱅크(주민등록사진)를 대조군으로 하면서 연동된 권한을 획득한 후 화상인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얼굴 이미지 데이터마이닝하고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이 개입해 있다는 추측이 있다. 즉 이것이 사실이라면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큰 것이다. 이같은 영상판독시스템의 문제는,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2011)의 발표에 의해 알려졌다.

<sup>11</sup> 대통령령 제 24425 호, 관보 제 17978 호(그 2), 2013. 3. 23.

<sup>12</sup> 정부 행정조직 단위의 핵심인 안정행정부의 주요 업무 내용으로, '정부 2.0'의 공공데이터의 민주적 활용을 넘어서 정체모를 '정부 3.0'이란 슬로건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비정형 데이터세트를 활용한

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이하 '빅데이터'라 한다)에 관한 제도,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16 항)과 "행정정보 관련 빅데이터 기반구축, 운영 및 활용"(17 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거의 모든 IT 연관 정책 집행단위가 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sup>13</sup>에서도 빅데이터 관련 정책을 본격화한다. 제 18 조 정보화전략국 신설과 관련해, "빅데이터(초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29 항)을 명기한다.<sup>14</sup>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관련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내 지능통신정책과장의 분장 업무 사항으로 구체화되어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빅데이터는 미래인터넷, 국가 그리드,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센서네트워크, SNS, 데이터분석 등의 기반 위에서 작동하고 함께 응용되는 중요한 정책 사업영역으로 정의되어 있다.<sup>15</sup>

요약컨대, 차기 정부의 근간이 될 IT 정책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의 창조정부 전략실 공히 '빅데이터' 개념을 주요 정책 사항으로 명기해놓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직 그 구체적 방법론과 수집의 전제 조건들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기존의 정형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정책 지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안전행정부의 창조정부전략실에서 개념화한 '정부 3.0'도 그 내용을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호주, 영국 등 공공부문 데이터 수집, 공유 프로젝트를 보통 '정부 2.0'이라 칭하는데, '국민맞춤형'이란 업그레이드된 개념을 덧붙여 '3.0'을 쓰는 이유에는 전시주의도 있으나, 사실상 정부가 생산하는 정형데이터의 개방과 민간 비정형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란 주요 변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창부령의 수행 규칙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술적으로 모바일, 인터넷, SNS, 사물인터넷 등 지능형 네트워크의 기술 발전과 정책 영역이 동일 사업 계열로 확정되면서 이들 기술기반이 빅데이터를 안착시키는 물적 조건 역할을 하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다. 미연방 주도로 이뤄지는 데이터센터 건립이나 '프리즘'에 의한 체계적 민간 정보 수집과 같은 '빅브라더' 감시 플랜들이 우리에게 아직 가시화하지는 않았으나, 정보 정책 방향의 정황상 이미 빅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 단계로 접어들 채비를 하고 있고 충분히 이의 권력 매개수단화의 조건이 무르익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

'빅데이터'를 '정부 3.0'의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약속인지, 그 업무 내용의 실체는 불투명하다.

<sup>13</sup> 대통령령 제 24444 호, 관보 제 17978 호(그 2), 2013. 3. 23.

<sup>14</sup> 빅데이터 활용 외에도 정보화전략국내 업무로,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25 항), 사물인터넷 및 센서 네트워크의 이후 지속적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27 항),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30 항),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촉진에 관한 사항(32 항) 등을 담고 있다.

<sup>15</sup> 미래창조과학부령 제 1 호, 관보 제 17979 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수행 규칙, 2013. 3. 24.

3) 소결: 지배양식의 이행과 새로운 감시 권력

<표 1> 전자감시의 역사적 특징과 변화

	훈육사회 (~1980년 대말)	통제사회 (~2000년대말)	빅데이터 감시의 징후 (2010년대 초 ~ )
주요 인프라	주민등록증 도입 및 전산화 체제, 국가 행정전산망	국가 초고속망, 전국 공공/ 사적 네트워크망, 유비쿼터 스 네트워크, 광대역통합망 (BcN)	모바일/유비쿼터스 망, 사물 간 인터넷, 센서네트워크, 빅 데이터 기반 정보시스템
관련 정책	주민등록전산화 (75) 와 민원서비스 (91), 전산망보급과 이용 법률 재정 (86), 국 가기간전산망 기본 계획 (87-93)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 추진 (95- 05), 정보화촉진기본계획(96-00), 사이버코리아21 (99-02), e코리아 비전2006 (02-06), 브로드밴드 IT 코리아비전2007 (03-07), 'IT839전 략'(04-),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0 8-02)	스마트국가 구현을 위한 빅 데이터 마스터플랜(12), 미래 창조과학부 (정보화 전략국 내 빅데이터 정책, 03)
주요 감시 기제	CCTV, 도·감청	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 실명제), 위치정보 추적	소셜미디어 감시, DPI 감청, 알고리즘 분석
인프라 효과	전산화/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알고리즘 기법
권력 매개 효과	데이터 축적과 검색	로컬 정보의 집중과 통합	비정형 데이터 관리
감시 주요 특징	비가시성, 훈육의 심 화와 강화	유동성·편재성·연장·모듈화	메타데이터 추출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표 1>을 얻을 수 있다. 표에서 편의상 단절의 시기와 국면  
들처럼 묘사되고 있는, 훈육, 통제, 빅데이터감시 국면은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중첩되고 연속되  
어 있다. 다시 말해, 권력을 작동시키는 '매개' 수단들, 특히 권력의 감시 장치들은 이행과 진화의  
불연속적 과정으로 이뤄져 있는 듯 보이나, 여전히 과거 매개 방식들과의 중첩과 강화라는 연속  
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망-유비쿼터스망-빅데이터 국면에서 특징적  
감시기술들의 진화나 이행이 권력 지배양식의 불연속과 단절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이긴  
하다. 하지만, 군부시대 폭력과 훈육의 기제들은 그 매개 수준이 거칠고 낮더라도 오늘날 꾸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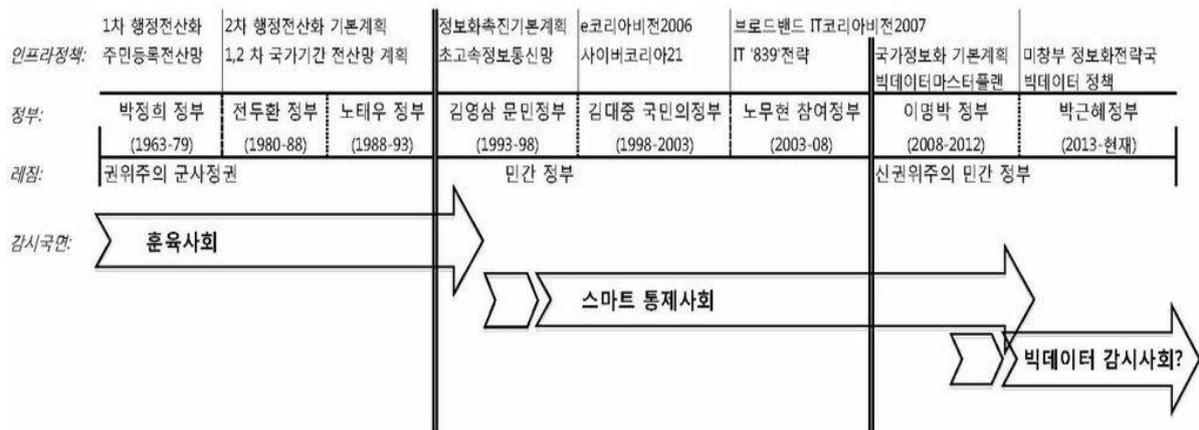
중요한 권력의 통치 매개 수단으로 잔존한다. 결국 첨단 감시와 비민주적 국가 장치들의 매개가 혼재하는 상황이 오늘날 한국의 감시 권력 작동의 풍경에 가깝다.

논의를 종합해보면, 시기별로 주요 정보통신 인프라 정책 의제는 물리적 망 구축과 고도화를 동반했고 이는 매 시기 국가 감시기제의 특징적 경향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때 주요 감시기제들은 서로 중첩되거나 진화하거나 새롭게 대체, 변형되기도 한다. 이미 본 것처럼, 70년대 중반 주민등록 전산화를 기본으로 80년대 중반 이후의 국가기간전산망 시대를 거처가면서 군부는 '훈육사회'의 내용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시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통계 전산화는 훈육 통치를 기반으로 하는 권력 유지의 첫걸음이라 볼 수 있다. 70년대는 주로 대민 주민등록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집중했다면, 80년대는 이 데이터뱅크의 전국망인 행정망,公安망, 경찰망을 중심으로 해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는데 군사 통치의 초점이 있었다. 주요 감시 기제로서 공장, 사무실, 공공 영역에서의 CCTV 활용은 성능만 떨어졌을 뿐 그 때부터 여전히 쓰였고 정보기관들에 의한 도감청이 폭넓게 이뤄지던 반인권 사회라 볼 수 있다. 감시 권력의 작동방식은 대단히 은밀하고 비가시적이었으며, 공권력의 폭력이 훈육의 빈자리를 메꾸는 역할을 수행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데이터베이스 전산화를 넘어서는 망 중심의 스마트 사회 건설의 국가적 욕망이 커진다. 실제 정보통신기술 기반 인프라 건설은 범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경제적 사활을 위한 새로운 경향이자 도전으로 각광받는다. 우리 정부도 물리적 망 건설을 통해 새로운 경제 도약을 꿈꾸려 했다. 김영삼 정부이래 수행된 대부분의 망 사업들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경제 체질 개선이 가장 핵심 정책 지향이었다. 예를 들어, 전국 단위의 초고속국가망, 공공 혹은 사적 인터넷 브로드밴드망,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광대역통합망(BcN) 등 국가주도형 망구축 사업들이 그 사례들이다. 관심은 시민 데이터의 축적보다는 일상 모든 것의 데이터화와 이들의 보다 빠른 전송을 위한 인터넷과 모바일 등 유·무선망의 환경적 조건에 맞춰져 있다. 이 상황에서 감시 권력의 매개 수단 또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었다. 국내 네트워크망의 고도화 환경은 이미 2000년대 초에 이르면 거의 갖춰지기 시작해 2천년대말에 이르면 바로 네트워크 시대라 할 만하다.

네트워크 기반형 인프라 구조는 로컬과 지역 분산에 기초했던 정보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효율성과 비용절감의 명목 하에 흩어졌던 정보를 집중시키고 통합해 통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기반 감시사회, 즉 '통제사회'의 근간을 마련한다. 인터넷과 모바일문화의 대중화와 함께 2010년대 초까지 인터넷실명제가 온라인상 개별자들을 식별하기 위한 보편적 기제였고 모바일 위치추적이 폭넓게 수행됐다. 유비쿼터스망에 기반한 '노마드권력'(nomadic power)의 논의에서 보는 것처럼, 감시 권력의 매개 수단은 대단히 유연해진다. 여전히 권력은 비가시적 영역에 머물고 있으나, 흐름

에 따라 빛의 속도로 유동하는 정보에 의해 힘을 얻는다. 또한 감시 권력은, 로컬 어디에든 존재하는 자신의 모듈화된 연장인 단말기들(미시권력의 축수들)로부터 계속해서 한 곳으로 정보를 이동, 집적, 집중해 관리하는 양상을 보인다. 때로 이와 같은 과도한 연결과 네트워크 욕망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sup>16</sup>



<그림 2> 국내 지배양식 체제의 흐름 양상

[출처: 필자에 의해 구성]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민 정형 데이터 축적과 통계 전산화의 시대 (1970-80년대말)에서 물리적·모바일 망 구축과 고도화의 시대(1990년대초-2000년대말)를 거쳐 이제 기술 감시에 질적 전화를 겪고 있다 (<그림 2> 참고). 특히, 이명박 정부 말기와 새 정부의 출범 이후 등장한 '빅데이터' 정책의 기초에서 긍정적 활용론에 대한 비전 제시에 급급함을 보면서 이후 전개될 빅데이터의 후폭풍이 우려된다. 지금도 일반적 징후들로 감지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용자들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통제 (소셜웹 감시와 신상털기 등), 이를 저장하는 새로운 능력(클라우드 저장방식 등), 이를 추출하는 정교한 알고리즘(페이지랭크 등)은 사실상 새로운 감시 권력의 탄생을 예견케 한다. 소셜웹, 일상적 채팅문화와 다양한 온라인 잉여 행위들은 무수한 비정형 데이터

<sup>16</sup> 권력 주체에게 상호 연동과 연결이 효율성을 증가하는 듯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파국의 전염과 재난의 수위를 더 크게 만들고 예기치 않은 곳에서 위험이 발생하도록 추동했다. 국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해킹 공격의 증가나 바이러스의 글로벌한 영향 등은 이와 같은 과잉연결의 폐해이다. 예컨대, 2003년 1월 24일 MS SQL바이러스에 의한 컴퓨터재난, 2009년 7월 7일과 2011년 3월의 디도스 공격, 2011년 4월 농협전산망 마비, 2013년 3월 20일 방송사·금융사 일부 시스템 마비 등은 바로 '연결과잉'(에 의한 사이버재난 상황이었다. 데이비도우(2011)에 따르면, '연결과잉'(overconnected)의 시대에는 인터넷 등 상호의존성이 두드러질수록, 역으로 통제력이 상실될 확률이 높다.

생산의 근원지가 되면서, 현대 권력의 통치와 권력의 매개 방식과 관련해 중요하게 취급된다.<sup>17</sup> 이 속에서 개별자는 스스로의 자유 의지에 의해 그리고 잉여 높이를 통해 데이터 배출과 조각의 흔적들을 남긴다. 판옵티콘적 권력의 시선이 감소하고 보다 분석의 알고리즘이 중요해진다. 알고리즘 권력 감시는, 특정 개별자의 신원, 관계, 행동, 성향, 패턴 등을 빅데이터(메타데이터)로부터 특정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추출하는 방식이다. 그 효과는 이미 존재하는 통제사회의 유·무선 네트워크망을 포괄적으로 활용하고, 때론 훈육사회에서 누적되고 축적된 신원정보 등 정형데이터와 연동하면서 더욱 정확해진다. 이 새로운 시대는 '빅데이터 감시사회'라 부를 만한 것이긴 하나, 아직까지 우리의 국가 영역에서 감지된 내용은 사실상 적다. 지금까지의 한국 정치 레짐의 민주적 성숙도와 과거 인프라 기술 활용의 방식을 따져보면 권력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빅데이터 기술의 통제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짐작만을 할 수 있다.

## 5. 결론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80년대말, 그리고 90년대말 이후 진행된 정보화 국면(특징적으로는 전두환 정부의 국가기간망 사업과 김영삼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 이후로 권력의 일반적 통치 방식이나 매개 수단에서 커다란 질적 전환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참고). 사실상 이 논문이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빅데이터 감시 현상은, 소셜웹 혹은 스마트문화로 상징되는 시대, 즉 '정보자본주의'라고 언급하는 구성체 안에서 작동하는 권력 매개수단의 변화를 강조하려는데 의의를 뒀다. 이는 이용자들이 만들어내는 다종다양한 비정형 데이터의 수취와 통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의 중요한 가치를 창출해가는 구조적 시스템을 지칭한다. 한국사회에서 시기적으로는 정보자본주의의 본격화와 빅데이터 기반 통제의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말기쯤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그 역사적 전단계로서 전산화와 네트워크기반 사회의 감시 권력의 비가시성, 유동성, 모듈화, 편재성 등의 주요 특성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정보자본주의'에서 어떤 지속성을 갖는지 혹은 또 다른 변화를 겪는 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해왔다.

요약하면, 오늘날 현실에서 부상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감시 기제를 이전 권력에서 유추해봄으로써, 점차 총체화, 정교한 알고리즘 논리, 메타데이터의 중심 역할, 데이터의 전유와 추출 등의 감시 로직으로 바뀌는 현대 감시 권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이명박 정부

<sup>17</sup> 예를 들어, 정형데이터 분석보다 비정형 데이터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대단히 정교한 예측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흔하게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수행하는 선거 여론조사보다 구글, 네이버, 다음 등 특정후보의 검색빈도수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때가 많다 (윤형중, 2012, 28-30 쪽).

의 '신권위주의'적 국가 통치전략의 말기에 징후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박근혜 정부의 직제 개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존의 스마트 통제사회에서의 감시 장치들과 더불어 빅데이터 기반형 감시 알고리즘들이 새롭게 중요한 권력의 매개 수단으로 떠오를 수 있음을 포착했다. 무엇보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이후 전자저항을 누그러뜨리는 권력의 '매끄러운' 통치 수단과 매개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져 간다. 대중의 삶 자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빅데이터 감시의 도래가 우려되는 측면이다.

대안적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대중이 생산하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자본과 국가에 의한 전유와 감시 과정, 즉 개별자 데이터의 생성, 보관, 유통, 처리의 알고리즘 및 추출 기제에 대해 그들 각자 스스로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제도 입안이나 개혁 이전에, 비정형 데이터의 문제점과 피해 가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이 필요하다. 특히, 생애주기상 소셜웹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비정형 데이터 생산이 가져올 무한한 개인적 피해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과 대국민 가이드라인 제안이 필요하다. 적어도 제도 이전에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국가와 기업들에 의해 유출, 유용될 수 있고 신상털기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사회적 인지 절차가 필요하다.

신체 데이터의 유출과 감시에 저항해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으로 권리 장전화하는 노력도 시급하다. 쇠베르거(Mayer-Schönberger, 2011)는, 검색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상적으로 올렸던 글과 검색 내용들이 온라인상에서 완벽하게 기억되어 네트에 떠돌거나 누군가에 의해 관리되는 현실을 경고한 적이 있다. 무조건 기억되어 저장되는 현실이 '잊혀지고 삭제될 권리'보다 앞서 존재하는 시대에 대한 탄식이다. 이같이 우연과 목적된 행동들 모두가 기억되고 저장되는 현실에서, 개인의 정형·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을 이전보다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특히, 비정형 데이터로 사업을 하거나 감시를 행하는 주체들에게 잊혀질 권리 즉 신상정보 삭제권을 의무화하여 적용토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카톡 등 앱을 통해 개인 채팅 내용을 보관하는 기간 제한이나 파기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개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데이터마이닝'이나 '신상털기'를 통한 특정 관계의 추론과 정보 추출 방식에도 제한을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빅데이터 국면에서 개인 신상정보와 삶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한 축이라면, 다른 측면에선 국가에 의한 빅데이터 활용의 정보공개와 투명성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다. 대중의 비정형 데이터가 행정 정보와 연동되는 경우 이에 대한 투명한 집행과 공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웹 API 등을 통해서나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부 데이터 접근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기본이다. 오히려 처벌과 감시의 주요 기구들, 검찰, 국세청, 감사원, 국정원 등이 수집하는 민간 정보의 수준, 수집 방식,

관리 절차 등에 대해 대중들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빅데이터 커먼즈(공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각 기관들의 무차별적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정책 개선 등 국가, 기업, 시민사회, 개인 층위에서 빅데이터 수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에 뿌리박힌 국가 감시 권력의 흔적들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흔적을 제거하는 데는, 대중들이 나서 관련 법 제도 개혁과 정책 입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빅데이터 수집의 근거 제시와 알고리즘의 설계를 바꾸는 등 과학·기술 체계를 재설계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미 역사적으로 실험되거나 제도화된 재설계 실험들로는, '과학·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 민주화 체계로서 '합의회의'나 '시민배심원회의' 등이 거론될 수 있겠다(이영희, 2011).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같은 기술민주주의의 경험들은 빅데이터 국면에 맞게 응용해 정보인권 침해 소지가 높은 고도 감시 체제를 비판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적인 논의의 장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강상현 (1994). '정보사회'담론의 지형학: 정보/통신 기술과 사회변화의 관계에 대한 관점의 분류와 비교, <언론과 사회>, 5호, 116-162.

강성준 (2011). 전통적 정보수집과 전산화 현황, <경찰과 사찰: 경찰의 정보수집의 현황과 법적통제방안>, 인권단체워크샵, 2. 10.

강정수 (2012). <혁신과 위험의 빅데이터, 긴장과 균형>. 제 6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SK위험정보사회연구팀 정기세미나 자료집, 3. 20.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정부 구현방안(안)>. 의안번호 제 146호, 11. 2.

- 백옥인 (2013). 「빅데이터의 형성과 전유체제 비판」, <동향과 전망>, 87호, 304-331.
- 백옥인 (2011). 인터넷의 변화와 비트전유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81호, 342-368.
- 서현진 (2011). <끝없는 혁명: 한국 전자산업 40년의 발자취>, 이비커뮤니케이션(주).
- 오세욱·이재현 (2013). 「소프트웨어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분석」, <언론과 사회> 21(1), 136-183쪽.
- 윤형중 (2012). <이제는 빅데이터시대>, e비즈북스.
- 이광석 (2012). 스마트시대 통치 성격 변화와 미디어 공공성 실천. 미디어공공성포럼 엮음, <한국사화와 미디어공공성>, 462-488.
- 이영희(2011).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서울: 문학과지성사.
- 조정환 (2011). <인지자본주의>. 서울: 갈무리.
- 채승병·안신현·전상인 (2012). 「빅데이터: 산업 지각변동의 진원」.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851호, 5. 2.
- 한국전산원 (2005).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 한병철 (2011). <권력이란 무엇인가>, 김남시 옮김, 문학과지성사.
- Bamford, James (2012). The NSA Is Building the Country's Biggest Spy Center (Watch What You Say). *The Wired*. March 15, Available at: [http://www.wired.com/threatlevel/2012/03/ff\\_nsa\\_datacenter/all/](http://www.wired.com/threatlevel/2012/03/ff_nsa_datacenter/all/)
- Bauman, Zygmund (2000). *Liquid modernity*. Cambridge, UK: Polity Press.
- Beniger, James (2009). *Control Revolution* 윤원화 역(1986) <컨트롤 레벌루션- 현대 자본주의의 또 다른 기원>, 현실문화연구.
- Carr, Nicholas (2008). *The Big Switch: Rewiring the World, from Edison to Google*, 임종기 역 (2008). <빅 스위치: 웹2.0시대, 거대한 변환이 시작된다>, 동아시아.
- Bucher, Taina (2012). Want to be on the top? Algorithmic power and the threat of invisibility on Facebook. *New Media & Society* 14(7): 1164-1180.
- Castells, Manuel (2000).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 Oxford: Blackwell.
- Castells, Manuel (2012). *Networks of Outrage and Hope: Social Movements in the Internet Age*. Cambridge: Polity Press.
- Davidow, William (2011). *Overconnected: The Promise and Threat of the Internet*. 김동규 역 (2011). <과잉연결시대>, 수이북스.
- Deleuze, Gilles (2005). *Negotiations (1972-199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Economist* (2010). Data, Data Everywhere: A Special Report on Managing Information, *The Economist*, Feb 27.

Foucault, Michel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C. Golden, ed). New York: Pantheon.

Foucault, Michel ([1976]1990). *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 New York: Vintage Books.

Lee, Kwang-Suk (2012). *IT Development in Korea: A Broadband Nirvana?* London: Routledge.

Manovich, Lev (2011). *Trending: The Promises and the Challenges of Big Social Data*, April 28, Available at: [http://www.manovich.net/DOCS/Manovich\\_trending\\_paper.pdf](http://www.manovich.net/DOCS/Manovich_trending_paper.pdf).

Mayer-Schönberger, Victor (2011). *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구분 권 역 (2011). *잊혀질 권리, 지식의날개*.

Pasquinelli, Matteo (2009). *Google's PageRank Algorithm: A Diagram of the Cognitive Capitalism and the Rentier of the Common Intellect*. Available at: <http://independent.academia.edu/MPasquinelli>

Pasquinelli, Matteo (2012). Machinic Capitalism and Network Surplus Value: Note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Turing Machine, a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Marxism and New Media*, Duke University Program in Literature (Durham, NC), Saturday, January 21. 연구공간L 엮음, 기계적 자본주의와 네트워크 잉여가치튜링기계의 정치경제학, <자본의 코뮤니즘 우리의 코뮤니즘: 공통적인 것의 구성을 위한 에세이>, 난장, 159-190.

Shirky, Clay (2011). *Cognitive Surplus*, 이충호 역 (2010), <많아지면 달라진다>, 갈리온.

Weinberger, David (2008). *Everything Is Miscellaneous: The Power of the New Digital Disorder* 이현주 역(2008) <혁명적으로 지식을 체계화하라>, 살림Biz.

---

## 支配模式的局面变化和大数据监视的形成 (提要)

李光錫 Kwang Suk Lee

(SSK危险、信息社会研究小组, 首尔科学技术大学  
IT政策研究生院 数码文化政策学系)

---

这篇文章是要追踪权力和监视之间的结构性对应关系。尤其是要探索在韩国社会里, 在社会基础技术的条件及其变化里的国家权力支配方式的变化, 而且还要从支配方式的历史性转化这一角度来, 追问信息通讯技术与监视机制之间的密切关系。具体来讲, 本篇文章要历史地探讨, 国家权力依靠信息通讯技术这一物质性基础来如何构成自己这样的问题。并且还要试问和诊断: 随着监视社会的本质性变化, 现实国家权力的支配方式的特征是如何不同, 尤其是基于“大数据”来, 监视的形式和内容将要如何变化。本篇文章认为, 通过70年代中期的数据库的计算机化、80年代中期以后国家基于计算机网络这些阶段, 当时的军事政府在其本质的层面上已经拥有了“规训社会”的内容。接着, 跟1990年代中期以后开始的以宽带网络为中心的智能社会的建设一起, “控制社会”的国家欲望已经被实现了。在一段时间里, 由于统治的非民主性和未成熟性, 权力的监视技术的媒介效果有点减少, 但是至少是在技术的媒介手段这一层面上发生了本质性的转换。迄今为止, 从在韩国社会的监视权力之扩散这一脉络上看, 将来以“大数据”为基础的监视算法可能会成为新时代的权力媒介手段。

<图表1> 监视的每个历史阶段的特征及其变化

	规训社会 (~1980年代末)	(智能) 控制社会 (~2000年代末)	大数据监视的症候 (2010年代初 ~ )
主要 设施	居民身份登记的 引进, 电算化体制和 国家行政计算网	国家超高速网, 全国范围 的公共/私人网络, 无所不在的 网络, 宽带综合网络(BcN)	移动/无所不在的网 络, 事物之间的网络, 传感器网络, 以大数 据为基础的信息体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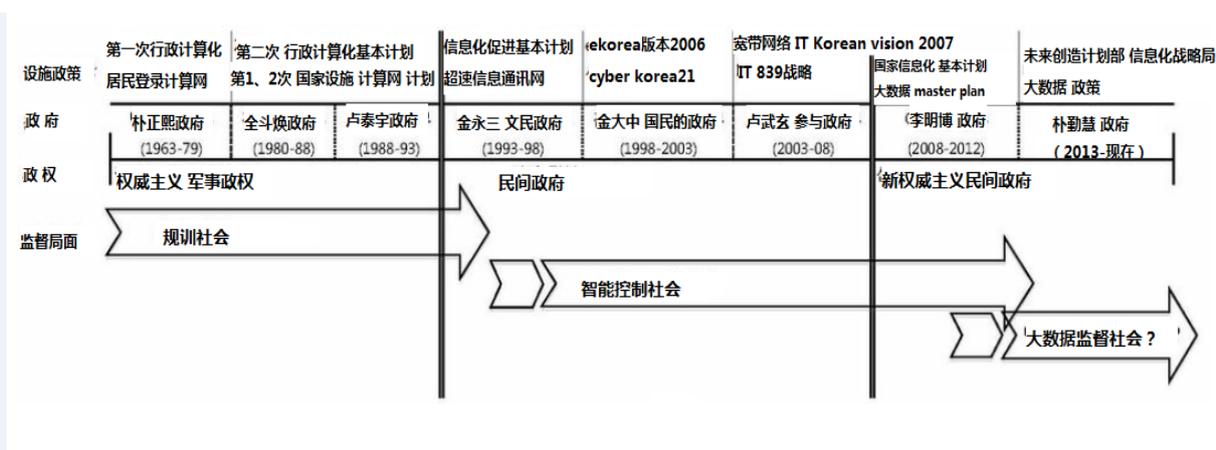
有关政策	居民身份登记的 计算化 (75), 信访服 务(91), 计算网的普及和 利用法律的制定(86), 国家基于计算网 基本计划(87-93)	超速信息通讯网事业推展 (95-05),信息化促进基本计划 (96-00), cyber korea21 (99- 02), e-korea vison2006 (02- 06), 宽带IT korean vison2007 (03-07), 'IT839战略'(04-), 国 家信息化基本计划(08-02),	为智能国家实现的 大数据master plan(12), 未来创造科学部(信息化 战略国内大数据政策, 03)
主要 监视机制	CCTV, 窃听·监听	局限性 本人确认制度 (网 络实名制), 位置信息追踪	社交媒体监视, DPI 窃听, 算法分析
设施 效果	计算化/数码化	网络化	算法技术
权力 媒介效果	数据的积累和检 索	地域信息的集中和整合	非定型数据管理
监视 的主要特 征	隐形性, 规训的 深化和强化	移动性·遍在性·延长·模块 化	抽出meta数据

从时间的维度上看, 有关信息通讯设置的主要政策议题伴随了网络的物质性设置及其高度化, 这就突显, 每个阶段国家监视机制的独特倾向。同样, 在这样的过程当中, 主要监视机制是互相重叠、进化、重新代替或变化。如上已看, 以70年代中期居民登记的计算化为基础, 通过80年代中期以后的国家设置计算机网络时代, 军事政府已经具备了“规训社会”的内容。市民信息的数据化以及统计计算化意味着, 以“规训统治”为其基础的权力维持的第一步。倘若说70年代主要是这样集中于居民登记信息的数据化, 那么, 80年代军事政权的统治还是致力于以这些数据库的全国性网络即行政网络、公安网络、警察网络为中心, 来提高其政权的网络效率。作为主要监视机制的工厂、办公室以及公共领域里的监控器虽然在其性能层面上还是比较底的水平, 但那时候已经在被使用的, 情报机构广泛地使用窃听和监听, 这可以说是一种反人权社会。监视权力的运作方式是极为隐秘和隐形的, 公权力的暴力就担当了弥补规训空白的角色。

到了1990年代中期, 国家对于超越数据库计算化的以网络为中心的智能社会建设的欲望越来越大。实际上, 信息通讯技术设施的建设被赞扬为在全球化的波浪里能够推动经济跳跃的新趋势和挑战。韩国政府也期待了以网络建设为基础的经济。金永三政府以来, 所施行的大部分的网络事业都是集中于网络设施的建设, 经济体质的改善就是最为核心的政策指向。例如, 全国范围内的超速国家网络, 公共或私人空间的宽带网络, 无所不在的网络, 宽带综网络(BcN) 等的国家主导的网络建设事业就是其事

例。主要焦点并不放在于市民数据的积累，而在于一切日常生活的数据化以及为了其数据的高速转送的网络和移动通讯等无、有线网络的环境条件。在这样的情况之下，监视权力的媒介手段也不能不升级。2000年代初，国内网络的高度化环境已经达到了完成的阶段，也可以说，2000年代末就达到了真正的网络时代。

以网络为基础的设施结构就瓦解了以地方和地域分散为基础的信息之间的境界，在效率性和费用节用的名目之下，具备了能够把分散的信息加以集中、结合起来控制的以网络为基础的监视社会即智能“控制社会”的基础。跟网络和移动文化的大众化在一起，到了2010年代初，网络实名制就是为了识别网络个别使用者的普遍机制，对于移动电话的位置追查被广泛地使用。由于基于无处不在网络的“游牧权力”的出现，监视权力的媒介手段就变成较为柔软。权力仍然是留在于隐形的领域之内，权力还是从光速般地流动的信息获得其力量。加之，监视权力就显示出，从无所不在的自己的模块化的终端机（微观权力的触手）来，不断地把信息移动、积累、集中于一处加以管理的形态。有的时候，这些过于的连接和对网络的欲望造成了国家范围的灾难状态。



最后，我们韩国从对市民的定型数据积累以及统计电算化时代（1970年代至1980年代末）来起步，经过了移动网络的基础性建构及其高度化时代（1990年代初至2000年代末），现代经历着技术监视时代这一本质性变化。（参见《图片1》）尤其是，在李明博政权末期和朴勤慧新政府的信息政策的基调里，我们就会发现这些政权和政府急于“大数据活用论”，我们不能不忧虑以后发生的有关个人信息权利的风暴。从目前的情况而看，作为是一种症候而被感觉到的，而且成倍增多的网络使用者们对于非定型数据的误、滥用（社交网页，人肉搜索等），以及积累这些信息的新的能量（云积累方式等），抽出这些信息的精密的算法（网页评估，即page rank），这些现象使得我们预见新种监视权力的诞生。随着社交网页、日常生活的网上聊天以及各种各样的网上业余活动成为无数的非定型数据生产的根据地，在与现代权力的统治和媒介方式的关联之下，这些活动就开始受到重视。在这样的环境里，个别使用者按照自己的自由意志而且通过业余游戏来，留下数据的排泄及其片断的痕迹。全景式监狱的权力视角逐渐减

少，反而分析的算法越来越变成重要的。基于算法的权力监视就是指通过特定的算法来，从大数据之中抽出特定个人的身份、关系、行动、兴趣及模式的方式。通过已存的监视社会的有、无线网络的全面使用，有时与在规训社会里被储蓄的身份信息等的定型数据之连动在一起，其效果就更为明显。这一新的时代虽然可以被称为是“大数据监视社会”，但到目前为止，事实上在我们韩国的国家范围内被暴露出来的内容还是较为少的。如果我们考虑到到现在为止的韩国政治体制的民主化成熟程度和以往设施技术活用的方式，那么就能够预测到作为权力媒介手段的大数据技术的控制性活用的可能性。

通过把今日在现实生活里日益浮上的以大数据为其基础的监视机制从对以往权力的分析里加以抽出来，我们会把握逐渐变成总体化、精密化的算法逻辑、变化数据（meta data）的中心角色、数据的专有和抽出的现代监视权力的权力变化。尤其是在韩国社会，正如李明博政权末期的“新权威主义”式的国家统治战略症候性地显示，而且正如朴勤慧政府的组织再编所体现，我们就会预测到，跟以往智能控制社会的监视装置一起，以大数据为基础的监视算法可能会作为新型权力媒介而出现。并且网络实名制的废止以后，在减少网络抵抗的权力之“柔软”统治手段和媒介的必要性这一侧面上，非定型大数据的活用和管理成为了头等大事。这样的趋势使得我们忧虑总体性地控制大众生活本身的大数据监视时代之到来。

翻译：皮垆勋（北京大学博士班）

审校：林春城（木浦大学教授）

---

# 들여다보기 · 보지 않기: 변화하는 중국 미디어의 수사정치학

## —중국 CCTV <들여다보기(看見; Insight)>의 “원저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도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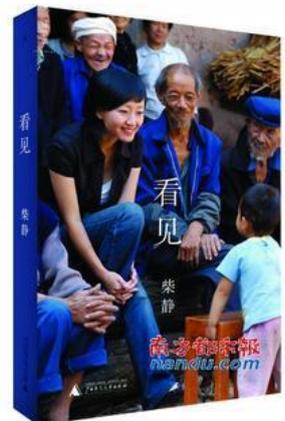
동리민 (董丽敏, 상하이대학 문학원)

---



2013년 2월 4일, 중국중앙텔레비전(이하 CCTV)의 간판급 뉴스 칼럼 <들여다보기(看見; 영문제목 Insight)>는 <옌옌홍: 나는 나 자신을 모른다 (颜艳红: 我不认识我自己)>를 방영하였다. 2012년 10월 한 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원저우(温州)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학대 당사자인 옌옌홍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다룬 권위 있는 미디어의 첫 번째 보도였다. 도대체 옌옌홍은 어떤 심리상태에서 것처럼 유아원 아이들을 학대할 수 있었던 것인지, 그녀의 동기는 무엇인지, 그녀는 도대체 어떤 인생 경력을 지니고 있는지 ... 등을 보도하였다.

CCTV의 유명 기자인 차이징(柴静)의 인터뷰를 통해 옌옌홍의 알려지지 않았던 심리세계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빈곤한 가정, 주변화된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던 부모님, 신분 상승의 여지라곤 전혀 없었던 교육/직업 경력, 드센 남자친구, 기괴한 인터넷 공간..., 옌옌홍의 처지가 이런 요소들과 결합되자, 그녀의 이미지는 그동안 인터넷 상에서 규정지어졌던, 폭력을 즐기는 “90후(1990년 이후 태어난 이들, 즉90년대생의 젊은 세대를 가리킴-역주)”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바뀌었다. 이로부터 <옌옌홍: 나는 나 자신을 모른다>는 또 다시 “90후”의 청년세대의 생존 환경, 청년 성장에 있어 인터넷의 이로움과 폐단, 그리고 <들여다보기>와 같은 대중 매체의 직업윤리 등과 같은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마침 차이징의 신서 『들여다보기』가 붐을 일으키면서, 뉴스

가 보여줄 수 있는 요소나 그 기준에 대한 대중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던 무렵에 이 방송이 방영되었다는 사실이다.<sup>1</sup> 만약에 “90후”의 청년들에 대한 사람들의 각종 논쟁들, 뉴스 칼럼으로서의 “들여다보기”에 대한 자리 매김, 차이징 자신이 애써 만들어놓은 “공공 지식인(Public Intellectual)” 이미지 등과 같은 몇 가지 측면들을 함께 묶어 놓고 논의해 본다면, 우리가 가치 혼돈의 사회적 전환기에 처해 있음을, 또한 인터넷, 휴대폰 등의 뉴미디어가 점차 신문, 텔레비전 등의 전통 미디어를 대체하는 미디어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그리고 당대 중국이 미증유의 정보 전달 / 사회적 합의(consensus) 수립의 곤경에 직면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1. “취약계층” 연옌훙 “들여다보기”

“원저우 아동학대 사건”은 “바이두백과 개요란(百度名片)”에 정리된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네티즌 “신상털기(人肉搜索: 컴퓨터나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검색하는 것을 가리키는 유행어-역자 주)”로부터 비롯된 인터넷 현실 개입이 만들어낸 “풀뿌리 민주주의(草根民主)”적 사건의 하나로 묘사되고 있다. 2012년 10월 24일, 웨이보(微博: “마이크로”를 뜻하는 “微小”와 “블로그”의 음역어인 “博客”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웨이보는 중국을 대표하는 SNS로, 중국판 트위터라



불리기도 한다.-역자 주)에 “蒋讲090080”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이 아동학대 사진을 한 장 올려놓았다. 이 사진에는 여교사에 의해 두 귀를 잡혀 땅 위로 수십 센티미터나 들어올려진 채,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아이의 모습이 찍혀있었다. 이 아이의 표정과와는 대조적으로 여교사는 뜻밖에도 미소를 짓고 있는데, “쇼”를 보여주며 재미있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 사진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급속도로 퍼져나감과 동시에 네티즌에 의해 사진 속 인물에 대한 신상털기도 신속히 진행되었다. 결

국 아동학대 가해자는 저장(浙江)성 원링(温岭)시의 란콩취유아원(蓝孔雀幼儿园)의 교사 연옌훙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연옌훙의 신분증 번호, 휴대폰 번호, QQ(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채팅서비스로 각종 포털서비스도 겸하고 있고 개인 미니홈피인 ‘QQ공간’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역자 주) 번호, 집주소, 졸업학교 등의 개인정보 역시 모두 노출되었다.

아동학대 사건의 당사자인 연옌훙은 1992년 4월 원링의 한 농촌마을에서 태어났고, 중학교 졸업 이후 원링시 교사 연수학교(进修学校)를 들어갔다. 이후 민간 운영의 원링 란콩취유아원에

<sup>1</sup> 차이징의 신서 <들여다보기(看见)>는 2012년 출시 1주일만에 판매부수가 100만권에 달하였다. (<차이징과 <들여다보기>: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떤 사람들을 들여다보았나> [http://www.imeee.cn/life/xiuxian/020GLF922013\\_2.html](http://www.imeee.cn/life/xiuxian/020GLF922013_2.html))

들어가 일을 시작하였지만, 교사자격증이나 취업증명서는 없었다. 연연홍의 개인 QQ계정에서 다른 수십 장의 아동학대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쓰레기통에 처박혀있거나,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입에 접착테이프를 붙이고 있는 4-5세 정도의 아이들 사진이었다. 네티즌들은 “아동 학대가 한 번만이 아니었군! 증거를 모두 남겨놔어!”라며 놀라움을 감치지 못했다. 사진의 공개 이후, 인터넷상에 비난여론이 들끓어, 연연홍은 “변태교사”<sup>2</sup>, “불량소녀”<sup>3</sup>, 심지어는 “금수”<sup>4</sup>, “짐승”<sup>5</sup> 등으로 비난 받게 되었다.

격렬한 사회 여론의 압박 속에, 윈링시 교육국은 신속히 대응에 나서, 유아원에 개선과 연연홍의 해고를 요구하였다. 저장성 교육청 역시 10월 26일, <윈링시 란콩첸유아원 교사 아동학대 사건 및 보다 엄격한 교사 윤리 관리에 관한 저장성 교육청 공지>를 하달하여 “즉각적이고 엄중한 처리, 학생에 대한 상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방지 및 금지, 더 나아가 학생 학대 사건 발생의 근절” 등을 지시하였다. 윈링시 공안국도 즉각 “소란 야기 죄(寻衅滋事罪)”로 연연홍을 형사 구속하였지만, “범죄 불구성”을 이유로 공소는 기각 당하였고, 다만 연연홍에 대한 행정 구류 15일의 처분만이 내려졌다. 조사를 통해 윈링시 공안국은 연연홍이 “감정 문제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측 조사에 의하면, 연연홍의 아동 학대 혐의는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단지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 기분 전환을 하려고 그랬던 것뿐이었다고 진술하였다”.<sup>6</sup>

어째서 “재미”라는 이 우리터우(无厘头: 광둥어로 ‘넌센스’, ‘이해할 수 없음’, ‘제멋대로’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황당함을 즐기는 일종의 청년층 하위문화를 가리킨다.- 역자 주)적인 추구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이 사건 주인공의 행위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었을까? 이는 분명 <들여다보기>라는 칼럼이 “원저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가졌던 “바이두백과 개요란”의 관점과는 다른 지점이다.<sup>7</sup> <들여다보기>는 이 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학대

<sup>2</sup> 《윈링시 란콩첸유아원 변태교사 신상털기 당하다

(温岭蓝孔雀幼儿园变态教师遭人肉)》, <http://home.cnstock.com/article-16377-1.html>.

<sup>3</sup> 《윈링시 란콩첸유아원 아동학대 여교사 연연홍, 교육 사업에 종사하는 불량 소녀

(温岭蓝孔雀幼儿园虐童女教师颜艳红从事教育事业的不良少女)》, <http://candylulu007.blog.163.com/blog/static/136175264201292511293114/>.

<sup>4</sup> 《연연홍 인터넷 사진: 눈뜨고 볼 수 없는 연연홍 QQ 공간의 아동학대 사진

(颜艳红空间照片: 颜艳红空间虐童照片惨不忍睹)》, <http://9ixiaoshuo.com/redianxinwen/2012-10-28/1558.html>.

<sup>5</sup> 《바이두백과 개요란, 연연홍 (百度名片·颜艳红)》, <http://baike.baidu.com/view/9497123.htm>.

<sup>6</sup> 《허베이 청년보 조사: 연연홍 진실의 복원

(河北青年报调查: 还原一个真实的颜艳红)》, <http://www.yiqigogo.com/post/388.html>.

<sup>7</sup> 《연연홍: 나도 나 자신을 모른다 (颜艳红: 我不认识我自己)》의 첫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학대 동기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시종 ‘재미(好玩)’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상식적으로 이런 잔인한 행위가 어떻게 정상인의 정신세계 속에서 ‘재미’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연연홍은 우리에게 인터뷰해줄 것을 승락해 주었는데, 그녀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어왔던 또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를 당한 아동과 가장의 분노와 읍소는 서술의 실마리로 삼을 뿐, 이야기의 중심은 사건의 주인공 연연홍에게 두고 있다. 또한 연연홍 자신의 이야기를 뉴스의 중심 줄거리로 삼고, 연연홍의 가족, 남자친구, 동료, 친구, 유아원원장, 교사, 가장 등의 사건에 대한 반응 및 연연홍의 생각을 덧붙여 가며, 연연홍의 특정한 심리상태에 대한 발굴에 집중하였다. 이를 그녀의 내면 세계를 분석하는 경로로 삼았다.

<들여다보기>는 우선 연연홍이 빈한한 농촌 가정 출신임에 주목하였다. 창문에 창호지 대신 포스터를 붙여놓은 “2층 바닥이 꺼진” 낡은 집과, “수십 년 된 낡은 텔레비전”, “말수 적고 폐결핵 걸려 제대로 일도 할 수 없는”<sup>8</sup> 부친, 연이어 자식을 잃고 “약간 정신 이상이 되어” “아래층으로 절대 내려오지 않는” 어머니, 그리고 병과 가난으로 인해, 또한 마을 사람들의 “무시하는” 시선을 마주하게 될까 두려워 거의 사회적 교류가 없이 살아온 고독한 삶, ... 은유적 의미마저도 함께 담고 있는 이 어둠 속에서 카메라가 톱컷을 이용해 연연홍의 삶의 각 요소들을 일일이 훑어가자, 화면 속의 정체감, 답답함, 암울함 등은 QQ 공간 속 연연홍의 정서와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다. “어째서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한 거죠, 원래 모든 게 고통이잖아요, 못 참겠어요.” 이런 식의 서술 속에서, 연연홍이든 아니면 카메라 뒤에 숨어있는 나레이터든, 분명 요즘 유행하는 “부모 뺨(拼爹: 최근 중국에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배경에 의존하는 세태를 비꼬는 유행어-역자주)”의 논리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연연홍의 인생은 시작부터 불행이 정해져 있었고 불행의 근원은 쓸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라곤 전혀 갖지 못한 그녀의 빈한한 처지와 출신에 있었다는 것이다. 인생 출발점에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식의 이 같은 주장과 과장은 확실히 사람들로 하여금 당대 중국이 젊은이들에게 만들어놓은 절망적인 열악한 성장환경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연연홍의 정서가 분명 당대 중국 사회계층의 고착화와 취약계층의 신분상승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한 분노로부터 표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당대 중국의 권력층/국가자본주의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불공정에 대한 폭로와 비판의 의미가 담겨있다. 여기서 <들여다보기>는 나레이터의 시선을 당사자의 입장에 일치시킴으로써, “동정적 이해”의 태도를 가지고 의미를 역전시키는 일종의 서사적 수사정치학을 추구하고 있다. 원래 도덕 상실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던 연연홍이 당대 중국사회의 “부모 뺨” 병리현상의 징후이자 이런 병리현상의 희생양으로 간주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여러 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의성을 지니게 되었다. 더욱 약하고 힘없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자면, 교사로서의 기본 직업윤리를 망각한 연연홍의 행위는 당연히 공분을 살 수 있지만, 당대 중국 대중이 가장 혐오하는 권력층의 태생적인 “원죄”라는 면에서 보자면, 기층민중 출신이라 태어날 때부터 그로부터 벗어날 수

---

싶다고 말하였다.”

<sup>8</sup> 《연연홍: 나도 나 자신을 모른다》 나레이션 참조. 이하 문장 가운데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는 모두 나레이션 가운데서 인용한 것이다.

도 없었고 도와주는 이도 없었던 연연홍의 처지에 동정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들여다보기>는 한발 더 나아가 연연홍의 성장기에 받았던 교육 배경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직장 경험을 발굴해냄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어려서부터 성적은 줄곧 최하위권이었고”, “유아원교사학교의 학비가 싸고, 직업을 찾기가 쉽다”는 생각에 연연홍은 중학교 졸업 이후 원링시 교사 연수학교의 예술공연 전문 유아원교사반 시험을 보았다. “대충 때우기”식의 학업생활을 끝내고, 그녀는 란콩첸유아원이라는 원링시 도농 결합형 사립유아원에서 꿈에도 그리던 교사가 되었다. 하지만 한달 월급은 고작 1,500위안(2013년 현재 우리 돈으로 약 28만원 정도-역자 주)이었는데, “이는 저장성 동남부에 위치한 경제발달지역인 원링시에서 아주 낮은 수준의 월급이었으며, 그녀의 옷은 모두 의류시장에서 몇 십 위안 (10위안=약1,840원)에 산 것뿐이었다. 그녀는 웨이보에 “거지도 나보단 낫겠다”며 신세한탄을 하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하나의 “가정인”에서 “사회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교육”이 ‘사회적 자원의 불공평 분배를 해결하고, 새로운 평등 기회를 창조하며, 계층 고착화를 타파하는 주요 수단이라 여겨왔다. 하지만 연연홍의 사례에서는 오히려 이런 교육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진 것처럼 보인다. 성적이 그저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지방의 중등직업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인재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어 좋은 보수의 직업을 얻을 수 없었다. 또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녀가 장래 취업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공도 매우 한정적이었고, 여성용 직업이라 여겨지는 “유아원교사”라는 직업만이 가능하였다. 상술한 몇몇 원인들로 인해, 취업 지역 역시 여러 모로 조건이 열악한 편인 “도농 결합형”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설명들 속에서 우리는 당대 중국에서 “교육”을 통해 연연홍이 결코 새로운 사회적 자원을 얻을 수 없었으며, 힘겹게 살아온 하층민 부모의 운명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렌스(廉思)가 <개미족>(蚁族)에서 행한 청년 저수입 계층에 대한 조사의 결론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지방 대학과 민영 전문학교”를 졸업한 “80후(1980년 이후 출생 80년대생 청년들 - 역자 주)” 대학생은 “대학 졸업 출신 저수입 집단거주 군체”, 즉 “개미족”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이다.<sup>9</sup> 당대 중국에서 “교육”은 사회적 평등을 재창출해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출생”이라는 출발선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격차가 청년기에 더욱 커지도록 만들고 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90후” 여성인 연연홍의 경우, 인생을 바꾸는 데 아직 다른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 <들여다보기>에서 연연홍의 여자친구는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어쨌거나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유아원교사직을 선택하면서 평생 그 일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유아원교사직은 그저 “청춘용 밥줄(青春饭: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가리키는 신조어-역자 주)일뿐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을 통해 다른 생계방도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sup>9</sup>렌스(廉思) 《개미족(蚁族)》(桂林: 广西师范大学出版社, 2009), 1 쪽.

옌옌홍의 경우, 이런 방식의 경로도 순탄치만은 않았던 듯싶다. 사귀던 남자친구는 “약간 자제력이 부족한 편인데다, 항상 게임을 즐기고,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도 미심쩍고, 다룰 때면 여자친구(옌옌홍)에게 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옌옌홍은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느꼈던 각종 스트레스와 감정들을 남자친구가 있는 곳에서 풀어놓거나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 반대로 항상 양보해가며 적극적으로 잘 지내려 애쓰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더 많은 부정적인 정서적 앙금이 쌓여갔다. 그녀의 QQ 공간은 이러한 정서적 앙금이 폭력적인 언어를 통해 배설되는 공간이었다.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꺼져버려”, “상처뿐인 그리움”, “건드리기만 해봐, 식칼로 작살내줄 테니”... <들여다보기>는 이처럼 세세한 것들까지 파헤쳐내는 가운데, 원래 옌옌홍이 지니고 있던 인터넷과 현실에서의 사나운 이미지와는 확연히 다른 연약한 일면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는 영혼의 상처를 입은 채 위로 받지 못하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이미지이자, 또한 전통적인 “강한 남자 약한 여자”의 양성 관계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약자의 이미지가기도 하였다. 이런 이미지들과 어우러져, 그 동안 인터넷에서 보여주었던 폭력적 언사들이 마치 여성 하위문화적 “저항”이라는 정당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위에서 서술한 세 가지 측면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초보적인 인상은 <들여다보기>가 옌옌홍 사건을 통해 “원저우 아동학대 사건”의 서사들을 새롭게 재구성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틀 안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옌옌홍이라는 “기층민중”, “농촌”, “여성” 등의 중첩된 신분을 지닌 “90후의 청년”이지, 그녀에게 학대 당한 아이들이 아니다. 그녀는 이 틀 안에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이 비극을 만들어낸 것은 “출신”이라는 말 속에 내포된 불평등한 사회구조이며, 또한 “교육”이 지향하는 후천적 사회 자원 재분배의 불합리성이며, “애정”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전통적 양성 불평등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이들이 한 발 더 나아가 이 비극의 근원을 분석했다면, 당대 중국 사회의 불공정에 대한 비판을 지향하고, 계급간/세대간/성별간 억압이라는 다중적 요인이 뒤섞여있는 전환기 중국의 집단간 격차, 내지는 단절로 인한 내재적 곤경을 겨냥했어야 할 것이다. <들여다보기>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확장이라는 “공공 지식인”의 서사모델을 반복하고 있다. 이 모델 속에서 관/민, 남성/여성, 도시/농촌, 권력 자본주의/기층민중 등과 같은 일련의 중첩된 이원적 대립이 이야기의 기본 구조와 동력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재분배 요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불만과 뒤섞여 역사의 표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그 잠재적 지향점은 사회제도의 재구성이라는 정치적 희망이다. 이는 인터넷에서 원저우 아동학대 사건 속의 옌옌홍이라는 “문제적” 주인공에 대한 비난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 2. QQ공간, 가상 사회화, 그리고 청년 하위문화

여기서 의미심장한 것은 연연홍 이야기에 대한 <들여다보기>의 서술이 결국 상술한 틀을 따라 진행되어 당대 중국의 고질병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으로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다른 우회로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들여다보기>는 상술한 정치경제학적 분석과는 또 다른 기술적 서술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연홍이 비록 자신의 QQ공간에 “아무개(남자친구를 가리킴- 인용자 주)한테 난 화를 전부 학생들에게 풀었다. 짜증나”라고 쓴 적이 있기는 하지만, <들여다보기>의 인터뷰 당시, 그녀는 맹세코 그렇지 않다며 부인하면서, QQ공간에서의 이야기 방식은 사실 가장하거나 속이기 위한 맘에 없는 말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모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기 배설이나 심리적인 정서인 거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보여주려 했던 거지” 결코 진실은 아니에요. <들여다보기>도 단순한 시간 비교를 통해, 연연홍의 학대행위가 “확실히 감정적 자극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들 사진을 찍은 것이 기본적으로 그녀가 QQ공간을 만들기 시작한 때였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리고 QQ공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연연홍으로 하여금 “지금 자신이 학대하고 있거나 아이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임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로부터 “QQ공간”이라는 뉴미디어 시대의 독특한 정보 플랫폼이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들여다보기>가 연연홍 아동학대의 동기를 논의하는 데 있어 반전의 의미를 지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각의 출현은 아동학대사건이 지니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방면의 정보를 상당부분 희석시키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다. <들여다보기>는 “QQ공간”이 연연홍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안식처”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내었다. 이 플랫폼을 빌려, 연연홍은 “또 다른 자아 이미지”, 즉 “아름다우면서도, 아주 분발하는” 강한 현대 여성의 이미지를 갖고자 하였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녀는 자신이 “표범무늬 광(豹纹控: 표범무늬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유행어로, ‘控’은 complex의 일본어 발음 コン에서 왔다.- 역자 주)”에 “식신(吃货: 먹는 것을 좋아하고 잘 먹는 사람을 가리키는 유행어- 역자 주)”이고, “술을 마셔도 버드와이저만 마시고” “술이 있는 곳이면 꼭 찾아가는” 사람임을 표방하였다. 또한 화려하게 꾸민 일상생활의 사진을 대량으로 올려놓고, 몸에 있는 “담배 빵(烟疤)” 문신을 자랑하고, “시험도 보지 않고, 판시(关系: 우리나라로 치면 인맥- 역자 주)로 들어갔다”며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손 하나 까딱 않고 널 패주겠어. 넌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구나” 라며 화풀이식 폭력적 발언을 해가며, “견디기 힘든 현실을 감추려” 하였다. 이렇게 “QQ공간”을 빌려, 연연홍은 일상생활 속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인터넷 상의 이미지/신분을 만들어냈으며, 또한 이런 가상의 이미지/신분에 대한 과도한 미련과 동일시는 점차 자신의 현실세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

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녀가 “느끼는 좌절감과 괴로움은 갈수록 강해져”, “매일 아침이면 불만 가득한 얼굴로 택시 타고 출근해서, 바보처럼 하루 종일 앉아서 퇴근만 기다렸다가 택시 타고 돌아와야 했어요. 수업도 들어가기 싫고, 움직이는 것조차 싫었어요. 최대한 게으름을 피웠죠.” 사실 그녀는 이 무렵에 집중적으로 아동학대 사진을 대량으로 올려놓았다.

평샤오텐(风笑天) 등도 지적하고 있듯이 “정보화와 네트워크화의 물결 속에, 가상 사회화 기제가 청년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갈수록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실재 사회화와 가상 사회화의 단절”은 “청년 세대의 정체성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sup>10</sup> <들여다보기>가 보기에 연연홍의 행위는 두 가지 “사회화” 사이의 상호 대립과 상호 작용에 의해 생겨난 청년 세대의 정체성 위기의 표징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위기는 직접적으로 청년 하위문화의 출현을 가져왔으며, 딕 헵디지(Dick Hebdige)가 지적한 현실 기능상 청년 하위문화의 “이중적 의미”를 가져왔다. “한편으로 그것은 ‘정통’ 세계에 대한 사전 경고이다. 그것은 사악함의 존재이자, 차이의 존재이며, 또한 그것은 모호한 회의와 불안한 웃음을 가져다 주고, ‘분노로 새파랗게 질리게 하거나 말이 안 나오게 만들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이는 오히려 그것을 암호나 주문으로 사용하거나, 그것에 성상(聖像)의 지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금지된 신분 기호이자 가치관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sup>11</sup> 당대 중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연연홍과 같은 취약계층을 주류 사회의 바깥으로 배제시키며, 그들에게 무력감과 고립감을 느끼도록 만든다. 하지만 이런 무력감과 고립감은 또한 긍정적 에너지로 축적되지 않은 채, “QQ공간” 등과 같은 가상 신분 미디어 수단의 개입으로 인해, 각종 “상상적 저항”의 의미를 지니는 하위문화적 기호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편으로 청년 취약계층은 “강자 흉내내기”식 치장, 연출, 과시 등을 통해 주류 가치관념에 대한 동일시이자 배반인, 역설적 청년 하위문화 정체성을 구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정 정도 현실세계의 “실패자”로서 느끼는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청년 하위문화 정체성의 내재적 단절이 만들어낸 현실과 가상 사이의 긴장관계는 오히려 일종의 악순환을 형성하게 된다. 가상세계에서 아름다워질수록 현실세계에서 느끼는 암담함과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이는 또한 다시 역작용을 일으킨다. 이 같은 심리적 균형 상실의 상태에서부터 어떻게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는 불가피한 문제이다. <들여다보기>가 보기에, 연연홍이 자신보다 월등히 약한 아동들을 괴롭혔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심리적 균형점을 만들기 위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sup>10</sup> 평샤오텐(风笑天), 순룡(孙龙), 《가상 사회화와 청년 역할 정체성의 위기 - 21 세기 청년 직업과 청년 연구에 대한 도전 (虚拟社会化与青年角色认同的危机——对 21 世纪青年工作与青年研究的挑战)》, 《청년연구(青年研究)》1999 年第 12 期。

<sup>11</sup> 【미】 딕 헵디지 저, 루파오푸(陆道夫)외 역 《하위문화: 스타일의 의미 (亚文化：风格的意义)》(北京：北京大学出版社，2009 年版) 3 쪽

<들여다보기>는 바로 이 지점에 “QQ공간”을 끌어들이으로써, 성공적으로 원저우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원인을 정치경제적 측면으로부터 미디어 기술의 측면으로 이끌어갔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QQ공간”이라는 인터넷 상 가상 플랫폼의 청년들의 현실 불만 정서에 대한 묵인,纵용, 발양이야말로 연연홍의 타락을 부추킨 직접적 요인이나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이런 식의 서술 속에서,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사회·정치·경제 요인들이 연연홍을 반사회 반윤리적 인간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며, 이런 요인들은 상당 부분 잠재적 위험일 뿐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청년 하위문화/신분 정체성이 만들어내고 작동시켰던 네트워크 미디어가 그런 요인들과 함께 결합 될 때야 비로소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논리에 기초하여, 사회 각 방면에서 청년 하위문화와 그 발생기제에 대해 제대로 감독과 관리를 진행해왔는지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들여다보기> 후반부 서사의 중심이 되고 있다. <들여다보기>는 “그녀의 QQ공간은 애초에 공개되어 있어서, 친구와 일부 동료들이 볼 수 있었다. 그녀가 모르는 한 사람 이외에 그녀에게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이가 없었다.” 그와 같은 주변 환경의 관용은 연연홍의 그러한 기괴한 차림새를 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는 “자아”가 인터넷세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현실 세계 속 연연홍의 “외형이나 정서 상의 확연한 변화는 그녀가 일하는 란콩체유아원에서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교실에는 감시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만 일단 닫으면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밖으로 새나갈 일이 없었다.” 유아원이 감시하려는 생각이나 수단을 갖지 않고 있었던 것 역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기초라 여겨졌음에 틀림없다. 국가 법률의 측면에서는 이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처벌에 맹점이 있었는데, <교사법> 속 관련 규정이 현실 상황 속에서 집행되기 힘든 점 (“교사가 학생을 때리고 욕하는 경우요? 5점 감점이에요”, 이는 월급 “10위안” 감봉에 해당한다.) 또한 <들여다보기>가 더 넓은 층위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논의하게 된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더욱 심한 것은 <들여다보기>가 반성의 시선을 피해자 가운데 하나인 아동의 가장에게까지 넓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연홍과 마찬가지로 사회 하층민인 이들 가장은, 생계에 쫓겨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데 대한 자책과 이 사건 이후 후회막급인 심리상태에 있었다. <들여다보기>의 클로즈업 장면 속에서, 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 예상치 못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미 잘 알고 있는 - 전환기 중국의 “관리 감독자인 가장의 지위 하락”의 문제로 부각되어 다루어졌다.

사회 정치 경제 등의 측면에서 미디어 전파나 사회의 관리 감독 측면에 이르기까지, 원저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들여다보기>의 설명은 전환기 중국의 미디어 수사학적 특징들로 가득 차 있다. 한편으로 중심이 이동되거나 반성의 강도가 약화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지만, 주인공의 입장과 하나의 기조에 따라 처리된다는 점은 일정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선 어떤 측면에

서 보더라도, <들여다보기>이 보여주는 옌옌홍은 세상물정 모르고 무지하며 연약한 불쌍한 인물이지 노련하고 계산적인 폭력 행사자는 아니다.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옌옌홍은 하층 취약계층의 대표적 인물이며, 미디어의 측면에서 분석되고 있는 옌옌홍은 뉴미디어 기술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인물이며, 사회 관리 감독이라는 측면에서 밝혀진 옌옌홍은 관리 감독 결여의 피해자이다. 이 같은 이미지 전복은 분명 “약자 보호”라는 전통적 중국 대중 윤리 도덕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으로, 대중의 분노를 자극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옌옌홍 사건의 판결 번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들여다보기>의 의도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겉으로 보기에 옌옌홍을 “그 불행에는 애뉘아 하되, 그 무기력함에는 분노하라”(哀其不幸,怒其不争: 중국 하층민에 대해 동정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며 하였던 루쉰(魯迅)의 말로, 여기서는 하층민을 형용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역자 주)고 했던 그 취약계층의 대표 인물로 서술함으로써, <들여다보기>는 “취옹의 본 뜻이 술에 있지 않았던 것”(醉翁之意不在酒: 欧阳修의 《醉翁亭记》에 나오는 구절로 취옹이 취옹정을 찾는 이유가 자연을 즐기기 위함이지 술 자체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옌옌홍 사건 자체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는 단지 본의를 드러내기 위한 구실이나 계기일 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역자 주)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전체 사건을 청년 개인 도덕과 직업윤리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만든 당대 사회에 대한 반성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위자로서의 개인이라는 층위를 넘어서, 사회구조, 미디어기술, 법적 관리 감독 등의 외재적 층위로 확장시키고자 함이다. 이런 선택은 기존에 서술/재현되었던 “문제 청년”의 일률적인 이미지들을 타파하고, 더욱 복잡한 틀 속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sup>12</sup> 하지만 이는 당대 중국의 청년 하위문화 집단, 특히 인터넷 청년 하위문화 집단 내에 충만한 반주류 반체제 반사회적 극단적 정서에 상당 부분 영합하거나 심지어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만을 편면적으로 대변하거나 진정한 취약집단(예를 들면 학대당하였던 아동들과 같은)을 등한시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런 양날의 칼로서의 의미는 <들여다보기>가 미리 가정해 둔 윤리적 입장의 논쟁적 지점들을 드러내 보여준다. 즉 옌옌홍의 “문제청년”과 “취약집단”이라는 이중적 위치를 어떻게 정확히 나누어 파악해낼 것인가, 이런 동정 받아 마땅한 측면들을 그녀에게 학대당한 아이들과 함께 논의

<sup>12</sup> 《들여다보기》의 이 선택은 중국 청년사회학 연구의 당면 방향과 일치한다. 허샤오휘(何绍辉)

하이(黄海)의 연구 “청소년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길거리 청년들이 ‘문제 청소년’으로 여기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는 길거리 청년에 대해 일종의 ‘관에 박인 인상’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핵심은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 ‘문제 청소년’이다. 따라서 어떻게 조사, 발견, 연구 하는가는 우리가 기존 연구의 근경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외친다. “농촌의 ‘탈선’ 청년 집단에 대한 연구는 연구대상 자체로부터 벗어나서 개인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원인을 찾고, 이해해야만 한다.” 허샤오휘, 황하이 《사회병리의 시각 속의 “탈선 청년” 연구 - 길거리 청년과 농촌 건달의 사례를 중심으로

(社会病视角下的“越轨青年”研究——以街角青年与乡村混混为例) , 《청소년 범죄 문제 (青少年犯罪问题)》 2012年第2期。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을 때 등한시되기 쉽다는 이유로 꼭 연연홍에 대한 동정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들여다보기>가 주로 연연홍의 시각에서 전체 사건의 요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술한 도덕 윤리적 곤경을 가져오기 쉬운 일련의 문제들은 더 많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개인”으로서의 “청년”의 중요성, 그리고 이 문제에 파고들어가는 기본단위로서의 “청년”에 대한 회의 불가능성이 부각된다. 이런 입장은 1980년대 “개혁개방” 이래로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개인중심주의 사조와 맞닿아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입장이 “청년”을 주체로 하는 개체 노동력에 대한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수요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청년”과 “청년”의 의미에 대한 강조는 G. R. 길리스(G. R. Gillis)가 지적하고 있듯이 “공업화와 사회 근대화의 수요 및 그 결과물이다. 근대 공장의 출현은 젊은이들을 전통 가정/공동체로부터 도시로 흡수(혹은 구축)하여, 산업역군 대오를 만들어내었다.”<sup>13</sup> 그리고 상술한 두 측면을 결합시키면, 그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즉 “현대화”된 개인주의라는 무기를 가지고 전통 중국사회와 그 윤리 체계에 대한 회의 내지는 해체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는 1990년 이후로 당대 중국 청년들이 단자화된 노동력의 형태로 세계 공장에 대거 투입될 수 있도록 만든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였다. 청년 하위문화가 보여주고 있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소외, 대립 등은 당대 중국 국가권위주의에 대한 반감과 도피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자본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개인주의를 더욱 크게 강화하는 측면 또한 있다.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전지구적 경제-시장 일체화 논리의 추동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 연연홍이라는 “문제청년”에 대한 <들여다보기>의 동정은 이해라는 방식을 통해 청년 하위문화를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지역적 확장이 구축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후자(전지구적 자본주의-역자 주)의 공모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들여다보기>가 “개인”의 가치와 “청년”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고는 하지만, 연연홍의 이야기가 정치 경제의 측면으로부터 인터넷, 법적 관리 감독의 측면으로 전환된 서술구조 속에 다뤄졌을 때, 이는 사실상 <들여다보기>가 추구하는 서술의 가능성과 그 한계의 소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CCTV”라는 국가권위를 대표하는 뉴스 미디어 플랫폼 속에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기>는 많은 적든 간에 주류 미디어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의미에서 “헌 병에 새 술을 담는 식”의 절충 방식을 통해 내용과 형식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전

<sup>13</sup>G.R.Gillis: *Youth and History: Tradition and Change in European Age Relation*(《청년과 역사: 유럽 연령의 전통과 변화 (青年与历史: 欧洲年龄的传统与变化)》), 천잉팡(陈映芳) 《역할과 비역할 사이: 중국 청년문화 (在角色与非角色之间: 中国的青年文化)》(南京: 江苏人民出版社, 2002年版) 2-3쪽 재인용.

달 내용면에서 보자면, 현실 속 각종 억압적 요인들에 대한 <들여다보기>의 고발은 전지구적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고도로 호응하면서 현재 사회 체제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분명 주류 미디어로서의 책임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서술 구조에 있어서, <들여다보기>는 “엔엔홍이 어떻게 취약계층이 되었는가”라는 현실 정치 문제와의 진정한 전면전은 교묘하게 회피한 채, 뉴미디어에 의해 주도되는 청년 하위문화에 상당히 치중하면서, 청년 하위문화에 대한 기술적 내지는 법적 순화와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분명 본질은 회피하고 지엽적인 것만을 다루는 것으로, 주류 미디어로서의 책임의식으로 인해 생색내기 식으로만 개입한 결과이자, 미디어 시스템의 틀을 지키면서 자아 검열을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장력들로 가득 찬 서술 형태의 필연적 결과로서, <들여다보기>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부산물인 청년 하위문화를 필요이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현실 개입과 지도를 통해 그 긍정적 에너지를 자극해야 할 주류 미디어 본연의 책무는 망각한 채, 냉조주의적으로 기술적 측면만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 3. “2차 노출”와 “진상 확인”: 미디어 재현의 정치에 관하여.

존 피스크(John Fiske)가 지적하였듯이, 부정적 사건에 대한 뉴스 보도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규범”을 긍정하고, “우리의 주류 의식을 긍정”하기 위한 것이다.<sup>14</sup> 그렇다면 “CCTV”와 같은 이데올로기 주도권을 지닌 권위 있는 뉴스 플랫폼인 <들여다보기>의 경우, 이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들여다보기>가 원저우 아동학대 사건을 보여줄 때 정반대로 청년 하위문화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현상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만일 앞서 언급한 미디어 이데올로기가 형성될 수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해 좀 더 분석하려고 한다면, 전환기 중국의 현실과 미디어 시스템, 특히 미디어 중계자 위치의 복잡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들여다보기> 자체가 과연 진정으로 “들여다보기”로 이끌고 있는지가 탐구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다.

2010년말 <들여다보기>의 첫 방송 이후 그 궤적에 대해 좀 살펴본다면, 원저우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문제적” 뉴스 서술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로부터 널리 주목 받는 일련의 특정 주제들에 대한 <들여다보기>의 취재 속에서 하층민 이야기에 관한 서술방식은 시각,

<sup>14</sup> 【미】 존 피스크 저, 치아홍(祁阿紅) 외 역 《텔레비전 문화(电视文化)》(北京:商务印书馆, 2005年版) 410 쪽.

입장, 구조 등의 측면에서 종종 유사한 느낌을 준다. <15위안 주차비가 초래한 비극>(2011-1-30), <“명인” 자오주어하이(赵作海)>(2011-3-25), <엔자신(药家鑫) 사건의 양측 부모 특별 인터뷰>(2011-8-16), <호남 속죄>(2012-2-19), <어머니를 살해한 효자>(2012-7-15), <소녀 정당방위 살인 사건>(2012-12-9), <란카오현(兰考县) 아이 유기>(2013-1-13), <10년 수감생활, 누구의 잘못인가>(2013-4-8)... 이 방송들은 모두 다 도덕 윤리 상의 커다란 논쟁을 가져왔던 사회 하층민의 위법 범죄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환기 중국 사회의 특수성이 깊이 새겨진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밀림의 법칙은 이들 방송이 피할 수 없는 배경이자 도전하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강하게, 혹은 집요하게, 혹은 답답하게 발버둥치면서도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젊은 이들의 모습은 항상 카메라가 포착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곤 한다. 그리고 차가운 카메라렌즈로도 감출 수 없는 “보편적인” 인도주의적 동정은 나레이터가 개입해 들어가는 기본 입장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원저우 아동학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뉴스의 단서들이 주로 인터넷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일부는 신랑망(新浪网), 천애사구(天涯社区), 바이두 채팅방(百度聊吧), 마오푸망(猫扑网), 카이신망(开心网) 등과 같은 토론방 플랫폼에서 나왔고, 일부는 네티즌이 QQ족(QQ群), BBS, 웨이보, 웨이신(微信- QQ 메신저 서비스의 명칭- 역자 주) 등과 같은 현대 정보 공유 기술의 힘을 빌어 의식 무의식 중에 만들어진 폭발력 강한 정보들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미디어(We Media)”와 “사회 미디어(Social Media)”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들여다보기>와 같은 뉴스 미디어들은 종종 사건이 이미 인터넷상에서 숙성 내지는 완성된 이후에야 비로소 개입하곤 한다. “인터넷 여론은 전통 미디어가 계속 주목할 만큼의 열기를 만들어내고 조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전통 미디어를 위해 의제를 만들어주고 있다. 전통 미디어는 이미 인터넷 미디어 의제 설정의 집행자가 되었다.”<sup>15</sup> 이런 상황 하에서 인터넷 미디어와 비교했을 때, <들여다보기>와 같은 전통 미디어들은 단지 “2차 노출”식의 보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정보 전달의 곤경에 직면하여, 인터넷 세계의 “오합지졸”들이 이미 정형화된 여론을 형성한 이후, 과연 어떻게 “2차 노출”의 후발 주자로서 우위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상황을 만회하여 대중이 인터넷을 통해 이미 갖게 된 처음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sup>16</sup>

<들여다보기>는 자신의 처지를 상당히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sup>17</sup> 하나의 특집 다큐멘터리형

<sup>15</sup>마쥘(马骏) 《<들여다보기> 미디어 시대의 뉴스 프로정신의 실천

(<看见> : 自媒体时代的新闻专业主义实践)》, 《텔레비전 연구(电视研究)》2012年第5期。

<sup>16</sup>푸젠펑(傅剑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웨이보 시대에 그 강대한 여론 역량으로 인해 전통 미디어의 기자와 편집자는 이런 위협에 빠질 수 있다. 강렬한 사회적 정서를 지닌 뉴스가 제1의 위치로 변하고, 사실의 복원과 조사는 오히려 그 다음의 위치로 강등되었다.” 《“내 아빠는 리강” 보도의 집단 징후(“我爸是李刚”报道的群体症候)》, 《남방미디어연구(南方传媒研究)》, 2011年第27辑。

<sup>17</sup><들여다보기>의 진행자 차이징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터넷 시대, 특히 웨이보가 생겨난 이후, 정보 전파는 매우 빠르고 짧아졌다. 사실을 넘어서 직접 평론의 단계로 진입하기가 매우 쉽게

뉴스 프로그램으로서, <들여다보기>는 2010년 12월 6일 첫 전파를 탄 이후로, 줄곧 “변화하는 시대 생활상을 관찰하고, 영상을 이용해 사건 속 인물들을 기록하는 것”<sup>18</sup>을 프로그램의 주요방향으로 삼아왔다. 이런 자리매김은 인터넷 미디어가 드러내 보여주는 중심점과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전통적 뉴스 보도와도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들여다보기>의 편집자 왕카이링(王开岭)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들여다보기>의 초기에 우리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뉴스’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신문’과의 일정한 친밀성을 유지하면서 또한 공공의 관심 바깥에서 스스로의 관심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우리와 뉴스의 관계는 복종이자 또한 반항의 관계인 셈이다. 뉴스는 우리의 본연적인 위상과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지도이자, 주제 선정에 위한 테이블일 뿐인 것이다.”<sup>19</sup> 뉴스 보도의 과정 속에서, <들여다보기>는 “인간(人文)”적 정서 전달에 보다 치중한다. “거기(뉴스를 가리킴- 인용자 주)에 우리는 두 가지의 ‘인간’적 그릇, 즉 프로그램의 두 가지 틀을 두고자 한다. 인물 탐방과 시대가 기록된 이야기가 그 두 가지 틀이다. 전자가 뉴스 인물의 정신에 대한 인터뷰에 집중한다면(최대한 이슈가 되는 사건과 정해진 인물에 프로그램의 관심과 정신적 경로를 두고, ‘뉴스 다다르는 것’을 넘어서 그 ‘정신에 다다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물과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해’로 승격시키고자 함이다.), 후자는 우리가 고귀한 인성의 이야기와 정신(공공의 관심 밖으로 스스로의 관심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이런 이야기들은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이라 여기는 것들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sup>20</sup> “정신에 다다르는 것”이 “뉴스에 다다르는 것”에 비해 더욱 중요한 뉴스의 목표로 간주된다고 했을 때, “인생”, “정신” 등의 인간적 측면에 대한 강조는, 뉴스 속 “인물”의 입장에서는 뉴스의 무대 전면으로 당당히 나서도록 하는 것이자, 뉴스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관적 의지를 뉴스 속에 중첩시켜 모종의 합법성을 구성하는 것이다.

<들여다보기>의 탐방 기자인 차이징은 2002년 CCTV에 들어간 이래로, 줄곧 “뉴스 속 인물”에 공감하면서 이들을 심층 취재하는 입장을 취해왔다.<sup>21</sup> 이런 입장은 그녀가 진행해왔던 <동방시공(东方时空)>, <뉴스 조사(新闻调查)>, <24시(24小时)>, <대면(面对面)> 등과 같은 CCTV의 유명 뉴스 칼럼들 속에서 각기 체현되어왔다. 이 입장은 <들여다보기>을 통해서 숙성될 수 있는 기반을

---

되었고, 의견 형성이 매우 쉽고, 편견도 더욱 깊어지기 쉽게 되었다. 이런 사회 정서는 인터넷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가속화되고 있다.” 경신(耿欣), 장위나이(蒋玉霏) 《차이징 어떻게 “들여다보나” - CCTV 종합채널 “들여다보기” 프로그램 진행자 차이징과의 대화 (柴静如何“看见”——对话央视综合频道“看见”栏目主持人柴静)》, 《중국 기자(中国记者)》2012年第1期。

<sup>18</sup> 《들여다보기》 공식 사이트. <http://cctv.cntv.cn/lm/kanjian>.

<sup>19</sup> 왕카이링(王开岭) 《들여다보기: 시선과 태도(看见:一种目光和态度)》, 《중국 텔레비전(中国电视)》2013年第3期。

<sup>20</sup> 위의 글.

<sup>21</sup> 여우레이(尤蕾) 《“들여다보기”의 차이징(看见柴静)》, 《南风窗》, 2013年第1期。

갖게 되면서 더욱 충분히 강조되고 발양될 수 있었다. <인터뷰는 다다름이다>라는 특집에서 차이징은 자신의 뉴스 인터뷰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인터뷰는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인터뷰는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알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차이징은 “미디어의 책무는 ‘핫(hot)’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사회의 열정을 선동할 필요는 없다. 미디어는 밝은 빛을 제공해서 잘 알지 못하는 어두운 곳을 비춰주면 된다.” 여기서 인터뷰 기자는 현실 역할과 직업 역할을 잘 구분해야만 하며, 뉴스 사건과 뉴스 속 “인물”을 구별해서 다뤄야 한다. “나는 현재 나 자신에 대해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사건에 대해서는 가혹하되,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용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개념을 타파하고”, “진정으로 사람에게 다다르기” 위한 것이다.<sup>22</sup>

“진정으로 사람에게 다다르기”가 뉴스 특집 프로그램의 핵심이자, 더 나아가 기본 기호로 여겨지게 되면서, 전통 뉴스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자의 미묘한 수정이 이뤄졌다. 만일 최초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전통적인 뉴스가 추구하는 목표였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난 뒤의 “정보”를 “개인”이라는 중개자를 통해 하나의 “텍스트”, 즉 하나의 이야기 거리 층만한 의미심장한 “문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고, 또한 동시에 의식적으로 뉴스 인터뷰 기자가 “이해”의 “시선”으로 이를 포장하는 것은, 분명 후발 위치의 미디어인 <들여다보기>가 인터넷 정보 폭발 시대에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런 수정은 한편으로 각종 복잡한 “정보”를 넘어 무한한 “진상에 다다를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가령 “개인”의 각종 서술이 현장을 복원할 수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뉴스가 가장 중시하는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각종 논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뉴스 현장 속 “개인” 진술의 신뢰성을 검증할 것인가, 또한 “개인”적 서술을 인터뷰, 조직, 편집하는 기자가 지닌 입장의 객관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그리고 뉴스 인터뷰 기자 자신의 가치 입장과 감정이 각인되어 있는 “진상”이 과연 공신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회의로 인해,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 <들여다보기>와 차이징의 신서 『들여다보기』를 둘러싸고, 뉴스 미디어가 보여주는 척도와 관련된 논쟁이 한바탕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sup>23</sup> 평항 위성텔레비전(凤凰卫视)의 유명 기자인 루치우 러우웨이(閻丘露薇)는 차이징이 2012년 10월 9일 칭화(清华)대학에서 행한 “인터뷰는 다다름이다”라는 강연을 계기로, 2013년 1월 22일 자신의

<sup>22</sup> 차이징 (柴静) 《인터뷰는 다다름이다. (采访是一场抵达)》, 《商周刊》2012年11月12日。

<sup>23</sup> 이 토론은 동시에 수많은 인터넷 공공 플랫폼에서 전개되었다. 신량망 웨이보의 “微话题”에서 《차이징의 “연기” 인터뷰에 대한 루치우러우웨이의 비판, 기자의 직업 윤리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다 (閻丘露薇批评柴静是“表演”采访, 引记者行业标准争议)》라는 게시판이 네티즌 사이의 논쟁을 불러왔는데, 여기에 11,820,435 건의 댓글이 달렸다.(2013年4月21日 현재) 모두 9436 명이 루치우의 견해에 찬성하였고, 4856 명이 장지안의 관점에 지지를 보냈다.  
<http://huati.weibo.com/27251?from=522#!/27251?from=522&order=time>.

블로그에 차이징의 직업 소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어떤 사람은 인터뷰가 ‘일종의 다 다름’이라 말한다. 반나절을 생각해봤지만 잘 모르겠다. 사실 인터뷰는 전혀 심오한 것이 아니다. 그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사실을 명확히 하고,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또한 이런 이유로 인해 뉴스 인터뷰가 강조하는 것은 뉴스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가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만약에 그에게 뉴스거리가 없다면, 뉴스 기자가 인터뷰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sup>24</sup> 뤼치우러우웨이(吕超)가 보기에 “사람”과 “뉴스”는 함께 뒤섞여 논할 수 없으며, “사람”은 “뉴스”에 들어가고 “뉴스”를 전달하는 하나의 기호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뉴스”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뉴스”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신이 결코 “뉴스”를 초월해서 독립적인 인터뷰 내용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전제 하에서 그녀는 기자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만일 기자가 뉴스를 보도할 때 뉴스 속 인물만 관심을 갖고, 뉴스 사건의 배후 원인을 관심 갖지 않는다면, 단순한 경청자이지 기자라 부르기 힘들 것이다. ... 만약에 인물에만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의 처지 배후에 있는 원인을 파헤치지 않는다면, 이런 뉴스 보도는 자격 미달이다. 당연히 이런 식의 보도는 매우 안전하면서도 약빠른 짓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이익을 보는 것은 미디어 자신이지 대중은 아니다.”<sup>25</sup> 뤼치우(吕超)는 (뉴스) “기자”와 (오락) “진행자” 사이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기자의 기능은 정부 관료와도 달라야 하며, 공인과도 달라야 한다. 사건의 복원을 통해 진상을 추구하고, 하나의 개별 사건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중의 이익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뉴스 기자는 반드시 어떻게 진실되게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를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건 보도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주객이 전도되어 기자가 뉴스 전면에 나서서 활약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그런 기자라 해도 인간적 정취는 있다.

CCTV 진행자 동루(董璐)는 뤼치우러우웨이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비판한다. “차이징은 정서 위주의 연기를 한다. 그녀는 풍부한 표정 가운데 딱딱한 표정과 동작을 섞어가면서 관중을 희로애락으로 이끈다. 야외 촬영 장면은 마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동네 여러분들 고생하시네요”라고 한 마디 건네기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다.” “차이징은 레이펑(雷锋: 인민해방군 전사로서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 시기 인민 영웅으로 떠받들어지던 인물-역자 주)과 마찬가지로. 레이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건 간에 사람들은 레이펑만을 기억하듯이, 차이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던 간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차이징뿐이다. 내가 보기에 차이징의 뉴스가 위단(于丹: 베이징사범대학 교수로 “논어심득(论语心得)”과 같은 TV강연들을 통해 중국 내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학자이다-역자 주)의 뉴스와 다른 점은 단지 <논어> 한 권이 빠

<sup>24</sup> 뤼치우러우웨이(吕超) 《기자가 이래도 되나 (说说记者这行吧)》, <http://dajia.qq.com/blog/212033018962909>.

<sup>25</sup> 위의 글

저 있다는 것 뿐이다.<sup>26</sup> 따라서 그는 “차이징, 당신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나요?”<sup>27</sup>라 반문한다.

동루가 보기에 인터뷰식 뉴스에 대한 차이징의 이해에는 오류가 존재한다. 날카롭게 뉴스 사건을 분석해야 하는 인터뷰이로부터 인터뷰 대상이나 시청자의 정서적 배설을 인도하는 안위자로 변신한 것이다. 그는 이런 태도를 차이징이 뉴스를 빌려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는 카메라 렌즈 앞에서 애정이 풍부하고 현실을 배려하는 여성 공공 지식인으로서의 차이징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는 완성시킬 수 있지만, 사건 진상을 파헤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의미심장한 것은 뤼치우러우웨이 등의 비판에 대해 차이징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중산(中山)대학 미디어학과 부교수 장즈안(张志安)과 난징(南京)대학 신문학과 교수 두쥘페이(杜骏飞)가 대신 인터넷 상에서 그녀를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3년 1월 23일 장즈안은 “기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개인 처지 배후의 원인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한 개인의 마음과 생각이 도덕적 판단에 의해 가려지거나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의미를 갖기 힘들게 되었을 때, 인성 자체에 주목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sup>28</sup> <들여다보기>의 프로듀서인 판밍(范铭)의 스승이었던 두쥘페이는 <우리는 어떻게 뉴스에 다다를 것인가?>라는 장편의 웨이보 글에서 뤼치우러우웨이가 “단순 사실” 추구라는 기초 위에 수립한 “뉴스 프로정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 <허친스 보고서(Hutchins Report)> 이래로, 순수한 경험주의적 신문학은 이미 더 이상 유일한 이념적 추구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한편으로 신문업은 반드시 진실과 공정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뉴스는 또한 정보 사상 감정 등의 흐름도 각 사회성원들에게 전달해야만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뉴스 보도는 사건의 발견이 아니라, 사람의 발견이다. 사람의 정감, 권리, 존엄을 발견하는 것이다.” 때문에 “차이징의 뉴스 텍스트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니며, 뉴스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sup>29</sup> 장즈안이나 두쥘페이 모두 인성, 자유, 권리 등을 “당대 중국” 뉴스 보도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 지점이라 여기고 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사건 속의 “개인”이든 아니면 나레이터로서의 “개인”이든 모두 의심할 바 없는 합법성을 획득하고 있다. “뉴스”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사건의 발굴이 아니라, 사람에게 대한 발견이 된다. “개인”의 의미를 확대함으로써, 한편으로 두쥘페이 등은

<sup>26</sup> 출처 <http://news.sohu.com/20111206/n328081868.shtml>.

<sup>27</sup> 《동루의 차이징 공개 비판: CCTV와 나이트 남성들의 잔치로 이름을 얻다 (董路公开批柴静：成名靠央视和老男人饭局)》, 2013-01-24, 来源: 北青网-北京青年报(北京), <http://ent.163.com/13/0124/09/8LVLIJVV00031H2L.html>.

<sup>28</sup> 출처 <http://ent.sina.com.cn/r/m/2013-01-25/10343844554.shtml?wbfb=more>.

<sup>29</sup> 두쥘페이 (杜骏飞) 《우리는 어떻게 뉴스에 다다를 것인가? (我们怎样抵达新闻?)》, [http://blog.caijing.com.cn/expert\\_article-151525-46899.shtml](http://blog.caijing.com.cn/expert_article-151525-46899.shtml).

구미 지역 뉴스 미디어학의 최신 발전을 건강부회하여, “뉴스”가 단순히 “객관성”을 기초로 하는 “뉴스 프로정신”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런 관념은 구미 “최신”의 뉴스 이념과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자명한 합법성을 지니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개인 중시, 사건 경시의 뉴스 입장을 꺼리지 않는다. 사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당대 중국”이 “인성”, “권리”를 경시한다는 판단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을 부각시키는 것은 “당대 중국”의 주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항을 지향하는 것이며, 또한 이는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2013년 1월 24일, 뤼치우러우웨이는 이에 대해 다시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뉴스 사건은 당연히 사람과 떨어질 수 없다. 뉴스의 이유는 뉴스이며, 개별 사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배후의 원인을 탐사하고 모든 것을 밝혀내는 것은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함이며, 개인을 더욱 존엄 있게 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돌아가기 위함이다.” 그녀는 동시에 “이미 뉴스 기자로서 정상적으로 뉴스를 보도할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인정해야 한다.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도 동시에 대중을 속이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에게 뉴스 보도란 이런 것이라 인식시켜야 한다.”<sup>30</sup> “뉴스”는 “사회 진보”를 위한 것이며, “개인의 존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뤼치우러우웨이는 장즈안 등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다만 “당대 중국”이 어떤 “뉴스”와 “뉴스” 취재 기술을 필요로 하느냐에 있어서는, 양자가 서로 갈라서고 있다. 뤼치우러우웨이는 딱딱한 뉴스(硬性新闻)의 중요성을 믿고자 할 뿐이다. “백 년간 부단히 발전해온 신문업 이념과 일련의 작동 규범은 모두 기자에게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사실의 일부분이 되지 말고, 가능한 “프로”답게 사실을 관찰하고 기록할 것을 요구해왔다.”<sup>31</sup> 이 때문에 당대 중국인들 마음의 안위자로서 역할 하는 차이징의 부드러운 스타일을 여전히 완곡하게 비평하고 있는 것이다.

<들여다보기>에 관한 논쟁의 초점은 주로 뉴스가 보여주는 “진실성”과 “유효성”이라는 두 측면에 놓여있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뉴스 기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뉴스 보도의 구성 요소가 사건인가 아니면 개인인가, 뉴스의 역할 등의 측면에서 각기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 초점은 뉴스 기자가 특수한 인문 지식인으로서 당대 사회를 대면하고 개입할 때, 딱딱한 스타일을 취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부드러운 스타일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뉴스의 전제인 “당대 중국”에 대한 양측의 판단에 사실상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시각 속에서 “당대 중국”은 의심할 나위 없이 “뉴스 기자가 정상적으로 뉴스를 보도할 수 없는” 시대이며, 또한

<sup>30</sup>《뤼치우러우웨이 뉴스 이념을 논하다: 뉴스는 개별 사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閻丘露薇谈新闻理念: 新闻不能只到个案为止)》, “中新网”2013年1月24日, [http://hlj.sina.com.cn/news/s/2013-01-24/073034649\\_3.html](http://hlj.sina.com.cn/news/s/2013-01-24/073034649_3.html).

<sup>31</sup> 왕첸야오(王辰瑶) 《뉴스제작자는 뉴스의 화제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뤼치우와 차이징 사이의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다 (新闻人要避免成为新闻话题 ——也谈阎丘柴静之热议)》, 《뉴스 실천 (新闻实践)》2013年第3期。

“인성, “권리”, “존엄” 등이 보장 받을 수 없는 문제적 시대이다. 때문에 “사람”(뉴스 대상으로서의 “개인”과 드러내 보여주는 이로서의 “개인”)을 출발점이자 귀결점으로 삼아 뉴스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양자는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런 대전제 하에서, 사실 뉴스 보도가 딱딱한 스타일인지 아니면 부드러운 스타일인지는 결코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지구적 자본주의가 가져온 단자로서의 “사람”을 중심에 둔 채 국가/사회를 고민하는 단순 모델의 기초 위에서, 과연 “뉴스”(개인)과 “국가”(사회)라는 “시민사회”에 기반한 이원대립구조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단자화된 개인을 지나치게 동정하여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위문화에 동화된 채 쉽사리 “반국가” “반사회”의 위험으로 나아가게 될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분명 <들여다보기> 나, <들여다보기>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논쟁 속에는 이런 회의가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이야말로 당대 중국의 각종 미디어와 미디어 종사자들의 보편적인 맹점이자, 전환기 중국 미디어 이데올로기의 더욱 커다란 위기이다. 뤼치우러우웨이와의 차별점은 주류 미디어 플랫폼 속의 차이징이 “뉴스 속 인물”이라는 관념에 대해 더욱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시각이 만들 낸 사각지대와 이에 대한 의존도가 뤼치우러우웨이보다 더욱 크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이 때문에 전지구화가 가져온 보편 가치의 문제점을 제대로 맞대면할 용기, 그리고 이런 관념에 대한 반성을 통해 당대 중국 현실에 진정으로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더 결여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 맺으며: 징후로서의 “로컬” 미디어 이데올로기

<들여다보기(Insight)>의 원저우 아동학대사건 보도에 관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보면, <들여다보기>가 그럴법하긴 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다양한 담론 자원을 이용해, 사실상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와 상호 호응하는 “문제적” “로컬” 미디어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들여다보기>는 시청자의 자세로, 대중 윤리 도덕을 위배하여 대중 여론의 집중 공격으로 인해 아무 말도 하기 힘들게 된 아동 학대의 주인공 연연홍을 “들여다보고”, 또한 그녀에 대해 깊은 동정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주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면서, 권위 있는 미디어로서의 위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위안자로서의 역할을 떠맡음에 따라 뉴스 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렸다. <들여다보기>는 인터넷 대중이 보지 못했던 빈곤하고 갈등을 겪는 연연홍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가장 중요한 논의 초점들은 서둘러 외면한 채, 단순히 인터넷이 가져온 청년 하위문화의 분석들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에서 주변부나 미세한 부분만을 파헤치는 데 머물렀으며, 이 “개인적인” 사건을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 “공공”의 사건으로 전환시킬 수 없었다. <들여다보기>는 인터넷이 만들어놓은 청년

의 역할/정체성의 강력함은 “보았지만”, 오히려 “인터넷”을 공격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단순한 선택은 <들여다보기>를 제작하고 있는 CCTV와 같은 전통 주류 미디어가 뉴미디어의 발전에 대해 지니고 있는 적대감과 보수적 태도를 보여준다.

뉴스가 지향해야 할 힘있는 “들여다보기”로부터 문예화된 위안 위주의 “보지 않기”로 나아가고 있는 <들여다보기>는 변화하는 중국 미디어가 직면한 곤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또한 전환기 중국의 특수한 현실을 회피하기도 어렵고, “개인”을 핵심으로 하는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는 “공의”를 대변하고자 하지만 또한 미디어의 객관 공정한 이미지를 유지해야만 하는 곤경 말이다. 때문에 전지구화 자본주의, 청년 하위문화, 개인주의, 전환기 중국 미디어 체제 등의 각종 힘들 사이에서 절충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젊은 제작자들이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선명한 자기 정체성 색채를 지닌 “개인”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뉴스를 취재하게 된다면, 이들은 전지구화에 발맞추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전환기 중국 사회의 병리적 징후에 대해 반성하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도 공동화, 파편화, 맹목화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진정한 구조적 역량을 형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번역: 윤영도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 연구교수)**

---

# 看见·不见：转型中国的媒体修辞政治学

## ——从CCTV《看见》对于“温州虐童事件”的报道说起<sup>1</sup>

董丽敏(上海大学文学院 20044)

---

2013年2月 4日，央视王牌新闻栏目《看见》<sup>2</sup>播出了《颜艳红：我不认识我自己》。这是自2012年10



月在网络世界轰动一时的“温州虐童事件”发生以来，第一次主要通过问题女主人公颜艳红的视角来讲述该事件的权威媒体报道：到底女主人公是处在

何种精神状态下才会去虐待那些幼儿园的孩子；她的动机是什么；她到底又有着怎样的人生经历……。

在央视著名出镜记者柴静的导引下，颜艳红不为人所知的心理世界逐渐被曝光：贫困的家庭，作为边缘弱势群体的父母，毫无上升空间的教育/职业生涯，强势的男友，光怪陆离的网络空间……，当颜艳红的身世与这些要素联系在一起的时候，很显然，她的形象与之前在网络上已经被定格的那个以暴力取乐的“90后”形象大相径庭。由此，《颜艳红：我不认识我自己》又一次引发了公众对于“90后”的青年生存境遇、网络与青年成长的利弊以及《看见》这样的大众媒体工作伦理等一系列问题的关注。

有意思的是，这期节目正好是在柴静新书《看见》热卖所引发的公众对于新闻呈现要素/尺度的激烈争论之际播出。<sup>3</sup> 如果将人们对于90后青年的种种争议、“看见”作为新闻栏目的定位以及柴静自己精心打造的“公知”形象几者联系在一起进行讨论的话，或许可以发现，处在价值混沌的社会转型期，同时又面临着网络、手机等新兴媒体的逐渐取代报纸、电视等传统媒体的媒介革命，当代中国正遭遇着前所未有的信息传达/社会共识建构的困境。



---

<sup>1</sup> 《颜艳红：我不认识我自己》，《看见》2013年2月4日。

<sup>2</sup> 《看见》是中国中央电视台一套综合频道自2010年12月6日起推出全新专题栏目，每期20分钟。节目分为日播版和周末版两档，分别以生活事件类和人物类专题为主。<http://cctv.cntv.cn/lm/kanjian/>。

<sup>3</sup> 柴静的新书《看见》2012年上架一周后，销量即达百万。《柴静和〈看见〉：什么样的节目就有什么样的人看》。[http://www.imeee.cn/life/xiuxian/020GLF922013\\_2.html](http://www.imeee.cn/life/xiuxian/020GLF922013_2.html)。

## 一、“弱势群体”的颜艳红如何被“看见”

“温州虐童事件”，按照“百度名片”的整理，基本被描述为是一个由网友“人肉搜索”所引发的网络介入现实的“草根民主”事件：



2012年10月24日，一张虐童照片被网友@将讲090080转发到了微博中。在这张照片中，一位幼儿被年轻女教师揪起双耳拎离地面数十公分，表情十分痛苦；与此形成鲜明对照的是，女教师居然面带微笑，带着明显的“秀”的兴奋。这张照片激起了网友们的公愤，被疯狂转发，同时网友们迅速对当事人展开人肉搜索，最后确定虐童者为浙江温岭蓝孔雀幼儿园教师颜艳红。

颜艳红的身份证号、手机号、QQ号、家庭住址、毕业院校等个人信息也随之一一曝光。

虐童事件的当事人颜艳红，1992年4月出生于温岭农村，初中毕业后进入温岭市教师进修学校学习，其后进入民办的温岭蓝孔雀幼儿园工作，无教师资格证与上岗证。在颜艳红个人QQ空间中，可以发现其余十余张虐童照，一批4、5岁的孩子或者被扔进垃圾桶，或者被蒙住面孔，或者嘴巴被贴胶带封住……。网友们惊呼：“虐待孩子的恶行不是第一次了！罪证都是现成的！”照片公布之后，引发网络世界一片怒骂，颜艳红因此被斥为“变态老师”<sup>4</sup>、“不良少女”<sup>5</sup>甚至“禽兽”<sup>6</sup>、“畜生”<sup>7</sup>。

在强大的社会舆论压力下，温岭市教育局迅速作出反应，当即要求涉事幼儿园整改并开除颜艳红。浙江省教育厅也于10月26日专门下达文件《浙江省教育厅关于温岭市蓝孔雀幼儿园教师虐童事件及进一步严格师德师风管理的通报》，要求“立即处置并严肃处理，坚决防止和制止任何伤害学生的行为，尤其要坚决杜绝虐待学生事件的发生”。随即温岭市公安局以“寻衅滋事罪”对颜艳红予以刑事拘留，后因“不构成犯罪”而撤销刑事诉讼，仅对颜艳红处以行政拘留十五日的处罚。经过调查，温岭警方否认了颜艳红“因感情问题向孩子施暴”的说法：“经我们调查，颜艳红涉嫌虐待儿童与个人感情没有太大关联。据供述，她只是为弥补内心空虚，寻求开心，仅此而已。”<sup>8</sup>

为什么“好玩”这个看似无厘头的诉求居然能够压倒一切而成为决定主人公行为的关键要素？这显然构成了《看见》栏目不同于“百度名片”的对于“温州虐童事件”的兴趣点所在。<sup>9</sup> 由此出发，《看见》在重述

<sup>4</sup> 《温岭蓝孔雀幼儿园变态教师遭人肉》，<http://home.cnstock.com/article-16377-1.html>。

<sup>5</sup> 《温岭蓝孔雀幼儿园虐童女教师颜艳红从事教育事业的不良少女》，<http://candylulu007.blog.163.com/blog/static/136175264201292511293114/>。

<sup>6</sup> 《颜艳红空间照片：颜艳红空间虐童照片惨不忍睹》，<http://9ixiaoshuo.com/redianxinwen/2012-10-28/1558.html>。

<sup>7</sup> 《百度名片·颜艳红》，<http://baike.baidu.com/view/9497123.htm>。

<sup>8</sup> 《河北青年报调查：还原一个真实的颜艳红》，<http://www.yiqigogo.com/post/388.html>。

<sup>9</sup> 《颜艳红：我不认识我自己》在一开头的解说词中就说：“谈到虐待动机时，她始终只说两个字‘好玩’。这样一个常识看起来残忍粗暴的行为为什么在一个正常人的精神世界中被视为‘好玩’，今天颜艳红接受我们的访问，她说愿意

该事件的时候，只是将受虐儿童和家长的愤懑与哭诉作为叙述的由头，而把讲述的重心放到了施虐主人公颜艳红身上；并且选择了以颜艳红自己的讲述作为新闻的主线，辅之以颜艳红家人、男友、同事、好友、园长、老师、家长等人对事件的反应及对颜艳红的看法，着重展开对颜艳红特定的心理状态的发掘，由此形成了以下几个剖析女主人公内心世界的进路：

颜艳红贫寒的农村家庭出身首先被《看见》所关注。用招贴画作为挡风玻璃的“楼板已经塌陷的”破旧的家，用了“十几年的老电视”，“少言寡语，有肺结核，不能干重活”<sup>10</sup>的父亲，因接二连三丧子而“精神有点反常”、“几乎从来不下楼”的母亲，以及因为贫病交困、因为怕遭遇村里人“看不起的”眼光而基本上没有社会交往的孤独的人生……当摄像机用长镜头一一扫过这些具有隐喻意味的沉浸在黑夜中的颜艳红的生存世界要素的时候，画面的凝滞、压抑和晦暗无疑在很大程度上呼应了颜艳红在她的QQ空间中的感慨：“为什么要有我的出世，原来都是痛苦，受不了。”在这样的叙述中，无论是颜艳红还是隐藏在摄像机背后的叙事人，显然都颇为认同时下流行的“拼爹”逻辑，即，颜艳红的人生一开始就注定是不幸的，而不幸的根源在于，她出身贫寒，无法掌握有用的社会资源。而对这一看似不可逆的人生起点命运性的揭示和渲染，显然会在很大程度上使人将目光放到让其绝望的当代中国给底层的年青人所制造的恶劣的成长环境上；而颜艳红的感慨因为清晰地折射出了当代中国社会阶层的固化、弱势群体向上流动空间的堵塞，具有了对当代中国由权贵/国家资本主义所主导的严重的社会不公的揭露和批判的意味在里面。由此，通过将叙事者眼光内化为当事人的立场，《看见》以“同情的理解”的姿态探索了一种具有翻转意味的叙述修辞政治：原本被贴上了道德沦丧“标签”的颜艳红，因为既被当作是当代中国社会“拼爹”病症的一种表征同时又被看作是这种病症的牺牲品，其人生就具有了可以被多面解读的歧义性——相对于更为弱小无助的孩子，很大程度上丧失了作为教师基本职业伦理的颜艳红的所作所为当然会引发众怒；但是相对于当代中国大众最为痛恨的权贵阶层与生俱来的“原罪”，草根阶层出身的颜艳红所阐发的来自于生命起点的无奈与无助，显然又会让人对其不由自主地产生同情。

《看见》对颜艳红成年时期所接受的教育背景以及建立于其上的职业生涯的进一步挖掘，进一步强化了上述印象。“从小的学习成绩一直在倒数第几名的状态”，以及基于“幼师学费少，好找工作”，颜艳红在初中毕业后报考了温岭市教师进修学校表演艺术专业幼师方向。在“混日子”式的学习生涯结束后，她如愿以偿地成为了蓝孔雀幼儿园这一位于温岭城乡结合部的私立幼儿园的一名教师，然而每月工资只有1500元，“这在处于浙江东南部，经济发达的温岭来说，是很低的月收入，她的衣服都是从服饰城几十块钱买来的，在微博上她感叹‘要饭的都比自己有钱’”。在从“家庭人”走向“社会人”的过程中，“教育”无疑一直是被当作填平社会资源分配不公、创造新的平等机遇、打破阶层固化的主要手段来看待的，然而颜艳红的例子却表明，这一教育功能设置似乎是落空了：因为成绩平平，颜艳红只能接受地方性的中等

---

呈现她之前一直想向他人隐瞒的另外一面。”

<sup>10</sup>引自《颜艳红：我不认识我自己》解说词，下文引文如无特别说明，皆出自于解说词。

职业教育，显然在人才市场上缺少应有的竞争力而无法获得优质薪酬的工作；因为是女生，她可以为未来就业所选择的学习专业似乎也有限，只剩下了打上鲜明女性气质烙印的“幼教”行业；因为上述种种原因的综合，甚至连就业地点也只能是各方面条件较差的“城郊结合部”……。在这样的讲述中，可以看到，在当代中国，经过“教育”，颜艳红并没有获得多少新的社会资源，而更像是对苦苦挣扎在底层的父母命运的一种简单复制。而这一观点，显然与廉思在《蚁族》对青年低收入群体的调查结论不谋而合，即，毕业于“地方院校和民办高校”的“80后”大学生更容易成为“大学毕业生低收入聚居群体”，即“蚁族”。

<sup>11</sup> “教育”在当代中国显然不仅没有再生产出社会公平，反而使得年青人在“出生”起跑线上已经产生的差异进一步拉大。

尽管如此，对于“90后”女生颜艳红来说，改变人生似乎还存在着其他可能性。在《看见》中，颜的女朋友直言不讳地说：“反正一开始时候，选择那个幼师，没打算一辈子做”，因为幼师工作只是“青春饭”，以后就可以通过嫁人另谋生计。但对于颜艳红而言，这条路似乎也走得不顺。由于交往的男朋友“有点管不住自己，总打游戏，和别的女孩暧昧，争吵的时候对女朋友大吼”，颜艳红在日常生活和工作中所感受到的种种压力和情绪无法在男友处得到转移和缓释，相反，由于还要经常委曲求全地扮演主动求和的角色，她的内心深处反倒堆积了更多的负面情绪垃圾，在她的QQ空间中，这些情绪垃圾被以一种充满暴力的言语宣泄形式表达出来：“你能给我什么，滚”，“伤痕累累的想死”，“你要是敢，我拿菜刀砍死你”……。在《看见》如此细致入微地挖掘中，与颜艳红原本让人印象深刻的强悍的网络/现实形象所截然不同的脆弱的一面被呈现了出来——这是一个心灵受伤而得不到抚慰的饱受家庭冷暴力影响的受害者形象，也是一个恪守在传统的“男强女弱”的两性关系结构中无法挣脱的软弱者形象。与这样的形象相匹配，那些发布在网络的暴力性言辞似乎也就具有了女性亚文化意义上的“抵抗”的正当性意味。

立足于上述三个面向，很容易得出一个初步的印象就是，《看见》企图借助颜艳红这一个案，另辟蹊径，重新打造“温州虐童事件”的叙述框架。在这一框架中，是颜艳红这个兼具了“草根阶层”、“农村”、“女性”等多重身份的“90后青年”而不是那些被她虐待的孩子，成为了悲剧主人公，而制造这一悲剧的，主要是“出身”所暗含的不平等的社会结构、“教育”所指向的后天社会资源再分配的不合理以及“爱情”所挟带的传统的两性不平等关系，因而如果要进一步来分析这一悲剧的根源的话，一定会指向对当代中国社会不公的抨击，指向夹杂了阶级压迫、代际压迫和性别压迫等多重因素的转型中国族群区隔甚至断裂的内在困境。《看见》由此似乎复制了人们所熟悉的立足于全球资本主义扩张立场的“公共知识分子”叙述模式，在这一模式中，官/民、男性/女性、城市/农村、权贵资本主义/草根阶层等一系列二元对立的叠加构成了故事的基本结构与行进动力，而对社会资源重新分配的呼声则夹杂着对“中国特色社会主义”市场经济的不满而浮出历史的地表，其潜在指向的，显然是对社会制度重组的政治性企盼。而这，是与网络世界中对于温州虐童案更多偏重于对颜艳红这一“有问题”的主人公的指责形成了鲜明的差异性的。

---

<sup>11</sup>廉思：《蚁族》，桂林：广西师范大学出版社，2009年版，第1页。

## 二、 QQ 空间、虚拟社会化与青年亚文化

耐人寻味的是，《看见》对颜艳红故事的讲述最终却并没有完全顺着上述框架滑行而得出一个看似合理的抨击当代中国痼疾的结论，而是出现了峰回路转。在故事后半段，《看见》提供了不同于上述政治经济学分析的另一种建立在技术基础上的讲述逻辑：尽管颜艳红在自己的QQ空间中曾表示“对某些人[引者注：指男友]的火，全发泄在学生们身上。烦。”然而，在接受《看见》采访的时候，她却又对此矢口否认，更强调其在QQ空间中的说法其实是一种言不由衷的伪装与掩饰：“都是写给别人看的 / 就是发泄自己，心理情绪，然后给别人故意给别人看，”并不是真实。而《看见》经过简单的时间比对，也认为颜艳红的虐童行为“的确与感情刺激并没有直接的因果关系。这些照片的拍摄基本上是从她建立QQ空间开始”，认为对QQ空间的过度依赖，使得颜艳红甚至“没意识到说这是在虐待，或者伤害孩子”。

由此，“QQ空间”这一新媒体时代的特有信息平台由此被推到了前台，成为《看见》讨论颜艳红虐童动机的一個具有转折意义的全新视角，而这一新视角的出现，显然在很大程度上冲淡并转化了虐童事件所负载的社会政治经济方面的信息。《看见》发现，“QQ空间”对于颜艳红来说，具有“精神上的寄托”的意味，借助这一平台，颜艳红“想要有另外一个自我的形象”，一个“光鲜亮丽，然后就很有要强”的现代强势女性形象。为了打造这一形象，她主动标榜自己是“豹纹控”、“吃货”、“喝酒就要喝百威”、“哪里有酒就去哪儿”，而且通过上传大量浓妆艳抹的生活照，通过展示身上另类的“烟疤”刺青，通过散布“没有考试，是托关系进去的”的虚假入职信息，通过诸如“不动手打你，你不知道我文武双全”等宣泄性的暴力话语，“来掩盖难堪”。由此，藉由“QQ空间”，颜艳红建构起了一个与日常生活中的自己截然不同的网络形象/身份，并且因为对于这样的虚拟形象/身份的过份迷恋和认同，而逐步影响到了自己的真实世界——在日常生活中，她“感到的失败感和不耐烦越来越强”，“每天早上拉个脸打的来上班，跟白痴一样一天坐到底等下班后打的回去，不想上课，动也不想动。能懒就懒”。事实上，大量的虐童照片就是在这一阶段被密集地上传的。

风笑天等指出：“随着信息化、网络化浪潮的高涨，虚拟社会化机制将在青年社会化过程中发挥越来越重要的作用”，“真实社会化与虚拟社会化的断裂”将导致“青年角色认同危机”。<sup>12</sup>很显然，在《看见》的视野中，颜艳红的所作所为，正是两种“社会化”之间彼此对立、互为作用而产生的青年角色认同危机的表征。某种意义上，可以说，这种危机直接导向了青年亚文化的出现，导向了迪克·赫伯迪格（Dick Hebdige）所指出的青年亚文化在现实功能上的“双重意味”：“一方面，它们事先向‘正统’的世界发出警

---

<sup>12</sup>风笑天、孙龙：《虚拟社会化与青年角色认同的危机——对 21 世纪青年工作与青年研究的挑战》，《青年研究》1999 年第 12 期。

告，它们是一种邪恶的存在，是一种差异的存在，并且招致了模糊的猜疑和不安的笑声，以及‘把人气得脸色发青、瞠目结舌’；另一方面，有人却把它们当作了暗号或咒语来使用，并赋予它们以圣像的地位，对他们来说，这些物品则变成了被禁止的身份符号和价值观的源头。<sup>13</sup>当代中国社会的急剧转型，将颜艳红这样的弱势群体抛出了社会主流轨道之外，让她们感受到了无力感与无助感，然而这种无力感与无助感却并没有积聚为一种正能量，而是因为有了“QQ 空间”等可以进行身份虚拟的媒体手段的介入，蜕变为各种具有“想象性抵抗”意味的亚文化符码：一方面青年弱势群体通过“类强者”的妆饰、表演和展示，建构起了与主流价值观念既认同又背叛的具有悖论性的青年亚文化身份认同，从而会在一定程度上缓释来自现实世界作为“失败者”的焦虑情绪；另一方面，青年亚文化身份认同的内在断裂所制造的现实与虚拟之间的紧张张力关系，却又会形成一种恶性循环——虚拟世界中越是光鲜亮丽，越会烛照出现实世界的黯淡压抑；反之亦然。如何在心态失衡的怪圈中寻找新的平衡点，成为势之必然。某种意义上，在《看见》看来，颜艳红欺凌远比自己更为弱势的幼童群体，正是新的心理平衡点制造的路径选择之一。

在这里，通过引入“QQ 空间”，《看见》成功地将温州虐童事件的发生根源从政治经济层面引导到了传播技术层面——某种意义上，似乎是“QQ 空间”这样的网络虚拟平台对于青年现实不满情绪的默许、纵容和反向发酵，才是推动颜艳红沦落的直接因素。在这样的描述中，很自然得出的一个结论就是，并不是那些先天和后天的社会政治经济因素将颜艳红推入反社会、反伦理的道德深渊的——很大程度上，这些因素只是潜在的风险，只有当它们与青年亚文化/身份认同得以产生和运行的网络媒介榫合在一起的时候，才会产生出类似于虐童事件这样的严重后果。

正是基于这样的逻辑，社会方方面面是否对青年亚文化及其发生机制进行了有效的监督和管理，就顺理成章地成为了《看见》后半部叙事的重点。《看见》指出：“她的 QQ 空间最初是公开的，朋友和一部分同事都可以看到。除了一个陌生人之外，没人向她提出过不妥。”周围环境的宽容显然成为颜艳红那个奇装异服并且行为叛逆的“自我”得以在网络世界中膨胀的重要条件；与此相呼应的，是现实世界中的颜艳红的“外形和情绪的明显变化，也没有在她工作的蓝孔雀幼儿园引起重视”，并且由于“教室当中并没有装监控的摄像头”，“门一关，老师跟孩子发生的一切就关在了里面”，幼儿园监控意识/手段的缺乏，无疑也被认为是虐童事件得以发酵的现实基础；而国家层面上的法律对此类虐童事件的监管和处罚盲区的存在，《教师法》中的相关规定在现实情形中的执行不力（“打骂是吧？扣五分”，相当于“10 元”），也成为《看见》在更开阔的层面上讨论虐童事件的重要依据。更有甚者，《看见》甚至还将反思的目光延伸到了作为受害者一方的幼童家长。那些与颜艳红一样来自于社会底层的家长们，因为生计所迫而对孩子照顾不周的内疚以及在此事件后的追悔莫及，在《看见》的特写镜头中，也被放大为虐童事件得以发生的一种既在意料之外又在情理之中的转型中国“家长监管缺位”的问题。

从社会政治经济层面到媒介传播、社会监管层面，《看见》对于温州虐童事件的讲述，显然充满了

---

<sup>13</sup> 【美】迪克·赫伯迪格著，陆道夫等译：《亚文化：风格的意义》，北京：北京大学出版社，2009 年版，第 3 页。

转型中国的媒介修辞特色——一方面经历了一个讲述重心转移、反思力度减弱的过程，但必须注意到，其在处理主人公的立场、基调方面却还保持了一定的连续性：首先，无论是在哪个层面，《看见》所呈现的颜艳红更像是一个涉世未深、无知软弱的可怜者而不是老谋深算的施暴者：在政治经济层面所把握到的颜艳红是底层弱势群体的代表，在媒介传播层面所分析出的颜艳红是被新的媒介技术蛊惑不能自拔的懵懂无知者，在社会监管层面所发掘出来的颜艳红则是监管缺失的受害者……。这一形象颠覆，显然在很大程度上挑战了“保护弱小”的传统中国大众伦理道德底线而有触犯众怒的危险；然而，《看见》依然坚持冒险为颜艳红翻案，其用意就相当耐人寻味。从叙述表层来看，通过将颜艳红叙述成“哀其不幸、怒其不争”的弱势群体代表，《看见》很大程度上以“醉翁之意不在酒”之态，推动整个事件从对青年个人道德与职业伦理的指责转移为对导致这一后果的当代社会的反思，从而超越了作为行动者的个人层面，延伸到了社会结构、传播技术、法律监管等外在的层面。这一选择有助于打破既有的叙述/呈现对于“问题青年”的刻板印象，使其可以在更为复杂的格局中被认识；<sup>14</sup>但是，却也会因为在相当大的程度上迎合甚至承认当代中国青年亚文化群体特别是网络青年亚文化群体中一直弥漫着的反主流、反体制、反社会的激进情绪，又有沦为片面地为其代言而忽略真正的弱势群体（如那些受虐的孩童）的危险。这一双刃剑效应，暴露了《看见》预设立场的伦理争议性所在，即，如何有分寸地来把握颜艳红作为“问题青年”与“弱势群体”双重代表其所值得同情之处；这种令人同情之处是否可以与那些被她所虐待的孩童相提并论；还有，对于颜艳红的同情是否有必要因为其容易在群情激愤之时被忽视而被格外强调出来……。

而当《看见》采取主要从颜艳红的视角来梳理整个事件的来龙去脉的时候，显然对上述一系列容易导致道德伦理困境的问题未予更多思考，由此分明又凸显了在其视野中，作为“个人”的“青年”的重要性及其必须作为切入问题的基本单位的不容置疑性。这一立足点，显然呼应了 1980 年代“改革开放”以来愈演愈烈的个人中心主义思潮，而更为重要的，是在相当大的程度上暗合了全球资本主义对以“青年”为主体的个体劳动力询唤的需要——事实上，对“青年”及“青年”意义的强调，正如吉利斯（G.R.Gillis）所指出的，“是工业化以及社会近代化的需要及其结果。近代工厂的出现，将年轻人从传统的家庭/共同体中吸引（或驱赶）进城市，使其成为产业大军的生力军。”<sup>15</sup>而将上述两方面联系起来看，可以发现其间的曲径通幽处——以“现代化”的个人主义利器所展开的对传统中国社会及其伦理体系的质疑乃至解构，正是 1990 年之后驱使当代中国青年以原子化劳动力形态大量涌现并进入世界工厂的必要条件之一；而青年亚文化所天然流露出的对于社会共同体的冷漠、疏离与对立，既有着对当代中国国家威权主义的反

---

<sup>14</sup>《看见》的这一选择与中国青年社会学研究的当前走向有不谋而合之处。何绍辉、黄海在研究“青少年问题”时就指出：“将街角青年作为‘问题青少年’在研究，我们对街角青年本身带有一种‘刻板印象’，我们关注的核心不是‘青少年问题’，而是‘问题青少年’，于是，再怎么调查、发现与研究，我们都逃脱不了既有的研究困境。”因而他们呼吁：“对于乡村‘越轨’青年群体的研究，应该跳出研究对象本身，多从社会而非从个体去寻找原因、获得理解”。何绍辉、黄海：《社会病视角下的“越轨青年”研究——以街角青年与乡村混混为例》，《青少年犯罪问题》2012年第2期。

<sup>15</sup>G.R.Gillis: *Youth and History: Tradition and Change in European Age Relation*（《青年与历史：欧洲年龄的传统与变化》），转引自陈映芳：《在角色与非角色之间：中国的青年文化》，南京：江苏人民出版社，2002年版，第2-3页。

感与逃避的成分，又在很大程度上加固了全球资本主义发展所必须的个人主义，从而也潜在地成为建构全球经济-市场一体化合理性的推动性力量。正是在这样的背景下，《看见》对颜艳红这样的“问题青年”的同情，就可能不只是对青年亚文化的一种理解式认可，而更需要在全球资本主义的区域扩张所需要征用和建构的意识形态的层面上来加以理解，甚至可以被视为是后者的合谋者了。

尽管《看见》意欲凸显“个人”价值、凸显“青年”意义的意图历历可辨，然而，当颜艳红的故事还是被放置在从政治经济层面向网络传播、法律监管层面转换的叙述结构中来进行的时候，其实又是在提醒我们《看见》所探索的叙述可能性及其限度所在。处在“央视”这样的代表着国家权威意志的新闻媒介平台上，《看见》多多少少还是意识到了作为主流媒介应该承担的责任，某种意义上，以类似于“旧瓶装新酒”的折中方式来处理内容与方式之间存在的分裂，可以被看作是弥合这一分裂的努力——从其传达的内容上看，《看见》对各种现实压迫性因素的发掘，仿佛正与全球资本主义的意识形态建构需要高度呼应而洋溢着现有社会体制的挑战激情，而这，显然是与其作为主流媒体的责任有所悖逆的；从其叙述结构上看，《看见》规避了与“颜艳红如何成为弱势群体”的现实政治真正的短兵相接，而在很大程度上将其降落在由新媒体为主导的青年亚文化上，强调技术、法律对青年亚文化进行调适和监管的重要性，这显然是一种避重就轻，可以视之为是其本应承担的主流媒体责任一种回光返照式的介入的结果，也是其恪守现有传媒体制格局而进行自我约束的一种选择。因而作为这一充满了张力的叙述形态设计的必然结果，青年亚文化作为全球资本主义的伴生物，以一种新的文化政治的姿态被迅速推到了本不应有的高度上，相应的，则是主流媒介所本应承担的介入/引导现实从而激发其正能量的责任的无声消逝以及犬儒意义上的技术维度分析的大行其时。

### 三、“二次曝光”与“抵达真相”：关于媒体呈现的政治

正如费斯克（John Fiske）所指出的，新闻对负面事件的报道，一般是为了肯定“我们的社会规范”、“肯定我们的主流认识”，<sup>16</sup>那么对于处在“央视”这样具有意识形态主导权的权威新闻平台上的《看见》来说，这一功能显然尤其会得到强化。既然如此，如何来解释《看见》在呈现温州虐童事件时似乎是反其道而行之的青年亚文化价值取向呢？如果要进一步来分析上述媒体意识形态得以形成的根源的话，显然还须充分注意到转型中国当下现实、媒介格局特别是传媒人站位的复杂性。因而，《看见》本身是否真的导向了“看见”，就成为了一个值得追究的问题。

简单扫描一下《看见》自2010年底开播以来的轨迹，就可以发现，类似于温州虐童案这样看似“有问题”的新闻叙述绝非偶然。在《看见》一系列引起社会广泛关注的专题采访中，有关底层故事的叙述，

---

<sup>16</sup>【美】约翰·菲斯克著，祁阿红等译：《电视文化》，北京：商务印书馆，2005年版，第410页。

在视角、立场、结构等方面往往给人似曾相识之感：《十五元停车费引发的悲剧》（2011-1-30），《“名人”赵作海》（2011-3-25），《专访药家鑫案双方父母》（2011-8-16），《潇湘救赎》（2012-2-19），《孝子弑母》（2012-7-15），《少女抗暴杀人案》（2012-12-9），《兰考弃儿》（2013-1-13），《十年牢狱谁之过》（2013-4-8）……，这些作品毫无例外地聚焦具有巨大道德伦理争议的社会底层违法犯罪案件；具有转型中国社会特殊烙印的弱肉强食、赢者通吃的丛林法则，往往既是作品无法规避的背景又是其试图挑战的目标；或激烈、或执拗、或压抑地挣扎在此漩涡中不能自拔的年轻人飘忽不定的身影时常是摄像机捕捉的目标；而一种无法被冰冷的镜头所隐匿的打上“普适性”印记的人道主义同情则是叙事者基本的切入立场。

有意思的是，这些作品如同温州虐童案一样，许多新闻线索最初也主要来自于网络，有的来自于新浪网、天涯社区、百度贴吧、猫扑网、开心网等这样的公共话题平台，有的来自于网民借助QQ群、BBS、微博、微信等现代共享性信息技术或无意或主动的爆料。在“自媒体”（We Media）和“社会媒体”（Social Media）飞速发展的时代，像《看见》这样的传统新闻媒体往往要等到事件已经在网络上酝酿、发酵乃至成型之后才会介入：“网络舆论推动并裹挟着传统媒体持续关注的热度，并不断为传统媒体设置议题，传统媒体在很大程度上已经成为网络媒体议程设置的实施者。”<sup>17</sup>在这样的情形下，较之于网络媒体，像《看见》这样的传统媒体只能进行“二次曝光”式的报道，因而就面临着一种信息传递的困境——当网络世界的“乌合之众”已经形成了相对凝固的舆论之后，如何来建构“二次曝光”的后发优势，并且能够力挽狂澜而改变大众通过互联网所获得的第一印象？<sup>18</sup>

《看见》显然相当清楚自己的处境。<sup>19</sup>作为一档记录现实的专题新闻节目，《看见》自2010年12月6日问世之后，一直以关注“观察变化中的时代生活，用影像记录事件中的人”<sup>20</sup>作为节目宗旨。这一定位，显然既与网络媒介的呈现重心有所不同，也与传统的新闻报道形成了一种微妙的差异。《看见》主编王开岭这样解释道：“《看见》之初，我们斟酌最多的即如何界定与‘新闻’的关系：既和‘新闻’保持一定的亲密性，又试图在公共注意力之外增补自己的注意力……我们与新闻的关系是：既服从，又反抗。新闻不是我们的本位和目的，它仅仅被我们当成地图，充当选题会的桌面。”<sup>21</sup>在新闻报道过程中，《看见》

---

<sup>17</sup>马骏：《〈看见〉：自媒体时代的新闻专业主义实践》，《电视研究》2012年第5期。

<sup>18</sup>傅剑锋指出：“在微博时代，由于它强大的舆论场力量，可能正在使传统媒体的记者与编辑陷入这样的一种危险：对一条带有强烈社会情绪的新闻，立场变成了第一位，还原与调查事实反而降到次要位置。”《我爸是李刚》报道的群体症候》，《南方传媒研究》，2011年第27辑。

<sup>19</sup>《看见》主持人柴静在一次访谈中，就表明了这样的忧虑：“网络时代，尤其是有微博之后，信息传播非常快也非常短，很容易跨越事实直接进入评论环节，成见很容易形成，偏见也很容易加深，而且这种社会情绪会因互联网而加快加重。”耿欣、蒋玉霖：《柴静如何“看见”——对话央视综合频道“看见”栏目主持人柴静》，《中国记者》2012年第1期。

<sup>20</sup>《看见》官网。<http://cctv.cntv.cn/lm/kanjian>。

<sup>21</sup>王开岭：《看见：一种目光和态度》，《中国电视》2013年第3期。

更为注重的是“人文”情怀的传达：“在其[引者注：指新闻]上，我们要放两只‘人文’的杯子，即栏目的两个单元：人物访谈和纪录风格的故事。前者侧重对新闻人物的精神访问（尽量在热点事件和规定人物中安置自己的注意力和精神路径，追求‘新闻抵达’之上的‘精神抵达’，从而把对人和事的‘了解’升级为‘理解’）；后者向观众推荐我们自以为珍贵的人性故事和精神活动（在公共注意力之外繁殖自己的注意力，这些故事多具隐蔽性）”。<sup>22</sup>当“精神抵达”被看作是比“新闻抵达”更为重要的新闻目标的时候，对“人性”、“精神”等人文维度的强调，无疑为新闻中的“人”理直气壮地出现在新闻的前台，也为新闻制作者将自己的主观意志叠加到新闻中去建构了某种合法性。

而作为《看见》的主要出镜记者，柴静自 2002 年进入中央电视台工作以来，就坚定不移地认同并实践了发掘“新闻中的人”的立场。<sup>23</sup>这一立场在其先后主持的《东方时空》、《新闻调查》、《24 小时》、《面对面》等一系列央视知名新闻栏目中有不同程度的体现。到了《看见》时期，这一立场因为得到了可以发酵的温床，更是得到了充分的强调与张扬。在《采访是一场抵达》的专访中，柴静曾这样系统地阐释了自己对于新闻采访的理解：“采访是呈现，不是评判”，“采访不是用来改造世界，采访只是来认识世界”。在这一前提下，柴静认为“媒体的职责不是提供‘热’而是提供‘光’，不需要煽动社会的热情，媒体是在提供光亮，照向黑暗未知之处”。由此采访者就应该将现实角色与职业角色进行有效区分，将新闻事件与新闻中的“人”区别对待：“我现在对自己有一个原则，就是对事苛刻，对人宽容。”而所有这一切，都是为了“突破概念”，“抵达一个真实的人”。<sup>24</sup>

当“抵达一个真实的人”被当作新闻专题节目的核心甚至是其基本符码的时候，可以看到节目制作者对于传统新闻文化的微妙修改。如果说第一时间传递“信息”往往被当作传统新闻的追求目标的话，那么，将滞后的“信息”藉由“个人”这一中介编织为一种“文本”，一种充满了故事、耐人咀嚼的“文艺节目”，<sup>25</sup>同时有意识地覆盖上新闻采访者“理解”的“目光”，分明成为了《看见》在网络信息爆炸时代处在后发位置的媒体所能想到的突围之道。这一修改，一方面似乎可以越过各种纷繁复杂的“信息”而无限“抵达真相”——假如各种“个人”的叙述可以还原现场的话；另一方面，却又不免会在新闻最为注重的“客观性”维度上招致各种非议：如何来验证新闻现场中的“个人”其讲述的可靠性；又如何来验证采访、组织、编辑这些“个人”的叙述的记者其立场的客观性；打上了新闻采访者自身价值立场和情感向度烙印的“真相”是否具有公信力？

---

<sup>22</sup>同上。

<sup>23</sup> 尤蕾：《看见》柴静，《南风窗》，2013 年第 1 期。

<sup>24</sup> 柴静：《采访是一场抵达》，《商周刊》2012 年 11 月 12 日。

<sup>25</sup> 话剧人牟森认为：“《看见》不是新闻节目，是文学节目。”见张卓：《看见》柴静，《中国周刊》，<http://news.sohu.com/20111206/n328081868.shtml>。

正是在这样的疑虑中，围绕着电视新闻节目《看见》以及柴静的新书《看见》，一场有关新闻媒介呈现尺度的争论拉开了大幕。<sup>26</sup>凤凰卫视著名新闻记者闾丘露薇以柴静 2012 年 10 月 9 日在清华大学所做的“采访是一场抵达”的演讲为突破口，2013 年 1 月 22 日在自己的博客中对柴静的专业素养提出了明确的批评：“有人说记者采访是‘一种抵达’，我想了半天，就是不明白。其实采访一点也不玄乎，就是提问，把事实弄明白，把原因找出来。也因为这样，新闻采访，强调的是要有新闻点，一个人再有名，如果没有新闻点，那就不是新闻记者应该采访的对象。”<sup>27</sup>在闾丘露薇的视野中，“人”与“新闻”显然不能混为一谈，“人”只是进入“新闻”、“传递”新闻的一种符码，什么样的“人”可以进入“新闻”是由“新闻”决定的，“人”本身并不能超越“新闻”而成为独立的被采访内容。在此前提下，她又对记者的职责进行了梳理：“如果一个记者，做新闻只关心新闻中的人，而不是新闻事件背后的原因，那就变成了一个单纯的倾听者，这是不称职的，……如果只是关注人而不去寻求这个人的遭遇背后的原因，那这样的新闻报道是不合格的。当然，这样做会很安全，也很讨巧，但是最终受益的，是媒体人本身，却不是公众。”<sup>28</sup>闾丘露薇相当明确地区分了“记者”（新闻）和“主持人”（娱乐）之间的差异性，认为记者的功能显然应有别于政府人员，也不同于公益人士，应该通过还原事件来追溯真相，通过个案最终关注公共利益，因此，新闻记者必须要恪守如何真实地传递“信息”这一边界，也要据此处理好自己在事件报道中的位置和角色，因而记者并不适合喧宾夺主地活跃在新闻前台，尽管他也很有人文情怀。

央视主持人董路认同闾丘露薇的看法，他进一步批评道：“柴静的表演以情绪为主，她一个又一个丰富中透着呆板的表情动作，引领者观众的喜怒哀乐。外景地里就像戴安娜，差点喊一句‘乡亲们受苦了’”，“柴静像雷锋，雷锋不论帮助了多少人，人记住的都只是雷锋，柴静不论采访了多少人，人们记住的都只有柴静。在我看来，柴静做新闻和于丹做新闻之间，只少了一本《论语》”。<sup>29</sup>因此他质问“柴静，你能看见自己吗？”<sup>30</sup>在董路看来，柴静对于访谈类新闻的把握无疑出现了偏差，从一个应该犀利地剖析新闻事件的采访者蜕变为一个引导采访对象/观众进行情绪宣泄的抚慰者，这种风格可以看作是柴静借着新闻在“表演”，成全了柴静自己在镜头前的富有爱心和现实关怀的女性公共知识分子完美形象的塑造，却无助于事件真相的开掘。

耐人寻味的是，面对闾丘露薇等人的指责，柴静保持了沉默，倒是中山大学传播学副教授张志安和南京大学新闻系教授杜骏飞先后在网络上为其辩护。2013 年 1 月 23 日，张志安认为：“记者可以有不

---

<sup>26</sup> 这一讨论同时在很多网络公共平台展开。如在新浪微博的“微话题”中，由《闾丘露薇批评柴静是“表演”采访，引记者行业标准争议》这一帖子引发的网友讨论 11820435 次，截止 2013 年 4 月 21 日，共有 9436 名网友赞同闾丘露薇的看法，4856 位网友支持张志安的观点。

<http://huati.weibo.com/27251?from=522#!/27251?from=522&order=time>。

<sup>27</sup> 闾丘露薇：《说说记者这行吧》，<http://dajia.qq.com/blog/212033018962909>。

<sup>28</sup> 闾丘露薇：《说说记者这行吧》，<http://dajia.qq.com/blog/212033018962909>。

<sup>29</sup> 来源 <http://news.sohu.com/20111206/n328081868.shtml>。

<sup>30</sup> 《董路公开批柴静：成名靠央视和老男人饭局》，2013-01-24，来源：北青网-北京青年报(北京)，<http://ent.163.com/13/0124/09/8LVLIJVV00031H2L.html>。

同种类。通常来说，寻求个人遭遇背后的原因，具有重要性；而当个体心智被道德判断遮蔽或制度归因无甚新意时，关注人性本身尤有意义”。<sup>31</sup>作为《看见》编导范铭的老师，杜骏飞在长篇微博《我们怎样抵达新闻？》中指出，闫丘露薇太过于强调建立在“简单事实”追寻基础上的“新闻专业主义”，其实“自《哈钦斯报告》以来，纯粹的经验主义的新闻学已不再是唯一的理念诉求：一方面，新闻业必须真实和公正；但另一方面，新闻也必须将‘信息流、思想流和情感流送达每个社会成员’”，而更为重要的是，“在当下中国，最重要的新闻还不是事件，而是人；最重要的新闻报道还不是发现事件，而是发现人——发现人的情感、权利和尊严”。因此，“柴静的新闻文本聚焦于人，绝非是没有价值的，更没有违反新闻旨趣。”<sup>32</sup>很显然，无论是张志安还是杜骏飞，都将人性、自由、权利等作为“当代中国”新闻报道的核心关注点所在，在这一前提下，无论是事件中的“个人”还是作为讲述者的“个人”，都获得了毋庸置疑的合法性；“新闻”由此也就顺理成章地成为了对人的发现，而不是对事件的呈现。通过将“个人”意义放大，一方面，杜骏飞等人以欧美新闻传播学的最新进展为比附，认为“新闻”不能简单建立在以“客观性”为基础的“新闻专业主义”之上，这种观念因为与欧美“前沿”新闻理念同步而仿佛具有了不言自明的合法性；另一方面，他们显然也不避讳重个人轻事件的新闻立场选择，其实就包含着“当代中国”忽略“人性”、“权利”的基本判断在里面，因而凸显“个人”正是指向了对“当代中国”主流意识形态的反动，而这正是他们所更为推崇的。

2013年1月24日，闫丘露薇再次回应：“新闻事件当然离不开人，新闻之所以是新闻，就是不能只到个案为止。追寻背后的原因，说到底，就是为了让社会进步，让个体更有尊严，最终还是回到人。”她同时指出：“既然作为一个新闻人无法正常的做新闻是事实，那就要大方承认，而不是自我欺骗，同时也欺骗大众，让大家以为，做新闻就是这样做的。”<sup>33</sup>在“新闻”是为了“让社会进步”、“让个体有尊严”这一点上，闫丘露薇显然与张志安等人形成了共识，只是在“当代中国”需要怎样的“新闻”及“新闻”呈现技巧上，双方分歧依然存在——闫丘露薇更愿意相信硬性新闻的重要性，所谓“百年来，不断发展的新闻职业理念和一系列操作性规范都在要求记者要尽可能‘专业’地去观察和记录事实，而不是制造事实或成为事实的一部分”，<sup>34</sup>因而仍然对柴静更多具有抚慰当代人心作用的软性主持风格颇有微词。

可以说，双方关于《看见》的争论主要在新闻呈现的“真实性”与“有效性”这两个维度上，具体表现为对新闻记者的角色与功能、新闻报道的构成要素是事件还是个人、新闻的作用等方面的不同看法，其焦点是新闻记者作为特殊的人文知识分子应该硬性还是柔性面对/介入当代社会。值得注意的是，对于作为新闻前提的“当代中国”，双方在判断上其实并无多大分歧——在他们的视野中，“当代中国”无疑是“一

---

<sup>31</sup> 来源 <http://ent.sina.com.cn/r/m/2013-01-25/10343844554.shtml?wbfb=more>。

<sup>32</sup> 杜骏飞：《我们怎样抵达新闻？》，[http://blog.caijing.com.cn/expert\\_article-151525-46899.shtml](http://blog.caijing.com.cn/expert_article-151525-46899.shtml)。

<sup>33</sup> 《闫丘露薇谈新闻理念：新闻不能只到个案为止》，“中新网”2013年1月24日，[http://hlj.sina.com.cn/news/s/2013-01-24/073034649\\_3.html](http://hlj.sina.com.cn/news/s/2013-01-24/073034649_3.html)。

<sup>34</sup> 王辰瑶：《新闻人要避免成为新闻话题——也谈闫丘柴静之热议》，《新闻实践》2013年第3期。

个新闻人无法正常的做新闻”的时代，也是“人性”、“权利”、“尊严”得不到保障的有问题的时代；因而对于要以“人”（作为新闻对象的“个人”和作为呈现者的“个人”）为出发点和归宿来组织新闻，双方也形成了默契。搁置在这样的大前提下，其实硬性还是柔性地做新闻并不是最核心的问题，更为重要的是，能否在反思全球资本主义所带来的以单个的“人”为中心来考量国家/社会的简单模式问题的基础上，超越“新闻”（个人）与“国家”（社会）这样立足于“公民社会”的二元对立结构，规避因为过于同情原子化的个人而自觉不自觉地走向亚文化认同而简单地“反国家”、“反社会”的危险？显然，这样的追问无论在《看见》中还是在围绕《看见》所展开的讨论中是缺席的，而这才是当代中国各种媒介以及媒介人普遍的盲区所在，也是转型期中国媒介意识形态更大的危机所在。而柴静与闾丘露薇的区别仅仅在于，身处主流媒介平台上的柴静对呈现“新闻中的人”的观念更为倚重，使她在由“个人”立足点所制造的视觉盲区与路径依赖上要比闾丘露薇走得更远，也因此更缺乏有效地直面全球化所带来的普适价值症结的勇气以及透过对这一观念的反思真正介入当代中国现实的能力。

### 小结：作为症候的“地方”媒体意识形态

回到《看见》对于温州虐童事件的呈现个案上，可以发现，《看见》通过征用多种看似并不完全一致的话语资源，其实是形成了一种与全球资本主义时代相呼应的“有问题的”的“地方”媒体意识形态：《看见》以倾听者的姿态“看见”了那个因为违背大众伦理道德而被大众口诛笔伐而无法发声的虐童主人公颜艳红，并给予了深切的同情，却也因为在很大程度上背离了“主流认识”而导致了自已作为权威媒介的位置发生了位移，也因为担纲了抚慰者的角色而偏离了新闻工作者的职业伦理；《看见》“看见”了网络大众所没有看见的颜艳红贫穷而纠葛的日常生活，却又迅速地避开了“全球资本主义”这一最为重要的讨论维度，而是简单将其纳入到了由网络所引发的青年亚文化的分析框架中，从而使得对这一事件的挖掘更多只停留在外围和细部，而无法推动其完成从“个人”事件到具有普遍意义的“公众”事件的转化；《看见》“看见”了网络形塑青年角色/身份的强大，但却仍然选择了主要将“网络”作为抨击的对象，这一单一路径选择显示了像《看见》这样身处央视的传统主流媒介对于新媒体崛起挥之不去的敌意以及保守的心态。

从新闻所必然指向的有力度“看见”走向文艺化的抚慰性的“不见”，《看见》折射出了转型中国媒体所面临的困境：既想跟上全球资本主义的步伐却又难以回避转型中国的特殊现实，既有充当一种以“个人”为核心的看似“普适化”的“公意”代表的冲动却又想保持媒介客观、公正的形象，因此只能在全球资本主义、青年亚文化、个人主义、转型中国的媒介体制等种种力量的博弈间谋求折中。然而，当年轻的制作者们总是不假思索地从带有鲜明的自我认同色彩的“个人”出发，来进入新闻采访的时候，这一在很大程度上呼应了全球化推进步伐的立足点已经决定了，其反思转型中国社会症候的全部努力，只能指向空洞化、碎片化和盲目化，而无法形成真正的结构性的力量来对抗全球资本主义。

---

# 정보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

오병일·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 1. 정보자본주의의 전개와 대응

최근 “응답하라 1997”이라는 케이블TV 드라마가 한국 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의 배경이 된 1997년은 오늘날 한류 ‘세계화’의 아이콘이 된 아이돌 가수들이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인 팬덤을 형성하기 시작했던 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1997년은 한국 시민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세계화’가 시작된 해로 기억될 만 하다.

김영삼 정부는 오랜 군사 정권을 끝내고 1993년 등장한 문민 정부(文民政府)였다. 이 정부는 핵심적인 국정 기조로 세계화를 주창했다<sup>1</sup>. 그리고 한국 시민들은 이 정부 임기 말인 1997년 국제금융기금(IMF) 사태로 큰 충격을 받는다.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외환위기(국가부도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로 국제통화기금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행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 논리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sup>2</sup>. 물론 우루과이 라운드를 비롯하여 신자유주의 파도가 한국에 밀려들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이른 시기였으나, 1997년은 한국 민중 전반의 삶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들어선 해였다. 시작부터가 그랬다. 새해 첫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1996년 12월 26일 정부와 여당이 정리해고 조항을 도입하는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1997년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 시작되고 IMF 사태를 겪으며 저물었고, 그해 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새로 등장한 정부는 IMF 체제 하에서 신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정보통신운동의 측면에서 그 무렵에 주목할 만한 일은 김영삼 정부가 1994년 12월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며 정보화를 주창했고 1995년에 컴퓨터통신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가 컴퓨터통신 검열기구를 운용해도 정치적 발언 열망이 높아진 국민들 사이에 PC통신은 널리 확산되어 갔고 여러 논객들의 등장과 더불어 시민들의

---

<sup>1</sup> “‘세계화’라는 용어는 김영삼 정부가 경제정책을 추동하기 위한 담론으로서 globalization 을 의도적으로 채택하고 전유한 데에서 기인한 정치화된 용어였다.” 류웅재, 한국언론학보, 53권 5호(2009년 10월), p341, 각주1.

<sup>2</sup> 한국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항목, AD, 검색일: 2013. 5. 20.

정치적 공론장이 크게 형성되었다. 특히 노동법과 함께 국가정보기구의 수사권을 부활시킨 안기부법<sup>3</sup>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새벽6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자, PC통신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 이때 컴퓨터통신 이용자들과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노동약법·안기부법 전면철폐를 위한 총파업통신지원단'은 이후 1998년,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 네트워크인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허버트 실러에 따르면, 정보화는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실러, 2001 : 76~77면). 한 가지는 정보를 사회적 재화이자 민주 사회의 창출과 발전의 중심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정보를 판매를 위해 사적으로 생산된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출범 후로부터 15년이 흐르는 동안 한국의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 시민들의 미디어와 정보 접근권은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한국 사회에서 정보화의 촉진과 수용은 시장 논리에 종속되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그렇듯이, 한국에서도 정보통신기반과 서비스는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 발전하였고, 그 정점에 KT 민영화가 있다. 1981년 체신부에서 분리되어 공기업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운영하던 한국의 통신 기반이 2002년 5월 완전히 민영화되었다<sup>4</sup>.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가 경제 회복과 고용 정책의 일환으로 인터넷 벤처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면서 정보의 상품화 또한 가속화하였다.

특히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한층 고도화한 관료제 시스템을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던 정부는 IT 기술에 주목하였다. 전자정부의 도입으로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이 활성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시민들에 대한 선별적 감시와 통제 또한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찰을 비롯해 많은 행정 기관들이 방대한 양의 국민 정보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다른 목적으로 구축한 개인정보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쉽게 공유하면서 행정 권력의 감시와 통제 역량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경향성은 한국에서만 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확산과 정보화의 시장 중심성은 정보자본주의 발달이라는 수레의 양 축이었으며, 행정 및 경찰 권력은 일찌기 이 수레에 올라타 운전대를 쥐고 있었다. 한편 한국 정보화의 독특한 특징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는 권위주의적 관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료가 중앙집권적인 통신서비스 규제권한을 막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기구가 이용자의 권익 보호나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과 지배적 사업자들의

<sup>3</sup> 그 결과 국가보안법 수사를 이유로 한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다른 수사기관을 제치고 전체 감청의 97%(2012년 기준)에 달하는데(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3. 5. 9. 참조.)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국가정보원의 권력 남용의 토대가 되면서 한국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sup>4</sup> 한국 위키백과, "KT" 항목 : KT, 검색일: 2013. 5. 20.

유착을 낳았다<sup>5</sup>. 사업자들의 로비와 이에 따른 관료들의 부패, 독과점 사업자 중심의 정책결정, 관료와 기업 간의 회전문식 인사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이나 KT 등 독과점 사업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제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결정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권위주의적 인식으로 인해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은 왜곡되어 왔다. 불평등한 권력 관계 속에서 정보통신 기술은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되기 쉽다. 소위 '민주정부'라고 불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인터넷 내용등급제, 인터넷 실명제 등 내용규제 제도들이 도입되었고, 행정 권력은 일반 시민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규제 권한을 과도하게 획득하였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와 같은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승계하여 발족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을 모욕한다며 '2MB'라는 표현을 금지시켰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하고 충분한 검토없이 만들어진 정책들은 인권침해적일 뿐만 아니라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비판을 받는, 한국만의 고유한 정책들을 양산했다. 공인인증서 강제, 인터넷 실명제, 게임 섯다운제,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자본주의에 대한 인권사회운동의 대응, 즉 정보통신운동의 역할은 실리의 정보화에 대한 두 가지 전망 가운데 전자는 강화하고 후자는 저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한국의 정보통신운동은 정보의 시장화에 맞서는 근본적 운동을 벌여오지는 못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민주화 투쟁과 정권 교체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민중 운동이 제도로 편입되어 왔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IMF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논리가 확산되면서 체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대중적 사회운동이 약화되어 왔다. 한국의 정보통신운동 또한 일정하게 그러한 한계 속에서 두 가지 역할에 주력해 왔다.

첫째는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된 네트워크의 구축과 사회운동의 정보화 지원 역할이다. 닉 다이어-위데포드의 거론대로라면 이는 정보통신미디어의 권력 동학을 '쌍방향적'인 것으로 평가하고(위데포드, 2003 : 251) 사이버스페이스의 '행동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사이버스페이스의 온라인 투쟁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상에서 벌어지는 투쟁들을 서로 눈으로 확인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미디어"(위데포드 : 275)라는 판단 속에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주어진'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술이 사회에 도입되는 정치적인 맥락을 읽어내고, 기술의 개발과 이용 과정을 진보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의 독립 네트워크 운동은 지구적으로 시장화된 정보통신미디어 질서 속에서도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미디어 플랫폼 개발을 시도해 왔다.

<sup>5</sup> “‘뇌물수수’ 前방통위 국장 항소심도 실행”, 연합뉴스 2012.11.2; “좀 더 강력한 방통위? 산업만 강조, 공공성은 뒷전 우려”, 미디어오늘 2012. 12. 24. 등 참조.

둘째는 인권과 공공성, 그리고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보통신 정책 마련이다. 정보통신운동은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고, 궁극적으로 시민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노동자와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지배로서의 기술(위데포드, 2003: 112면)에 대한 저항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향 속에서 정보통신운동의 의제들은 공공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지식과 문화에 대한 공유,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시민 참여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등을 촉구해 왔다<sup>6</sup>.

부연하자면, 허버트 실러는 1996년의 그의 저서에서 사회주의 국가 몰락 이후 한층 본격적으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사회운동 영역에 침윤되는 자본의 논리도 비판하였다(실러, 2001: 82~84면). 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시민사회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의사표현이 필수조건인데, 기업들이 비영리 조직의 사업을 점점 더 자주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면서 그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같은 비판적 입장을 취해 왔다.

## 2. 독립 네트워크와 사회운동 정보화

비록 자본 주도의 정보화 과정에서 생성되었지만, 한국에서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 왔다. 그 이유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을 엮어줄 수 있다는 '소통성'과 신문·방송 등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언론에 대항하여 누구나 쉽게 자신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민주적 매체'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상업 PC통신망이 활성화되기 이전,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이용자들은 사설 BBS를 구축하여 온라인 공동체를 형성해왔다. 진보적인 사회운동 역시 사설 BBS 구축을 통해 사회운동 자료의 축적과 상호 소통의 활성화를 모색했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대자보 BBS', 민중교회의 '평화만들기', 사당의원의 '북소리 BBS', 아리컴의 '노동해방통신' 등이 대표적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전신인 'PC통신 참세상' 역시 노동운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1993년에 설립되었다<sup>7</sup>.

90년대 초중반부터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상업적 PC통신망이 대중화하면서 사설 BBS는 약화되었다. 이는 이용자 규모가 클수록 이용자 생산 콘텐츠가 많아지고, 다시 신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과정일 지도 모른다. 대신 하이텔의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천리안의 '희망터'와 '현대철학동호회', 나우누리의 '찬우물'과 같

<sup>6</sup> 진보네트워크센터, 2012년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총선정책공약제안 참고. /6809

<sup>7</sup> 이하 서술은 줄고, "진보네트워크 운동의 역사와 과제" 참조.

은, 각 상업통신망의 진보동호회들이 사회운동 진영의 소통 역할을 담당했다. 노동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상업 PC통신망에 폐쇄이용자그룹(Closed User Group, CUG)를 개설하기 시작했다.

사회운동의 인터넷 활용을 선도한 것은 정보연대 SING이었다. 정보연대 SING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등 사회단체의 홈페이지나 사회운동 이슈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한편, 웹호스팅 서비스와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기존 사회단체들도 90년대 중후반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단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한국 시민사회는 1996년 맥브라이드 라운드 서울회의를 거치면서 "하나의 기구를 통한 독립네트워크 운동의 전개"라는 방향을 공유하였고, 한국민간네트워크협의회(KACC)를 결성하기도 했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한편, 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라 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을 통한 이슈 파이팅도 시도되었다. 상업 PC통신망의 진보 동호회의 '속보란'은 제반 사회운동 이슈의 소통 공간으로 역할하였다.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말머리 달기' 운동(게시판에 글을 쓸 때 게시물 내용과 상관없이 글 제목에 공통적인 말머리-예를 들어 [파업 지지]와 같은-를 달아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방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나, 홈페이지에 공통의 배너를 다는 방식의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96년 연세대 학생 노수석이 시위 도중 숨지자 PC통신 대학 동호회들이 일제히 동호회 로고 화면을 회색으로 바꾸어 조문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90년대 온라인 이슈 파이팅의 대표적인 사례는 '총파업통신지원단'의 활동이다. 1996년 12월에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국회에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자, 전국적으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때 당시 정보통신 단체 및 진보적 통신동호회의 연대모임이었던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운동 활동가들은 총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지원단을 구성하여 주류언론으로부터 독립적인 총파업 지지여론을 조직하였다. 총파업통신지원단은 상업통신망 동호회의 속보란을 통하여 총파업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파시키고 '파업지지'와 같은 말머리달기 운동, 동호회 로고화면이나 홈페이지에 '블랙리본달기' 등의 캠페인을 통하여 총파업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산시켰다. 정기적인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총파업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알려내고 당시 고립되어 있던 민주노총 지도부와 채팅을 이용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영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식을 알리고 해외의 진보적 활동가와 단체로부터 총파업 지지와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를 이끌어내었다.

이러한 총파업통신지원단의 활동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국내 사회운동 단체에게 온라인을 통한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는 1997년 말 <제1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로 이어졌다. 이 행사에는 전 세계 영상 활동가와 함께, 영국, 미국 등 노동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참석했는데, 행사 이후 국내에서도 노동네트워크를 비롯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네트워크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한편, 상업적 PC통신망에서의 정부나 서비스제공업체에 의한 검열, 이용자 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검열과 통제가 없는 독립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이와 같은 사회운동 정보화에 대한 지원,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등이 배경이 되어, 1998년 초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으며, 1년간의 설립 준비를 거쳐 1998년 11월 1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가 공식적으로 발족하였다.

진보넷의 설립목적과 취지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정보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 진보운동의 각 부문간,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을 되살려 사회적 연대전선을 재 구축한다. 둘째, 진보적 사회단체들이 겪고 있는 네트워크 활용 상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셋째, 분산되어 있는 진보운동의 정보화 성과물들을 모아 그 활용도를 높인다. 넷째,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진보넷의 운동은 인권사회운동을 위한 온라인 공간 구축과 시민사회교육 등 총체적인 서비스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비영리적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시장경쟁에서 생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90년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했던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소멸되거나 상업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진보넷은 출범 당시 'PC통신 참세상'을 기증받고 이용자들의 이용료를 받아 운영비를 충당했는데, 이 서비스는 몇 년 간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등 한국 사회운동의 핵심적인 서비스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90년대 말 초고속 인터넷망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전화나 데이터전용망(014XY)을 이용한 PC통신 환경은 인터넷 기반으로 급속하게 변화해갔다. 월 1만원 정도의 PC통신 서비스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다음(DAUM)과 같은 웹기반 게시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인터넷 상의 훨씬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99년 민주노총의 CUG가 나우누리로부터 진보넷으로 이전하면서 'PC통신 참세상' 이용자가 급증하기는 했지만, 진보넷 역시 웹기반 서비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2000년 11월, 진보넷은 PC통신 참세상의 정보를 웹으로 연동하고, 이용료를 무료화하는 한편 후원회원 중심 단체로 전환하였다.

진보넷은 웹호스팅, 웹메일, 커뮤니티(게시판 서비스), 메일링리스트, 블로그 등 사회운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꾸준한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가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이는 기능적으로 훨씬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외 상업 서비스들과 경쟁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검색 기능 등 포털 서비스는 비영리 단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비용이 드는 서비스였다. 대다수의 한국 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은 기술 서비스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포털 내의 커뮤니티, 블로그,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로 옮겨 갔다. 90년대 초반 전국적인 상업 BBS의 등장으로 소규모 사설 BBS들이 소멸되어 갔듯이, 비영리 인터넷 서비스에게도 네트워크 효과를 극복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이다. 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이

상업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이 상업 공간이 대중들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운동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역시 사회단체나 활동가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비영리 단체의 경우, 기술적, 재정적 측면에서 상업적인 서비스 업체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sup>8</sup>.

그럼에도 진보넷은 여전히 사회운동의 독자적인 물리적 기반, 즉 독립네트워크가 의미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정부의 검열이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진보넷 역시 하나의 서비스 제공자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거나, 내용심의 기구의 삭제 요청을 받아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이용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 사업자가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보넷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기관이 혐의사항 적시 없이 맑스주의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달라고 요구했던 적도 있었다<sup>9</sup>.

이는 강제적인 법적 요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관행적으로 수사기관의 요구를 수용해왔다<sup>10</sup>. 내용심의 기구(현 방송통신윤리위원회, 2008년 이전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청 역시 권고일 뿐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상업 서비스들은 대체로 그 요청을 수용해 왔다<sup>11</sup>.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미디어 규제 관행이 크게 작용하는 국내 시장 환경에서 상업적인 서비스로서는 사회운동 진영을 위해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다. 반면 진보넷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나 내용삭제 요청에 대해 응하지 않아왔다. 물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용자의 이메일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일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 한계이지만, 정부의 검열이나 통제에 대해 최대한 저항하고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sup>12</sup> 독립네트워크는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상업 서비스가 지배적인 가운데에도 현재 한국 사회운동 단체들이 진보넷을 신뢰하며 사용하는 이유이다.

둘째, 사회운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메일링리스트 서비스의 경우 수익성이 없어 국내에서는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지만, 사회운동에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진보넷 설립 이전, 정보연대 SING이 사회운동을 위한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처음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 현재 진보넷은 약 800여개에 이르는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국내

<sup>8</sup> 특히 비영리 단체가 교육훈련이 잘 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사회운동단체를 위해 십 여 대의 서버를 운영하며 여러 가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서버 관리나 기술 개발이 가능한 기술 인력을 동시에 4명 이상 상근인력으로 확보할 수 없었다.

<sup>9</sup> 1998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진보네트워크에 6개 아이디의 가입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세상 공지사항 229번)

<sup>10</sup> 통신자료 제공은 2002년 798,952건에서 2012년 7,879,588 건으로 10년 새 9.9배 증가하였다. 대한민국 인구는 4천 9백만 명이다.

<sup>11</su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대비 이행률은 99.4%에 달한다. <http://act.jinbo.net/drupal/node/6760> 참조.

<sup>12</sup>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도록 명령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이다. /6531

사회운동에 제공하고 있다. 진보넷은 2011년 11월, 또다른 사회운동 서비스로서 온라인 후원 플랫폼인 '소셜펀치'를 오픈했다<sup>13</sup>. 대다수의 사회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며, 한국에는 사회운동을 지원하는 재단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셜펀치'는 전자결제를 통해 일반 시민이 쉽게 사회운동 이슈를 후원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을 넘어 시민들이 사회운동 정보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진보넷은 2013년에는 사회운동을 위한 타임라인 플랫폼인 '따오기'를 오픈할 예정이다. 대다수의 언론 기사는 해당 시기의 구체적인 사건만을 주로 다루지만, 대중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맥락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타임라인 플랫폼은 이미 업로드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를 시간 순으로 엮어줌으로써, 특정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기술의 소극적 활용에 그치지 않고, 기술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일부 단체나 노조에서 자기 단체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인 반대 의견을 삭제하기도 하는데 진보넷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게시판 운영원칙을 사회운동에 널리 제안해 왔다. 사회운동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카피레프트 원칙도 마련하고, 2002년에는 정보공유연대와 함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만들어 배포했다. 진보넷은 초창기부터 서버 로그에 IP 주소를 남기지 않는데, 이는 사회운동 진영에 속하는 국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미가 깊다. 실제 진보넷은 수사기관으로부터 IP주소를 요구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종종 받아 왔는데, IP 주소가 남아있다면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3. 대안적 정책통신정책

사회운동이 정보통신 기술을 단지 운동의 '수단'으로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이 새로운 기술을 사회운동을 위해 활용하는 데서 고민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보화가 심화되어 가면서 국가의 검열과 감시 또한 확산되었고 정보통신운동은 이에 대응하면서 정보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 갔다. 정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정보의 상품화에 대한 고민 또한 시작되었다.

90년대 초 '바른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모임'은 정보화라는 화두에 대해 처음 제기하였으며, 미국의 시민단체 '사회적책임을 생각하는 컴퓨터 전문가들의 모임(CPSR) 강령'이나 'GNU 선언문' 등을 번역하여 문제의식을 던져주기도 하였다. PC통신 하이텔의 진보동호회인 바른통신을위한모임에서는 정보사회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소모임인 '전환의 좌표'가 만들어져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인 고민과 토론을 공유했다. 1995년 출범한 정보연대 SING은 강령에서 '정보의 상품화

---

<sup>13</sup> <http://www.socialfunch.org>

를 반대하며,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표방하기도 했다. 정보연대 SING은 이를 '소유권과 생산양식의 전면적 재편의 문제', 즉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로까지 이해하고 있다<sup>14</sup>.

90년대 중반, 구체적인 정보통신 이슈에 대응하는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1995년에 만들어진 '정보통신단체 연대모임'(이하 통신연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15</sup>. 90년대 초반부터 PC통신상의 게시물에 대한 정부의 검열과 게시자 구속이 이어지자, 통신연대는 검열백서팀을 꾸려 매해 검열백서를 발간하였으며<sup>16</sup>, 당시 내용심의 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기반인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철폐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1996년 초, 당시 패킷통신망인 01410의 요금 인상에 맞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01410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응하였는데, 이는 국내 최초의 보편적 서비스 및 공적접근권을 둘러싼 투쟁이었다.

프라이버시권을 둘러싼 최초의 사회운동은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투쟁이다. 1997년 초, 정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시도하였는데, 시민사회는 이에 크게 반대하였다. 전자주민카드에 반대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IMF 경제위기로 1998년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국가신분등록제도의 전산화와 네트워크 연동이 계속되면서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반대 운동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1998년 출범한 진보넷은 2000년 정책실을 신설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지적재산권 비판 및 정보공유, 인터넷 거버넌스 및 미디어 공공성 등 제반 정보통신 이슈에 대응해왔다. 진보넷은 이러한 정보통신 정책 이슈들을 '정보인권'으로 개념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초기에는 '정보기본권'<sup>17</s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투쟁을 거치면서 '정보인권'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었다. 물론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은 국제인권조약과 대한민국 헌법에 이미 명시된 기본권이기는 했으나, 정보화라는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배타적 독점권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권리는 '지적재산권의 제한과 예외' 혹은 '공정한 이용'이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중심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자의 권리를 '정보문화향유권'으로 개념화하고자 했다. 인권은 종종 '천부인권'으로 인식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고 사회변화에 따라 그 개념이 확장되어 왔다. 정보인권 운동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sup>14</sup> 정보연대 SING 강령, <http://blog.jinbo.net/antiropy/531>

<sup>15</sup> 통신연대가 만들어진 계기는 95년 가을 <진보>지 주최로 'PC통신 단체 좌담회'에서 대면한 여러 PC통신단체들이 "진보적 PC통신 운동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함께 풀어가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던 데에서 출발하였다. 통신연대에는 노동연구포럼, 노동정보화사업단, 바른통신을위한모임, 얼터너티브 인터넷서널, 정보연대 SING, 지식인연대 영상정보통신팀, 진보청년통신동우회, 찬우물, 참세상, 청년정보문화센터,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인터넷소모임, 현대철학동호회, 희망터 등 PC통신망의 진보 동호회 회원들과 정보통신 관련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http://go.jinbo.net/spic>

<sup>16</sup> 96년 검열백서, 97년 검열백서, 98년 사이버권리 백서, 2000년 사이버권리 백서가 발간되었다.

<http://freespeech.jinbo.net/main.html> )

<sup>17</sup> /

### 3-1. 인터넷 표현의 자유 운동

한국은 일제 강점기와 오랜 독재정권 시대를 거치면서 정부가 도서, TV, 영화, 대중가요, 공연, 만화 등 거의 모든 미디어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보유해 왔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가 신설되면서 명목상의 권리에 그쳤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민중적 요구가 크게 늘었다. 결국 1995년과 1996년 헌법재판소가 음반 검열과 영화 검열을 위헌으로 잇따라 인정하고 '공연윤리위원회'를 위헌적인 검열기관으로 인정하였다.

1990년대 초반 PC통신과 인터넷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검열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199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불온통신'을 금지하고 1995년에는 컴퓨터통신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출범시켰다. 이는 다른 모든 미디어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행정권력은 '불온통신'을 금지한 법률 조항이 2002년 위헌 결정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무수히 삭제하고 이용자들의 아이디를 박탈했다. 다른 한편으로 과거 정치 조직이나 정치인에 주로 적용되었던 국가보안법이나 공직선거법이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큰 논란을 빚었다<sup>18</sup>. 1994년 김일성 신년사나 공산당선언 등 국내외 언론에 게재되었거나 출판된 표현물을 통신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컴퓨터통신 이용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 1996년에는 컴퓨터통신에서 김대중 씨 등 공직 후보에 대해 지지하거나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런 사건들은 컴퓨터통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각성과 행동에 불을 붙였다. TV 등 대중매체와 달리 인터넷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시민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였다. 인류 역사상 처음 벌어진 사건이었고 시민들은 이 미디어로 획득한 자유와 효능감을 만끽하기 시작한 참이었다. 그 무렵 영화 검열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미국에서 통신품위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블루리본 캠페인 운동과 위헌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단체들과 개인 이용자들이 원고와 기금을 모아 검열백서를 발간하고 피해 사례를 모아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sup>19</sup>.

진보넷은 이 위헌 소송을 시작으로 컴퓨터통신과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 왔다. 2000년에는 정부가 소위 '통신질서확립법'을 제정하여 인터넷의 모든 콘텐츠에 등급을 매겨 필터링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으며, 결국 2002년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sup>18</sup>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96 정보통신 검열 백서>, 1996, <http://freespeech.jinbo.net/white/96-0.htm>

<sup>19</sup>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plaza&id=9522&page=1>

위헌 결정으로 성과를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선언하였다<sup>20</sup>. 이 사건을 정점으로 한국 인터넷의 게시판 문화가 꽃이 피었다. 붉은 악마, 미군 장갑차 사건에 대한 촛불 시위, 그리고 노사모 활동에 이르기까지 정치사의 격동 속에 인터넷이 함께 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열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기존 언론과 정부 관료들은 인터넷에 대해 불신을 보이며 이에 대한 규제 제도를 요구해 왔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 덕분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에 세계가 주목했지만, 새로 탄생한 정부는 벽두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원을 밝히기 전에는 글쓰기를 금지하는 실명제가 검열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계속된 악플 논란 속에서 힘을 받을 수 없었다. 민증(주민등록증) 까는 문화가 본래부터 익숙했던 사회에서 민증을 까지 앓겠다는 사람들은 몇몇치 않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진보넷은 실명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계속 제기하였고, 연달은 패소 끝에 결국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국가와 시장은 여전히 완고하다.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명제를 중단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헌 결정을 받은 사유를 회피한 다른 사유, 예컨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국민의 신원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독려하고 있다<sup>21</sup>. 다만 인터넷에서 대규모 주민번호 유출이 잇따르면서 대신 아이핀이라는 꼼수를 권장할 뿐이다. 아이핀은 몇 개 신용정보업체와 이동통신사 등에 국민의 주민번호를 모아주고 주민번호 대체번호를 발급하는 제도로써, 빅브라더 논란을 낳고 있다<sup>22</sup>.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에서 인터넷은 익명의 공간이 아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렇게 수집된 인터넷 이용자 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아 왔다.

법원의 판결도 보수화되고 있다. 2002년 인터넷이 가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선언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검열은 허용될 수 없었던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는 이 기구를 이어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등 인터넷 게시물의 불법성을 법원보다 먼저 판단하면서 자의적 법적 판단으로 많은 논란을 빚어 왔다. 또한 대통령, 장관, 시장, 국회의원에 대해 비판적인 게시물을 불명확한 사유로 삭제해 왔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행정심의를 용인한 것은 점차적으로 인터넷에 대해 질서위주의 사고가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또한 전 국회의원 노회찬씨가 국가정보원의 도청 기록을 토대로 삼성에게서 ‘떡값’을 수수한 검사들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사건에서,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는 허용되지만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안된다

<sup>20</sup>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sup>21</sup> 2011년부터 한국에서는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전국적으로 게임 이용을 중단시키는 ‘게임 섯다운제’가 시행 중이다.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해서는 누가 청소년이고 청소년이 아닌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게임 이용자 전체의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

<sup>22</sup> net/

고 보았다. 이는 결국 인터넷 미디어, 특히 일반 시민의 광범위한 미디어 향유에 대한 지배 블록의 반동적 대응이 확산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012년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즈음한 시기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다수의 허위 아이디와 이용자들을 동원하여 인터넷 게시판을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해 왔음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의 인권사회운동 진영은 인터넷에 대해 행정기관 및 정보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데 대하여 반대해 왔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구를 통하여 정부가 인터넷 표현물을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한 행정심의 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진보넷을 비롯하여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와 이용자들은 실태 조사, 피해자 지원, 여론화, 그리고 다양한 공익소송 등의 수단을 통하여 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국의 행정심의 제도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의 비판적 입장 발표를 견인했다. 광우병, 경제 정책,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 정부와 다른 의견을 '허위'로 보고 형사처벌하는 '허위의 통신' 조항은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을 계기로 하여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는 근본적인 까닭은 국가 권력과 기득권 세력이 인터넷으로 발화하는 대중을 통제하려는 발상과 시도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불러오는 악플과 혐오성 게시물은 한 사회에서 나와 다른 타인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운동은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성찰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 3-2. 감시와 프라이버시

한국에서 정보사회의 감시를 반대하고 프라이버시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은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쿠데타 직후인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된 주민등록제도는, 멀리는 그 연원이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국가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의 전국민 강제 발급,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과 전국민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을 특성으로 한다.

정부는 1997년 초에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등을 하나의 IC카드에 통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의 실체는 국민의 각종 개인정보에 대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을 전자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의 소산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전국적으로 시민사회의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수 십년 간 계속된 군사독재와 주민등록제도로 인해 국가의 통제에 익숙하고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상황에서 전자

주민카드 반대운동이 넘어야 할 벽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 사업에 반대한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IMF 경제위기로 인한 긴축 재정으로 인해 전자주민카드는 결국 1998년 백지화되었다. 하지만 조폐공사-삼성SDS 컨소시엄으로 전자주민카드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도입이 시도되었고,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2011년 민주당의 협조 하에 18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다행히 18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지만, 국가신분증을 생체정보와 함께 전자화하고 나아가 네트워크 인식을 지원하여 원격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3천 5백만에 달하는 발급 대상을 보장하고 IC카드의 내구연한으로 최소 5년에 한번씩 재발급을 보장하는 이 사업이 안정적이고 거대한 시장으로 인식되면서 인권 침해 목소리는 묻혀가고 있다.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 의식은 지문날인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 1999년에 들어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사업이 시작되고 강제적 지문날인 전산화가 이루어지자 이에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전 국민이 만17세에 날인한 열손가락 지문 정보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경찰로 이관되어 평생 관리된다는 점이었다. 1999년 제기한 헌법소원이 2005년 패소하면서 오히려 경찰은 치안 목적으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국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나쁜 판례가 남고 말았다. 현재 경찰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피의자 뿐 아니라 참고인과 피해자 정보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양의 국민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고 있다<sup>23</sup>. 2011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정보인권 논란을 낳고 있는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라는 사기 수법이 많은 피해를 낳고 있는데, 이 현상이 주민등록번호의 대규모 유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정 때문이다<sup>24</sup>.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한 해에만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사기피해가 1만 3,000건에 1,000억 원을 넘는다. 2009년에는 보이스 피싱으로 등록금을 사기당한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목할 사실은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보이스 피싱 피해 규모가 3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이 때 인터넷 실명제가 의무화되면서 그 무렵 전후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 대개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그 정보를 인터넷에 보관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대규모 개

<sup>23</sup> 예컨대 경찰은 기존의 법제도 규범으로부터 자유롭게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를 아우르는 방대한 양의 국민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지난여름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한겨레21 제 766호 2009.06.26

<sup>24</sup>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목소리(voice)로 이루어지는 피싱(phishing)이라는 말이다. 피싱은 사기 수법의 하나로서, 주로 부정하게 획득한 개인정보를 미끼처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입력이나 입금을 ‘낚는’ 방법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메신저를 통한 피싱도 많이 거론되지만 최근 한국에서 특히 문제로 불거진 것은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이다. 이하 내용은 장여경, “주민등록번호로 낚이셨습니다”, 황해문화, 2013 여름호 참조.

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2008년 옥션에서 1,800만 건, 2011년 네이트에서 3,500만 건. 잘 알려진 유출 사고 외에도 공공기관, 방송사, 게임회사, 이동통신회사, 카드회사, 정당 등에서 크고 작은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유출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은 그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제각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었다. 결국 유출된 개인정보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인터넷에서 거대한 암시장을 형성했으며 내부자, 혹은 해커와 같은 외부자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 시장에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

보이스 피싱 외에도 관행처럼 신원정보를 요구하는 한국의 인터넷에서는 타인의 개인정보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 때문에 민사상으로, 심지어 형사상으로 소환되는 피해자의 사례도 존재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아이핀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아이핀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구축되어 있다. 주민번호의 민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주장은 줄곧 외면되다가 대규모 유출이 잇따른 뒤에야 마지못해 그 요구 중 일부가 수용되었다. 2011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견고했던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정부와 법원은 이 요청을 기각했으나, 피해자들은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에 기대하고 있다<sup>25</sup>.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배경은 국가의 편의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이 제도의 폐지를 반대했다. 특히 경찰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영장 없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광범위하게 제공받아 왔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의 주요 목적은 악플 방지가 아니라 이용자 추적에 있었던 것이며, 이 제도의 주 수혜자는 악플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경찰이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본인확인제는 ... 모든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여 장기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하고 다른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한다고 지적했다<sup>26</sup>.

감시 시스템이 한 사회에 도입되는 가장 중요한 명분은 “땃땃하면 드러내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든 것이 목격되고 모든 것이 기록되며 모든 것이 이미 증거이다.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편재하는 세상에서는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없을 경우 유죄일 수 있으며, 어떤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증거 능력을 부인한다면 그는 그 사실만으로도 유죄로 추정되어야 마땅한 사람이 된다. 최근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면 습관처럼 부근의 모든 CCTV와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수색한다. 집회 참가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싶을 경우 인근의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히는 통화정보를 모두 제공받는다. 대규모 집회시위를 기획한 자들을 감

<sup>25</sup> “주민등록번호 변경, 헌법재판소로”, <http://act.jinbo.net/drupal/node/7423>

<sup>26</sup>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시하고 싶으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이동통신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현재 종로 3가에 있는지, 종로 1가에 있는지, 그 위치가 10분 단위로 수사관에게 문자로 전송된다.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으면, 패킷 감청으로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해 왔다<sup>27</sup>. 이 모든 과정은 심지어 영장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마음 먹고 저인망식으로 훑으면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을, 때로는 생각을 터는 것을 가능한 시대이다.

수사는 종종 전 국민 모르게 전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성폭행 용의자가 160cm 이하 O형일 경우 보다 구체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찰은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피해갈 수 없는 병무청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다. 병에서 지문이 발견되었을 경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만17세에 날인하는 열손가락 지문이 모두 보관되어 있는 AFIS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다.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담배를 사기 위해, 맥주 한 캔을 사기 위해, 진료를 받기 위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분증을 굶은 모든 흔적이 검색 대상이 될 것이다.

근대 인간의 기술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다.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자 한다. 최근 기술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예측하고 감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는 가장 예측하기 쉬운 범죄자이다. 바우만의 지적대로 신자유주의 사회는 더이상 노동력을 교화시키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상품 소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량한 인간을 철저히 배제한다. 따라서 범죄 용의자와 수형인은 DNA와 같은 신체의 일부를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범죄의 증거로서 국가 기관에 제출하고 감시받아 마땅하다. 그에게 근대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DNA는 친족들이 공유하는 정보이니 우범자 가족도 국가 관리의 대상에서 피해갈 수 없다. DNA 데이터베이스는 본래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도입된 후에는 성범죄 뿐 아니라 절도를 저지른 청소년들과 국가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철거민들도 모두 그 대상에 편입시켰다<sup>28</sup>. 이 예측 기술은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모아 시민들에 대해 의미 있는 프로파일링을 구축하는 데까지 발달하고 있다. 이른바 '빅데이터' 시대에 각광 받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사용하면 테러범일 확률 XX%, 보수주의자일 확률 △△%의 이용자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당시부터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다. 한국은 1990년대 말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손보아 왔지만 공공부문과 인터넷 등 일부만 부분적으로 규율해 왔다. 이로 인하여 수사효율과 영업을 위해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집적하고 이용하는 관행이 확산되어 왔으며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정책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도 없이 도입되었다가 뒤늦게 일부 제도가 위헌 결정

<sup>27</sup> 진보네트워킹센터는 기지국 수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 패킷 감청에 대하여 희망법, 천주교인권위원회 등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sup>28</sup> 2011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사 중이다.

을 받는 촌극이 벌어졌다. 시민사회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발효하고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시민사회는 이 법과 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정보인권을 옹호하는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저항의 목소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대한민국 일반 시민들에게 만17세에 경찰에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제공하는 제도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이는 일차적으로 공권력의 요구에 굴복해 온 권위주의적 관습이 쉽사리 극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본권을 양보하는 일이 만연하고 있다. 2012년 아동 실종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아동 지문을 등록받기 시작하자 자발적으로 날인하기 위해 전국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몰려들어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2살에 등록된 이 지문들은 (2013년 5월 기준으로) 만18세까지 경찰에 보관될 수 있는데, 이 정부들이 범죄수사 등 경찰이 정당하다고 보는 사유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시되고 있다.

번호와 카드로 모든 국민의 모든 일상이 기록되고 수사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상황이 과잉하다는 주장은 “땀땀하면 드러내라”는 논리에 밀리고 있다. 시민들은 감시의 피해자이기 보다 중요한 협조자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범죄자, 일탈 청소년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시민들 스스로 기록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바우만이 성찰했듯이, 신자유주의 시대 시민들은 시민권 바깥의 타자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신에 대한 감시를 기꺼이 용인한다. 시장의 후원자 역할로 축소된 국가는 사회국가를 포기하고 경찰국가를 지향한다. 시민을 감시하는 올드 빅브라더와 시민 바깥의 타자를 감시하는 뉴 빅브라더는 나란히 앉아 있다. 결국 감시에 저항하고 프라이버시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은 사회연대를 확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그 성패가 달려 있다(바우만, 2008).

### 3-3.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지적생산물에 대한 재산권’을 통칭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으로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 문화, 예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으며, 이 외에 상표, 영업비밀, 종자보호, 반도체배치설계의보호 등에 관한 법들이 있다. 유체물과는 다른 지적생산물의 성격상, 지적재산권은 제한된 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지적산물의 이용 활성화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경우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제도는 각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맥락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하지만, 지적생산물의 국제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각 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일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내부적인 필요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지기 보다는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압력이나 국제조약 가입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은 1986년 12월 31일, 큰 폭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미국과의 통상협정에 따른 결과이다. 미국은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한 무역보복을 무기로 각 국에 지적재산권 강화를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한국이다. 이에 따른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저작물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하게 되었고, 저작재산권을 복제권·공연권·방송권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였으며,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하였다. 20년의 보호기간을 갖는 저작인접권도 신설되었다. 특허법 역시 개정되었는데, 기존에 특허로 보호되지 않았던 의약 또는 의약조제방법의 발명, 물질 또는 물질용도의 발명을 특허 대상에 포함시켰고, 특허권보호기간도 당시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은, 1994년 WTO 부속협정으로 체결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다. 트립스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조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집행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조약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애초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적재산권이 부속협정으로 만들어진 것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협상 관료들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로비가 성공한 결과이다. 그러나 트립스 체결 당시만 하더라도, 그 위험성에 대한 제3세계 정부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인식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의약품 접근권 운동 등을 통해 트립스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저항도 거세졌다.

한국에서도 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지적재산권 이슈는 전문가들만의 주제였을 뿐 사회운동의 의제가 되지 못했다. 정보연대 SING이 '정보의 상품화 반대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표방하고, 이에 대응하여 카피레프트(Copyleft)의 문제의식을 알리려고 노력했지만, 아직은 추상적인 수준이었으며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이후 1999년 2월 '다른과학' 주최로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특허와 저작권 문제를 다룬 '지적재산권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지적재산권에 관심을 갖는 활동가들의 모임인 '지적재산권 연구회'가 꾸려졌다. 지적재산권 연구회는 2000년 2월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로 이름을 바꾸고 (2002년 다시 '정보공유연대 IPLeft'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안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였으며, 그간의 성과를 모아 단행본 『디지털은 자유다』(도서출판 이후)를 발간하기도 했다<sup>29</sup>.

2000년대 이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논의들이 세계무역기구(WTO)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다자간 기구가 아닌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복수국가 협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트립스 협정은 그 이전의 지적재산권 협약에 비해 보호수준을 한단계 높인 것이었으나, 미국 등 선진국 정부들과 다국적 기업은 이를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보호수준을 제고할 수 있

---

<sup>29</sup> 정보공유연대 연혁 참고. =3891

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나 WTO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지구화 시위로 99년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되는가 하면, 개발도상국 정부들의 저항으로 트립스 이사회도 미국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은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논의들을 FTA나 위조상품방지무역협정(ACTA)와 같은 복수국가협정으로 옮기게 된다.

둘째는 권리의 내용을 강화하는 것보다 지적재산권 집행의 강화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집행'이란 지적재산권 권리의 보호를 실효성있게 관철하기 위한 행정조치 및 민, 형사 사법조치를 의미한다. ACTA는 지적재산권 집행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한미 FTA 협정에서도 '권리 보호 수준의 강화'와 함께, 지재권 챕터의 거의 절반을 집행 조항이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집행 조항'이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sup>30</sup>.

2006년 시작된 한미FTA 협정, 그리고 2007년 시작된 한EU FTA 협정의 지적재산권 협상은 미국과 유럽의 이와 같은 전략 속에 진행되었다. 지적재산권 영역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은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었으나, 다른 영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정하게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미/한EU FTA 협상을 통해 한국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기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의 연계, 자료독점권 보호, 그리고 각종 지적재산권 집행 조치 강화 등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에 준하는 수준의 법률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지적재산권 제도의 선진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진정 선진적인 제도라면 굳이 FTA 협상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공공정책이 무역협상의 제물이 된 것에 다름 아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넷 등은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sup>31</sup>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였고, 한미FTA 저지 범국민과 연대하여 싸웠으나 이를 저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디지털 저작권과 정보문화향유권의 제한

인터넷이 보급된 세계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냅스터를 통한 음악 저작물의 공유 문제가 디지털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이었듯이,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 P2P 방식의 음악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가 처음 이슈화되었다. 결국 몇 번의 소송을 거치면서 '소리바다'는 P2P 방식을 통한 자유로운 파일 공유라는 특성은 사라지고, 여느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와 유사한 서비스가 되어 버렸다.

2000년대 들어와 수차례의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는데, 대부분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의

<sup>30</sup> 오병일, "디지털 시대 저작권과 이용자의 권리", <미디어 개혁과 시민의 권리>,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1, 2012 참조.

<sup>31</sup> /

제들을 반영한 것이었다. 2000년 개정에서 '전송권'(이후 공중송신권으로 통합)이 신설된 것을 비롯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가 취해졌는데,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저작권 강화가 이루어졌다. 첫째는 전송권, 기술적 보호조치 등 새로운 권리의 신설, 둘째는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 등 보호대상의 확대, 셋째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책임 강화, 친고죄 축소, 저작권 삼진아웃제 도입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강화이다.. (윤종수, 2011) 이와 같은 저작권의 확대·강화는 주로 문화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는데, 90년대까지는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국제조약 수준의 저작권 보호에 맞춰간 것이라면, 2000년 이후에는 소위 '한류' 바람과 함께 국내 권리자단체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국제조약 수준을 뛰어넘는 저작권 보호정책들이 도입되기도 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sup>32</sup>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나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특히, 이러한 규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인터넷 접근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국제협약으로 도입되지 못한 것들인데, 한국 정부는 앞장서서 도입한 것이다.

정보공유연대, 진보넷 등 한국의 사회단체들은 저작권 개정이 문제가 될 때마다, 성명서 및 의견서 발표, 토론회 개최, 대중적인 캠페인 진행 등의 대응을 해왔다. 특히 2005년 초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홈페이지 배경음악 등 온라인 상에 올려진 음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이용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수많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피에 올렸던 배경음악을 내리고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했다<sup>33</sup>.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sup>34</sup>, 'No Music No Blog'<sup>35</sup>, '인터넷을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sup>36</sup> 등 이용자들의 항의 사이트가 만들어졌다. '인터넷에 배경음악을 돌려줍시다'는 취지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개음악을 자유롭게 올리고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sup>37</sup>도 생겨났다.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개정 내용이 일부 수정되기도 했지만, 개정안 통과 자체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구체적인 저작권법 개정 내용은 일반 이용자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전문적이었고,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연결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보다 근본적으로 현행 저작권 체제가 이용자의 인터넷 활용이나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화적인 담론 자체가 부재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강화는 '문화산업 활성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 디지털 기

<sup>32</sup> 정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영리적인 목적의 P2P나 웹하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에서는 대다수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포괄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sup>33</sup> 이는 2004년 10월 국회를 통과하고, 2005년 1월 17일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안 때문이다.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사실 2000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자에게 전송권이 주어져, 이번 법 개정 자체가 상황을 크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이번 법 개정으로 2005년에야 자신의 미니홈피 등에 배경음악을 올리면 안된다는 것이 인식되었고, 이는 이용자들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왔다.

<sup>34</sup> <http://cafe.daum.net/nethim>

<sup>35</sup> <http://cafe.naver.com/nomusicnoblog>

<sup>36</sup> <http://ipleft.or.kr/antilaw> 2009년 <http://ipleft.or.kr/node/2277> 변경

<sup>37</sup> /

술의 발전과 인터넷 확산에 따른 문화의 창작, 유통, 향유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예컨대, 리믹스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2차 창작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창작자와 이용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창작의 방식과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와 같이 소수의 전업적인 문화창작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환경이 되고 있다. 또한 영리적 목적의 창작만이 아니라, 비영리적이며 자기 표현 욕구나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창작이 주류가 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저작권 시스템은 비영리적 창작자의 창작에 장벽이 되고 있으며,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넘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인터넷 방송, 영화 팬 카페에서의 동영상 클립이나 이미지 공유, 사회단체의 뉴스 클리핑 등 인터넷을 통한 자연스러운 소통이 저작권 침해로 제한될 수 있다. 실제로 저작권자 혹은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소송 위협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한 청소년이 법무법인의 소송 위협과 보상금 요구에 고민하다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이 강화되는 이유는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 기업들이 직접, 혹은 자신들의 이익단체-예를 들어, 미국 영화협회나 음반협회, 한국의 저작권협회와 같은 신탁관리단체들-를 통해 정부나 국회에 로비를 통한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미국에서 소니보노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 법은 마키마우스 보호법으로 조롱을 받은 바 있다. 그들은 많은 자금과 전문성(고용한 변호사나 지식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이용자들은 다수이기는 하지만, 조직되어 있지 않다. 실제 창작자들은 문화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이거나 종속적인 계약관계에 놓인 개인 창작자일 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저작권 수익은 주류 문화기업에게 돌아갈 뿐, 소수 스타를 제외한 개별 창작자들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sup>38</sup>.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자나 창작자 대다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개혁(Copyright Reform)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저작권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 적절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 의약품 특허와 강제실시

특허와 관련해서 특허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은 '소프트웨어 특허'(혹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 그리고 의약품 특허이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과거에는 특허 대상이 아니었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사업 모델(BM)도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을 전후하여 인터넷 BM 특허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특허없이도 빠른 혁신을 이루

<sup>38</sup> 한국에서도 인디음악 가수인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과 시니리오 작가인 고 최고은씨의 죽음으로 창작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가 이슈가 된 바 있다.

어왔고, 오히려 특허로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진보넷과 정보공유연대는 BM 특허의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같은 해 6월 18일에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창시자인 리처드스톨만을 초청하여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강연회를 열었다. 결국,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 BM 특허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BM 특허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계기는 되었으나, 소프트웨어 특허나 비즈니스모델 특허 자체를 무력화시키지는 못했다.

특허를 둘러싼 전 세계적 이슈 중 하나가 '의약품 특허' 문제다. 특허로 인한 독점은 의약품 가격을 높이며, 이로 인해 약이 있어도 환자들이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에이즈 의약품에 대한 접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각 국의 각료들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각 회원국의 공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를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이라고 부른다. 지나친 특허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공공정책의 하나가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다. 강제실시란 국가위급상황이나 공중의 건강보호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정부나 정부의 허락을 받은 제3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약품 공급의 독점이 무너지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특허권과 건강권의 충돌이 국내에서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글리벡 제조사인 노바티스는 한 알에 약 25,000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복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적용을 받더라도 한달에 약 90만원~150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 약의 실제 제조원가는 1000원도 되지 않는다.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은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sup>39</sup>를 구성하고 약값인하, 보험적용 확대, 글리벡 강제실시 등을 노바티스와 정부에 요구했다. 2002년 1월 30일, 공대위는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특허청을 방문했을 때, 강제실시 청구를 위한 제반 서류조차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허법에 있는 강제실시가 실제로는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특허 제도가 공공성을 상실한 채 얼마나 권리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글리벡 강제실시를 요구하며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노바티스에 대한 항의방문 등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결국 2003년 2월 정부는 강제실시 불허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한편, 2001년 11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에서는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 선언문의 요

---

<sup>39</sup> <http://glivec.jinbo.net>

구에 의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를 강제실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TRIPS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도 같은 의약품이 강제실시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이다. 진보넷과 정보공유연대는 2004년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을 통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국내 법에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였지만, 특허청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려하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2005년 5월 3일, 특허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비록 특허청의 개입으로 근본적인 취지가 상당히 약화되기는 했지만, 최빈국들의 민중들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08년에 또 한번의 강제실시 청구가 이루어졌다. 2008년 12월 23일, 국내의 에이즈 환자단체는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에 대해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제약회사 로슈는 정부가 제시한 푸제온의 가격에 불만을 품고 식약청의 시판 허가가 내려진 이후 4년 넘게 국내에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6월 19일 특허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허청은 제약업체의 이익을 대변하여 '공공의 이익'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 3-4. 인터넷 공공성과 망중립성

이제 인터넷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과거 전화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이었듯이, 인터넷도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평등하게 접근해야 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듯 하다. 그런데 인터넷의 물리적 기반은 사적으로 소유되고 있다.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인터넷은 수많은 사적 네트워크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과거에는 국가 혹은 국영기업이 운영했던 통신 인프라도 민영화되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유효경쟁'이라는 미명하에 KT, SKT, LGU+ 등 3개 사업자에 의한 유선 및 무선망의 과점을 정부가 용인해왔다.

이와 같이 망이 사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공공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TCP/IP라는 개방적인 표준 규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TCP/IP 규약은 누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TCP/IP 규약만 준수한다면 누구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콘텐츠 층위에서는 저작권이 문제가 된다. 비록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에

의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가로막힌다면 정보 불평등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층위에서 사적인 네트워크의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전화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나 긴급 전화 서비스와 같은 공적인 규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망중립성 이슈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트래픽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유형인지, 누가 전송하는지, 어떤 단말을 이용하는지 상관없이 동등하게 트래픽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는 '도관'의 역할만 하라는 것인데, 과거 전화와 달리 네트워크의 지능이 중앙 통제시스템이 아니라 단말에 있다는 점에서 단대단(end-to-end)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지금까지 인터넷의 빠른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누구나 통신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혁신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터넷에 연결된 이용자는 자신이 개발한 서비스나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다면, 정부의 압력으로 혹은 정부에 협조하여 정치적 목적의 검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12년 6월,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차단하면서부터였다. 사실 통신사들은 그 이전부터 다음(DAUM)의 '마이피플'이나 네이버의 '라인'과 같은 mVoIP을 차단해왔다. 이에 대응하여 2011년, 진보넷과 경실련은 KT와 SKT를 방통위, 공정위,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mVoIP 차단 문제는 단지 mVoIP 이용을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를 절감해주는 문제가 아니다. 통신사들이 mVoIP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다른 서비스나 콘텐츠 역시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KT는 2012년 2월,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서비스를 5일 동안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스마트TV 트래픽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서비스만을 차단한 것이다. 또한, KT는 P2P 트래픽을 차단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통신사들이 트래픽에 대한 차별 혹은 차단을 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통신가입자가 포화상태에 가까와지면서 가입자의 통신료 수입은 완화된 시작됐다. 반면 가입자 증가와 인터넷 이용 활성화, 고용량 콘텐츠 증가 등에 힘입어 인터넷 트래픽은 급증하고 있다. 물론 통신사들은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으며, 통신망의 고도화에 따라 이용자당 수익(ARPU) -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요금-도 증가하고 있다<sup>40</sup>. 가입자 포화를 우려한 통신사들은

<sup>40</sup> 참여연대에 따르면, KT의 2010년 영업이익은 2조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나 급증했으며 순이익은 전년 대비 93%나 늘어난 1조1719억원에 달했다. SKT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110억원을 기록했고, LG U+도 영업이익 6553억원, 순이익 57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겨레가 2010년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KT는 무선 부문 매출 12조4600억원 가운데 기본료로만 4조5020억원(36.1%)의 수익을 거두었고, KT도 매출 6조9325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2조5040억원(36.1%),

콘텐츠 시장에도 진출하기 시작했다. mVoIP 서비스가 통신사들의 1차적인 통제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통신사들의 전통적인 수익원인 전화 서비스 수익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mVoIP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는 경쟁업체가 망소유권을 통해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터넷 상의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다면, 즉 자신이 선호하는 서비스는 빠르게 전송해주고, 경쟁업체의 서비스는 지연시키거나 차단한다면, 우리의 인터넷 환경은 통신사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트래픽 제어가 가능해진 것은 전송되는 패킷의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는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즉, 이용자가 전송하는 패킷의 내용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이에 따른 (예를 들어, mVoIP인지, 동영상인지, P2P인지 등) 차별 혹은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불거진다. 수사기관만이 '패킷감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개 사기업에 의한 '패킷감청'이 가능한 것이다.

망중립성 이슈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각 국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각 국가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 망중립성 이슈가 가장 먼저 제기되었던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 사업자에 의한 콘텐츠나 서비스 차단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의 통신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를 규제하고자 2010년 12월 21일,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을 만들게 된다. 오픈 인터넷 규칙은 투명성(transparency), 접속차단 금지(No Blocking), 불합리한 차별 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등 3개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FCC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sup>41</sup>.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 연합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 등에 비해 통신사 간의 경쟁이 활발한 편이다. 네덜란드와 같이 망중립성을 입법화한 곳도 있고, 통신사 간의 경쟁이 활발할 경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초고속인터넷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방통위의 인가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제28조 제4항 제4호)을 요구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2013년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부처 변경됨)가 통신사의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일정하게 마련되어 있다.(허진성,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mVoIP을 차단할 수 있는 약관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망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2011

---

LG U+도 매출 3조4793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1조7068억원(49.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률은 SKT가 16.2%, KT도 10% 이상, LG U+도 7.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까지 국내 대기업 평균 영업이익률 6.5%를 상회하는 수치다. (오병일 외, 망중립성 정책방향, 2012, <공공미디어와 미디어균형발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2)

<sup>41</sup> 버라이즌(Verizon)은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2011년 9월에 제기한 바 있다.

년 12월 26일,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원론적인 차원의 규정일 뿐 이에 근거하여 실제로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을 규제하지는 않았다. 2012년에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가 비공개적으로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내놓은 트래픽 관리 기준도 망 혼잡관리를 이유로 통신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모든 형태의 서비스·콘텐츠·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고 차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거세게 반대하였으며, 결국 이 기준은 잠정적으로 철회된 상황이다.

한국의 사회단체는 2012년 5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을 구성해서 이에 대응하기 시작했다<sup>42</sup>. 이용자 포럼은 진보넷, 오픈넷, 경실련 등 11개 단체 및 관심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그 이전까지 망중립성은 거의 이슈화되지 않았을뿐더러, 언론들은 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하고는 했다. 이용자포럼은 토론회, 대중 강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연속 세미나의 결과물을 모아 2013년 1월 <망중립성을 말하다>라는 단행본을 발간하기도 했다.

#### 4. 결론

정보화는 어떤 전망을 가져야 할까? 유엔이 2005년 대대적으로 개최한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는 정보사회가 UN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정보 자본주의는 인권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구축되어 왔다. 실러가 일찌기 비판적으로 관측한 바대로, 정보화는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주도하며, 그 결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정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IMF 체제 하의 신자유주의 논리와 함께 정보화가 확산되어 오면서, 이 기술은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 경쟁력으로서의 미덕이나, 효율적 관료제, 특히 경찰력을 위해 봉사하는 미덕으로서 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기술은 사회 권력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비록 어떤 감시 기술은 일단 사회적으로 도입된 후에는 도입 초기의 의도를 벗어나는 데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기술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정보 자본주의에 맞서는 사회 운동은 이런 전망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인터넷이 군사 기술에서 유래했으나 지금은 만민 평등한 미디어가 된 것처럼. 동시에 이 기술의 궁극적인 미래는 기술 그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 기술이 속한 사회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어떤 사회에서 이 미디어의 기술적 속성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달리 배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

42 /

## <참고문헌>

남희섭,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한국에 대한 약탈에 가깝다!", 2006.

닉 다이어-위데포드, 『사이버-맑스: 첨단기술 자본주의에서의 투쟁주기와 투쟁순환』, 신승철·이현 옮김, 이후, 2003.

수전 K.셀,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 지재권의 세계화』, 남희섭 옮김, 후마니타스, 2009.

오병일, "디지털 시대 저작권과 이용자의 권리", <미디어 개혁과 시민의 권리>,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1, 2012.

오병일 외, "망중립성 정책방향", <공공미디어와 미디어균형발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2, 2012.

오병일·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운동의 역사와 과제", 『저항·연대·기억의 정치 2』, 문화과학사, 2003.

윤종수, "인터넷과 저작권", 2011, [ko](#)

장여경, "주민등록번호로 낚이셨습니다", 황해문화, 2013 여름호.

지그문트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새물결, 2008.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10주년 백서 - 자유와 공유의 연대기>, 2008.

허버트 실러, 『정보불평등』, 김동춘 옮김, 민음사, 2001.

허진성, "헌법적 쟁점으로서의 망중립성", 한국언론법학회 2011년 10월 학술세미나 <망중립성 문제의 현안과 전망> 발표문, 2011.

---

## 对于信息资本主义的社会运动的对应（提要）

吴炳一（Oh, Byoung-Il）、張如景（Chang, Yeo-Kyung）（进步网络中心活动家）

---

### 1、信息资本主义的展开与对应

大体来讲，韩国社会的信息化促进和受用一直从属于市场逻辑，政府也为了官僚制系统的有效运营而关注IT技术。在此，行政权力的监视和控制力量进一步强化。并且，由于政策决定的非民主性和非透明性以及权威主义的殘滓，韩国的信息通信政策一直被扭曲。在所谓的民主政府下，也引进各种“网络管治”政策，强制公认确认书，网络实名制等，产生所谓的“大龟群岛”规制。

在这样的情况之下，韩国社会运动对于信息资本主义的对应可以分为两个侧面。第一、构筑独立于资本和国家的网络和支持社会运动中的信息化。第二、建设人权和公共性以及民主主义为基础的信息通信政策。信息通信运动的宗旨不在于信息的少数垄断，而在于信息的分散，最终把信息分还给所有公民。

### 2、独立网络和社会运动的信息化

商业PC通信网的激活之前，1980年代后期，韩国网络使用者开始建立民间BBC并塑造网络共同体。在全国规模的商业PC通信网的普及后，各个商业通信网的进步网络社团扮演了社会运动各领域之间的沟通角色。随着网络的发展，90年代中期开始试图以网络为媒介的论点争斗（issue fighting）。97年末到97年初所进行的“总罢工通信支援团”具有代表性的案例。如此，以对社会运动的信息化支持的要求以及审查PC通信所引发的对独立于国家和资本的网络之要求为其背景，1998年11月“进步网络中心”开始发起。

进步网络作为非盈利团体，与其他商业服务进行竞争中，也面临技术和财政的限制。但还是具有社会运动的独立物理基础，呈现了独立的网络具有不少意义。首先，有力抵抗政府的审查和控制并且为利用者的权利做出贡献。其次、邮寄名单和社会运动后援平台等，开发和提供社会运动中所必要的非盈利服务和平台。最后，不仅仅是技术的消极使用，而是与正确的技术政策联系，例如，保护对社会运动的信息共有者和利用者的隐私等。

### 3、替代方案性信息通信政策

#### 3-1、网络的表达自由运动

1990年代初期PC通信时期，韩国政府开始实施审查。1991年，政府改订“电气通信事业法”，禁止“不稳通信”。1995年设立监视机关，名称叫“信息通信伦理委员会”。国内社会团体一方面发行审查白皮书，另一方面提出有关信息通信事业法的违宪诉讼。2002年“不稳通信”条款被判违宪，但是政府把这一条款改正为“非法信息”，仍旧坚持进行网络空间的内容审议。2000年在不断的恶意帖子的论争中，引进所谓的“网络实名制”。2012年宪法裁判所判决网络实名制也是违宪，但是政府还是通过选举期间的网络实名制，游戏实名制和I-pin系统，坚持实行本人确认制度。

韩国的社会运动阵营坚持反对行政机关和信息侦察机关的任意介入。尤其是坚持要求废止行政审议制度，该制度是政府直接规制网上内容。通过各种努力得到国家人权委员会和联合国的表达自由特别报告官对韩国的行政审议制度和网络实名制发表批判意见。“虚假的通信”条款是在疯牛病，经济政策，天安舰事件等中，把与政府不同的意见作为“虚假”，可以进行刑事处罚。这一条款借经济政策的网络评论员“密涅瓦”的拘留事件之机，被判违宪。

#### 3-2、监视和隐私

1997年初对引进电子居民卡的反对斗争中，首次出现有关隐私权的社会运动。当时金大中候选人当选和IMF经济危机，因而1998年废止了电子居民卡事业。但是随着国家身份登陆制度的电子化和网络的连动，坚持展开居民登陆制度的反对运动。在韩国社会，居民登陆制度引起了不少有关信息人权的论争。不管是规模大还是小，被泄露的个人的信息的数据库包含着居民登陆号码。因此，被泄露的个人信息形成了巨大黑市，被内部者或以黑客为代表的外部者泄露个人信息不断流入和供给黑市。

韩国的社会运动从反对电子居民卡运动开始，要求制定个人信息保护法。通过市民社会的坚持努力，终于2011年制定个人信息保护法，设立个人信息保护委员会。到目前为止，市民团体希望该法律和委员会，与国家人权委员会一起，发出拥护信息人权的独立声音，然而，此途依然十分遥远。

#### 3-3、知识产权与信息共有

韩国的知识产权制是在美国的通商压力，WTO TRIPs，WIPO协商等外部因素的推动下形成的。2000年代后受到韩美FTA，韩EU FTA，ACTA等双方和多方协商的影响，在90年代后知识产权论点成为社会运动重要议题，以共有信息连带IPLeft为中心对应知识产权的强化。

2000年代初期，随着P2P方式的音乐共有程序‘solibada’被问题化，开始论争数码环境的知识产权。韩国政府通过多次改订强化知识产权制，尤其是知识产权的三击不中制，对ISP的过滤义务化等。这些制度都具有侵害基本权的可能性，因而还不能引进国际协约。

在专利问题中，“医药品专利”具有很大的争议。2000年初期到后期，政府请求强制实施格列卫和治疗艾滋病的Fuzeon的使用。但这只代表医疗品商的利益，过分萎缩“公共利益”，最后都被驳回。因此，国内的强制实施成为无用之物。

### 3-4、网络的公共性与网中立性

韩国的通信网也被私有化，因而网中立性规制需要保障私有网络的公共性。2012年6月开始，大众对网中立性论题的关心逐渐上升，韩国的三大移动通信运营商撤除KakaoTalk（韩国版Kik）所服务的无线网络电话（mVoIP）服务，VoiceTalk。虽然“电气通信事业法”规定政府具有规制权限，但政府放置通信商对网中立性的毁损，反而试图制定认可通信商任意控制通信量的方针。网中立性问题不仅仅是对特定应用服务的利用权利问题，也是公正的竞争和革新，利用者的表达自由和隐私问题。韩国的社会团体2012年5月，组织“网中立性利用者论坛”对应网中立性问题。

翻译：皮垆勋（北京大学博士班）

审校：林春城（木浦大学教授）

---

# 내부의 외부화 외부의 내부화: 중국의 미래를 위한 분투 속 초국적 담론 연합의 형성

우창창(상해 사회과학원)

---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동유럽에서의 사회적 변화와 소련의 붕괴를 목도하면서,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예지적인 저작,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에서 다가올 미래에 세계는 “역사 이후의 부분과 역사에 갇힌 부분으로 분리될 것”이라고 선언했다.<sup>1</sup> 역사 이후의 시기란, 이상주의적으로 정의할 때, 민주국가들이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해 함께 뭉칠 필요”<sup>2</sup>에 의해 만들어지는 칸트적인 국제 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인터넷과 다른 뉴미디어가 새천년에 들어서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혹은 라틴 아메리카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유례없이 촉발시키는데 일조했다고들 한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소셜 미디어가 민주화 추세를 이끌어 온 곳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1989년 천안문 광장 운동 초기에 초국적 동맹의 움직임이 나타나서 그 역할을 해 왔다. 1989년 4월 시위 이래 많은 존경받는 지식인과 학생 지도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홍보”하기 위해 “호의적인 국제 미디어”를 이용했다.<sup>3</sup> 1989년 5월말 홍콩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북경의 학생 운동가들을 돕기 위한 자선 기금을 마련할 때, 주류 초국적 매체들은 6월 4일 사태 이후로 유명해진 “베이징 거리의 인간 대 탱크의 대립”을 독재주의 중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젊은이라는 “완벽한 기표”이자 정형화된 이미지로 화석화시켜 왔다.<sup>4</sup> 이러한 이미지는 초국적 매체들이 중국에서의 시위를 보도하는 일정한 논조를 형성해 왔다. 또 한편, 수배된 지식인과 학생 지도자들이 국제인권단체와 민주 시민단체, 서구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China Support Network와 China Alliance for Democracy가 조직될 수 있었다. 해외의 저명

---

<sup>1</sup>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276.

<sup>2</sup> 같은 책, 281.

<sup>3</sup> Yuezhi Zhao, "Media and Elusive Democracy in China" in Javnost-the Public, 8:4 (2001), 30.

<sup>4</sup> Yuezhi Zhao, Communication in China: Political Economy, Power, and Conflict (New York: Rowman & Little Field, 2008), 4.

한 인권운동가들은 중국공산당에 반대하는 영향력 있는 반체제인사가 되었고, 1990 년대에 서방 국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요즘에는 이러한 초국적 연합이 미운 털이 박힌 채 고전하는 약체, 내지는 역사에 갇힌 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단순한 구경꾼임이 드러났다.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이 심화됨과 함께, 자오유에지가 분석한 바대로, “초국가적으로 연계되고 재구성된 자본가 계급”이 2000 년대 초중반부터 미래 중국의 변화 방향성을 두고 벌이는 소통 갈등에서 이미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sup>5</sup> 이렇게 해서 전지구화에 편입된 중국 관료들, 새로이 기득권을 획득한 자본가들, 이들을 지지하는 미디어와 지식인들이 “견고한 철의 삼각지배계급체”를 형성했다. 이 새로운 자본가 계급은 곧 민중 계층이나 반 신자유주의 연합을 “사회적으로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한데 모여 중국 지도자들이 “개혁 과정의 급진적 방향 전환을 저지하도록” 압박함으로써 우선은 경제적으로 그 다음엔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대대적으로 표출했다.<sup>6</sup> 시장화, 산업화, 도시화를 옹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전지구적 자본주의화를 수용하는 기득권 계층의 이익단체들과 그들의 중산층 추종자들의 암묵적인 결탁은 심각하게 재고될 필요가 있다.

보다 최근에는 진보적 언론인들과 사회참여 지식인들 및 법조인들로 구성된 초국적 담론 연합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구글 철수 건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를 효과적으로 장악하는 초국적 담론 연합체의 능력은 일취월장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트위터와 최근 등장한 마이크로블로그를 기반으로 삼아 2011 년 7 월 23 일 기차 충돌 사건과 보시라이 사태에서 정점을 찍은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는데 앞장서고 있다.<sup>7</sup> 나날이 거대해지는 이러한 초국적 담론 연합체의 구성원들은 보편주의,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슬로건을 부르짖으며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일컫거나 분류되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사회주의와 시장 및 정치 개혁과 관련된 중대한 이슈에 대한 인터넷의 좌파 성향의 목소리에 대해 강경하게 전쟁을 선언했다. 이 확장된 초국적 전쟁은 겉보기에는 충성파와 반대파가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들쭉날쭉하게 만들어진 게임에 더 가까워서 대다수 네티즌들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실, 초국적 담론 연합체는 그들의 반정부 선동에 있어 전문적이거나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폭넓은 계층의 중국인들, 특히 중산층과 대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즉, 이 담론 연합체는 “언어적 (이념적) 투사”로서, 사르트리의 주장을 역으로 인용하자면, “결국 남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나 논지가 아니라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릴” 재량으로 스스로의 “칭호를 개발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sup>8</sup>

---

<sup>5</sup> 같은 책, 345.

<sup>6</sup> 같은 책, 351

<sup>7</sup> Yuezhi Zhao, "The Struggle for Socialism in China" in Monthly Review (2012); Wu Changchang, "Micro-blog and the Speech-act of China's Middle Class," in Javnost-the Public, 19:2 (2012).

<sup>8</sup> Giovanni Sartori, The Theory of Democracy Revisited (Chatham, NJ: Chatham House, 1987), 482.

이 글에서 나는 이러한 초국적 담론 연합체의 활동에 대해 네 가지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초국적 연합체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각각의 사례를 형성했으며 중국 정치권과 국내 여론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는지를 서술할 것이다. 글의 말미에서는 이러한 연합체가 내세우는 민주화의 취지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연합체의 구성 및 그 대표 계층과 한계점에 대해 논할 것이다.

### 구글의 중국 철수에서 난팡주말 지지 시위까지: 내외전환 혹은 상하전복?

2010 년 초 구글은 중국 정부의 과도한 검열 정책에 대한 시위로 중국 시장에서 대대적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비민주적 국가라는 인식을 전세계에 심어주게 되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중국의 네티즌과 구글 사용자들이 구글의 북경 본사에 자발적으로 몰려들어서 구글의 중국 철수를 애도하며 꽃과 초를 헌정하며 구글의 메시지를 재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이와 유사하게 3 년 후에는 국내 언론매체와 관련한 시위가 열려 백여명의 사람들이 난팡 신문사 본사 밖에 모여서 꽃을 놓으며 광저우 언론 정책 관료들에 의해 삭제된 기사의 원문을 쓴 기자와 편집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했다.

2013 년 1 월 13 일, 구글의 법률 담당 수장인 데이빗 드러먼드는 구글의 공식 블로그에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 (*"A New Approach to China"*)」이라는 글을 올리며 공안 당국의 "주된 목표는 중국 인권 운동가들의 지메일 계정에 접근해서 공격하려는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포기한다고 밝혔다.<sup>9</sup> 이후 구글은 두 학교가 그 무렵의 피싱 공격과 연관돼 있는데, 상해 지아�통 대학과 "군의 협조로 설립되었고 군사 컴퓨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규모 직업학교"인 랑시앙이 그것이라고 발표했다.<sup>10</sup>

구글의 주장은 곧바로 미국에서부터 중국의 진보적 여론 형성가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 당시 미 국무 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위시한 미국과 전세계 언론은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난했고, 오바마는 하루만에 곧바로 대통령 대변인인 빌 버튼을 통해 클린턴을 지지했다. BBC,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초국적 미디어 회사들도 구글의 결정이 중국 정부의 검열에 대항하는 용감한 행동이며 구글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예찬했다. 미국의 재계, 정계, 언론계의 단일한 입장은 곧 중국 내부의 진보적 목소리와 합치되었다. 구글의 더 이상 "중국의 부정한 독재 정권과 결탁"할 수 없다는 입장은 젊은 세대의 구글 이용자

<sup>9</sup> Google (2010), <http://googleblog.blogspot.jp/2010/01/new-approach>

<sup>10</sup> John Markoff, "2 China Schools Said to be Tied to Online Attacks" in *New York Times*, February 18 (2010), <http://www.nytimes.com/2010/02/19/technology/19china.htm>

들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도록 부추겼다. 구글과 미국의 정계, 재계, 언론계의 엘리트들이 유명 블로거들에게 구글의 청렴함을 과장하도록 후원하거나 어떤 보상을 약속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주류 초국적 매체들은 인권운동가들의 막대한 영향력이나 중국 구글 이용자들의 항거와 “정당화된” 분노를 중점적으로 보도했고, 이에 맞춰 친구글 중국인들도 그러한 외신 기자들을 의도적으로 조종해서 “내외전환” 혹은 상하전복의 원동력으로 활용했다.

중국의 영향력 있는 사회참여 지식인들과 언론인들 중 일부 진보적 유명인사들은 구글의 폭탄 선언 이후로 구글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구글의 자기 본위적인 철수 결정에 시선을 고정했던 그들은, 뉴욕커 지의 북경 주재원인 에반 오스노스가 「중국으로부터의 편지("Letter from China")」라는 온라인 칼럼에서 서술했듯, “거의 아무도 구글의 철수가 사실은 중국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sup>11</sup>고 결론 내렸다. 또한, 그러한 “언론인들”이나 “사회참여 지식인들”은 일반인들이 구글의 철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것을 경멸하기까지 했다.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젊은 작가이며 가장 유명한 사회참여 지식인 중의 한 명인, 한한은 수천 번씩 포워드되는 그의 블로그에 구글 철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강경한 어조의 글을 올렸다. “구글은 자유, 진실, 정의 같은 것보다 길거리에서 100 위안을 줌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중국 네티즌들을 과대평가하거나 그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다.”<sup>12</sup> 전형적인 진보적 지식인의 입장에서 한한은 중국인들이 보편적 이상보다는 부동산이나 가상게임의 도구 구매에 더 열을 올린다고 보고 있다. 피닉스 TV의 유명 여기자인 로즈 루취우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중국인을 과격하게 비유하여 “신념도 없이 돈만 광신하는” 이들이라며, 구글의 아바타적인 투쟁이 그들에게 “원리원칙에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기도 했다.<sup>13</sup> 여기에 깔린 전제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신념”과 “원리원칙들”은 로즈나 그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며 그런 생각을 가진 지식인들은 대다수의 중국인들과 유리된 채 낙후된 다중을 가르치고 계몽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국내외에서 내부의 진보적 엘리트들과 궤를 같이 하여 가상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업데이트하는 말머리마다 '#GoogleCN'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구글 철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구글은 곧 트위터 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포털 사이트와 중국 내의 거대 전자 게시판 시스템(시나, 소후, 티아냐)은 “가지 마요, 구글!”, “오늘 밤은 아무도 당신 때문에 잘 수 없어요, 구글!”, “제발 남아 줘요, 멀리 떠난 내 친구, 구글!” 등의 열변을

<sup>11</sup> Evan Osnos, "China and Google" (2010), <http://www.newyorker.com/online/blogs/evanosnos/2010/01/china-and-google-illegal-flower-tribute.html>

<sup>12</sup> 한한, 「구글 철수에 대해」 (2010), <http://www.20ju.com/content/V>

<sup>13</sup> 로즈 루취우, 「아바타화한 구글」 (2010), [http://blog.sina.com.cn/s/blog\\_46e9d5da0100h39k.html](http://blog.sina.com.cn/s/blog_46e9d5da0100h39k.html)

토하는 포스팅, 댓글, 메시지들로 홍수를 이뤘다. 그러자 구글의 체류를 대대적으로 탄원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구글을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리는 포스팅들이 퍼졌다.<sup>14</sup> 구글 찬미자들은 “고결한 구글”과 “진정한 협잡꾼 바이두”의 이분법적 어조로 바이두가 상업적 이익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독점을 대가로 중국 정부가 꾀하는 사상 통제의 수치스러운 대변자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바이두에 비난을 퍼부었다. 자신들이 구글의 의뢰인임을 부정하는 이 구글 찬미자들은 널리 퍼져 있는 음모 이론, 즉 스파르타주의니 편협한 민족주의니 심지어는 대국의 우월주의니 하는 설들을 부정하고 경계했다. 게다가, 구글의 의도를 의심한 피닉스 TV의 안토니 유언이나 중국 인민 대학교의 진칸롱 교수와 같은 논평가들은 야비하다는 심한 비난까지도 들어야 했다.<sup>15</sup>

시위는 계속되었다. 2010년 1월 13일 오전 이래로 트위터로 뭉친 일부의 열정적이고 호전적인 친 구글 젊은이들은 로스엔젤레스 타임스와 홍콩의 TVB, 타쿱오의 기자들과 함께 칭화 과학 공원 안에 있는 구글 사무실 앞에 모여서 꽃다발과 양초를 놓고 절까지 하면서 그들의 유대를 과시했다. 꽃들과 함께 “HTTP 404 Page Not Found: 지역 법과 규정에 따라서 어떤 바램은 표명될 수 없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 손으로 쓴 수많은 시와 메시지, 카드 등이 함께 놓여졌다. 이후 그런 메시지들은 중국 소셜 미디어를 통해 크게 확산되고 찬사를 받았다. 중국의 첫 번째 “꽃 캠페인”은 곧 다른 도시들로 퍼져나가 네티즌들이 북경과 상해에 있는 구글 사무실을 순례하도록 했다. 몇몇 순례에서는 네티즌들이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를 알리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트윗이나 사진으로 업데이트되어 퍼져나갔다. 이에 부응하여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네티즌들의 구글에 대한 (전투가 아닌) 기념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2010년 1월 14일에는 구글의 광저우 지부는 “중국 웹 이용자들로부터 꽃 한 송이 받지 못 했다”는 기사를 실었다.<sup>16</sup> 그러자, (바오판의) 몇몇 트위터 이용자들은 중국어와 영어로 광저우에 있는 구글 사무실의 주소를 올리고 광저우에 꽃을 가져다 주기를 호소하기도 했다.<sup>17</sup>

그러나, 가상 헌화 요청은 현실 세계에서 문제를 야기했다. 꽃들은 방문자가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놓으면 “불법 헌화”라는 이유로 보안 요원들에 의해 경고를 받고 치워졌다.<sup>18</sup>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보안 요원의 경고성 멘트는 곧 큰 문제를 일으켰고 인터넷 상에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가 되었다. 2010년 1월 14일 라디오 프랑스 인터나씨오날은 “중국 중앙 선전부는 인쇄

<sup>14</sup> 와성, 「진정한 익살극」 (2010), <http://www.washeng.net/>

<sup>15</sup> 타이거, 「구글에의 헌화」, 2010, [http://club.china.com/data/thread/1011/2709/11/53/2\\_1.html](http://club.china.com/data/thread/1011/2709/11/53/2_1.html)

<sup>16</sup> Juliet Ye, "Flowers for Google in China" (2010), <http://blogs.wsj.com/chinarealtime/2010/01/13/flowers-for-google-in-china/>

<sup>17</sup> 같은 글.

<sup>18</sup> Osnos, "China and Google."

매체가 구글 사태에 대해 심화된 보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웹사이트들이 꽃 헌정에 대한 포스팅이나 사진을 지우도록 권고했다<sup>19</sup>고 밝혔다. 반대로, 바이두, 시나 블로그, 웨이보 등에서 “불법 헌화”나 구글 차이나 같은 키워드를 담은 기사나 코멘트가 “갑자기 볼 수 없게 되”거나<sup>20</sup> 걸러지거나 삭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구글 플러스, 지토크, 트위터 등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라디오 프랑스 인터나씨오날의 보도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저항해서, 트위터 사용자들은 완강하게 투쟁했다. 버클리에 있는 샤오치양 교수에 의해 만들어진 트위터 계정인 @CDTimes 는 “진정으로 왜곡된 가치관의 시대에 사는 것”<sup>21</sup> 을 애도하며, 주로 @Jason5ng32 가 쓴 글들을 인용한 트윗 글들을 번역해서 올리기 시작했다.

거의 같은 시기인 2010 년 1 월 13 일 글로벌 타임스, 난팡 주말, 아이핑이 각각 인터넷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세 매체는 정치 성향뿐만 아니라 세 건의 설문조사의 조사 대상자와 조사 결과마저도 달랐는데, 이는 중국에서의 “다면적이고 모순적인 성향의 미디어 상업화와 전지구화”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가끔은 중복되기도 하고 가끔은 대립적이기도 한 담론 영역의 복합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공론장”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한다.<sup>22</sup> 친정부적 사실과 웨이보 상에서의 온건한 논평으로 인해 항상 중국 진보주의자들의 타겟이 되는 글로벌 타임스는 오후 4 시에 두 개의 설문 조사 질문을 동시에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중 하나는 “중국 정부가 당국의 검열 없이 중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겠다는 구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오후 8 시까지는 “수용 불가능”이 “수용 가능”보다 거의 60%의 오차범위 안에서 앞질러 있었다. 그러나 고정된 IP 주소의 한 익명의 네티즌이 8 시 이후 6000 번 정도 “수용 가능”에 몰표를 주면서, 앞질러 가던 “수용 불가능” 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글로벌 타임스의 기술 부서는 여러 명이 IP 주소를 바꿔 가면서 끈질기게 설문 조사에 악성 공격을 가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3000 개의 거짓 투표 결과를 삭제했다. 글로벌 타임스의 오류를 제한 결과와는 완전히 상반되게 난팡 일보와 아이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양쪽 모두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압도적으로 (아이핑, 83.6%, 현재 삭제) 구글의 체류를 옹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게다가, 이들 네티즌들은 구글 철수에 구글의 잘못은 없다는 쪽에 의견이 편향되어 (난팡주말, 44.79%) 무언 중에 중국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 난팡 주말의 설문조사지 밑에는 요청되지도 않았는데 수백 건의 선정적이고 도발적인 의견들이 올라왔는데, “철수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정의로운 행위가 있다. 구글이 중국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sup>19</sup> 카오 구오징, 「인터넷은 열려 있어 검열이 필수」 (2010),

[http://www.rfi.fr/actucn/articles/121/article\\_18774.asp](http://www.rfi.fr/actucn/articles/121/article_18774.asp)

<sup>20</sup> Brad, "Illegal Flower Tribute" (2011),

<http://knowyourmeme.com/memes/events/illegal-flower-tribute-%E9%9D%9E%E6%B3%95%E7%8C%AE%E8%8A%B1>

<sup>21</sup> 같은 글.

<sup>22</sup> Zhao, Communication in China, 327-328.

중국이 세계로부터 후퇴하고 있다”라든가 “구글은 강제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버렸다”라든가 더 노골적으로는 “바이두보다는 Bing이 좋다”라는 내용들이었다.<sup>23</sup>

2010년 3월 23일 새벽까지 구글 본사가 업데이트하는 공식 발표문은 중국은 “구글 차이나에 대한 결과까지 계속해서 검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sup>24</sup> 그리고 나서 구글은 모든 검색 요청을 Google.cn에서 Google.com.hk로 돌려놓았다. 이후, 모든 특수한 공식 언어를 패러디하는 감각 있는 네티즌들이 “구독(Goodog)”이나 “(방화)벽 문화”등의 표현에 대항에서 개발한 “골형”(bone brother, 중국명 구글의 동음 이의어)이라는 신조어는 구글의 명예와 불굴의 용기를 찬양하는 상징이 되었다. 충칭만보는 3월 27일에 구글의 홍콩으로의 이주를 화려한 은어로 비유하는 위키피디아 스타일의 혼종 보도문, 「구-비둘기의 이주 이야기」라는 기사를 게재했다.<sup>25</sup> 온갖 온라인 논쟁 속에서 구글과 비슷한 로고와 중국어로 대략 “구글 언니”라는 뜻을 가진 ‘구지예’라는 구글을 야금야금 따라하는 모방 사이트까지도 탄생했다.<sup>26</sup> 구지예는 곧 BBC, 로이터, 지트도이치 자이툰같은 외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구글 사태를 보도하는 것이 금해졌던 내신 매체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다.

마침내 가상 시위가 끝나는 것처럼 보일 무렵, 똑같은 헌화 캠페인이 3년 후에도 또 벌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 했다. 2012년 말, 웨이보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난팡주말의 새해 사설인 「중국의 꿈, 의회주의의 꿈」이 광둥 당 의회의 선전부장인 투오전에 의해 모든 편집장들의 동의도 없이 발행이 금지됐다는 내용이었다. 곧 진보적 기자들과 사회참여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고, 이는 웨이보 이용자들 대다수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사건의 진행 과정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난팡주간을 옹호하기 위해 연관 포스팅들을 유포했다. 온라인상의 무자비한 비난이 투오와 중국 선전부, 그리고 선전부의 검열 시스템에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오프라인 헌화 운동이 촉발됐다. 결과적으로, 작년 말 이래로 꾸준히 웨이보에 등장하는 포스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시자”는 선언이나 훈계조의 글들, 아니면 헌정된 꽃들이나 공안과의 대치 장면 사진들이었다. 그런 포스팅들 중 전형적인 일례로 구글 헌화와 난팡주말 헌화를 연결시키는 글을 들 수 있는데, “구글 헌화 이후 인터넷(상에서의 자유 발언)은 크게 퇴보했고, 난팡주말 헌화 이후엔 언론(의 자유)가 한 발짝 퇴진했다”<sup>27</sup>는 등의 내용들이다.

<sup>23</sup> 『난팡주말』 (2010), <http://vote.infzm.com/vote/160>

<sup>24</sup> Google (2010).

<sup>25</sup> BBC, "Chongqing Evening Boldly Commemorating Google" (2010), [http://www.bbc.co.uk/zhongwen/simp/china/2010/03/100328\\_chongqing\\_google\\_guge.sht](http://www.bbc.co.uk/zhongwen/simp/china/2010/03/100328_chongqing_google_guge.sht)

<sup>26</sup> Brad, "Illegal Flower Tribute."

<sup>27</sup> @3dlinux (2010), <http://weibo.com/1401718764/zdtsD2lJy>

또한, 젊은이들의 유사 헌화 행동이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열렬한 찬미가 주류 초국적 언론 매체들을 뜨겁게 달구었던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일도 아니었다.

예상대로 주류 초국적 매체들은 난팡주말 에피소드를 가장 최근에 일어난 중국 언론의 자유를 위한 흑백투쟁의 전형으로 보고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난팡주말 내부에서는 투오전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편집국장인 후양칸이 자체적으로 사실을 검열하고 철회하기로 한 것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당과 국가가 중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신문사에 마수를 뻗었다는 조지 오웰식의 시나리오로 해석하는 '외부인'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사실을 무시했다. 3년 전의 구글 철수 사태 때 "구글"이란 단어가 상징했던 은유, 슬로건이나 활동들은 이제 완전히 난팡주말의 것들로 대체되었고, 자유와 민주주의는 다의적이고 만능적인 기표로서 다른 기의를 뜻하거나 다른 맥락으로 그 형태가 전이되었다. 구글 철수가 초국적 담론 연합체를 초기화했다면, 난팡주말 사건은 어떤 면에서 외신과 내신 진보 미디어를 내외의 구분없이 제휴하게 했는데, 그들이 유례없이 담론적으로 야합해서 보시라이의 추락을 다룰 때 특히 그랬고,<sup>28</sup> 시진핑 치하에서 새로이 개편된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현재 중국 '내부'의 난팡주말과 과거 중국 '외부'의 구글은 상징적으로 이분법적 대결 구도를 형성하도록 해서, 구글과 난팡주말은 민주주의를, 중국 정부는 독재주의를 의미하게 되었다.

### **얼마나 위험스럽게 아름다운 자스민 꽃인가!:**

#### **끝나지 않은 인터넷 꽃 혁명인가, 무의미한 꽃 집회인가?**

구글 후폭풍이 중국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자극하고 중국의 디지털 원형고도소를 거부하도록 했다면, 트위터에서 시작된 (해외) 웹에 기반한 자스민 혁명은 중국판 아랍의 봄을 야기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이 전세계의 다른 지역을 휩쓴 민주화 물결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 단호하고 분명했다. 중국 공산당 선전부는 중국 편집인들에게 중동의 시위 현장을 보도할 때 "신화 통신의 공식 파견원이 전하는 뉴스만 보도"하도록 경고했다.<sup>29</sup> 그러나 이런 조치는 중국인들이 자스민 혁명에 가담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사실 "중국 트위터 서클"은 "카이로에서의 시위와 (1989년) 천안문 사태의 시작과 파국"의 유사성을 금방 찾아냈다. 예를 들어 진보적 활동가이면서 변호사인 텡바오는 트럭 앞에 홀로 서 있

<sup>28</sup> Zhao, "Struggle for Socialism"; Wang Hui, "The Rumour Machine, Wang Hui on the Dismissal of Bo Xilai" in London Review of Books, 34:9, May 10th (2012), 12-13.

<sup>29</sup> Willy Lam, "Beijing Wary of 'Color Revolutions' Sweeping Middle East/ North Africa" in China Brief, 8:4 (2001), 3.

는 이집트인의 비디오를 보고 나서는 바로 트위터에 “관람 요망! 이집트의 천안문 운동, 군용차를 막아선 한 용사!”라는 글을 올렸다.<sup>30</sup> 중국 트위터 서클에 대해 우선 설명해야 할 것 같다. 2009년 가을에 트위터가 금지되자, 많은 중국 트위터 이용자들은 트위터에 로그인할 수 있는 대리인만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대리인은 IT 엘리트들과 법조인들, 사회참여 지식인들, 인권운동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sup>31</sup> 그들은 대부분 잘 교육받고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중년 남성들이었다. 중국 트위터 서클은 (“만리 장[방화]벽”을 넘고, 정부를 비판하며) 몇 가지 의례를 거쳐 점차 형태를 갖추었다. 서클은 보다 급진적이고 대규모적인 사이버 단체로서 온라인상에서 거창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처음에 그들은 ‘전지구적인’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의 잠재력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곧 밀접하게 연계된 민간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되어 공통의 가치관과 감성, 이념적 성향을 공유하게 되었고, 보다 심층적으로는 온라인 집회를 중국 ‘내’의 오프라인 사회 활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되었다. 중국 트위터 서클의 많은 구성원들은 다양한 인권보호활동을 기획해서 인력을 동원하고 참여시키는 데 있어 풍부한 경험이 있어서,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나 사회참여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연유로 중국 트위터 서클이 서방의 국가나 미디어, 기업체 및 민간단체들에 알려지고 후원을 얻게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몇몇 서방 국가 지도자들은 그들을 방문하거나 공식적으로 만나기까지 했다.<sup>32</sup>

아랍의 봄 이후로 중국 트위터 서클이 좋은 때를 만나서 온라인에서 중국 자스민 혁명을 주도한 것은 논리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2011년 2월 17일에 일어난 중국 자스민 혁명은 반론의 여지없이 중국 트위터 서클 구성원들이 조직하고 개시한 것은 아니었다. 당일 날 @mimitreeO 라는 트위터 사용자가 “중국 자스민 혁명의 첫 번째 집회일은 2011년 2월 20일 오후로 예정. 전국 대도시의 집회 장소는 보순 웹사이트에 미리 공지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 글은 수천번 포워드된 후 프리 아시아 라디오의 기자인 덩샤오가 발견해서 메시지로 만들어졌다.<sup>33</sup> 그리고 나서 #cn220 이라는 꼬리표의 트윗글이 트위터와 다른 해외 웹사이트 상에서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이를 후 보순에는 중국 자스민 혁명을 요구하는 긴 기사가 게재됐다. 그 후 콜럼비아 대학의 고전학과 졸업생인 화거가 익명의 남성과 함께 Molihuaxingdong.blogspot.com 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트는 곧바로 중국 자스민 혁명의 집회 장소를 내보내는 molihua-org 라는 새 트위터 계정과 molihua.org 로 리디렉트되었다. 중국 트위터 서클과 달리, 시위를 호소하며 자칭

<sup>30</sup> Evan Osnos, "Of Tahrir Square and Tiananmen Square" (2011), <http://www.newyorker.com/online/blogs/evanosnos/2011/01/of-tahrir-square-and-tiananmen-square.html>

<sup>31</sup> Wang Wei, "CTC and Social Activities in Contemporary China" (2010), 미출판. 중국 트위터 서클에 대한 미출판된 자료를 내게 공개해준 나의 동료, 왕 웨이에게 감사를 표한다.

<sup>32</sup> 같은 글.

<sup>33</sup> 허칭리안, 「거대한 마법과도 같은 실화」, 2011년 2월 2일, [voachineseblog.com/heqinglian/2011/02/jasmine-revolution/](http://voachineseblog.com/heqinglian/2011/02/jasmine-revolution/)

중국 자스민 혁명의 봉기자이자 조직인이라 일컫는 중국 자스민 혁명단은 “중국 내에 체류중인 8 명을 포함한 20 명의 고등 교육을 받은 중국 젊은이들과 6 개국 이상의 각기 다른 국적의 구성원 8 명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였다.<sup>34</sup>

2 월 20 일 최초 13 개 집회 장소 중 하나였던 왕푸징 쇼핑몰 중심부에 있는 맥도날드 앞에는 집회 정보가 “만리 장벽”에 의해 차단됐음에도 100 여명의 정보통신기술에 능통한 민주주의자들이 모였다. 충분한 수의 경찰 병력 덕택에 시위는 평화적으로 끝났다. 타임, 로이터, AP 통신은 모두 이 최초의 집회를 다뤘고, 중국 네티즌들도 시위 현장에 서 있는 미국 대사 존 헌츠맨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대사관 대변인 리처드 부앤건은 즉시 성명을 내서 헌츠맨이 그 당시에 그의 가족과 함께 “우연히” 시위 현장에 있었다고 강조했다.<sup>35</sup> 그렇지만, 헌츠맨이 첫 번째 시위 전부터 그의 공식 웨이보 계정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을 인용할 정도로 중국의 검열 정책에 대해 완전히 비판적이었던 점이나, 두 번째 시위 이후에는 중국 정부가 시위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고” 대놓고 비난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성조기 문양의 상의를 입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우연히 거기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외교를 가장한 의도적인 내정간섭으로 보인다. 게다가, 헌츠맨은 스티븐 올린스 미중관계 국가위원회 의장의 인터뷰 요청에 응해 2012 년 5 월 23 일 뉴욕 인터뷰에서 집회 당일날 집회가 열릴 것을 알았으며 집회 장소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고서를 쓸 구상까지 했음을 인정했다. 보다 심각하게, 중국 자스민 혁명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웹사이트나 트위터를 통해 외신 기사를 인용해서 미 대사의 시위 현장 등장을 민주주의를 위한 전지구적 연대의 메시지로 퍼뜨렸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초국가적으로 조직된 중국자스민혁명단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중국 자스민 혁명의 처음 세 번의 시위 장소에는 카메라를 든 전세계 외신 기자들이 기꺼이 잠복하고 있었다. ATV, BBC, 텔레그라프, ZDF, VOA, DPA 등의 열정적인 주재원들은 두 번째 시위 때 왕푸징에 나타났고, 그 중 몇몇은 얻어맞기도 했고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불법적으로 감금되기도 했다.<sup>36</sup> ‘양회(two sessions)’라는 암호명으로 많은 대학생들을 끌어모은 3 월 5 일의 세 번째 시위에서는 대대적인 감시 하에 엄중한 경호가 따라붙었다. 상해에서는 일본 기자 몇

---

<sup>34</sup> Gilian Wong, "Voices behind China's Protest Calls" (2011), [http://www.huffingtonpost.com/2011/04/06/voices-behind-chinas-protest-calls\\_n\\_84592](http://www.huffingtonpost.com/2011/04/06/voices-behind-chinas-protest-calls_n_84592)

<sup>35</sup> AFP, "US Envoy Coincidentally at Beijing Rally Site"(2011), <http://sg.finance.yahoo.com/news/US-envoy-coincidentally-afpsg-908170934.html?x=0>

<sup>36</sup> 장난, 「베이징을 점거한 외신기자들」 (2011), <http://www.voachinese.com/content/article-20110227-foreign-correspondents-beijing-targeted-117006718/778564.html>

명과 뉴욕대학교 스티븐 경영대의 재니스 부기우카스가 경찰에 의해 인근의 지하실에 끌려가서 3 시간 동안 갇혀 있기도 했다.<sup>37</sup>

더 심각하고 불행한 사건도 연이어 발생했다. 『포린 폴리시』가 3 월 1 일자 기사에서 자세하게 보도했듯이 북경과 상해에서 시위에 참여한 6 명 정도의 행방이 묘연해 졌다. 행방불명자 대부분은 란윤페이, 화춘취, 덩마오, 천웨이를 포함한 인권운동가, 변호사, 민주화 운동가들인데 그들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 자스민 운동에 대한 소식을 알리곤 했었다.<sup>38</sup> 그들은 “국가 권력을 전복”시키려 했다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수감되었다. 2009 년에 「인터넷 인권 선언」을 작성해서 사상범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던 란윤페이(현재 @ranyunfei 계정으로 73, 102 명의 팔로워가 있음)는 중국 자스민 혁명 2 주 전 즈름 블로그에 글을 하나 기고했다. 그 글에서 그는 별 생각 없이 여유롭게 살고 싶지만 “양심상 단순히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나라에 사는 덕에 “정부와 제도를 비판함으로써 나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자유로운 인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sup>39</sup> CDTimes 트위터 계정은 그 글을 영어로 번역했고, 거기에 의거해서 「중국의 인권」지와 타임지는 맨손으로 중국 정부의 가혹한 “강력탄압”에 맞서는 온건한 지식인상을 만들어 냈다.<sup>40</sup>

다른 한편, 암네스티 인터내셔널과 중국인권수호협회 등의 시민단체들과 외교관들, 서방 정부들은 중국 정부의 철권정치에 의해 숙청당한 정의롭고 온건한 운동가들과 2011 년 2 월부터 최소한 6 월까지 국내 언론에서 보이지 않거나 지워졌던 그들의 목소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수감자들에게 동조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수감자들과 북경 정부 사이의 “공정한” 중재자 혹은 정치 브로커의 역할도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Molihua.org 는 중국 자스민 혁명 당시 혁명과 연관이 있건 없건 간에 체포됐거나, 행방불명됐거나, 수감된 시위자들과 운동가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체포된 영웅들」이라는 새로운 칼럼을 게재했다.<sup>41</sup> 특히, 칼럼은 2011 년 4 월 세금 탈루 의혹이 있던 아이웨이웨이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피해자들”의 “나무랄 데 없는” 리스트는 인권 단체와 초국적 미디어에게 반론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을 제공했다. 혁명단은 의도적으로 리스트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연속체’의 형태로 작성했는데, 한 쪽 끝에는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의지가 강한 집단을 다른 쪽 끝에는 가장 독재적이지만 허약한 집단을 포진시켰다.

<sup>37</sup> "German Correspondents Detained in Shanghai for 3 Hours" in Deutsche Welle (2011), <http://news.backchina.com/viewnews-130128-gb2312.html>

<sup>38</sup> Renee Xia, "Missing before Action" (2011),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03/01/missing\\_before\\_action](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03/01/missing_before_action)

<sup>39</sup> 란윤페이, 「나의 2011 년 자성」 (2011), <http://www.bullogger.com/blogs/ranyunfei/archives/374782.aspx>

<sup>40</sup> Austin Ramzy, "China's Jasmin Revolution Crackdown Shows No Signs of Easing"(2011), <http://www.bullogger.com/blogs/ranyunfei/archives/374782.aspx>

<sup>41</sup> 중국 자스민 혁명단, 「체포된 영웅들」 (2011), [http://chinajsm.blogspot.com/p/blog-page\\_05.html](http://chinajsm.blogspot.com/p/blog-page_05.html)

그 와중에, '만리장벽'과 함께 한층 더 강화된 검열은 중국 자스민 혁명이 중국 본토에서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가상공간에서 재빨리 증발하도록 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중국 민요에 등장하는 무해한 단어였던 자스민은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장소에서는 물어서도, 말해서도, 소지해서도 안 되는, 가시처럼 가능한 빨리 없애고, 뽑아내야 할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만리장벽' 외부에서는 molihua.org 와 트위터를 통해 중국자스민혁명 선언과 간디의 전략(행진하거나 구호를 외치지 않고 일주일에 한번씩 웃으며 걷는 전략), 동맹 단체의 장소 및 암호명, 비밀 조직, 비밀 전언 등이 공개되고 유포되어, 중국 민중의 극심하게 악화되는 생활환경이나 무자비한 시위자 탄압에 대해 항의하는 '내부화된 외부'의 세력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그들의 자칭 공식 웹사이트에는 보다 양심적이지만 보다 덜 격앙된 어조로 다듬어진 Charter08 교리가 강조하는 "우리는 먹고 싶다. 우리는 살고 싶다.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일당독재체제를 끝내고 검열을 종료시키자"라는 혁명적인 슬로건이 올려져 있다. 2011년 3월 7일과 8일의 가상 질의응답 기간의 선언문에서는 중국 자스민 혁명단의 핵심 멤버들이 중국 사회의 세 가지 거대 독소를 통렬하게 지적했는데, "안정이 없고, 화합도 없으며, 중국은 언제나 불안정성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지점에서 내가 중국 자스민 혁명단의 착각이라고 부르는 것이 감지된다. 바로 중국 자스민 혁명(혹은 미소 캠페인)은 - 이집트와 리비아 혁명과 달리 - 의도적으로 조직된 가장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저항 행위였다는 것이다. 그 시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심각한 화약고와도 같은 다수의 사람들을 선동하도록 기획되어서 진짜 혁명이었다면 예측불가능하게 촉발되어 자칫 바이러스처럼 통제 불가능하게 되어 전 지구로 퍼졌을지도 모른다.<sup>42</sup> 중국 자스민 혁명 멤버들은 경건한 척 하며 해외 단체, 기구 및 외국 정부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대부분의 국내 시위자들이 자발적으로 뛰어나와서 민주주의를 위해 이성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모순이다. 외르케쉬 윌레, 왕 단, 1989년 시위 주동자들, 20명 이상의 중국 민주당원 출신의 해외 망명자들은 노골적으로 기회를 틈타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확장되지 않았지만 대만, 홍콩, 뉴욕에 근거지를 둔 명백하게 '외부화된 내부'와 연결된 아고라나 시위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중국 자스민 혁명 선언서의 내용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다른 한 편, 초국적 매체들은 2011년 3월부터 연말까지 개인 블로거들과 함께 중국의 즉각적인 붕괴를 꾀하는 반 중국공산당 운동을 은밀히 조직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당과 국가는 어느 곳에서 일어날지 모를 혁명의 불길을 진화하기 위해 "6521 그룹이라는 고도의 특수 훈련 부대"를 창설함으로써 정부의 "과민성"을 증명했다.<sup>43</sup> 그와 동시에 중국 공산당은 내부 안정이라는 명분하

<sup>42</sup> 중국 자스민 혁명단, 「중국 자스민 혁명에 대한 질의응답」 (2011), [http://www.molihua.org/2011/03/blog-post\\_08.html](http://www.molihua.org/2011/03/blog-post_08.html)

<sup>43</sup> William Dobson, "Why Are Dictators Always So Sensitive?" (2011),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post-partisan/post/why-are-dictators-always-so-sensitive/2011/03/23/AB0Qa7JB\\_blog.html](http://www.washingtonpost.com/blogs/post-partisan/post/why-are-dictators-always-so-sensitive/2011/03/23/AB0Qa7JB_blog.html)

에 모든 반정부 시위를 “천안문 사태와 이에 대한 강력 규제의 프리즘을 통해서”라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고수했다.<sup>44</sup> 게다가, 외신들은 당과 국가가 정부의 무능과 권력남용, 정보 오용에 분개하는 중국의 다수 민족층[한족]을 지배하는데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완전히 자리잡은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권력 독점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sup>45</sup> 요약하자면, 중국은 당과 국가가 체제를 유지시키기엔 지나치게 “역동적이고 변동적”이어서 예측컨데 가까운 미래에 작은 마을이나 대도시에서 사건 하나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져나갈 것”이라는 것이다.<sup>46</sup>

이런 상황에서, 2012 년 초에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민주 혁명 로드맵”의 4 단계 접근법이 완전히 구체화되어 발표됐는데, 반정부 세력의 강화, 2 차 천안문 캠페인, 위계질서의 분쇄와 개편,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원탁회의가 그것이다.<sup>47</sup> 로드맵에서 주목할 만한 비직관적인 특성은 중국 중산층과 엘리트들에 대한 비판인데, 그들이 내재적인 지적 우월감으로 인해 민주 혁명을 단순부정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다른 글에서도 다뤘지만, 중국 자스민 혁명은 눈부시지만 생명력이 짧은 중산층의 집단적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서발턴에 대한 가슴 속 연민으로 “착각에 빠진 분노한 젊은이들의 반항”<sup>48</sup>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혁명단은 하층계급을 계획된 혁명의 명분에 참여시키는데 성공하지 못 했는데, 대부분의 서민들, 즉 중국의 중하층민들은 예정된 시위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구경꾼이 되는 것을 선호했다. 그런 면에서, 혁명단과 그들의 동조자들은 인민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정치 체제의 작은 변화”가 중국을 단독적으로 “내부적 무질서의 심연 속으로” 끌고 갈 것<sup>49</sup>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오싷한 알레고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스민 혁명단은 (중국 트위터 서클을 위시한) 중국의 엘리트들이 언젠가는 혁명의 명분을 완수하기 위해 중산층과 대다수 빈곤층, 양측을 계몽하고, 교육하고, 선동하고, ‘선도할’ 것이라는 굴종적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sup>50</sup> Molihua.org 가 서방 매체에서는 이미 유명해진 아이웨이웨이와 리천평, 왕리홍, 보순 웹사이트를 2011 년 중국 자스민 혁명의 영웅들로 선정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중국 자스민 혁명의 구성원들이 혁신의 기쁨 속에서 증명한 것은 ‘공유된’ 민주화의 시물라크림일 뿐인 것이다.

<sup>44</sup> Dale Swartz, "Jasmine in the Middle Kingdom" (2011), <http://www.aei.org/article/foreign-and-defense-policy/regional/asia/jasmine-in-the-middle-kingdom/>

<sup>45</sup> Jong Quiggin, "China's Imminent Collapse" (2011), <http://nationalinterest.org/commentary/chinas-imminent-collapse-5880>

<sup>46</sup> Gordon Chang, "The Coming Collapse of China" (2011),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12/29/the\\_coming\\_collapse\\_of\\_china\\_2012\\_edition](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12/29/the_coming_collapse_of_china_2012_edition)

<sup>47</sup> 콩링시, 「중국민주혁명 로드맵」 (2012), <http://www.molihua.org/2012/01/bl>

<sup>48</sup> Wu, "Micro-blog and the Speech Act," 61.

<sup>49</sup> Andrew Jacobs, "Where 'Jasmine' Means Tea, Not a Revolt," April 2 (2011), [http://www.nytimes.com/2011/04/03/weekinreview/03jacobs.html?\\_r=0](http://www.nytimes.com/2011/04/03/weekinreview/03jacobs.html?_r=0)

<sup>50</sup> 콩링시, 「중국민주혁명 로드맵」.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자스민 혁명단이 칭찬하고 혁명의 일원으로 포함시킨 영웅적 행동가들은 공공연하게 혁명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혁명을 코웃음치고 경멸했다. 왕성하게 활동하는 정치평론가로서 2011년 5월에 무소속 후보로 선거 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했던 리천평은 그의 블로그나 웨이보에서 중국 자스민 혁명에 대해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보순의 설립자인 웨이시는 2011년 2월 2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자스민 혁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밝혔다. 왕리훙은 그녀의 트위터에 “산책을 하다가 잡히거나 희생되는 것이 뭐가 대단한가”라고 독설을 퍼부었다.<sup>51</sup> 정말 이상하게도, 아이웨이웨이의 경우, 첫 번째 중국 자스민 혁명 시위 바로 직후에 트위터에 새로운 계정들이 대량으로 등장해서 혁명을 옹호하는 트위터 사용자들에 대해 악의적인 글들을 무더기로 올리고 배후 조종을 하는 것은 아이 웨이웨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아이웨이웨이는 곧 자신과 시위가 무관하다고 밝히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2011년의 첫 번째 시위 이후 중국 자스민 혁명단이 중국 정부에 대한 허위 경보를 올려 왔음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서방 국가들에게도 꺼져가는 불꽃이 되어 버렸다. 수없이, 혹은 그보다는 적게 실행된 집회와 시위들과 함께, 대 중국 자스민 혁명은 몇 번의 개별적이고 무의미한 중국 자스민 시위로 쪼개지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 기업 연구소는 중국판 아랍의 봄인 중국 자스민 혁명을 “비참한 혁명”이라 평했다.<sup>52</sup> 그렇지만, 대대적으로 선전된 중국 자스민 혁명,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결국은 실현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 과장된 원맨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탄생한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즉, 아랍의 봄이 야기한 도미노 효과, 중국의 “정치 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해외 미디어와 비정부 단체들의 희망찬 기대,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에 착수한 중국에서 크게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계급적 갈등, 트위터를 통해 형성된 작지만 단호한 중국 젊은이들 집단, 반정부적인 사회적 집결을 요구하는 그들의 발화적인 혹은 발화적인 효과까지 있는 행위, 사회안정과 인터넷 검열을 담당하는 알튀세르적인 억압적 국가 기구, 이 모든 것들의 복합체인 것이다.

실제적으로 중국 자스민 혁명은 미국 정부와 유럽 국가들, 외신들, 1989년 [천안문] 운동의 잔여인사들, 인권단체들의 견고한 동맹의 결과였다. 그들에게 중국 자스민 혁명은 중국 공산당의 독재에 대한 대중적인 혐오감을 외부에서 내부로 촉발시키는 많은 방법들 중 하나였을 뿐이다. 깨지기 쉬운 동맹의 구성체들은 트위터의 피그말리온 효과를 극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몇몇’ 비공식적으로 연계된 이들은 스스로가 ‘수많은’ 자국민들에게 존경받는다고 착각하고는 미국을 휩쓴 신보수주의와 보편주의의 조류에 휩쓸려 가면서 트위터랜드에 가상적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sup>51</sup> @wlh8964 (2011), <https://twitter.com/zhaomeinv/statuses/486430895223603>

<sup>52</sup> Swartz, "Jasmine in the Middle Kingdom."

그러나, "혁명적인" 중국 트위터 서클의 구성원들은 중국 자스민 혁명에 대해 침묵하거나 "중국 자스민 혁명은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익살극이자 모방, 장난질"(@zuola, 2011), 혹은 "그냥 거창한 플래쉬몹"(@mozhiyu, 2011)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sup>53</sup> 그들의 무관심한 태도에도 중국 자스민 혁명 조직원들의 열정은 꺼지지 않았다. 근원적으로 중국 트위터 서클과 중국 자스민 혁명의 구성원들을 구분 짓는 것은 그들의 민주주의 투쟁에 대한 다른 사상과 접근 방식인데, 그들의 사회경제적 출신 배경의 차이로 인해 중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판단은 분화된다. 중국 트위터 서클에게 있어 중국 자스민 혁명은 민주주의로 가는 합리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길에 등장한 비주류적인 소소한 일탈로, 조류가 밀려오기 직전의 불필요한 물보라처럼 다소 성급하고 미성숙한 사회 활동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중국 자스민 혁명은 중국의 진보적 엘리트 트위터 사용자들이 사랑할 수 없었던 작은 꽃봉오리로서 혁명 조직원들이 인민의 대의명분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무관심하게 방치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혁명은 젊은 혁명 조직원들의 순수하고도 지속적인 관리 하에 초국적 연합체의 계산된 물질을 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혁명의 봉오리는 자생 영양분의 결여로 인해 피지도 못 하고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다.

### **충칭 드라마인가 충칭 모델인가?: 보시라이의 몰락과 행동적인 진보 연합의 쇼**

중국자스민혁명단과 중국트위터서클 간의 극렬한 의견차에도 불구하고, 한 때 활발하던 두 인터넷 디아스포라 집단은 중국에서의 민주화 명분을 선전하기 위해 초국적 매체들과 연합했다. 그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면에서 모택동 이후의 중국을 전제주의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에 복속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들은 보통의 중국인들 대다수를 "교화"시키는 "신성"한 임무를 떠맡기를 필연적으로 자청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그들은 앞의 사건들에 대해 자기들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인민들에 불만을 표하고 경멸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립서비스를 하며 하층민들에게 다가가려 했는데, 이런 방식은 실망스럽게도 수포로 돌아가곤 했다. 중국 자유주의자들과 기층민들 사이에는 부정할 수 없이 정치적 목표에 있어 완전한 간극이 있는 것이다.

의미심장하게도, 중국 정치계에서 떠오르는 슈퍼스타이자 초국적으로 연계된 엘리트 계층의 멤버이기도 했던 보시라이는 중국에서의 30 년간의 경제개혁이 초래한 신자유주의적 시장화가 분명해 지는 것을 감지하고 2007 년부터 충칭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중국 진보주의자들의 "먹고 싶고, 살고 싶고, 정의를 원한다"는 구호가 일반인들에게 통하지도 않을뿐더러 내실없는 주장이고

---

<sup>53</sup> Wang, "CTC and Social Activities."

사회적 마케팅의 꿈수이며 완전한 허위임이 드러난 것과 달리, 충칭모델은 평등한 분배를 목표로 피기득권 계층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효율적인 제도를 시행했다. 충칭모델은 “확장된 공공 영역”을 포함해서 한편으로는 (이주민들을 위한 값싼 임대주택 제공, 주택 가격 단속 등의) 개선된 사회복지, 다른 한편으로는 “당-국가 관료들, 민간사업체, 범죄자들이 한데 엮인 권력”에 대항해서 좌 편향으로 법과 질서 체계를 재편하는 캠페인을 추진했다.<sup>54</sup> 보시라이와 그의 충칭모델은 대대적으로 그의 예전 기득권층 동료들의 이익을 위협하고 사회참여 지식인들과 엘리트들의 공포를 불러일으켰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서구의 물신숭배에 도전했다. 따라서, 충칭모델이 처음부터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던 중국진보주의자들과 외신들의 극렬한 이중적 반발에 부딪히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내부의 외부화’ 연합의 형성은 중국 내의 트위터인 시나 웨이보의 급부상에 기원하고 있다. 2009 년에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중국에서 금지된 탓에, 중국 트위터 서클의 멤버였거나 아직도 멤버인 대부분의 중국 진보주의자들은 일제히 웨이보로 갈아타고 그들의 투쟁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웨이보는 중국의 검열 정책으로 인한 제한된 공간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와 비교해서 로그인보다 간편하기 때문에 정부에 곧바로 내리꽂을 수 있는 단도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게다가, 그들은 웨이보로 트윗함으로써,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목표로 초국적 매체와 전지구적으로 결탁해 중국을 민주화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기대치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보시라이 사건을 통해 세계는 이 유명하고도 복잡하게 기획된 드라마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이 드라마는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 우파 학자, 법조인, 언론인과 초국적 반공 매체 및 해외 누리꾼이 긴밀하게 결합해서 반 보시라이/충칭 운동을 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012 년 2 월 6 일, 충칭 공안국장이었던 왕리훤이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으로 피신해 정치적 망명을 꾀한다는 글이 웨이보에 갑자기 올라와 삼시간에 퍼졌다. 그 물결 효과는 중국 정치권에 전례 없이 극적이면 서도 관음증적으로 전복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내가 2012 년 2 월부터 7 월까지 추적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보면, 웨이보는 분산되고 분절된 음모 이론들, 드라마들, 이야기들, 반보시라이 구호, 지식인층이 꾸며낸 설들, 언론 보도들이 조명되고 재조명되는 축제와도 같은 현상으로 변했다.

3 월 초까지, 웨이보권은 소문을 통해 퍼진 방대한 분량의 폭발적이고 견잡을 수 없는 업데이트들, 추측들, 루머들, 허위사실들, 가십들로 혼잡했다. 들뜬 웨이보 이용자들은 브리콜라주 작가가 되어 초국적 매체들(주로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과 해외 중국인 웹사이트들의 온갖 보도 내용들 및 당 기관지에서의 왕리훤과 보시라이에 대한 보도 은폐를 둘러싼 연결되지 않는 기사 내용들을 각색하고, 결합시키고, 넌지시 풍자하고, 모호하게 뒤섞어서 점차 현대 중국에 대한 궁

---

<sup>54</sup> Zhao, "Struggle for Socialism";

정 혁명의 전경을 조각조각 맞춰나갔다. 그럼에도 왕리쥘과 보시라이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가려져 있다. 대부분의 진보주의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보시라이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속의 지배적이고 사악한 악당인 반면, 왕리쥘은 다이하드 시리즈의 존 맥클레인 역을 맡아 절박하게 보시라이의 보복을 피해 밤새 운전해서 달아나는 외로운 영웅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보순과 에포크타임스를 위시한 몇몇 반정부 외국 웹사이트들이 2 월부터 가끔씩 중국 내에서 차단이 해제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한편, 보시라이를 비판해서 체포되었던 적이 있는 타쿱오 지의 기자인 지앙웨이핑과 같은 금지어들이 바이두에서 검색 가능하게 되어 “더 많은 소문들이 중국으로 흘러들어 가게 하는 채널”<sup>55</sup>로 작용했다. 일시적인 “언론의 봄” 하에서, 중국 공산당, 초국적 매체들, 중국 사이트들, 소셜 미디어, 중국 내의 시장에 기반한 언론 내부의 분파들 속에서 어떻게 정보가 흐르고 아젠다가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국 내외의 그러한 세력들이 일괄적으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은 확실하다.

2012 년 3 월 14 일의 전국인민대회 폐회 기자회견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충칭 모델을 문화혁명에 빗대 그의 비판의 수위를 암시적으로 높였다. 원자바오의 발언은 근거도 없이 편파적인 웨이보 이용자와 대치되었는데, 그들은 3 월 9 일 충칭 대표단이 전국인민대회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악마와 싸우고 권력에 타협하지 말라”는 보시라이의 문화혁명식 슬로건에 반대했다. 원자바오를 따라서 우파 지식인들과 법조인들은 충칭 모델에 대한 그들의 비판을 강화하고 수위를 높이기에 적합한 근거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창홍타흑[창홍다헤이] 운동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법을 짓밟는 충칭 당국에 대한 추문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신화 통신이 보도한 충칭 정부의 빛이 5 조 위안에 이른다는 3 월 20 일 기사를 지속적으로 포워드했고, 이에 따라 애플 데일리, MASTV, 에포크데일리는 기사를 재보도했다. 진보적 엘리트들은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의 리더십을 저울질하며 보시라이와 충칭 모델을 분쇄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공론을 형성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3 월 24 일 카이징 지의 양하이핑과 난팡주말의 추차오신은 동시에 왕리쥘과 보시라이가 영국 사업가 닐 헤이우드의 암살과 연루되어 있다고 웨이보 세계에 폭탄선언을 했다. 이틀간 로이터,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BBC, 가디언 등 모든 외신이 영국 외무성이 새로이 중국 정부에 헤이우드 사건을 면밀히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다수의 유명 웨이보 사용자들은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린 ‘외국’ 지푸라기라는 비유를 들어 사건을 확대 재생산했다. 따라서, 관심의 초점은 선형 사슬의 형태로 나타나서 “헤이우드 -> 보구아구아 -> 구카이라이 -> 왕리쥘 -> 보시라이”로 전개됐다. 각 개인들의 연결고리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어서 “추측/ 외신의 계략/ 인터넷 마녀사냥”의 보다 파생적이고 주제가 있는 형태, 보다

---

<sup>55</sup> Wang, "Rumour Machine," 13-14.

정확하게는 거대한 보시라이 일가를 쓰러뜨리려는 교차되거나 병행하는 사슬을 복잡하게 형성했다.

머지 않아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중앙 위원회와 정치국에서 보시라이를 축출하기로 결정했다는 4월 10일 자정의 CCTV 보도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약간은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뉴스였다. 공식 보도, 인터넷 상에서의 악소문들, 트위터에서의 입증되지 않은 메시지들, 해외 중국인 사이트, 초국적 매체 보도가 마침내 화려하게 조우하는 순간이었다. 외신의 초점은 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암살된 헤이우드와 그 암살의 혐의를 받는 보시라이 일가를 둘러싼 보다 상세한 사정과 주요 쟁점으로 전환되었는데, 즉 내연의 관계, 숙청된 보시라이와 그의 아내, 특권층의 화려한 라이프스타일, 아들인 보구아구아의 영향력있는 인맥관계, 보시라이 부부와 친척들의 확대된 부에 관한 것이었다. 보시라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레미 페이지)과 텔레그래프 지는 가장 눈에 띄게, 지칠 줄 모르고 추문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영어 기사를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진보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은 처음으로 거의 검열당하지 않고 웨이보에 그 기사들을 다양한 언어로 올렸다.

9월 이후, 당 기관지는 점차 초국적 루머 기구를 대신해 왕리진과 보시라이에 대한 공식판결을 알리는 소문의 유일한 근원지가 되어<sup>56</sup> 정치적 결합과 안정을 헛되이 꾀하며 예정된 당 의회의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썼다. 그런 와중에 왕리진과 보시라이는 당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형사범으로 간주되었고 보시라이가 낙마하자 국내의 진보 매체들은 보다 기세등등하게 충칭과 전 충칭시 당서기를 비난했다. 2012년 9월 24일 왕리진이 15년형을 선고받은 후, 난팡주말과 같은 계열사인 난두주간이 12월에 「왕리진 때리기」라는 특집호를 발행하면서 선풍을 일으켰다. 보도는 왕리진의 성질을 죽이는 방법, 그의 행동방식, 그와 보시라이 일가와 친밀한 연대와 이후의 갈등, 헤이우드 암살 사건과의 연루 정도를 세밀하게 다뤘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난두주간의 보도문이 기자들의 접근이 일반적으로 용이하지 않았던 기밀문서를 통한 재판 과정의 특정 사항은 공개했지만, 거기에 충칭의 서민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점이다. 난두주간이 보도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궁금해 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한편으로 보면, 웨이보에서 짜집기된 충칭 드라마가 끊임없이 초국적, 더 나아가 전지구적 반보시라이/충칭모델로 변전되는 동안, 자신들을 적과 구분짓기 위해 모택동과 문화혁명, 빨갱이, 혹은 충칭을 슈미트주의적 기술어로 바꾸는 국내의 진보 논리로 인해, 충칭모델을 근절시키고 지옥의 들끓는 불구덩이 속으로 추방시키려는 온라인 상의 수사학적 열의와 노력은 보다 더 가열되어, 진지하게 시작된 토론은 인터넷 문화혁명에 버금가는 무시무시한 싸움과 도발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발견되는 아이러니는 진보주의자들과 그들의 수많은 추종자들이 인터넷에서 혼란

---

<sup>56</sup> Zhao, "Struggle for Socialism."

혹은 무질서한 광란을 초래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보시라이를 무너뜨린 진보주의자들의 승리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적인 좌파 언론과 여론 탄압에 기반한 것”<sup>57</sup>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다른 한 편, 진보여론과 함께 익명을 요구하며 주된 정보유출지로 활약한 중국공산당 지도부 내부의 고위관리들이 초국적 매체들에게 제공할 풍설을 지어낼 때, 진보주의자들은 외신의 원본 기사를 재구성하고, 재단하며, 재생산해서 이를 웨이보를 통해 유포함으로써, 파렴치하게 뒷방정치 혹은 3 월 15 일[시저 암살일]이라 불릴만한 음모를 정치적 투명성, 민주화와 반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요구로 전도시켰다. 이 양 갈래의 흐름은 국내 여론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대전환시켜서 보시라이의 몰락을 촉진시켰고 중국 정치에 대한 초국적 연합 세력을 가시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진보주의자들에게는 민주주의의 반의어가 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표현은 자오가 언급한 것처럼 웨이보에서 시작된 축제의 “거대한 혼합물 속에 실제적으로는 부재”해 있었는데, 이 부재가 바로 “그 풍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다.<sup>58</sup>

1930 년대 스탈린 시대에 트로츠키가 “무장 구성된 소비에트 귀족과 맨손으로 고통 받는 민중 간의 갈등으로 분열된 노동자 국가 체제 하”에서 “관료제가 권력을 남용하는 형태로 특권을 누릴” 때를 “소비에트 테르미도르”라고 부르며 분석<sup>59</sup>했던 것과 유사하게, 충칭모델의 뒷배경은 당/국가가 양심도 없이 “부르주아, 도시 중산층, 공무원, 국영기업 고용인”<sup>60</sup>을 쇠신된 국가 이념의 새로운 기반으로써 시장개혁과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로 점진적으로 편입시키려는 계획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칭모델의 중대성은 이러한 뒷배경에 반대함으로써만 제대로 평가될 수 있고, 초국적 담론 연합의 구성과 연합의 충칭모델에 대한 맹공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충칭 사건은 중국의 발전상에 대한 당 지도부 내에서의 입장 차이와 커져가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 발생했고, 대부분의 외신에게 있어 그 갈등은 보시라이가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재진입하는 여부를 판가름하는 지렛대였을 뿐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충칭 당국이 주창한 사회적 평등과 이와 연계된 계획들은, 왕샤오광이 “중국 사회주의 3.0”이라고 부른 충칭의 5 대 정책으로서, 시장 독재주의에 대한 야심찬 수정을 표방하고 있었다. 시장 독재주의는 인민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허울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게 있어 그야말로 ‘악의 꽃’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후원하는 친구인 자본가 집단에게 날리는 강력한 일격과도 같았다. 말하자면, 충칭모델은 우연히 나타난 특이한 정책이 아니다. 충칭모델의 친인민 재분배 정책은 초국적 담론 연합에 의해서만 공

---

<sup>57</sup> 같은 글.

<sup>58</sup> 같은 글.

<sup>59</sup> Leon Trotsky, *The Revolution Betrayed* (New York: Pathfinder Press, 1972), 277-

<sup>60</sup> 『China Worker』, 「중국: 탄압 혹은 개혁?」 (2011), <http://chinaworker.info/zh/content/news/1507/>

유되거나 분해되는 배가 아닐 뿐더러 연합에 의해 버려지는 쓰레기나 보시라이의 대담한 정치적 출세제일주의를 실현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저평가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중앙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지방정부가 위로부터 정치적 각광을 받아서 공산주의 혁명 전통과 사회주의 유산을 복원하고, "중국 언론학에서 사실상 잊혀져 가고 있던 문구"<sup>61</sup>였던 계급 의식과 노동자-농민 연대의 주체를 재개하고 재구축함으로써 제 3의 길인 정치, 경제적 헤테로토피아를 건설하고, 자본주의에 포위당한 것과 진배없는 상태에서 사회주의적 현대화를 꾀한 필사적인 시도였던 것이다. 충칭모델은 바로 초국적 연합이 가장 꺼려하던 것이었다.

### 확장되는 초국적 담론 연합: 중국의 꿈인가, 아니면 누구의 꿈인가?

자스민 혁명부터 반보시라이 캠페인까지, 민주화를 위한 트위터상에서의 게릴라전부터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에 대한 공공연한 저항까지, 구글 옹호부터 난팡주말 시위까지, 외신, 외국단체, 서방정부들은 언제나 중국 국내 문제에 간섭하고 이를 초국화함으로써 중국을 전지구적 민주화 물결에 가담시켜 왔다. 초국적 담론 연합체는 외부적으로는 미국 정부, 초국적 기업체, 외신 기자들, 인권 단체들로, 내부적으로는 국내 진보 기자들, 언론인들과 사회참여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전자게시판, 블로그, 트위터, 트위터의 복사본인 웨이보를 통해 스스로를 "다언어를 사용하는 전지구적" 부르주아 "집합체의 일부로 인식"<sup>62</sup>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성향의 관료들로 구성된다. 전술한 네 가지(와 그 이상의) 사례에서 그들은 제 5의 칼럼니스트라 할 만한 상호지원적인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해 중국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꿈을 도모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의 초국적 연합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그들이 부정하고 경멸하는 전체주의와 같은 것이다.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언론의 자유와 자율 시민사회를 위한 요구는 지금까지 "역사적이고 전지구적인 총체성으로 여겨지는 현대성의 포괄적인 원칙이 되어"<sup>63</sup> 왔다. 더 큰 아이러니는 중국 진보주의자들이 중국 공산당이 역사적으로 공고히 해 온 '인민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슌페터와 토크빌이 말하는 "다수의 독재"로 인식해 중국을 혼란이나 반계몽주의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게다가, 위 사례들에서의 초국적 연합은 중국의 미래를 어떤 임의적인 형태의 공적 영역이나 자유 언론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그들은 민주주의 개혁이 경제 개혁, 특히 공산주의의

<sup>61</sup> Yuezhi Zhao, "For a Critical Study of Communication and China," i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4 (2010), 549.

<sup>62</sup> Dan Schiller, "Rosa Luxemburg's Internet?" i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7 (2013).

<sup>63</sup> Jacques Rancière, *Hatred of Democracy* (New York: Verso, 2009), 12.

전 세계적 붕괴와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연합은 신자유주의적 발전이 실제적인 “사회적 조건의 악화” 원인 중 하나로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소득 분배에서의 불평등과 대다수의 빈궁화”<sup>64</sup>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푸쿠야마주의자들의 “중산층 사회”를 위한 갈증이 배후의 계급 착취라는 정치적 경제원칙을 인식하지 못하는 초국적 연합에 정서적 반항을 일으켰을 때, 모택동 치하의 중국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견고한 기반이었던 영광스러운 노동자-농민 연합은 서발턴 계급으로 축소되어 시민 평등권으로 대체된 인민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로 대체된 인민에 의한 지배와 함께 근/현대화의 필요 비용으로 인식되고 말았다.

전능하고 극악무도한 국가권력을 모든 문제의 “장본인”으로 돌리는 것이 초국적 연합의 정치적 경향인데, 그들은 하층계급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거나 경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려는 모든 노력들에는 절대적으로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초국적 연합이 당/국가에 급진적으로 반기를 들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언제나 단일적인 투쟁을 계속하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수호할 뿐”<sup>65</sup>인 고급 클럽이 되어 버릴 수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의문이 남게 되는데, 그들은 누구를 대변할 것이고 대변할 수 있을까?

**번역: 이윤종 (<문화/과학> 편집위원)**

---

<sup>64</sup> Samir Amin, "The Arab Revolutions, A Year After" in Pambazuka News (2012), <http://pambazuka.org/en/category/features/80745>

<sup>65</sup> Rancière, Hatred, 48.

---

# **Inside–out and Outside–in: The Making of a Transnational Discursive Alliance in the Struggle for the Future of China**

**WU CHANGCHANG\***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

Witnessing the political changes in Eastern Europe and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from the late 1980s till 1990s, Francis Fukuyama exclaimed in his prophetic book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that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 world “will be divided between a post-historical part, and a part that is still stuck in history”(1992:276). A post historical era is ideally defined by a Kantian international alliance based on “the need for democratic states to work together to promote democracy” (281) and global peace. Since the new century, it has been a common belief that the Internet and other new media are providing people in the Middle East, Africa or Latin America with unprecedented possibilities in their pursuits of liberty and democracy.

No wonder, then, that China is supposed to be included in the social media-driven democratization trend. Early in Tiananmen Square movement 1989, the transnational ally had emerged and functioned. Since protests in April 1989, many established intellectuals and students leaders have relied on a “sympathetic international media”, to “promote their messages” (Zhao, 2001:30). At the end of May 1989, citizens in Hong Kong spontaneously launched fundraising in support of protestant students in Beijing, while after June4 suppression, famous “man-versus-tank Beijing street scene” was fossilized by the transnational mainstream media into a “perfect signifier” (Zhao,2008:4), also an iconic young man in pursuit of democracy and freedom in an authoritarian China. This image has established the tone for the transnational media in reporting protests in China. In the meantime, the fugitive intellectuals and student leaders got financial support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associations, democratic NGOs and western governments, and thus

organized the China Support Network and China Alliance for Democracy. Those veteran human-rights activists overseas grew into influential anti-CCP dissidents, and stepped into the spotlight in the western countries in the 1990s. It turns out that nowadays this transnational alliance is more like a struggling underdog which has fallen into disfavor, merely passers-by on the stage but still trapped in its history, seeking for reenactments of the resplendent past.

With the deepening of neo-liberal economic reforms, "a reconstituted and transnationally-linked capitalist class" (2008:345), as Yuezhi Zhao analyzed, has already come into play in the communicative struggles over the future directions of China's transformation since the mid of the first decade of the new century. This "entrenched iron triangle ruling class bloc" is made up of China's globally integrated state managers, newly enfranchised capitalists, their media and intellectual supporters. They quickly rally "around the objective of social containment" against the popular classes or anti-neoliberal alliance, while pressuring the leadership to "hold back on any radical reorientation of the reform process" (2008:351) and to build hype for its primary economic and then political demands. Tacit collusion between the vested interest group and its middle class followers in supporting further market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embracing the global capitalist integration, should be taken quite seriously.

More recently, a transnational discursive bloc— consisting of liberal journalists, public intellectuals and lawyers— has emerged. Beginning with the Google withdrawal event, their ability to hijack the internet-sphere of BBS, Blog has become highly efficacious. Then, they took Twitter and the recently emerging Microblog to be the favored platform for anti-governmental social mobilisation, culminated in the 7.23 train accident of 2011 and the Bo Xilai storm in 2012 (Zhao, 2012; Wu, 2012). Chanting the slogans of universalism,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members of this growing transnational discursive alliance take themselves to be or have no qualms about being called as "liberals", and have doggedly launched a virtual war against left-leaning online voices over fundamental issues concerning socialism, market or political reforms. The prolonged and trans-national war, more like an unevenly-structured play that has ostensibly both its loyalists and imprecators, aims at winning over the hearts and minds of the majority of Chinese netizens.

In fact, the alliance finesses their anti-government polemics in a language not so arcane and complicated as to be comprehensible to the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especially China's middle class and young college students. In other words, this transnational discursive bloc acts as

“word (or idea) warriors” who, reversely quoting Sartori’s argument, “well knows that in the end what sticks are names, not the demonstrations or explanations given for them”, and what they can do is to “coin epithets and repeat them incessantly”, in an attempt to “short-circuit thinking”(1987:482).

In this article, I present four case studies of this transnational discursive alliance in action. It describes how the transnational coalition gradually comes into being in each case, analyze the influence it has had on the Chinese politics, and domestic public opinion. Toward the end of the article, I will offer a critique of this alliance’s claim to democracy and reveal its compositions, class orientations and limitations.

### **From Google’s Withdrawal from China to Pro-Nanfang Weekly Protests: Inside Out or Upside Down?**

In early 2010, Google staged a high profile withdrawal from the Chinese market and presented it as an act of defiance against China’s intolerable censorship. The act brought into the global spotlight that China is a non-democratic state where people cannot enjoy their right to freedom of speech. Significantly, echoing Google’s message, some Chinese netizens and Google users voluntarily gathered at Google’s Beijing headquarters, to tribute flowers and candles in mock mourning for Google’s departure from China; three years later, in a similar episode – but this time it involves a domestic media outlet – hundreds of people assembled outside the headquarters of Nanfang newspaper office to lay flowers and show their respect and support for journalists and editors whose New Year message had been castrated by Guangzhou propaganda officials.

On January 13 2010, David Drummond, Google’s chief legal officer, posted A New Approach to China on Google’s official blog, indicating that Google is quitting China, for they “have evidence to suggest that a primary goal of the attackers was accessing the Gmail accounts of Chinese human rights activists”(2010). Later on, Google said that two schools were involved in the recent targeted phishing assaults: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and Lanxiang, “a huge vocational school that was established with military support and trains some computer scientists for the military” (Markoff, 2010).

Google’s allegation reverberated immediately from the U.S. to liberal opinion-leaders in China. In the U.S. and global public arena, then-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vocally condemned

Chinese Internet censorship and Obama quickly backed her up through presidential spokesman Bill Burton one day later. For their part, transnational media outlets such as BBC, Reuters, The Financial Times [FT] and The Wall Street Journal [WSJ] all hailed Google's decision as a bold act in defiance of Chinese state censorship and cast Google as a democratic fighter. The uniform position of the US business, political and media establishment was immediately taken up by vocal liberal voices inside China. Google's self-positioning as no longer "doing the dirty work for Chinese dictatorship", encouraged a young generation of Googlers to struggle for freedom of speech. It is hard to confirm whether or not Google and the U.S. business, political and media elites had sponsored or promised celebrities bloggers in China to boast of its integrity. However, the mainstream transnational media did focus on the human-rights activists' great repercussion and the Chinese Googlers' revolt and their "legitimized" indignation, and the furious pro-Google Chinese in turn leveraged those foreign reports to boost their own position, thus turning themselves an inside-out and bottom-up discursive force.

Influential Chinese public intellectuals and journalists quickly rallied behind Google after its bombshell announcement. Indeed, Evan Osnos, the Beijing correspondent of the New Yorker, claimed in his online column "Letter from China" that "barely any of them would actually believe that Google's withdrawal would be a healthy development for China" (2010). Furthermore, those "journalists" or "public intellectuals" despised the ordinary people for being indifferent about Google's quitting or not sharing their perspective on the case. Han Han, one of the most influential young writers in China and an celebrated public intellectual, wrote in a widely circulated blog article: "Google maybe overestimates or expects too much the Chinese netizens who place less value on freedom, truth and justice than picking up 100 RMB on the road" (2010). In a typical intellectual vanguardism, he saw the Chinese people as being more obsessed with their real estate pursuits or even cyber-game gadgets than universalistic ideals. A famous female reporter from Phoenix TV, Rose Luqiu hoped via her blog that the Avatarian Google and its flinging away could have initiated those "without faith or believing only in money", a strong innuendo about China, to be aware that "no concession should be made as far as principles are concerned" (2010). Here, the assumption is that while the "faith" in and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 are what Rose and her likeminded fellow journalists and liberal intellectuals hold dear, they are alien to the rest of the Chinese population.

Echoing the sentiments of domestic liberal elites, cyber-protests flourished inside and outside

China. Twitter users reacted aggressively to Google's withdrawal by putting the hashtag #GoogleCN in front of their updated tweets, and soon Google became the hot issue around the Twitter-sphere. Portal sites and large BBS within China (Sina, Sohu, Tianya) were inundated with tubthumping posts, comments and messages yelling "Don't go, Google!", "No one sleep tonight because of you, Google!", "Please stay, my far-flung friend, Google!" Then a signature petition for retaining Google was launched, whilst posts were sprouting about how to search those politically-sensitive contents through Google (Washeng, 2010). Ironically, these discussions transmuted into a fandom/cult online bicker centering on the efficiency of search and the user-friendliness of Google versus Baidu, its Chinese competitor. For their part, Google fans poured accusations against Baidu and its ignominious role as an agent of thought control for the Chinese government in exchange for commercial profit and even comprehensive monopoly in China in a "Google, Pure Man" over "Baidu, Real Charlatans" dichotomy. These Google fans denied themselves as clients for Google, while remaining hyper-vigilant about the allegations online against them that they had served as accomplices to the foreign hostile forces, and thus resolutely denouncing the conspiracy theory as the product of Spartanism, parochial nationalism or even great-power chauvinism. Moreover, commentators such as Phoenix TV's Anthony Yuen and Prof. Jin Canrong from Renmin University of China who questioned Google's motive were severely condemned as despicable (Tiger, 2010).

Protests continued. The passionate and chivalrous pro-Google youngsters, since the morning of January 13, 2010, partly organized through Twitter, had assembled to lay floral bouquets, candles even bows in front of Google's office in the Tsinghua Science Park in Beijing, with reporters from the Los Angeles Times, TVB and Ta Kung Pao in HK present as an expression of solidarity with them. Attached to bunches of flowers were many reverently handwritten poems, messages and cards, including "HTTP 404 Page Not Found: in accordance with local laws and regulation, some wishes are not displayed". Later, they were widely circulated and lavishly acclaimed through the Chinese social media. The first Chinese "flower campaign" quickly spread to other cities, encouraging pilgrimages to Google's office in Beijing, Shanghai. Several pilgrims sent out real time updating tweets or pictures disclosing what they had seen and heard. Correspondingly, the WSJ, which had tracked the Chinese netizens' commemoration for Google, reported in a January 14, 2010 article that employees at Google's Guangzhou branch "hadn't received any flowers from Chinese Web users" (Ye, 2010). Soon, some Twitter users (@baofan) posted the address of Google's office in Guangzhou in both Chinese and English, and tweeted the

appeal for flower tributes to Guangzhou (2010).

Nevertheless, when online calls for flower tribute were responded in the real world, misfortune struck. The flowers were swiftly removed by security guards, who admonished that visitors should apply for official permission; otherwise it would be an "illegal flower tribute" (Osno, 2010). The expression from one unknown guard caused an instant sensation and became another catchphrase online. On January 14, 2010, Radio France Internationale (RFI) revealed that "the Central Publicity Department had forbidden the print media to make in-depth reporting on the Google event while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had urged websites to delete all the pictures or posts about flower bestowal" (Cao, 2010). On the contrary, many sources from Google+, GTalk, and Twitter emerged inadvertently to justify RFI's authenticity, proving in a sense that Baidu and Sina Blog or Weibo, where articles and comments containing keywords "Illegal Flower Tribute" or about Google China "suddenly became unavailable for viewing" (Brad, 2011), had been drastically filtered and castrated. Against it, Twitter users fought tenaciously. Twitter account @CDTimes, created by Prof. Xiao Qiang from Berkeley, provided translations of the tweets, and the most quoted ones came from @ jason5ng32, condoling on "living an era of truly distorted values" (Brad, 2011).

Three online surveys were carried out around January 13, 2010, hosted respectively by Global Times (GT), Nanfang Weekly (NW) and iFeng. The different results, poll options, in addition to the differentiated political positions of the three media outlets, not only testify "the multifaceted and contradictory nature of media commercialization and globalization" in China, but also reflect the coexistence of a multiplicity of "public spheres" which constitute a "complex of sometimes overlapping, sometimes antagonistic, discursive field" (Zhao, 2008:327-328). GT, always the target of Chinese liberals for its pro-government editorials and pacifying reviews in Weibo account, at 4pm launched its web-based survey with two items, one of which was "do you think China should accept Google's requirement that the company's Chinese business functions without censorship?". Till 8pm, "not accepted" outvoted "accepted" with a margin of nearly 60%. But after that, with one anonymous user on a fixed IP address registering as many as 6000 "accepted" votes, the earlier count favoring "not accepted" was turned upside down. Asserting that the poll was persistently under malicious attack from multiple and changing IP addresses, GT's technology department cleared out 3,000 fake votes. In stark contrast to the uncontaminated result of GT, the polls launched by NW and iFeng, both demonstrated that Google's stay would be an overwhelming

preference of a majority of web-users (iFeng, 83.6%, deleted now). Furthermore, these users were inclined to credit Google's quit as irrelevant to itself (NW, 44.79%), implicitly laying the blame on the Chinese government. Hundreds of unsolicited sensational and provocative comments were posted below the NW questionnaire: "There is a kind of justice that is called withdrawal. Not Google retreats from China, but rather China retreats from the world", "Google is not forced to leave, but China is abandoned", or more frankly "I prefer Bing to Baidu" (NW, 2010).

Until the early hours of March 23, 2010, the official announcement was updated by Google Headquarter, claiming that they couldn't "continue censoring their results on Google.cn"(2010). Then, Google had redirected all search queries from Google.cn to Google.com.hk. Later, "bone brother" (homonym for Google's Chinese name), countering "Goodog" and (fire) "Wall Culture", invented by savvy netizens who parodied all the peculiarities of official rhetoric, amounted to extolling the glory and fortitude of Google. Chongqing Evening News produced an article A Story of Goo-pigeon's Migration on March 27 (BBC, 2010), a hybrid of Wikipedia-style simulant with colorful argots signifying Google's removal to HK. Out of the debates online was born Goojie, a bits-and-bites copycat site featuring a similar logo to Google with its Chinese names roughly translated in English as "elder sister of Google" (Brad, 2011). Goojie quickly gained fame not only in foreign media outlets such as BBC, Reuters and Sueddeutsche Zeitung, but also in domestic media, which had long since been banned from reporting the Google affair.

With cyber-protests finally, it appeared, about to end, no one would then have predicted that the same flower tribute campaign would happen again three years later. At the end of 2012, there appeared the post in Weibo-sphere that New Year's Editorial for NW Dreams of China, Dreams of Constitutionalism had been withdrawn by Tuo Zhen, Director of the Propaganda Department of Guangdong Party Committee without agreement by all the editors. Soon, the liberal reporters, public intellectuals forwarded and reviewed the message via their own Weibo account, arousing strong repercussions among the vast majority of web users. However, most of web users did not know the whole truth. Even so, they circulated the related posts to support NW. It not only stirred up an online barrage towards Tuo, the Propaganda Department and its censorship, but as well initiated another offline flower-tribute action. As a result, since the end of last year, punctuating Weibo from start to finish are steadfast proclamations for "breathing the air of freedom", speeches of exhortation, and pictures of flower donation and confrontation with policemen on the scene. A quintessential example of posts is the one linking floral tribute for Google to flower action for NW,

"After Google flower action, (free speech on the) Web retrogressed greatly; After NW floral campaign, (freedom of) the Press stepped backwards" (3dlinux, 2012).

As can be expected, mainstream transnational media provided extensive coverage of the NW episode as the latest manifestation of a black and white struggle for press freedom in China. However, it was widely understood inside the NW that the decision to withdraw the editorial was actually made by the self-censored NW editor-in-chief Huang Can, rather than being forced upon by Tuo Zhen. This fact, however, was deliberately ignored by outsiders who construed an Orwellian scenario of Party/state stretching its diabolic claws to the single most liberal newspaper in China. The word "Google" in those metaphors, slogans or activities in the Google Withdrawal event 3 years ago, now could be easily replaced by NW, as if freedom or democracy, like an enriched and all-round signifier, referred to different signified or found its incarnations in different contexts. If the Google Withdrawal Event held the transnational discursive bloc together in embryonic form, then the NW incident marked in a sense the inside-out collaboration between foreign media and domestic liberal leaders, especially after their unprecedented discursive collaboration in the downfall of Bo Xilai (Zhao, 2012; Wang, 2012) and in light of their attempt to influence the newly-installed CCP leadership under Xi Jinping. NW, inside China, now, while Google, outside China, then, both served to produce symbolically a dichotomy — Google/NW is to democracy what China is to authoritarianism.

### **What a Dangerously Beautiful Jasmine Flower! The Unfinished Web-based Flower Revolution or Random Flower Rallies?**

If Google's storm aroused Chinese netizens' passions for free communication and pushed them to boycott China's digital Panopticon, then Twitter-initiated and (overseas) web-dependent Jasmine Revolution was meant to engender the Chinese version of the Arab Spring. To be sure, the Chinese leadership was determined to keep China immune to the democratic contagion sweeping other parts of the world. The CCP Propaganda Department warned Chinese editors that they could "only use news dispatches by the official Xinhua News Agency" (Lam, 2011:3) in their reporting of the uprisings in the Middle East. However, this did not prevent mobilizations for a Chinese Jasmine Revolution (CJR).

In fact, analogies were quickly made in the "Chinese Twitter Circle" (CTC) "between events in Cairo and the rise and fall of demonstrations in Tiananmen Square" in 1989. For instance, Teng

Biao, the liberal activist-lawyer, when seeing the video of a lone Egyptian protester standing before a truck, swiftly wrote on Twitter, "Must see! Egypt's Tiananmen movement, a warrior blocks a military vehicle!"(Osnos, 2011) Let me first explain CTC. Since Twitter was banned in September 2009, many domestic Chinese Twitter users only found proxies to log onto it. They were composed of the IT elites, lawyers, public intellectuals and rights activists (Wang, 2010) who were mainly male, middle-aged, well-educated and living in relatively good conditions. It was through series of rituals (crossing the "Great Firewall" [GFW], criticizing the government) that the Chinese Twitter Circle gradually come into being. CTC was a more radical and larger-scale cyber-group, with its own political grandiosity and performative acts online. It first saw the potential of the global social media Twitter, and seized the opportunity to build up a closely-tied, civilian cyber-community, share value orientations, common emotions and ideological predispositions, and more profoundly, to turn online mobilisation into offline social actions within China. Many members of CTC had accumulated abundant experience with organizing, mobilizing and participating varieties of safeguarding rights activities, and grown into influential opinion leaders and public intellectuals. No wonder, then, that CTC gained recognition and sponsorship from the western states, media, corporations and NGOs. Several western state leaders had even officially met or invited some of them to attend the high-profile public events (Wang, 2010).

Consequently, it is undoubtedly logical that CTC after the Arab Spring would seize the moment and lead the CJR online. However, the CJR that erupted on February 17 2011, was not initiated and organized by CTC members. That day, a Twitter user @mimitree0 posted a tweet, "The date for the first assembly of the Chinese Jasmine Revolution has been set on the afternoon of 20 February 2011; the meeting places in major cities nationwide will be announced in advance on Boxun website" (He, 2011). After forwarded thousands times, the tweet was salvaged by Ding Xiao, a journalist in Free Asia Radio, and was made into a message. Then, tweets with tag #cn220 spread like wildfire throughout Twitter and other website overseas. A long article calling for revolutionary which quickly had a formal Wikipedia entry CJR, was issued on the U.S.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sponsored Boxun website two days later. After that, Hua Ge, a Columbia University graduate in classics, together with an anonymous man, started the website Molihuaxingdong.blogspot.com which was very soon redirected to molihua.org, with a new Twitter account molihua\_org releasing the meeting places of CJR. Unlike CTC, the CJR group, which appealed for protest and called itself "The Initiators and Organizers of CJR", was a "network of 20

mostly highly educated, young Chinese with eight members inside China and 12 in more than half a dozen other countries” (Wong, 2011).

Despite information blockage by the GWF, on February 20, the McDonald’s outlet in the central Wangfujing shopping district, one of the first 13 meeting places, actually attracted only a few tech-savvy protesters, but with more than 100 foreign media including Time, Reuters and AP on the scene. It made the first rally appear overwhelming; nevertheless, most of the people gathering in the zone had been curious and gratified spectators of the rally. To exaggerate the spectacularity of the scene, Taiwan’s Liberty Times newspaper even deliberately chosen an image of immigrant workers holding Jobs & Careers placards and published it. In addition, what those foreign media focused on was the heavy police presence—— which purported to create domestic tension, but they ignored the fact that police force ensured the rally ended without violence.

Furthermore, Chinese web users, for their part, posted photos and a video of US Ambassador Jon Huntsman standing at the scene. Embassy spokesman Richard Buangan, sensitive of potential charges of intentional US interference in Chinese domestic affairs, immediately stressed that Huntsman was then “coincidentally” there with his family (AFP, 2011). Even though, given the fact that previous to the first rally, Huntsman was thoroughly critical of Chinese censorship, quoted Hillary Clinton’s speech on freedom of internet in his official Weibo account, and after the second rally, he openly denounced the Chinese government for “roughing up” the people at the scene, his presence, dressed in a jacket with U.S. flag on it, was more an intentional foreign intervention, using diplomatic cachet, than a coincidental show-up. Moreover, in May 23 2012, Huntsman accepted the interview from Chair of National Committee on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Stephen A.Orlins in New York, and admitted that he had knew there would be an assembly that day, and planned to show up and sought to understand the situation first and then to write a report (Zijin, 2012). More significantly, that CJR members would have disseminated the message of the US ambassador’s presence in a Chinese political protest, quoted the foreign media reports about it via their website or Twitter accounts as a manifestation of global solidarity for democracy is itself a telling manifestation of the transnationally coordinated CJR.

Besides, lurking at the possible places of the first three rallies of CJR were, much to the glee of, the camera-wielding journalists all from overseas media. The enthusiastic correspondents for ATV, BBC, Telegraph, ZDF, VOA and DPA emerged at Wangfujing for the second rally and several were seen being hauled off or unlawfully detained but without real abuse (Zhang, 2011). The

third-round action on 5 March, codenamed Two Sessions and drawing college students, was under omnibearing surveillances, stalked by heavy security. In Shanghai, several Japanese reporters and Janis Vougioukas from Stern were taken away by the police to a nearby basement and kept for almost 3 hours (DW, 2011).

More severely, disasters struck, as the whereabouts of several activists remained unknown. Most of them were human rights activists, lawyers, and pro-democracy dissidents including Ran Yunfei, Hua Chunhui, Ding Mao and Chen Wei, and had spread news about CJR via Twitter (Xia, 2011). They got imprisoned and charged with “subverting state power” or “deliberately spreading falsehood”. Ran Yunfei (@ranyunfei with 73,102 followers by now), who once drafted Declarations of Human Rights Online in 2009 and was thus blacklisted as thought-criminal, posted nearly two weeks before CJR, a blog article. In the article, Ran stated his willingness to be an otherwise leisurely and carefree citizen thanks to living in a country where he could not “in good conscience merely live such a life”, and highlighted “criticizing the government and the system is to be a free person to fight for my own rights” (2011). CDTimes translated the article into English, and based on it, Human Rights in China and Time magazine profiled a moderate intellectual bare-handedly fighting against heavy-handed “crackdown” by Chinese government (Ramzy, 2011).

On the one hand, against the story of righteous and temperate veteran activists swept out by the iron fists of Chinese government, and their voices invisible or erased from the domestic media from February to at least June in 2011, advocacy groups Amnesty International and China Human Rights Defenders, diplomats and western governments expressed their serious concerns, and willingly acted as an sympathetic agent for those detainees, and further as an ‘impartial’ political broker between them and Beijing. Correspondingly, Molihua.org opened up a new column Detained Heroes listing all the arrested, missing even imprisoned dissentients or activists during CJR period, whether related to CJR or not (2011a). Especially, it paid extraordinary attention to Ai Weiwei who had been taken into custody for tax evasion in April 2011. The ‘unimpeachable’ lists of ‘victims’ prepared the incontrovertible evidence for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transnational media; and thus they purposely crammed the lists into a continuum from past to future, with the most democratic and libertarian societies on one end, and the most authoritarian but vulnerable societies on the other.

Meanwhile, the GFW and more tightened censorship made CJR quickly evaporate within cyberspace as if it hadn’t existed at all in mainland China; Jasmine, an otherwise unhazardous

word from the world-famous Chinese folk song, had then been a thorn in the Chinese government's side. It was to be banished as much as possible: don't ask, don't tell, and even don't hold it in public. However, from outside the GFW were published and widely circulated the CJR manifesto, the Gandhian tactics (taking a walk with smile once a week, no marching or chanting), places and codenames of the follow-up allies, cell organizations and covert communications, via molihua.org and Twitter in an effort to forge an outside-in force to remonstrate against the increasingly deteriorated living conditions of the ordinary people in China, and merciless suppression of protestiniks. In its self-proclaimed official website, the revolutionary slogan was highlighted, "We Want to Eat, We Want to Live, We Want Justice, End One-party Dictatorship, Terminate Censorship", a more-scrupulously but less-vociferously refined version of Charter08, the political manifesto that had called for liberal democracy in China. In their declarations during a virtual Q&A session on 7/8 March 2011, the CJR core members poignantly pointed out three social megatoxins persuasive in China, "there is no stability, no harmony and China is always being on the verge of destabilization". Thus what I call CJR Delusion was created: CJR (or smile campaign)—not Egyptian or Libyan revolution—was determinedly identified to be the most efficacious and appropriate act of defiance; it was built over such long periods to critical mass, a flashpoint that a real revolution would then ignite unpredictably, like viral, expanding uncontrollably and globally (2011b). More paradoxically, CJR members sanctimoniously denied any connections with overseas organizations, institutions and foreign governments, stating that most domestic participants just voluntarily walked out and acted rationally for democracy. However, Örkesh Dölet, Wang Dan, leader of 1989 movements and over 20 exilic China Democracy Party members opportunistically and blatantly joined in the then-not-yet expanding but evidently inside-out linked agora or protests in Taiwan, Hong Kong and New York. It did render the CJR pronunciamento untenable.

On the other hand, from March till the end of 2011, transnational media together with independent blogs commenced the anti-CCP chorus orchestrating China's imminent collapse: Party/state had set up a "special high-level task force called the 6521Group" to extinguish possible flames of revolution sparked anywhere and it attested the regime's "hypersensitivity" (Dobson, 2011); at the same time, CCP conventionally viewed any protest "through the prism of the Tiananmen demonstrations and subsequent crackdown"(Swartz,2011) and it was its typical approach to internal stability. Furthermore, those foreign media questioned whether or not

party/state, facing a menace to its domination from the core ethnic population who resented its government malfunction, power abuse and misrepresentatives, would "maintain its monopoly on power in a fully developed market economy" (Quiggin,2011). In sum, China was much too "dynamic and volatile" for Party/state to hang on, and in the near future, whether a small village or big city, an incident would expectedly "get out of control and spread fast" (Chang, 2011).

Reciprocally, a "Chinese Democratic Revolution Road Map" was profusely crystallized on its official website at the very beginning of 2012, and delivered as a four-step approach: the greatness of an opposition, the second Tiananmen campaign, smashing and reshuffling the hierarchy and last the round-table session for constitutional democracy(Kong,2012); of more peculiar but somewhat counterintuitive importance is its critiques on China's middle class and elites for their inherent intellectual superiority and thus simplistic negation of democratic revolution. Instead, CJR concentrated on the deprived class and their "eating", "living" rights. It is fair to say that CJR was rather an "illusory young angry rebellion" with heartfelt subaltern sympathy, than a brilliant but ephemeral collective performance of middle class as I discussed elsewhere (2012: 61). However, it had not successfully mobilized the lower classes in China to participate in the scheduled revolutionary cause: most of the ordinary people, much less China's middle class, did not appear in the appointed rally places or preferred to be onlookers. Then, in a certain degrees, people's "doing nothing" or their aloofness to CJR, made the CJR and its supportive allies' chilling prediction all-too implausible that "any change in the political system" would solely throw China "into the abyss of internal disorder" (Jacobs, 2011). Nevertheless, CJR somehow subserviently pinned its hope on the Chinese elites (including CTC members) who would enlighten, instruct, mobilize and lead both the middle class and the poor majority someday to complete the revolutionary cause (Kong, 2011). So, it made sense that Molihua.org nominated Ai Weiwei, already the darling of western media, Li Chengpeng, Wang Lihong and Boxun web for 2011 CJR heroes. It added up to a simulacrum of shared democratization, with CJR members solely reveling in renovative bliss.

Ironically, the heroic activists the CJR members celebrated to be their vanguards either overtly distanced themselves from CJR or pshawed and pished over it. Li Chengpeng, a vigorous writer, commentator once running for office as an independent candidate in May 2011, had never mentioned CJR in his blog or Weibo; Wei Shi, founder of Boxun, in his interview with VOA on 25 February 2011, clarified that he knew nothing about CJR; Wang Lihong, in her Twitter account,

acrimoniously doubted, "what's wrong with being caught or sacrificed for taking a walk" (@wlh8964, 2011). As for Ai Weiwei, what was really weird was there abruptly emerged en masse new accounts in Twitter right after the first CJR rally, heaping up malicious words against Twitter users who favored CJR and vowing that it was Ai Weiwei who pulled strings from behind the scenes. Soon, Ai posted a tweet, disassociating himself from the event.

Since the first rally in February 2011, CJR had turned out to be a false alarm to the Chinese government, and a dying-out sparkle to the foreign media and western countries. With a handful or less actually turning up and protesting, the imagined grand Chinese Jasmine Revolution was eventually divided into several separate random Chinese Jasmine Rallie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simply judged the China's version of the Arab Spring's Jasmine Revolution was "an abject failure" (Dale, 2011). Even so,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domino effect the Arab Spring has generated, the hopeful expectations of Chinese "political reforms" or "democratization" in overseas media and NGOs, the increasingly intensified social and class conflicts in neo-liberal marketized China, a small but determined cohort of young Chinese and their illocutionary or even perlocutionary acts for anti-governmental social mobilization via Twitter, and China's maintaining stability policy and censorship system, intertwined to manufacture the much hyped CJR, to be exact, an eventually one-man show with indeed a kind of impracticality and rhetoric aggrandizement.

Tellingly, U.S. government and European countries, foreign media, the left-over of 1989 movements, human rights associations, were solid allies to CJR. For them, CJR was only one of the many ways to outside-in instigate a popular aversion to CCP domination. It is within the context that we could understand why the first three allies have become the libertarian carnivals of overseas media in support of the persecuted democratic martyrs in China. Also, the fragile Ally members were inclined to dramatize the Pygmalion effect of Twitter: several informally networked people mistaking themselves for the ones highly expected by many domestic people; and living virtually in the same Twitter-land, they were running together towards a convergence with liberal democratic discourse prevailing in the U.S.

However, the "revolutionary" CTC members stayed calm towards, or more critical about CJR: "CJR is a ridiculous farce, a copycat and a prank" (@zuola, 2011), or "it is just a big flash mob"

1

(@mozhixu, 2011) . Even their dispassionate manner did not slake the CJR members' enthusiasm at all. What essentially distinguishes CTC and CJR members, due to their dissimilar socioeconomic backgrounds and thus divergent assessments of where China is heading next, lies in their different ideas, tactics of struggling for democracy: CTC's directly confronting the governments, participating and organizing the rights protection activities within China, or CJR's consistently embarking on flash-like rallies or non-violent demonstrations from outside. For CTC, CJR was a more or less hot-headed and immature social activity, just like a minor but referential deviance to its rational and elitist road to democracy, and thus an unnecessary spooondrift before sea tide came.

All in all, CJR, the small blooming bud which the twitterized liberal elites in China could not love, even only looked on indifferently just as they treated the people's real cause, was yet calculatedly irrigated by the transnational coalition, and under unalloyed and constant care from CJR young members. Finally, this revolutionary bud would be doomed to wither away before blossom, for its lack of endemic nutrients.

### **Chongqing Drama or Chongqing Model? Bo Xilai's Fall and the Performative Liberal League's Show**

Despite the vehement disagreements between CJR and CTC members, those once-shining cyber-diasporas both allied with the transnational media to promote their democratization cause in China. In a way, democracy they strongly believe in is the one bound up with the logic of capitalist market that would have liberated post-Maoist China from authoritarianism. Necessarily, they assume the "sacred" job of "enlightening" the majority of the Chinese ordinary people. In most events as mentioned above, they were discontented with, even disdained the people for their not so active behavior as expected. However, many a time did they appeal to the lower classes with paying lip-service to the idea of resolving the eating and living problems; to their disillusionment, those mobilizations were always brought to naught. It is often undeniable that between the political aims of the Chinese libertarians and the deeper popular demands there has been an all but complete disjuncture.

Significantly, Bo Xilai, an once-rising political rock star in China who had been the member of the transnationally-linked elite class, has sensed the naked neo-liberal marketization produced by

---

1 Thanks Wang Wei, my colleague, to share her unpublished research into CTC with me.

the 30 years of economic reforms, and thus developed the Chongqing Model since 2007. Contrary to the Chinese liberals' appeals of "want to eat, want to live, want justice" which did not truly reached the ordinary people and turned out to be a hollow claim, fraudulent social marketing, or worse, a bald-faced lie, Chongqing Model aimed at dividing the cake equally, and ensured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rotecting the basic rights of the disenfranchised: it included "the enlarged public sector" and the improved social welfare(e.g. cheap public rental housing for immigrant workers, house prices under control) on the one hand, and focused on the left-leaning law and order campaign against "the intertwined forces of party-state officials, private businesses, and criminals" on the other (Zhao,2012; see also Cui,2011; Huang, 2011). In large part, Bo and his Chongqing Model undermined vested interests of his past allies, provoked panic among the public intellectuals and elites, and challenged the western democratic fetishism. Therefore, it is hardly surprising that Chongqing Model has encountered with fierce oppositions from Chinese liberals—foreign media duo which from the onset had not laid hopes on socialism.

The making of the inside-out coalition relied on the rising of the domestic Twitter, Sina Weibo. For Twitter and Facebook were banned in 2009, most of Chinese liberals who were and now are still CTC members, en masse took Weibo for the vocal support of protests in China. Compared to Twitter, Weibo, notwithstanding a sharply-circumscribed space due to the capillaries of China's censorship system, is more convenient to directly log onto and is therefore adopted as a sharp dagger to stab immediately into the government. Furthermore, the same goal for democracy locates them globally with transnational media, wittingly or unwittingly, collaborated to twitterize Weibo, democratize China and dampen down expectations on socialism.

During the Bo Xilai Event, the world has witnessed a famously twisty plotted drama where a Communist leadership, right-wing scholars, lawyers and correspondents, and anti-Communist transnational media and overseas observers intimately allied to launch anti-Bo/Chongqing campaign. On February 6 2012, emerged abruptly in Weibo one post exploding Wang Lijun, former police chief in Chongqing, fled to the U.S. consulate in Chengdu for asylum. Its ripple effect for Chinese politics as a whole proved to be unprecedentedly dramatic and voyeuristically subversive. Based on what I had tracked and collected online from February to July 2012, Weibo had almost become a carnivalesque-machine, staged and restaged by dispersed and fragmented conspiracy theories, dramas, sagas, anti-Bo chorus, voices of neo-liberalism, intellectual fabrications, media stories.

Till Earlier March, Weibo-sphere was congested with vast array of explosive and rampant updates, conjectures, rumors, lies and gossip through the grapevine. Miscellaneous reports from transnational media (mainly New York Times, WSJ) and overseas Chinese websites, and their textual discontinuities with Wang and Bo's invisibility in party organs, prompted Weibo-users, as thrilled bricoleurs, to adapt, insinuate, incorporate, blurrily mix and gradually to piece together a panorama of palace coup in contemporary China. Then truth about Wang and Bo, still remained hidden in plain sight. In most liberals' stories, Bo was described to be a domineering and sinful villain in Hollywood blockbuster, while Wang was entrusted with the role of John McLane in the Die Hard series, a lone hero who fled driving overnight, desperately vowing vengeance against Bo. Remarkably, some anti-China foreign websites including Boxun, Epochtimes, since February, have been unblocked intermittently within China, while several taboo words such as Jiang Weiping, a

journalist for Ta Kung Pao who had once been arrested for criticizing Bo, could be searched through Baidu, only to provide "a conduit for more rumors to flow into China"(Wang,2012). It was nearly impossible to figure out, beneath the temporary "Speech Spring", how information flowed and agenda set among fractions inside CCP, transnational media and Chinese sites, social media and domestic market-driven press. But those forces inside or outside China, collectively worked out a post-modern Normandy Landing-style tale.

At his press conference at the closing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meeting on March 14 2012, then Premier Wen Jiabao allusively toned up his criticism on Chongqing Model by pointing to the Cultural Revolution. Wen's remarks was tenuously and biasedly counterposed by Weibo users against Bo's Cultural Revolution-stylistic slogan "Struggle with Devils, Do Not Compromise with Power" at a press conference on 9 March held by Chongqing delegation at the NPC. Echoing Wen, right-wing intellectuals and lawyers found more justified to intensify and upgrade their critiques on Chongqing Model: muckraking and crusading against the dark side of Strike Black campaign and Chongqing authorities themselves trampling on the law; frequently forwarding a 20 March report on Chongqing Government debts of up to 500billion RMB by Xinhua Agency, then reprinted by Apple Daily, MASTV and Epochtimes. It appeared that liberal elites leveraged Hu-Wen leadership to create an overwhelming public opinion of squashing Bo and Chongqing Model.

There was more yet to come. On March 24, 2012, Yang Haipeng from Caijing Magazine, and Chu Chaoxin for NW simultaneously dropped a bombshell down onto Weibo-land that Wang and

Bo must have got involved in murdering a British businessman Neil Heywood. In two days, Reuters, WSJ, FT, BBC, and the Guardian, all reported on the British Foreign Office having recently urged the Chinese government to re-scrutinize the Heywood case. Later on, numerous celebrities Weibo-users reproduced and highlighted the case, metaphorically exclaiming the foreign straw that broke the domestic camel's back, and hence a linear focused chain "Heywood→Bo Guagua→Gu Kailai→Wang Lijun→Bo Xilai" emerged: the link between each person was causal not casual, in a more thematic, derivative fashion of "speculation/foreign media framing/witching hunting online" complex to comprise, more accurately, interlocking or parallel chains to shoot at the giant Bo families.

What would come, would come in due time. It was supernormal even a little horripilating that the decision to ostracize Bo from the Central Committee and its Politburo was broadcast on CCTV-News channel in the midnight of April 10. Thus the official notification, rumors around internet-sphere, uncorroborated messages in Twitter, overseas Chinese sites and transnational media reports, ultimately and spectacularly met. For foreign media, focus had to be resolutely shifted from power struggle inside CCP to finer details or key issues around the murdered Heywood and the suspected Bo families: affairs, scandals of the purged Bo and his wife, the privileged and flashy lifestyle and influential social networks of his son Bo Guagua, the widening wealth of the couple and their relatives. WSJ (Jeremy Paige), and Telegraph which previously stayed silent on the Bo event, were the most two indefatigable and prominent muckrakers. Liberal opinion leaders who could access and read the English reports, for the first time translingually posted all those reports onto Weibo, without being too much censored.

After September, the party organ has gradually replaced the transnational rumor machine to become the only source of official verdicts on Wang and Bo (Zhao, 2012), in a vain attempt to create an apparently political cohesion and stability, and to add cheer to the then-upcoming party congress; meanwhile, as Wang and Bo were subsumed under the title of criminal offense and violation of party disciplines, domestic liberal media could more rightfully condemn Chongqing and the former Chongqing government officials when Bo was definitely down. After Wang was sentenced to 15 years on September 24, 2012, Nandu Weekly, affiliated with NW to the same group, made a splash by publishing the special issue Raking up Wang in December 2012 reverentially detailing how Wang was tempered, his acting style, close ties to and then conflicts with Bo and his family, and to what degrees he got involved in Heywood case. However, it's worthwhile to note

that, ordinary people in Chongqing remain absent in those reports, while some trial particulars come from confidential sources which usually are not possible for reporters to gain access to. One wonders how NW got to access these reports.

On the one hand, during the Weibo-based collage of Chongqing drama and its evolving into a ceaseless transnational even global chorus of anti-Bo/Chongqing Model, the enthusiasm online the endeavor to exterminate or banish Chongqing Model to the fire-bubbling pit of hell in rhetoric aroused, owing to the dominant liberal logic, turned Mao Zedong, Cultural Revolution, Red or Chongqing into the Schmittist descriptors for differentiating themselves from the enemy; so that, an otherwise serious discussion got into a brawl, or provocation, tantamount to a formidable Web-based Cultural Revolution. But the irony here is not only that it is exactly liberals themselves and their vast number of followers who created a stir or an anarchic frenzy online; but also that "their victory in quashing Bo relied on the Chinese state's massive clampdown on leftist media and communication" (Zhao,2012).

On the other hand, senior officials inside CCP leadership who expectedly required anonymity, as the fundamental sources, along with the liberals' reviews, made up the central parts of stories for transnational media, and in turn, liberals renarrated, tailored, reproduced, and disseminated via Weibo those original reports and insider information, thereby impudently to invert backroom politics or Ides of March into a common demand for political transparency, democratization and thus anti-Socialism. The bidirectional flow had "revolutionized" the climate of domestic public opinion, to a certain extent precipitated Bo's downfall, and signified the power of the transnational political and discursive alliance on the Chinese politics. Nonetheless, the struggle for socialism, the word that was set to counter democracy by Chinese liberals, as Zhao commented, had been "actually absent from the great *mélange* of " the Weibo-driven carnivals, which exactly constituted "the most crucial part of the story" (Zhao, 2012).

Similar to what Trotsky analyzed as "the Soviet Thermidor" in the 1930s of the Stalin era, when "the bureaucracy enjoys its privileges under the form of an abuse of power" , but "upon the basis of a workers' state torn by the antagonism between an organized and armed Soviet aristocracy and the unarmed toiling masses"(1972:277-279), the background story of Chongqing Model is that Party/state unapologetically embraces the project of market reform and integration into the global capitalist system, and hence "bourgeois, urban middle class, civil servants and employees in state-owned enterprises"(China Worker, 2011) as a new basis for the increasingly

renewed state ideology.

So only against this background can one judge the importance of Chongqing Model, and comprehend the making of the transnational discursive alliance and its fierce attacks on this model. On the personal plane, it highlights differences within party leadership around the development path for China, and thus the growing internal conflicts: for most of the foreign media, it is nothing but the leverage for Bo Xilai to re-enter into the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On the practical plane, social equity Chongqing authorities advocate and related initiatives, or what Wang Shaoguang called "Chinese Socialism 3.0" in "Five Chongqing" Policy, all demonstrate an ambitious correction to market authoritarianism that is truly *Fleur du Mal* for a nominally socialist China that precisely has nothing to do with the people, and a crushing blow to the state-backed crony capitalist groups. In sum, Chongqing Model is not of contingent idiosyncrasy: a vessel neither exclusively shared nor easily broken by the transnational alliance that tossed pro-people redistributive policies in Chongqing Model into trash or depreciated them as populist ways to realize Bo's politically audacious careerism. Rather, it is for the first time that local government, unapproved by the Central government, puts itself into the political limelight from above, resurrects the communist revolutionary traditions and socialist legacies of how to reactivate and re-forge the class consciousness and subjects of worker-peasant alliance, "a phrase that has virtually been forgotten in the Chinese communication studies literature" (Zhao, 2010: 549), and hence constructs a political-economic heterotopia, a third way, or a desperate attempt at socialist modernization under capitalist siege. That is exactly the last thing the transnational alliance wants to see.

### **The Transnational Discursive Alliance Expanding: Dreams of China, Whose Dreams?**

From Jasmine Revolution to the Anti-Bo campaign, from guerilla warfare for democracy on Twitter to overt defiance against CCP and any attempts within the CCP to renew socialism, from support of Google to protest for NW intervention by foreign media, organizations, and western , governments always makes the internal incidents into the transnational events, thereby to bracket China into the global democratization wave. To be sure, the transnational discursive bloc is comprised of U.S. government, transnational business corporations, foreign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associations from outside, and from inside, the domestic liberal reporters, media professionals and public intellectuals, as well as neo-liberal oriented state officials who through

BBS, Blog, Twitter and its copycat Weibo, conscientiously "recognize themselves as part of global, polyglot" bourgeois "collectivity" (Schiller, 2013). In those above four cases (and more), they make up a mutually supportive political, ideological and discursive network, like the fifth-column,

to exert a powerful impact on the Chinese politics, and to promote their dreams of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in the struggle for the future of China.

Ironically, what the transnational ally of today refers to as freedom/democracy, is the same thing as what they denounce and despise as totalitarianism: the principles of democracy, or demands for free speech and autonomous civil society, have so far "become the englobing principle of modernity viewed as an historical and global totality" (Rancière, 2009:12). In a further irony, in Chinese liberals' eyes, the CCP's historically articulated idea of "people's democracy" is equivalent to Schumpeterian and Tocqueville's "tyranny of the majority" and is what would drag China back into chaos or obscurantism.

Furthermore, the transnational alliance in the above cases, are inclined to reduce China's future to some arbitrary formula of public sphere or freedom of the press, suggesting that democratic reform should be in coincidence with economic reform, especially with the collapse of communism worldwide. Accordingly, the ally ignores the neo-liberal development as one of the real cause of "the deterioration of social conditions", and disassociates it from "fast growing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pauperization for the majorities" (Amin, 2012). When Fukuyamaist thirst for "middle class-society", or "new world order" causes an emotional resonance in the transnational alliance, the worker-peasant alliance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dictatorship of proletariat" in Maoist China, has been reduced to the subaltern class, to be the necessary cost of capitalistic modernization, with people's democracy substituted by civil rights, rule by the people by rule of law.

If every effort to give the lower classes equal rights and social justice, or to pursue economic democracy, is absolutely close to the last thing the transnational ally thinks of, while the omnipotent and monstrous power of state that is a prior ascribed as "the villain of the piece" is their political inclination, then the transnational alliance, as radically as it tries to be the dissensus to Party/state, turns into a high-end club which ends up "being no more than a defense of particular group interests in always singular struggles"(Rancière, 2009:48). The key question remains, whom they will and can represent?

## REFERENCE

@3dlinux(2010), <http://weibo.com/1401718764/zdtsD2lJy>

@Baofan(2010), <http://topsy.com/goo.gl/mNNN>

@wlh8964(2011), <https://twitter.com/zhaomeinv/statuses/48643089522360320>

Andrew Jacobs(2011), Where 'Jasmine' Means Tea, Not a Revolt,  
[http://www.nytimes.com/2011/04/03/weekinreview/03jacobs.html?\\_r=0](http://www.nytimes.com/2011/04/03/weekinreview/03jacobs.html?_r=0), April,2.

AFP(2011), US Envoy Coincidentally at Beijing Rally Site, <http://sg.finance.yahoo.com/news/US-envoy-coincidentally-afpsg-908170934.html?x=0>

Amin Samir (2012), The Arab Revolutions, A Year After, Pambazuka News,  
<http://pambazuka.org/en/category/features/80745>

Badiou Alain(2011), Changer le Monde, *Séminaire d'Alain Badiou*,  
<http://www.entretiens.asso.fr/Badiou/10-11.htm>

BBC(2010), Chongqing Evening Boldly Commemorating Google,  
[http://www.bbc.co.uk/zhongwen/simp/china/2010/03/100328\\_chongqing\\_google\\_guge.shtml](http://www.bbc.co.uk/zhongwen/simp/china/2010/03/100328_chongqing_google_guge.shtml)

Brad(2011), Illegal Flower Tribute, <http://knowyourmeme.com/memes/events/illegal-flower-tribute-%E9%9D%9E%E6%B3%95%E7%8C%AE%E8%8A%B1>

Buckley Chris (2011),China Unrest, <http://www.reuters.com/article/2011/03/05/china-unrest-idUSTOE72400920110305>

Camus Albert (1995), *the Myth of Sisyphus: And Other Essays*, New York, NY: Vintage Books

Cao Guoxing(2010), *The Internet is Open While Censorship is Necessary*,

[http://www.rfi.fr/actucn/articles/121/article\\_18774.asp](http://www.rfi.fr/actucn/articles/121/article_18774.asp)

Chang Gordon (2011), *The Coming Collapse of China*,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12/29/the\\_coming\\_collapse\\_of\\_china\\_2012\\_edition](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12/29/the_coming_collapse_of_china_2012_edition)

China Worker (2011), *China: Repression or Reforms?*

<http://chinaworker.info/zh/content/news/1507/>

CJR (2011a), *The Arrested Heroes*, [http://chinajsm.blogspot.com/p/blog-page\\_05.html](http://chinajsm.blogspot.com/p/blog-page_05.html)

CJR (2011b), *Q&A for CJR*, [http://www.molihua.org/2011/03/blog-post\\_08.html](http://www.molihua.org/2011/03/blog-post_08.html)

Dale Swartz (2011), *Jasmine in the Middle Kingdom*,

<http://www.aei.org/article/foreign-and-defense-policy/regional/asia/jasmine-in-the-middle-kingdom/>

Dobson William (2011), *Why are Dictators always so Sensitive?*,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post-partisan/post/why-are-dictators-always-so-sensitive/2011/03/23/AB0Qa7JB\\_blog.html](http://www.washingtonpost.com/blogs/post-partisan/post/why-are-dictators-always-so-sensitive/2011/03/23/AB0Qa7JB_blog.html)

Deibert Ronald, Rohozinski Rafal (2010), *Liberation vs. Control: The Future of Cyberspace*.  
*Journal of Democracy*, Vol.21, No.4, October,43-57

DW (2011), *German Correspondents Detained in Shanghai for 3hours*,

<http://news.backchina.com/viewnews-130128-gb2312.html>

Francis Fukuyama,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The Free Press

Francis Fukuyama (2011), *Is China Next*, March 12,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48703560404576188981829658442.html>

Gladwell Malcolm (2010), Small Change, *the New Yorker*, October 4, 42-49

Google (2010), <http://googleblog.blogspot.jp/2010/01/new-approach-to-china.html>

Han, Han(2010a),Interview with Han,

[http://club.pchome.net/thread\\_16\\_1999998\\_5001737\\_1\\_.html](http://club.pchome.net/thread_16_1999998_5001737_1_.html), deleted

Han, Han(2010b), On Google's Withdrawal,<http://www.20ju.com/content/V142448.htm>

He Qinglian (2011), A Great Magic Realistic Story, February 2,

[voachineseblog.com/heqinglian/2011/02/jasmine-revolution/](http://voachineseblog.com/heqinglian/2011/02/jasmine-revolution/)

John Quiggin(2011),China's Imminent Collapse

<http://nationalinterest.org/commentary/chinas-imminent-collapse-5880>

Kong Lingxi(2012), CJR Road Map, [http://www.molihua.org/2012/01/blog-post\\_588.html](http://www.molihua.org/2012/01/blog-post_588.html)

Lam Willy (2011) , Beijing Wary of "Color Revolutions" Sweeping Middle East/North Africa.  
*China Brief*, The Jamestown foundation , Vol.6 , Issue3,2-4

Lin Chun(2012), China's leaders are cracking down on Bo Xilai and his Chongqing model,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2/apr/22/china-leaders-cracking-down-chongqing-xilai>

Lvqiu Rose (2010), An Avatarian Google,

[http://blog.sina.com.cn/s/blog\\_46e9d5da0100h39k.html](http://blog.sina.com.cn/s/blog_46e9d5da0100h39k.html)

Markoff John (2010), 2 China Schools Said to be Tied to Online Attacks, in New York Times,

February 18, [http://www.nytimes.com/2010/02/19/technology/19china.html?\\_r=0](http://www.nytimes.com/2010/02/19/technology/19china.html?_r=0)

NW (2010), Vote on Google's Withdrawal, <http://vote.infzm.com/vote/160>

Osnos Evan (2010), China and Google,  
<http://www.newyorker.com/online/blogs/evanosnos/2010/01/china-and-google-illegal-flower-tribute.html>

Osnos Evan (2011), Of Tahrir Square and Tiananmen Square,  
<http://www.newyorker.com/online/blogs/evanosnos/2011/01/of-tahrir-square-and-tiananmen-square.html>

Ramzy Austin (2011), China's Jasmine Revolution Crackdown Shows No Signs of Easing,  
<http://world.time.com/2011/03/29/chinas-jasmine-revolution-crackdown-shows-no-sign-of-easing/>

Ran Yunfei(2011), Self-critiques on My 2011,  
<http://www.bullogger.com/blogs/ranyunfei/archives/374782.aspx>

Rancière Jacques (2009), Hatred of Democracy, Verso

Renee Xia(2011), Missing before Action,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03/01/missing\\_before\\_action](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03/01/missing_before_action)

Sartori Giovanni (1987), the Theory of Democracy Revisited, Chatham,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ers

Schiller Dan (upcoming), Rose Luxemburg's Internet? For a Political Economy of State Mobilization and the Movement of Accumulation in Cyberspace.

Sinostand(2010), Parallels between now and the Prelude to Tiananmen,  
<http://sinostand.com/2011/11/27/parallels-between-now-and-the-prelude-to-tiananmen/>

Tiger(2010), Flower Tribute for Google,

[http://club.china.com/data/thread/1011/2709/11/53/2\\_1.html](http://club.china.com/data/thread/1011/2709/11/53/2_1.html)

Trotsky Leon (1972), *the Revolution Betrayed*, New York, NY: Pathfinder Press

VOA(2011), Jasmine 3rd-round Blocked

<http://www.voafanti.com/gate/big5/www.voachinese.com/content/article-20110306-jasmine-3rd-round-blocked-117485309/778941.html>

Wang Hui(2012), *The Rumour Machine*, Wang Hui on the dismissal of Bo Xilai, in *London Review of Books*, Vol. 34 No. 9, 10 May, p. 13-14

Wang Wei(2010, unpublished), what is CTC?

Washeng(2010), *A Truly Farce*, <http://www.washeng.net/>, deleted now

Wines Michael (2012), *Report on Ousted China Official Shows Effort at Damage Control*, <http://www.nytimes.com/2012/03/20/world/asia/bo-xilai-accused-of-interfering-with-corruption-case.html?pagewanted=1&r=1>

Wong Gillian (2011), *Voices Behind China's Protest Calls*,

[http://www.huffingtonpost.com/2011/04/06/voices-behind-chinas-protest-calls\\_n\\_845923.html](http://www.huffingtonpost.com/2011/04/06/voices-behind-chinas-protest-calls_n_845923.html)

Wu Changchang(2012), *Micro-blog and the Speech-act of China's Middle Class. Javnost-the Public*,19(2),43-62

Yang Xinlin(2011), *Ai Interviews 50cents*,<http://www.feizan.com/space-6096-do-blog-id-45948.html>

Ye Juliet (2010),*Flowers for Google in China*,

<http://blogs.wsj.com/chinarealtime/2010/01/13/flowers-for-google-in-china/>

Zhao Yuezhi (2001), Media and Elusive Democracy in China. *Javnost-the Public*, 8(4), 21-44

Zhao Yuezhi (2008), *Communication in China : Political Economy , Power and Conflict*, New York, NY: Rowman & Littlefield Pub Inc

Zhao Yuezhi (2010), For a Critical Study of Communication and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4, Feature 544-551

Zhao Yuezhi (2012), The Struggle for Socialism in China. *Monthly Review*.

Zhang Nan(2011),Foreign Correspondents Beijing Targeted,  
<http://www.voachinese.com/content/article-20110227-foreign-correspondents-beijing-targeted-117006718/778564.html>

Zizek Slavoj (1993), the Violence of liberal democracy. *Assemblage*, No.20, 92-93

Zizek Slavoj (2007), *How to Read Lacan*, New York, NY: W.W. Norton & Company, Inc.

## <참여작 소개>

### 박자영 朴姿映 Jayoung Park

- 협성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 協成大學 中文系 副教授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Hyupsung University
- 협성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 논문으로 <소가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1920~30 년대『부녀잡지』에서 전개된 가족논의를 중심으로>(2003), <좌익영화의 멜로드라마 정치- 1930 년대 상하이 대중문화 형질>(2005),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 인민의 표상 정치- 1970 년대 한국에서의 중국 인민 논의, 리영희의 경우>(2007), <메이드 인 '바링허우'- 이천년대 중국 문학의 어떤 경로>(2010), <광고와 식민주의- 『부녀잡지』를 통해 본 도시의 일상과 문화>(2012) 등이 있다.
- 现任协成大学中文系副教授，参与《文化/科学》杂志的编辑 委员。已发表主要论文包括《小家庭是如何形成的？以 1920、30 年代《妇女杂志》展开的家庭讨论为主》（2003），《左派电影与情绪：再论 1930 年代上海流行文化》（2005），《社会主义人民表象政治在东亚：有关中国人民的讨论在 1970 年代韩国》（2007），《“80 后”制造：2000 年代中国文学的一种途径》（2010），《广告与殖民主义：通过《妇女杂志》看都市的日常与文化》（2012）等。
- aliceis@naver.com

### 백옥인 白旭寅 Wook-Inn Paik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 首尔科学技术大学校 教授 / Professor, SeoulTech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박사. 전공분야: 정보사회학, 계급론.
- klangwelt@seoultech.ac.kr

### 심광현 沈光鉉 Shim, Kwang Hyun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韩国国立艺术 大学校 教授 /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학사, 인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6 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상이론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92 년부터 2012 년까지 계간 문화이론 전문지 [문화/과학]의 편집인을 역임했고, 2011 년부터 한국문화연구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유비 쿼터 스 시대의 지식생산과 문화정치』(문화과학사, 2009), 흥~한민국 (현실문화연구, 2005), 프랙탈 (현실문화연구, 2005), 문화사회와 문화정치 (문화과학사, 2003), 탈근대문화정 치와 문화연구 (문화과학사,1998)가 있고, 「인 지 과 학 과 이미지의 문화정치」(『시대와철 학』, 2013 년 여름호)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 shimkh@knua.ac.kr

**오병일 吳炳一 OH Byoung-il**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进步网络中心活动家 /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 1994 년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 졸업. 2006 년 KDI school 석사 졸업(public policy 전공). 1995~1998 년 정보연대 SING 활동가. 1998 년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에 함께 했으며, 이후 상근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음. 1999 년~현재까지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 현재 정보공유연대 대표를 역임하고 있음.
- antiropy@jinbo.net

**윤영도 尹泳禱 Yun Youngdo**

- 성공회대학교 HK 연구교수
- ycyd@yonsei.ac.kr

**이광석 李光錫 LEE Kwang-Suk**

- SSK 위험 정보사회 연구팀 공동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SSK 危险, 信息社会研究小组, 首尔科学技术大学 IT 政策研究生院 数码文化政策学系 / CI, SSK Risky Information Society Team, Professor, SeoulTech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학과 교수이다. 그의 주요 저서로는 <사이버 문화정치>(1998), <디지털 패러독스>(2000), <사이방가르드: 개입의 예술 저항의 미디어>(2010), IT development in Korea: A Broadband Nirvana? (2012) 등이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정보•문화연구, 정보자본주의, 문화의 정치경제학, 커먼즈연구, 감시연구, 문화•예술행동주의 등이다.
- Lee Kwang-Suk i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Information Techn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Lee earned his Ph.D. in Radio-TV-Film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He worked as an Australian Research Council(ARC)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and now as an Honorary Visiting Fellow at the University of Wollongong, conducting a four-year research project on Internet History in Australia and the Asia-Pacific. He is the author of four books: IT Development: A Broadband Nirvana (London/New York: Routledge, 2012), The Art and Cultural Politics of Cyber Avant-gardes (Seoul, 2010), Digital Paradoxes: The Political Economy of Cyberspace (Seoul, 2000), and Cultural Politics in Cyberspace (Seoul, 1998).
- kslee@seoultech.ac.kr

**이기형 LEE Ki-hyung**

- 경희대학교 교수 /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 barthes@empal.com

**이윤종 李琬宗 Lee Yun-Jong**

- <문화/과학> 편집위원 / 文化/科学 编辑委员 / editor, <Culture/Science>
- 캘리포니아 주립대 얼바인교 동아시아 어문학과 박사
- PhD,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yunjongl@gmail.com

**임춘성 林春城 YIM Choonsung**

- 목포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중문학/문화연구 / 木浦大学教授 / Professor. Mokpo National University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문학석사학위와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중국현대문학학회 회장(2006-2007)을 역임했고 현재 동 학회 상임고문직을 맡고 있다. 『문화/과학』 편집자문위원, 『외국문학연구』 편집위원, 『석당논총』 편집위원, 상하이대학교 문화연구계 국제위원 등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중국 근현대문학사 담론과 타자화』, 『소설로 보는 현대중국』, 『21 세기 중국의 문화지도—포스트사회주의 중국의 문화연구』(공편저), 『新世紀韓國의中國現當代文學研究』(편저), 『視野與方法: 當代文學研究版圖的重構』(공저) 등이 있다.
- csyim2938@hanmail.net

**장여경 張如景 JANG Yeokyeong**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进步网络中心活动家 /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 1994 년 이화여대 교육공학과 졸업. 2003 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학협동과정 석사 졸업(과학기술사회학 전공). 1998 년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에 참여한 후 현재까지 상근활동가로 재직 중.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 문제에 대하여 활동해 왔음.
- della@jinbo.net

**조동원 曹銅元 JO Dongwon**

- <문화/과학> 편집위원 / 文化/科学 编辑委员 / editor <Culture/Science>
- dongwon@riseup.net

**조현석 趙顯錫 Hyun Suk Cho**

- SSK 위험 정보사회 연구팀 연구책임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SSK 危險, 信息社会研究 小组, 首尔科学技术大学校 教授 / Prof., SeoulTech, PI, SSK Risky Information Society Team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학장
- hyunsuk@seoultech.ac.kr

**조형근 CHOE Hyung-Geun**

- <문화/과학> 편집위원 / 文化/科学 编辑委员 / editor <Culture/Science>
- remineur@chol.com

**주은우 朱恩佑 JOO Eunwoo**

- 중앙대학교 교수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 주은우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문화연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화사회학, 영상사회학, 사회이론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시각과 현대성>(2003)을 비롯하여 다수의 논저가 있다.
- JOO Eunwoo is Associate Professor of Sociology and Cultural Studies at Chung-Ang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Sociolog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main research areas are cultural sociology, visual sociology, and social theory. His publications include <Vision and Modernity>(in Korean, 2003) and so forth.
- ewjbat@cau.ac.kr

**천 진 千眞 Cheon Jin**

-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강사/ 首尔大学 中文系 讲师/ Present Lecture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동대학원 박사 졸업. 중국 근대 지식장 연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근대 문화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 저서로 『20 세기초 중국의 지•덕 담론과 文의 경계』, 『중국 근대의 풍경』(공저), 「식민지 조선의 支那文學科의 운명-경성제국대학 의 支那文學科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 yuwaa@hanmail.net

**피경훈 皮炯勳 Pi Kyunghoon**

- 베이징대 박사 / 北京大学博士 / Ph.D Peking University
- 고려대학교 및 동대학원 중문과 졸업. 베이징대학 중문과 박사 졸업. 중국 사회주의 및 포스트 사회주의의 사상 흐름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중국의 지식 문화 담론을 새롭게 읽는 연구를 계획중. 발표논문: <민족 국가 건설 과정의 시각으로 본 모택동 문예사상>, <이분법적 인식론의 극복은 가능한가? 80 년대 인식론에 대한 비판적 독해>, <필연의 왕국에서 자유의 왕국으로 - 사상해방운동의 주체성 논리와 그 인식론적 한계> 등.
- gramscist@naver.com

**董丽敏 동리민 Dong Limin**

- 상하이대학교 교수 / Professor, Shanghai University
- Limin Dong is Professor of Chinese studies and Acting Dean of the Faculty of Arts at Shanghai University. Her research areas include twentieth century Chinese literature, women's literature and culture, and communication and media studies. She is the author of Gender, Context, and the Politics of Writing《性别、语境与书写的政治》-- winner of the 2011 Women's Literature Award in the "theory" category, Imagining Modernity: Fiction Monthly during the Reform Era《想象现代性：革新时期的〈小说月报〉研究》, and over 40 papers in various academic journals. She has also co-authored and edited several publications, including a three volume series on approaches to contemporary literary studies. She is currently serving as director of the Women's Studies Center of Shanghai University, secretary for the Women's Literature Committee of the Modern Chinese Literature Research Association, and secretary of the Shanghai Marriage and Family Studies Association.
- dlm@shu.edu.cn

**罗小茗 뤄샤오밍 Luo Xiaoming**

- 상하이대학교 부교수, 문화연구학과 / Associate Professor, Program in Cultural Studies, Shanghai University
- 罗小茗, 上海大学文化研究系副研究员, 发表《课程改革中的历史教科书事件》、《“社会生活”的障眼法》、《想象国家的方式》等论文, 著有《形式的独奏：上海“二期课改”为个案的课程改革研究》。
- Luo Xiaoming, Associate Professor, Program in Cultural Studies, Shanghai university. My research field is contemporary culture, urban studies and education reform. My publication includes: "Curriculum Reform

in the Course of Social Transformation: The Case of Shanghai"( Cultural Studies, Volume 25, Issue 1 January 2011); Solo of Form: a case study in Shang curriculum reform(2012).

- manmandu@163.com

#### **王晓明 왕샤오밍 Wang Xiaoming**

- 상하이대학교 교수, 문화연구학과 / Professor, Program in Cultural Studies, Shanghai University
- 王晓明, 上海大学文化研究系教授, 中国当代文化研究中心主任, 华东师范大学中文系紫江讲座 教授。主 要从事中国现代文学/思想研究和当代文化分析。最近两年的著作和编作的单行本有:《近视与远望》、《横站》、《中国现代思想文选》(与周展安 合编)、《中 文世界的文化研究》等。
- wangxiaomingcc@hotmail.com

#### **吴畅畅 우창창 Wu Changchang**

- 상하이 사회과학 아카데미 언론학 연구소 연구원, 푸단대 미디어학 박사 / 博士, 上海社会科学院新闻研究所.
- 复旦大学历史系博士后流动站博士后, 复旦大学新闻学院博士, 现为上 海社 会科学院新闻研究所现代传媒研究中心副主任, 助理研究员
- post-doctor in Department of History, Fudan University; Assistant Researcher in Institute of Journalism,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 wuchangchangpkk@gmail.com

#### **周展安 저우자난 Zhou Zhanan**

- 상하이대 학교 강사, 중문과 / Lecturer, Shanghai University
- Zhou Zhan'an is a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Chinese Literature at Shanghai University. Zhou earned his Ph.D. in Chinese modern literature at Tsinghua University in 2010. His major is the research on Chinese literature and thought in 19th and 20th century. The main articles published include: From Prophetic Literature to Atonement Literature, Evolution in Luxun's LaterThought, Class Politics and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roblems etc.
- zhouzi310@163.com

## <행사 준비>

- **주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SK 위험 정보사회 연구팀,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 **후원:** 한국연구재단
- **회계, 초청장 공증, 숙박 예약:** 이시영(서울과학기술대학교 SSK 위험 정보사회 연구팀)
- **장소 섭외 및 행사 진행:** 이세호, 박성운, 강민주, 이정빈(서울과학기술대학교 SSK 위험 정보사회 연구팀)
- **웹 포스터, 플래카드 디자인:** 박진호(한국예술종합학교 멀티미디어영상과 재학)
- **자료집 편집:** 최혁규(문화연대 활동가), 이시영(서울과학기술대학교 SSK 위험 정보사회 연구팀)
- **번역:** 이윤종(<문화/과학> 편집위원), 윤영도(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연구교수),  
천진(서울대학교 강사), 피경훈(베이징대학교 박사), 임춘성(목포대학교 교수)
- **동시통역:** 장현주(동시통역사)
- **메일링리스트(culturalasia@list.jinbo.net) 제공:** 진보네트워크센터
- **기획 자문:** 임춘성 외 <문화/과학> 편집자문위원회
- **기획 및 준비:** 조현석, 김기환, 윤상오, 이광석 외 서울과기대 SSK 위험 정보사회 연구팀,  
박자영, 이동연, 조동원 외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회